

# 제3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14년 2월 7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소 123호(제1 발표장)/107호(제2 발표장)

주제 : 언어유형론과 국어 연구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		제1 발표장, 사회 : 허원욱(건국대)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10:00 ~ 10:20	개회사	이근영(한말연구학회 회장)		
제1부	주제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 허원욱(건국대)		
10:20 ~ 11:00	국어 문법 설명에 반영되는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 -비교, 기능, 의미·화용론적 분석-	발표: 김건희(서원대) 토론: 임근석(국민대)		
11:00 ~ 11:40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지역유형론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 박진호(서울대) 토론: 김양진(경희대)		
11:40 ~ 12:20	국어학과 언어유형론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발표: 목정수(서울시립대) 토론: 박동근(건국대)		
< 점 심 > 12:20~13:30				
제2부	제1 분과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최홍열(강원대)	제2 분과 발표	제2 발표장, 사회: 전정미(상명대)
13:30 ~ 14:00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하여	발표: 소신애(송실대) 토론: 김봉국(부산교대)		경어법의 변화 원인 일고찰
14:00 ~ 14:30	근대국어 표기법 연구-운음 언해를 중심으로-	발표: 박혜란(건국대) 토론: 김유권(대진대)		'맛(이) 있다'의 의미론
14:30 ~ 15:00	선어말어미 '-느-'의 변화	발표: 남미정(서강대) 토론: 김병건(한국국제대)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유의관계 의미변화 양상 분석 -'놓다'와 '두다'를 중심으로-
< 휴 식 > 15:00~15:20				
제3부	제3 분과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김홍범(한남대)	제4 분과 발표	제2 발표장, 사회: 김정호(건국대)
15:20 ~ 16:00	어휘부에서의 저장과 생성-단어와 구 경계 통사 단위의 저장 방식-	발표: 이영제(고려대) 토론: 정수현(건국대)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문법 단위 (15:20~15:50) 발표: 이봉원(나사렛대) 토론: 최대희(건국대)
16:00 ~ 16:40	어휘 교육에서의 국어사전 활용 방안	발표: 오상화(고려대) 토론: 서정미(안양대)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 연구(15:50~16:20) 발표: 배현대(경기대) 토론: 고경민(선문대)
16:40 ~ 17:20	보조사 '만'을 활용한 문식성 향상 방안	발표: 윤구희(서울사대부중) 토론: 양세희(전일중)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에 대한 대조적 고찰 (16:20~16:50) 발표: 진관초,강령휘(연세대)토론: 김주희(경기대)
※ 참고 : 제3 분과발표와 제4 분과발표의 시간 배정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품사교육을 통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 (16:50~17:20) 발표: 이화진(홍익대) 토론: 김주연(건국대)		
< 폐 회 >				

# 차 례

## 【제1부 주제 발표】

김건희(서원대)	국어 문법 설명에 반영되는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 -비교, 기능, 의미·화용론적 분석-	1
임근석(국민대)	토론	28
박진호(서울대)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지역유형론에 초점을 맞추어-	29
김양진(경희대)	토론	53
목정수(서울시립대)	국어학과 언어유형론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55
박동근(건국대)	토론	82

## 【제2부 제1 분과 발표】

소신애(숭실대)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하여	85
김봉국(부산교대)	토론	106
박혜란(건국대)	근대국어 표기법 연구 -운음 언해를 중심으로-	107
김유권(대진대)	토론	118
남미정(서강대)	선어말어미 ‘-ㄴ-’의 변화	120
김병건(한국국제대)	토론	134

## 【제2부 제2 분과 발표】

신성철(국민대)	경어법의 변화 원인 일고찰	139
배영환(서원대)	토론	140
김진해(경희대)	‘맛(이) 있다’의 의미론	141
고석주(연세대)	토론	150
이민우(한국외대)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유의관계 의미변화 양상 분석 -‘놓다’와 ‘두다’를 중심으로-	151
김상태(청주대)	토론	168

## 【제3부 제3 분과 발표】

이영제(고려대)	어휘부에서의 저장과 생성 -단어와 구 경계 통사 단위의 저장 방식-	171
정수현(건국대)	토론	186
오상화(고려대)	어휘 교육에서의 국어사전 활용 방안	187
서정미(안양대)	토론	197
윤구희(서울사대부중)	보조사 ‘만’을 활용한 문식성 향상 방안	199
양세희(전일중)	토론	210

## 【제3부 제4 분과 발표】

이봉원(나사렛대)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문법 단위	215
최대희(건국대)	토론	226
배현대(경기대)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 연구	228
고경민(선문대)	토론	250
진관초,강령휘(연세대)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에 대한 대조적 고찰	252
김주희(경기대)	토론	272
이화진(홍익대)	품사 교육을 통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	273
김주연(건국대)	토론	285

## 제1부

# 주제 발표



# 국어 문법 설명에 반영되는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

## -비교, 기능, 의미·화용론적 분석-

김건희(서원대)

### < 차례 >

1. 들어가며
  2. 언어유형론의 발전 단계에 따른 주요 연구
  3.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
  4. 국어 문법 현상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접근 방법의 실제
  5. 마치며
- 참고문헌

##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먼저 언어유형론 연구의 발전 단계에 따른 언어유형론의 주요 연구와 주요 용어를 살펴보아 언어유형론 일반에 대해 개관한다.(2장) 다음으로 언어유형론의 연구 목적, 연구 대상과 방법, 분석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를 제시한다.(3장) 끝으로 이러한 핵심 기제가 반영된 언어유형론적 접근 방법으로 국어 문법 현상을 새롭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4장)

## 2. 언어유형론의 발전 단계에 따른 주요 연구

Sgall(1984)은 언어유형론 연구의 발전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전 단계는 언어유형론 정의 및 주요 연구와 관련되므로 이 글의 도입부인 2장에서 먼저 살펴본다.

<1단계> 유형론은 현존하는 언어 유형(language type), 특히 분류에 대한 연구이다.

(from Humboldt, Gabelentz to Jespersen)

이러한 초기의 언어유형론은 언어들을 굴절어, 교착어, 고립어(Schlegel 분류), 포함어(Humboldt 추가)로 분류하여 '언어 유형을 분류'했다는 것으로 요약<sup>1)</sup>될 수 있는데 이때의 언

1) 이에 비해 현대적인 언어유형론의 정의에 대해서는 손호민(2008:282)에서 소개한 Croft(2006:1-2)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론은 첫째, 서로 다른 언어들을 비교하여 언어 현상의 구조적 유형들을

어 유형은 언어 전체를 분류하는 것으로 Greenberg식의 현대 국어의 언어 유형과는 다르다.<sup>2)</sup> 오늘날의 언어 유형은 문법적 특징들의 집합으로 개별적인 문법 특징이다. 곧 현대 국어의 유형론 연구는 언어 전체에 초점을 둔 초기 유형론의 '전체적 유형론'에서 언어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특질이나 구성(서술 구문, 격, 관계절, 보문 구문, 명사화 구문, 접속문 구문, 형용사, 피동-사동, 조동사, 연속 동사, 부정문, 양화사, 시제-상-양태 등)들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둔 '부분적 유형론'으로 바뀐다.(Song(2001:71) 참조)

<2단계> 현존하는 언어들의 유형론적 속성을 분류하고 그 속성들의 가능한 조합에 대한 연구 (Sapir(1921))

<3단계> 가능한 조합에 함축(implication)<sup>3)</sup>을 도입 (Jakobson(1957))

Sapir(1921)의 논의는 1단계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이들과는 차별된다. Sapir(1921)에서는 새로운 유형 분류를 제시했는데 특히 '개념(concepts), 기술적 방식(technique), 종합성의 정도(degree of synthesis)'라는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이 분류 기준의 조합에 따라 기존의 언어 유형들을 다시 분류하였다. 또한 Greenberg(1963)은 함축(implication)을 언어유형론적 설명에 도입한, 혁명적인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다.<sup>4)</sup> 따라서 2장에서는 발전단계에 따른 주요 연구인 Sapir(1921), Greenberg(1963)과 1단계의 초기 유형론의 전통적인 분류와는 다른 현대적인 언어유형론 분류인 Croft(1990)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1. Sapir(1921) 논의

Sapir(1921:122-123)의 논의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형태론적 분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언어 분류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 (1) a. 언어 분류 기준, 관점(a point of view)의 선택 문제
- b. 소수 언어를 바탕으로 한 일반화의 위험성
- c. 단순한 형식화(simple formula) 맹신의 위험성: 언어는 고립어이면서 교착어일수도 있음
- d. 언어에 대한 진화론적 편견<sup>5)</sup>

---

찾고 어떤 언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연구하는 유형적 분류론(typological classification)과 둘째 언어마다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패턴들(cross-linguistic patterns)을 찾고 연구하는 유형적 종합론(typological generalization), 그리고 셋째, 구조주의 언어학, 생성 문법 등과 대조되는 하나의 언어 이론 즉 기능적-유형적 설명론(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 등을 망라한다.

- 2) Croft(1990:31-35)에 의하면 언어 유형(linguistic type)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현대 국어의 언어 유형은 Greenberg의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tyology'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01년 Gabelentz, G.라고 제시하였다.
- 3) 함축(implication)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A ⊃ B (if A, then B), a의 존재는 b의 존재를 내포한다.
- 4) Ramat(1987:5)는 언어유형론의 이 세 단계 연구 방식은 귀납적 절차에 기초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언어 혹은 존재했던 언어로부터 일련의 공통 특징을 추출하고 추상화하여 이 특징이 다른 언어에서 나타나는가를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였다.
- 5) Croft(1990:42)에 의하면 이러한 초기 유형론자의 한 사람인 August Schleicher는 언어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초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언어들이 고립적인 것으로부터 교착적인 것으로 그리고 융합적인 것으로 점차 변화할 수 있고 그 역방향의 변화는 성립하지 않는

이러한 (1)은 ‘분류 기준’ 문제, 균형 잡힌 대규모 ‘언어 표본’ 선정, 다양한 언어 구조에 대한 확립화된 분류의 위험성 등을 제시해 주어 현대 언어유형론 논의에서도 제기되는 언어유형론의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일찍이 일목요연하게 주장한 점이 주목된다.

Sapir(1921)는 19세기 유형 분류 방법에서 사용한 형태론적 특성을 두 가지 독립적인 인자로 구분하여 1단계의 전통적인 분류를 좀더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

(2) 기준 1: 단어 속의 형태소 수

분석적(analytic) 언어 : 단어와 형태소 일치(one morpheme per word)

종합적(synthetic) 언어 : 한 단어가 몇 개의 형태소로 구성됨

포함어(polysynthetic) 언어 : 한 단어가 다중 어근 및 많은 형태소로 구성됨

(3) 기준 2: 형태소 결합에서 음운론적 변동의 정도

고립어(isolating)

교착어(agglutinative)

융합어(fusional, inflection)

상징어(symbolic, suppletive)

그러나 Sapir(1921)에서는 대부분의 언어는 둘 이상의 유형에 속하기도 하고 비교대상에 따라 한 언어라도 다른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고 위의 분류가 특히 너무 양적이고 기술적인 외적 요소만 강조된 분류이며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분류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개념 유형이라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개념 유형은 가장 구체적인 것에서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4) 개념 유형(concepts type)

Type I 기본적 개념(Basic(concrete) concepts) : 기본 어휘(사물, 행위, 성질..)

Type II 파생적 개념(derivational concepts)

Type III 구체적 관계 개념(concrete relational concepts)

Type IV 순수 관계 개념(pure relational concepts) : 문법 관계

모든 언어는 I, IV 개념, 곧 기본 어휘와 이를 관련시키는 문법 관계는 반드시 가지면서 선택적으로 II, III 유형을 갖는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4가지 개념 유형 기준을 조합하여 다시 언어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5) Language Type

Ocurring Morpheme Types

A. Simple pure-relational

I, IV

B. Complex pure-relational

I, IV, II

C. Simple mixed-relational

I, IV, III

D. Complex mixed-relational

I, IV, II, III

---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융합어가 가장 훌륭한 것임을 주장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Whaley(1997:27)에 의하면 Humboldt는 언어 구조가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언어 철학은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주장에 쉽게 이용될 수 있었다고 제시한다.

이처럼 Sapir(1921)에서는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다양한 언어 단위를 제시하고 그 존재 유무로 분류 기준을 조합하여 새로운 언어 유형 분류를 제시하였다.

## 2.2. 함축(implication)과 Greenberg(1963) 논의

Jakobson(1957)에서 처음 언급한 함축(implication)은 a의 존재가 b의 존재를 함축한다는 것으로 언어유형론에서 함축적 보편성(implicational universals)으로 논의되었고 이를 체계화한 논의는 바로 Greenberg(1963)의 논의이다. Greenberg(1963)의 논의를 살펴보기 이전에 함축적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자.

### (6) 함축적 보편성과 비함축적 보편성

implicational universals vs. non-implicational universals

함축적 보편성 : 비모음(nasal)을 가진 언어는 모음을 갖는다

비함축적 보편성 : 모든 언어는 모음이 있다.

여기서 보편성(universals)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보편성 다시 말해 절대적 보편성과 비절대적 보편성으로 나뉜다. 특히 비절대적 보편성은 준-보편성(near universals), 경향성(tendencies), 통계적 보편성(statistical universals)으로도 불린다.

### (7) a. 절대적 보편성과 b. 비절대적 보편성

absolute universals vs. near-universals(tendencies, statistical universals)

### (8) 절대적 함축적 보편성과 절대적 비함축적 보편성: 함축 유무와 절대적 보편성의 결합

absolute implicational universals vs. absolute non-implicational universals

절대적 함축적 보편성 : 1,2인칭의 재귀대명사가 있으면 3인칭의 재귀대명사도 있다.

절대적 비함축적 보편성 : 모든 언어는 모음이 있다.

### (9) 비절대적 함축적 보편성과 비절대적 비함축적 보편성: 함축 유무와 비절대적 보편성의 결합

implicational tendencies: non-implicational tendencies

비절대적 함축적 보편성 : 거의 모든 SOV의 어순을 가진 언어는 후치사를 갖는다.(Persian어는 SOV의 어순이나 전치사를 갖는다)

비절대적 비함축적 보편성 : 거의 모든 언어는 비자음이 있다.(Salishan어는 비자음이 없다)

! : 절대적 보편성은 현재까지 예외가 발견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야 하고 실제로도 (8)보다는 (9)가 더 많음

Greenberg의 어순 유형(word order)은 이러한 함축적 보편성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언어 보편성이 전제된 유의미한 언어 변수로 평가받는다. Comrie(1989:40)에서도 특히 유형론에서 사용되는 언어 변수는 기본적으로 보편성의 전제가 필요한데 어순 유형론의 경우 이러한 보편성의 전제를 가진다고 하였다. 곧 모든 언어는 기본 어순을 가지고 있고<sup>6)</sup> 어떤 언어의 통사

6) 이러한 Greenberg(1963)의 어순 논의는 명사구의 순서에 따른 전통적인 분류로 필자는 생성문법이 융성하던 이 시대에 다른 관점의 어순 논의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Koptová(1969:417)는 '심층 어순'과 '표면 어순'을 나누어 심층 고정 어순(deep fixed word order), 심층 자유 어순(deep free word

구조에서도 주어, 목적어, 동사는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Comrie(1989)는 어순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전체론적 변수(holistic parameter)로 논리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져서 한 언어의 구조를 전체 혹은 상당부분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변수 집합이라고 설명하였다.<sup>7)</sup>

여기서 Greenberg(1963)에서 제시한 보편성들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보편성의 범주는 '기본 어순 유형론', '통사론', '형태론'으로 나뉘고 이에는 다양한 절대적 보편성과 비절대적 보편성(tendencies)이 포함된다.

### <1> 기본 어순 유형론<sup>8)</sup>

- 제1보편성 : 명사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단언문에서 거의 주어와 목적어에 선행하는 순서가 지배적이다.
- 제2보편성 : 전치사가 존재하는 언어에서 속격은 대부분 명사에 후행하며 후치사가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속격이 명사에 선행한다.
- 제3보편성 : VSO의 어순을 가지는 언어는 거의 항상 전치사를 가진다.
- 제4보편성 : 우연으로 보기엔 압도적으로 SOV순서를 가지는 언어는 후치사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 제5보편성 : 만약 한 언어가 SOV 순서를 가지고 속격이 명사 뒤에 후행한다면 형용사도 명사 뒤에 후행한다.
- 제6보편성 : 지배적인 어순으로 VSO를 가지는 모든 언어들은 교체 가능한 기본 어순으로 SVO를 가진다.
- 제7보편성 : 만약 지배적인 어순으로 SOV 어순을 가지는 언어에서, 그리고 교체적인 기본 어순이 없거나 있더라도 OSV를 가지는 언어에서는 모든 동사의 수식어가 동사에 선행한다.

### <2> 통사론

- 제8보편성 : yes-no 의문문이 억양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단언문과 구별될 때 이러한 유형의 특징적인 억양은 문장의 끝에서 알 수 있다.
- 제9보편성: 의문불변화사, 접사를 문장 전체에서의 위치로 명시할 때 대체적으로 문두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전치사를 가진 언어이고 문미에 나타난다면 후치사를 가진 언어이다.

---

order), 표면 고정 어순(surface fixed word order), 심층 어순에 일치하는 표면 자유 어순(surface free word order corresponding to deep word order), 심층 어순에 일치하지 않는 표면 자유어순(surface free word order not corresponding to deep word order)의 5가지 어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어순은 의미와 화용 층위의 요소인 화제, 초점, 대조와 관련된다.

Steele(1978)에서도 어순의 변이형 가운데 어떤 것들이 흔하게 나타나고 어떤 것들이 드물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곧 어순의 변이형에 관해서는 두 개의 제약이 있는데 하나는 문장에서의 동사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동사에 대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자유로운 어순, 고정된 어순, 혼합된 어순'이라는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해진다고 제시하였다.

- 7) 또한 Comrie(1989)에서는 어순과 같은 전체론적 변수와 달리 일반적인 유형론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유정성(animacy) 변수를 들었다. 유정성은 Yidiny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변수가 되는데 이러한 변수를 특정 언어에 국한된 유형론적 자질(language-specific typological feature)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haley(1997)에서도 영어에서는 유정성이 낮은 3인칭에는 단수, 복수형이 있지만 2인칭에는 수의 구분이 없는 것을 들면서 대명사 체계에서는 유정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고 유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 8)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어순에 대해서는 동사, 목적어 어순에 치우친 Lehmann(1973), 이에 대한 비판으로 operator-operand 개념을 도입한 Venneman(1974), 이러한 Vennemann(1974)과 Greenberg(1963, 1966)의 어순을 중도적 입장에서 설명한 Hawkins(1983)와 이후 분지이론(BDT)을 제시한 Dryer(1992)의 논의까지 일련의 주요 논의가 있다.

- 제10보편성: 문장에서 어떤 특별한 단어와 관련되어 그 위치를 언급할 때 의문불변화사나 의문 접사는 거의 그 단어에 뒤따른다. 그러나 불변화사는 VSO 어순의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제11보편성: 기술 순서의 도치는 의문사나 의문구가 일반적으로 문두에 나오는 언어들에서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도치는 yes-no 의문문에서도 나타난다.
- 제12보편성: 한 언어가 단언문에서 지배적인 어순으로 VSO를 가진다면 의문사나 의문구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문두에 나온다 ; 단언문에서 SOV 어순을 가지는 언어라면 그러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13보편성: 명사목적어가 항상 동사에 선행한다면 본동사에 종속된 동사형은 그것에 선행한다.
- 제14보편성: 조건문에서 조건절은 결론에 선행한다.
- 제15보편성: 의지나 목적을 표현할 때 종속된 동사형은 명사목적어가 항상 동사에 선행하는 언어들에서만 제외하고 항상 본동사에 후행한다.
- 제16보편성: VSO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 굴절 조동사는 항상 본동사에 선행한다. SOV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 굴절 조동사는 항상 본동사에 후행한다.
- 제17보편성: 우연으로 보기에 너무나 우세한 VSO의 어순을 가지는 언어들은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 제18보편성: 서술형용사가 명사에 선행할 때 지시사와 수사도 그러한 경향을 가진다.
- 제19보편성: 서술형용사가 명사 뒤에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에는 명사에 선행하는 형용사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술형용사가 명사 앞에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제20보편성: 모든 한정사들이 명사에 선행할 때 항상 지시사, 수사, 형용사 순서로 나타나며 만약 명사에 후행할 때는 그 순서가 동일하거나 반대 순서로 나타난다.
- 제21보편성: 만약 몇몇 또는 모든 부사가 형용사 뒤에 후행한다면 그 언어는 형용사가 수식명사 뒤에 후행하고 또 동사가 그 명사목적어에 선행하는 어순을 가진다.
- 제22보편성: 만약 비교 구문에서 그 어순이 ‘기준 > 표지 > 형용사’ 라면 그 언어는 후치사를 가지며 만약 어순이 ‘형용사 > 표지 > 기준’ 이라면 그 언어는 전치사를 가진다.
- 제23보편성: 만약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에 선행한다면 그 언어는 ‘명사 > 속격’ 의 어순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만약 보통명사가 고유명사에 선행한다면 ‘속격 > 명사’ 의 어순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 제24보편성: 만약 관계절이 명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언어는 후치사를 가지는 언어이거나 형용사가 명사에 선행하는 언어이다.
- 제25보편성: 만약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에 후행한다면 명사 목적어도 후행한다.

### <3> 형태론

- 제26보편성: 한 언어가 불연속적인 접사를 가진다면 접두사나 접미사, 혹은 둘 다 가진다.
- 제27보편성: 만약 한 언어가 접미사만 가진다면 그 언어는 후치사를 가지는 언어이고 만약 접두사만 가진다면 그 언어는 전치사를 가지는 언어이다.
- 제28보편성: 만약 파생요소와 굴절요소 둘 다 어근에 후행하거나 둘 다 어근에 선행한다면 파생요소는 항상 어근과 굴절요소 사이에 존재한다.
- 제29보편성: 만약 한 언어에 굴절이 존재한다면 항상 파생도 존재한다.
- 제30보편성: 만약 한 동사가 인칭-수 또는 성(gender)의 범주를 가지면 시제(tense-mode) 범주를 가진다.
- 제31보편성: 만약 주어 또는 목적어 명사가 동사와 성이 일치한다면 형용사도 명사와 성이 일치한다.
- 제32보편성: 만약 동사가 명사 주어 또는 명사 목적어와 성이 일치한다면 수에서도 일치한다.

- 제33보편성 : 명사와 동사 사이의 수 일치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동사는 단수이다.
- 제34보편성 : 양수(dual)를 가지지 않는 언어는 삼수(Trial)를 가지지 않으며 복수를 가지지 않는 언어는 양수를 가지지 않는다.
- 제35보편성: 단수에 이형태가 없는 언어는 존재하지만 복수에 이형태가 없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제36보편성: 만약 한 언어에 성 범주가 존재한다면 수 범주도 존재한다.
- 제37보편성 : 단수가 아닌 수(양수, 삼수, 복수)에서보다는 단수에서 성 범주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제38보편성 : 만약 격체계가 존재할 때 이형태를 가지지 않는 유일한 격은 자동사의 주어 의미를 가지는 격이다.
- 제39보편성 : 성과 격이 존재하고 둘 다 명사어간에 후행하거나 선행할 때 수 표현은 항상 명사 어간과 격 표지 사이에 온다.
- 제40보편성 :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올 때 형용사는 명사의 모든 굴절 범주들을 표현한다. 이때 명사는 그 명사는 하나의 범주 또는 모든 범주들의 명확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제41보편성 : 한 언어에서 동사가 명사 주어와 명사 목적어에 후행한다면 그 언어는 항상 격체계를 가진다.
- 제42보편성 : 모든 언어들은 적어도 세 개의 인칭과 두 개의 수를 포함하는 대명사 범주를 가진다.
- 제43보편성 : 한 언어의 명사에 성 범주가 존재한다면 그 언어는 대명사에서 성범주를 가진다.
- 제44보편성 : 만약 한 언어의 1인칭 표현에 성의 구별이 존재한다면 2인칭이나 3인칭 또는 둘다에서도 성의 구별이 존재한다.
- 제45보편성 : 만약 대명사의 복수에 성의 구별이 존재한다면 단수에도 성의 구별이 존재한다.

다만 Greenberg(1963)의 논의는 30개의 언어들을 샘플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45개의 보편성을 설정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Greenberg(1963)의 절대적, 비절대적 함축적 보편성은 이후의 언어유형론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연구로 기능된다. 예를 들어 제27보편성의 경우 접사와 어순간의 관계를 제시한 것인데 Bybee 외(1990)에서는 접미사 선호도에 대해 71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동사 문두 언어, 동사 중간 위치 언어, 동사 문미 언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사 문미 언어는 32개가 접미사, 동사 중간 위치 언어는 31개가 접미사로 나타났지만 동사 문두 언어는 8개만 접미사였다.

제43보편성의 경우, '대명사, 명사'와 관련되어 '유정성(animacy) 위계'라는 언어유형론적 변수로 재편될 수 있다.

(10) 유정성 위계

- 1, 2인칭 > 3인칭 대명사 > 고유명사/친족어 > 인간 명사구 > 동물 명사구 > 무정 명사구  
Silverstein(1976)

제38보편성은 자동사의 주격이 이형태를 가지지 않는 유일한 격이라는 것인데 국어 격조사 '이/가'의 이형태 논의와 연계될 수 있다. '이/가'에 대해 단순히 음운적 이형태로 보는 견해와 보충법적 이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음운적 이형태로 보는 것은 Greenberg의 보편성처럼 이형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보충법적 이형태로 보는 것은 보편성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제38보편성은 자동사의 주격, 타동사의 주격, 타동사의 목적격을 비교하여 비일

관적인 격표지 실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의 기반 하에 국어의 통시적인 특수성을 접목시켜 논의해 볼 수 있다.

### 2.3. Croft(1990)의 유형론적 분류(typological classification)

Croft(1990)는 유형론적 분류란 개념을 제시하는데 유형론적 분류란 수 범주, 관계절 형성 등과 같은 특정 문법 변수(grammatical parameter)에 대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유형(linguistic type)을 기술하는 과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고전적인 형태론적 분류에서 Greenberg(1963)을 거쳐 Croft(1990)에서 진정한 현대적인 언어유형론 분류를 살펴볼 수 있다.

Croft(1990)에서는 대부분의 언어가 어떤 구성에 대해서 상이한 구조적 유형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영어의 소유격 구성을 제시하였다.

- (11) a. 보충법(suppletion) : my house
- b. 연결사(linker) : John' s house
- c. 불변화사(adposition): the library of Boston
- d. 연결사+불변화사(linker+adposition) : a book of Jan' s
- e. 보충법+불변화사(suppletion+adposition) : a book of mine

Croft(1990: 33)

특히 Croft(1990)에서는 기본 어순 유형을 결정해서 유형론적 일반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소유격 구성 유형에서 어떤 것이 기본 유형(Basic type)인지 결정하는 것이 유형론적 일반화(typological generalization)를 위해 유용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본 유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및 단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단계> 관찰 대상의 구조적 유형은 다시 하위 구조(subclass)로 나뉠 수 있다.

영어의 소유격 구성은 대명사 소유주 구성과 비대명사 소유주 구성으로 구분되는데 두 유형 중에서 더 일반적인 유형을 기본 유형으로 선정한다. -> 비대명사 소유주 구성 선택: (a) 제외

<2단계> 두 가지 구조 유형이 동일한 범주에서 나타날 경우 1차 유형과 2차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구분 기준은 빈도수와 표현의 자연스러움(normal way)이다.

영어 소유격 구성에서는 'of+보충법' [the book of mine], 'of+linker-' s' [the book of Jan' s]가 2차 유형으로 기본 유형이 되지 못한다. 특히 이들은 핵명사가 비한정적일 때 쓰이는 것으로 영어 소유격에서는 한정적 핵명사 소유격 구성이 기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d), (e) 제외

<3단계> 의미 또는 화용적 기능이 기준이 된다.

연결사 유형(b)과 불변화사 유형(c) 중에서 소유 관계(relationship of ownership)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사로 영어에서는 곧 연결사가 기본형이 된다. '(c) the library of Boston' 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단순히 병치시키는 것도 허용된다.(the Boston library) -> (b) 선택됨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Croft(1990)의 논의는 앞선 Greenberg(1963)의 보편성에 입각한 논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유형 분류를 제시하며 기본 유형의 실제적인 선정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기본 유형을 선정하는 이유는 '유형론적 일반화 도출을 위한 다른 언어

와의 비교'로 생각된다. 한 언어를 대상으로 논의한다면 굳이 기본 유형을 선정할 필요는 없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정도로 논할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유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어지며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 유형 선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언어의 다양한 다른 유형을 희생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제시하면 Washio(1995)<sup>9)</sup>는 'Interpreting Voice'란 주제 아래 사동에 관해서 한국어, 일본어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교함에 있어서 한국어에서 형태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사동'의 예로만 일본어와 대조하고 있다. 뒤에 가서 살펴볼 본인의 유형론적 연구(2000, 2004)에서도 역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 3.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

#### 3.1. 연구 목적 : 언어 보편성(language universals) 규명

유형론과 보편 문법<sup>10)</sup>의 연구 목적은 언어 보편성(universals) 규명으로 둘 다 언어 보편성 연구(language universal research)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한 Comrie(1989), Whaley(1997), 손호민(2008)을 살펴보자.

먼저 Comrie(1989:33-34)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편 문법(생성 문법)과 언어유형론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12) 공통점: 언어들 간의 변이(variation)를 다룬다.

차이점: 보편 문법은 이러한 변이 자체에만 국한되지만 언어유형론은 가능한 변이(possible variation)을 다룬다.

Whaley(1997:36)에서는 보편 문법과 유형론의 공통점은 모든 언어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 무엇인지 또 그 차이의 경계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고 특히 보편 문법과 유형론의 이상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형론은 보편 문법의 모형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편 문법은 그것이 언어에서 발견해 내는 패턴에 대한 동기를 유형론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자주 달성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보편성(universals)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곧 보편 문법에서는 내재적 설명

9) Washio(1995)는 'Interpreting Voice'란 주제 아래 사동에 관해서 한국어, 일본어를 대조하여 연구하고 특히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대비시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에서 사동법은 사동과 피동의 의미 모두를 잠재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주어가 사건으로부터 배제된다면 사동의 의미를, 사건에 포함된다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일본어와 한국어를 대조, 비교함에 있어 일본어 '사동/피동'의 실현 방법이 '형태적인 범주'라는 것에 맞추어 한국어에서 형태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사동/피동'의 예만 대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통사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사동/피동'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피동을 사동 안에 포함되는 문법 범주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이를 언어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려 하나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더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0) 언어유형론과 생성 문법에 대한 최근의 자세한 논평은 고영근(2012:91-94) 참조

에 국한되고 유형론에서는 외재적 설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Whaley(1997)에서 제시된 보편성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내재적 설명 : 추상적 단계와 표면 단계 사이의 통사 구조간의 특수한 연계 관계

-> 문법 규칙으로 설명

외재적 설명 : 언어 구조에 대한 의사소통적 압력, 곧 문법의 형식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문법은 예측 가능한 특정한 방식으로 틀을 이루게 됨

-> 담화, 처리, 경제성, 지각-인지, 도상성으로 설명

손호민(2008)에서도 보편 문법은 한 개별 언어에 대한 상세하고도 추상적인 연구로 보편성의 기저에는 인간 본연의 타고난 특성(innate properties)이 있다고 제시한다. 반면 유형론에서는 많은 언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설명하며 언어 보편성의 설명에도 심리적, 기능적(화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토대로 보편문법과 언어유형론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편 문법(Chomsky)	언어유형론(Greenberg)
소수의 언어	다수의 언어
보다 추상적인 분석	보다 구체적인 분석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내재적 설명	외재적 설명

<표 1> 보편 문법과 언어유형론

그러나 언어유형론에서도 무조건 구체적인 분석이 선호되는 것은 아니고 추상성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추상성(Abstractness) 정도와 유형론적 타당성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Dik(1997:15)의 논의를 살펴보자. Dik(1997)에서는 이론이 너무 구체적이면 다른 언어에 적용될 수 없어서 유형론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이론이 너무 추상적이면 언어들에 나타나는 중요한 일반화를 포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상성과 구체성의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한정성(definiteness)을 들었는데 영어에서는 한정성이 관사 'the'로 표현되고 덴마크어에서는 접사 '-et'로 표현된다. 따라서 언어들 간에 나타나는 한정성을 일반화하기 위해 기능문법에서는 'definiteness operator'(d)를 설정하여 모든 한정 명사구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성질을 포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14) English: d[house] = the house

d[John] = ∅ John

Danish: d[hus-] = hus-et

Song(2001:21)에서는 세계 언어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구조적 다양성을 연구하여 통일성을 밝히는 것이 언어유형론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언어유형론의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 (14) 기능문법의 형식화처럼 '관사 혹은 접사'라는 실제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한정성 변인(parameter)이 언어마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언어보편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언어보편성' 규명이라는 언어유형론의 연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3.2. 연구 대상 : 다양한 언어들의 비교

Ramat(1987:12)에서는 모든 유형론적 분석에는 비교 원칙(comparative principle)이 내재해 있다고 하였다. 곧 19세기 초 유럽의 식민주의가 융성할 때 모르는 언어의 형태를 익숙한 언어의 형태로 비교하는 것에 의해 출발하였으므로 유형론은 비교 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 science)의 한 분야이며 실제로 관찰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귀납적 방법을 토대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Comrie(1989)에서는 언어유형론 연구가 포괄적인 언어자료를 토대로 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선정에 있다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철의 화학적 특성을 연구할 경우는 연구대상의 특성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철 가운데 단일한 표본을 선정해도 되지만 스트레스에 따른 인간행동을 연구할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시하였다. 바로 후자의 연구가 언어유형론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부합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언어자료의 표본언어를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세 가지 편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통적 편견(genetic bias) : 같은 어족의 언어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어족의 공통 특징을 언어 보편성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

지역적 편견(areal bias) : 계통이 다르더라도 지역적으로 가까우면 차용 또는 공유된 개신현상에 의한 공통적 특징이 언어보편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유형론적 편견(typological bias) : SOV의 어순이 보편적인데 이러한 유형적인 변수가 다른 언어현상과 상관이 있으리라는 생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Comrie(1989)의 지역적, 계통적 편견<sup>11)</sup>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국어학에 적용된 비교 방법을 다루는 논의에서 좀더 살펴보겠다.

### 3.3. 연구 방법

#### 3.3.1. 기능주의적 접근

Ramat(1987:11)에서는 유형론의 접근은 기능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적 접근은 언어의 개념을 문제 해결 체계(problem solving system)으로 보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곧 자연 언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의미 지시적 내용을 최상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유형론은 의미 지시적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 이용되는 전략과 기술에 관한 범언어적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sup>12)</sup> 연재훈(1995)에서도 기능-유형론적 문법(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에 대해

11) Dryer(1992)에서는 이러한 계통적, 지역적 편견을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면서 언어들을 속(genera)으로 나누고 그 속을 다시 6개 지리상의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때 같은 속에 속해 있는 언어들은 어순, 형태론적 유형 등 주요한 유형론적 특질을 공유한다.

12) Ramat(198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보편성의 질문에 바로 기능적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왜 이 언어에서는 다른 타입이 아니고 이 타입인가?  
왜 어떤 타입은 다른 타입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는가?

소개하며 형식문법 연구에 대조되는 기능 중심적 언어 연구 방법론으로서 범언어적 비교에 토대를 두고 인간 언어 문법 구조의 보편성과 차이점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최근 Haspelmath(2008)에서는 언어유형론을 기능언어학의 한 부류로 보고 있고 일찍이 언어 유형론의 기능적 설명(functional explanation)에 대해서는 Comrie(1989:25-28)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Comrie(1989)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통사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 설명 중의 하나는 통사 구조로부터 의미적 내용을 회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으로 문장 내에서 특정한 위치는 관계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곧 SOV언어는 명사 앞의 관계절을, SVO언어는 명사 뒤의 관계절을 선호한다. 따라서 관계절은 문장의 맨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문장 가운데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영어와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포함된 절이 또 다른 절의 가운데에 포함된 아래와 같은 문장은 꺼린다.

(15) The man [that the boy [that the dog bit] kicked] ran away

이외에도 잘 알려진 Keenan and comrie(1977)의 ‘관계화 가능성 위계(명사구 접근가능성 계층)’도 대표적인 기능적 설명으로 보았다. 이처럼 언어유형론에서는 관련된 자질의 계층적 배열을 허용하여 위계화, 계층화하는 기능적 관점을 보이는데 ‘관계화 가능성 위계’는 4.2.1.에서 살펴보겠다. 나아가 Comrie(1989)에서는 담화 구조의 속성으로 문법적 자질을 설명하는 것도 기능적 설명으로 보았다. 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언어유형론의 연구 방법은 언어 구조 내의 문법적 규칙에 국한되는 내재적 설명이 아니라 외재적 설명으로 요약되는데 외재적 설명은 곧 기능적 설명으로 의미·화용론적 분석 방법은 이러한 기능적 설명(처리, 경제성, 지각·인지, 도상성 등)에 포함되지만 기존의 형태, 통사론적 분석과 대비되므로 다음 장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 3.3.2. 의미·화용론적 분석

Comrie(1989)에서는 주어를 정의하는데 의미·화용론적 요소를 도입한다. Comrie(1989)에서는 주어를 정의하는 데 격표지, 동사 일치, 접속문에서의 동일 주어 삭제 가능성과 같은 형태적, 통사적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화제/행위주’라는 의미 화용론적 요소를 도입하여 다양한 언어의 ‘주어’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곧 대격언어의 명령문의 경우 주어와 행위주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경향이 있고 능격언어의 결과구문의 경우 주어와 화제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omrie(1989)의 논의는 대격언어의 명령문, 능격언어의 결과구문과 같은 일부 구문만 주어를 가려내는 데 의미 화용론적 기준이 부합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격언어, 능격언어로 구분한 것 자체가 형태, 통사적 기준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Comrie(1989)에서 제시한 주어에 대한 의미·화용론적 분석은 연재훈(1995), Yeon(1996), 김건희(2003)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논의에서는 혼합된 격표지를 갖는 주어<sup>13)</sup>

특히 Ramat(1987:16)에서는 언어 A에서 변별적이고 기능적인 요소가 언어 B에서는 아닐 수 있으므로 언어학자들은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제거하고 여러 언어 구조에서 무엇이 기능적인가를 잘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또한 Comrie(1989:136)에서는 격 표지(case marking)는 한 언어 내에서도 일반화하기 힘들어서 언어 특유의 사항(language-specific idiosyncrasy)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언어 구조에 대해 더 정확

에 대해 ‘의도성’, ‘주관성(subjectivity)’, ‘초점’과 같은 의미, 화용론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연재훈(1995:217-218)에서는 기능-유형 문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의도성(volition)’이나 ‘통제성(control)’이라고 하는 의미 자질이 문법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그러한 인지 차이가 실제로 문법에서 달리 표현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점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Yeon(1996)에서는 특히 대격 언어에 나타나는 여격주어 구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현상이 타동성의 정도와 주어의 의도성의 정도에 따라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곧 어떤 주어가 여격으로 표시된다면 의도성이 낮고 타동성의 정도가 낮은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김건희(2003)에서도 주어가 여격으로 표시된 여격주어 구문의 경우는 의미역도 경험주(16a)에서 도달점역(goal)(16b)로 전환되며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Abbi(1990)의 논의<sup>14)</sup>처럼 여격주어 구문의 경우 초점(focus)이 경험주에 있는 것임을 제시했다. 또한 ‘-는’보다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도상적인 ‘-에게’, 혹은 ‘-에게는’의 여격 표지를 취함으로써 고유 의미에 부가된 의미인 ‘주관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16) a. 우리는 뻔뻔스런 그의 태도가 황당했다.

b. 우리에게는 뻔뻔스런 그의 태도가 황당했다.

김건희(2003:30)

특히 Comrie(1989:106)에서는 주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에 있어 언어보편적으로 완전히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란 어렵다고 하면서 주어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관점의 전제를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첫째 주어가 모든 언어에 필수적인 문법범주가 아니며, 둘째 주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내에서도 모든 문장에 주어가 반드시 필수적인 성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며, 셋째 x 언어를 y 언어로 옮겼을 때 x 언어의 주어 명사구가 y 언어의 주어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며 넷째 화제(topic)와 행위주(agent)가 주어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sup>15)</sup> 주어는 화제, 행위주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Comrie(1989)의 논의에서는 일찍이 ‘주어’라는 문법 범주의 존재 가능성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 이는 ‘거의 모든 언어는 주어가 존재한다’라는 보편성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주어’ 문제에 대해 ‘주어’ 존재 여부라는 원점에서 ‘주어’의 논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후 ‘주어 중심 언어’와 ‘주어 없는 언어’를 구분한 Kibrik(2001)의 논의도 Comrie(1989)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국어 문법에서는 주어를 확인해 내는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하며 다양한 기준들(형태, 통사적, 의미·화용론적 기준)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합되는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 분석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보편성 연구, 곧 언어유형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4) Abbi(1990)는 남부 아시아 언어들을 대상으로 경험주를 취하는 구문을 연구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여격주어 구문과 주격중출 구문의 차이를 초점(focus)으로 설명하였다. 전자는 초점이 경험주가 아닌 원인 대상에 있고 후자는 경험주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15) 예를 들어 Dowty(1991)은 행위주의 원형적 속성(Proto-agent Properties)을 제시하면서 행위주의 원형적 속성을 가진 논항이 주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4. 국어 문법 현상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접근 방법의 실제

### 4.1. 비교 방법<sup>16)</sup>

#### 4.1.1. 일본어와 한국어의 사동법 대조 연구 -언어유형론적 특징을 중심으로-<sup>17)</sup>

##### <1> 연구 의의

사동법의 언어유형론적 연구는 서로 다른 계통적, 지리적 배경을 가진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언어들을 토대로 사동법이라는 문법 범주에 대한 일반적인 함의를 찾아보려는 논의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개별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대조 연구를 통하여 사동법의 언어유형론적인 연구에 뒷받침이 되는 동시에 기존 사동법의 언어유형론적인 보편 함의가 개별 언어에서의 사동법을 기술하는데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 내용

사동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간접/직접(indirect/direct), 비강제/강제(noncoercive/coercive), 지시/조종(indirective/manipulative), 피해/중립(adversity/nonadversity)’ 등의 다양한 대립적 분석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의미 부류의 대립은 Comrie(1989)에 의하면 ‘피사동주의 통제력 정도’에 의해 설정된다. 이 ‘피사동주의 통제력 정도’는 다시 사동의 개념 중 핵심적인 내용인 ‘원인(사동)’과 ‘결과(피사동주의 사동 행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Comrie(1989)는 먼저 사동의 실현 방법을 통사적, 형태적, 어휘적 방법으로 나누고 ‘통사적-형태적-어휘적’ 연속체에서 통사적 사동 쪽으로 갈수록 ‘간접 사동 구문’(원인과 결과의 거리가 먼 경우)에 가까워지고 어휘적 사동 쪽으로 갈수록 ‘직접 사동 구문’에 가까워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동법의 의미가 형식인 실현 방법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는 Comrie(1989)의 유형론적 함의에 의해 ‘의미, 실현방법’을 주로 다룬다.

##### <3> 연구 단계

###### ① 언어유형론적 함의가 반영될 수 있는 언어 범주 결정 : 사동법

언어유형론적 함의: 사동의 대립적인 의미인 ‘직접, 간접’은 ‘피사동주의 통제력 정도’에 의해 각각 통사적, 형태적, 어휘적 방법의 실현 방법으로 나타난다.

###### ② 언어들의 대조 양상 고찰

의미 대조 : 실현 방법 대조 : 사동화 가능성 대조 : 사동과 피동의 관계 대조<sup>18)</sup>

16)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을 다른 언어와 대조하는 이러한 유형론적 관점의 언어 비교 연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기반 연구로 최근 외국 학생 저자의 한국어 교육 전공의 학위 논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적으로 용어 사용(계사, 부동사 등)에서라도 언어유형론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가치를 더할 것이다.

17) 김건희(2000), 일본어와 한국어의 사동법 대조 연구 -언어유형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③ 대조 결과와 언어유형론적 함의 고찰

일본어에서 사동의 실현 방법은 어휘적 방법과 형태적 방법이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두 개의 실현 방법으로 나타난다. 언어유형론적으로, 사동의 세 가지 실현 방법인 어휘적-형태적-통사적 방법의 연속체에서 두 가지 실현 방법인 어휘적-형태적 방법의 선상에 있으며 의미 관계의 측면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두 실현 방법에 각각 대응된다. 즉 사동의 의미는 대립적인 두 부류로 나누어져 ‘직접, 강제, 조종’의 의미 부류는 어휘적 실현 방법에, ‘간접, 비강제, 지시’의 의미 부류는 형태적 실현 방법에 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일본어에서는 실현 방법과 의미 관계가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루며 사동법이 실현된다고 하겠다.

한국어 사동법의 실현 방법에서는 언어유형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세 가지 실현 방법(어휘적, 형태적, 통사적)이 모두 나타난다. 한국어에서도 사동의 의미는 대립적인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직접, 강제, 조종’의 의미 부류는 어휘적, 형태적 실현 방법에 ‘간접’, ‘비강제’, ‘지시’의 의미 부류는 통사적 실현 방법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의 통사적 실현 방법은 그 포괄성과 명료성(피동 표지와 동등성의 동일성에 의해서 생기는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전자의 의미 부류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각기 다른 두 개의 피사동주의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두 부류의 의미를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통사적 실현 방법의 확장’으로 인하여, 실현 방법에 따른 의미 관계가 일본어에서처럼 뚜렷한 상호 대응 관계를 이루지는 않는다.

## 4.1.2. 한국어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연구-일본어, 몽골어, 터키어와의 비교, 대조를 중심으로-19)

### <1> 연구 의의

전통적으로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연구는 대부분 인구어의 분류 잣대로 인구어를 주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유형론의 유형 분류 기준이 한국어 형용사의 연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언어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를 수정, 보완한 유형 분류 기준으로 소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을 토대로 비교, 대조한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한국어 형용사 범주에 대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인 연구에 뒷받침이 될 것이다.

### <2> 연구 내용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연구에서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형용사의 품사적 위상이다. 즉 형용사란 품사가 동사나 명사의 거대 품사와 같이 대등하게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인정받을 수 있

18) 유형론적 함의와 관련된 ‘의미와 실현방법’뿐만 아니라 사동화 가능성 및 사동과 피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조한다. 사동은 범언어적으로 태(voice)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 태의 범주에 속하는 또 다른 범주인 피동과 의미적, 형식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사동과 피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다른 태 범주와 얼마나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사동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즉 일본어의 형태적 방법과 한국어의 통사적 방법은 두 언어에서 각각 생산적인 방법(사동의 표지가 적용되는 동사의 규모와 규칙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이지만 피동 이외의 다른 태 범주(가능, 겸양, 존경)와 결합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제약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또 다른 의미의 생산성(사동의 표지가 적용될 수 있는 태 범주) 대조 논의가 되겠다.

19) 김건희(2004), “형용사의 유형론적 연구”, 한글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101-116쪽.

는가이다. 이는 형용사의 대표적인 통사적 특징인 서술과 수식이 많은 언어들에서 명사나 동사와 공유하는 특징이기도 하며, 형태론적으로도 명사나 동사에서 파생된 복합형용사가 대부분의 언어에서 단일 형용사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형용사란 품사를 하나의 독립된 문법범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는 동사, 명사, 형용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유형에 대한 분류 기준을 기존의 인구어적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어 형용사의 형태, 통사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몽골어, 일본어, 터키어의 특징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 <3> 연구 단계

- ① 선행 연구 고찰 : 인구어 중심의 형용사 유형 분류 비판
- ②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 고찰 : 동사 및 명사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고찰  
한국어 형용사의 형태, 통사적 특징은 우선 수식 구조와 서술 구조에서의 활용 및 계사 유무, 다른 품사로의 파생, 비교급류의 활용 여부의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곧 이러한 특징들은 유형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③ ①과 ②를 고려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의 절충적인 유형 분류 기준을 정립  
Wetzer(1992)에서는 극단적으로 형용사 품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인구어 중심의 언어유형론적 논의와는 달리 형용사가 명사나 동사의 자질을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따라 형용사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한국어의 형용사는 서술 구조에서 계사 없이 나타나 활용하므로 전형적인 동사성 형용사에 속한다. 그러나 Wetzer(1992)는 서술 구조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사’라는 제한된 기준을 사용한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본 논의에서는 형용사 품사가 가지는 명사형 자질과 동사형 자질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서술 구조, 수식 구조, 명사로의 전성 등 좀 더 다양화한 유형 분류를 정립하여 살펴보았다.
- ④ 이러한 형용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 터키어 유형 고찰

### <4> 연구 결론

#### (17) 분류 기준

##### a. 활용

수식 구조에서의 활용여부(명사를 수식할 때, 어형변화가 있는지)

서술 구조에서의 활용여부(그 자체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함께 나타나는 계사가 활용하는지)

##### b. 계사

서술 구조에서 명사, 형용사가 다른 계사를 요구

서술 구조에서 명사, 형용사가 동일 계사를 요구

서술 구조에서 명사만 계사를 요구하고, 형용사는 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a)활용에 포함)

서술 구조에서 계사없이 주어와 함께 병치

##### c. 다른 품사로의 파생

명사, 부사, 동사로의 파생이 파생 접사와 같은 형태소의 첨가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형태소 없이 그자체로 이루어짐

##### d. 비교급류의 활용

비교급이 형용사 자체의 활용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부사 및 격조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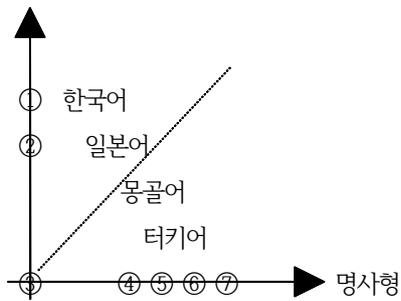
위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를 비교.대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2>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형용사의 유형(type)

유형들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동사성 자질 vs. 명사성 자질
① 수식 구조에서 활용	○	×	×	×	동사성 자질 ↑
② 서술 구조에서 활용	○	○	×	×	
③ 명사, 형용사가 다른 계사 요구	×	×	×	×	중립(동사, 명사, 형용사 구별)
④ 명사, 형용사가 동일 계사 요구	×	×	○	○	↓ 명사성 자질
⑤ 서술 구조에서 계사없이 주어와 병치	×	×	△	△	
⑥ 명사로의 파생시 형태소 부착 유무	×	×	△	○	
⑦ 비교급의 굴절	×	×	×	×	

다양한 유형 기준들은 동사나 명사에 가까운 정도로 연속선상에서 정렬할 수 있다. 번호가 커질수록 명사에 가까운 것으로 ①이 대표적인 동사적 특징이고, ⑦은 대표적인 명사적 특징이다.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동사나 명사에 가까운 형용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 터키어가 가장 명사에 가깝고, 그 다음으로 몽골어가 명사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형용사는 동사에 가까웠는데, 이 중에서 한국어가 동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다음과 같이 수직선상에서 보일 수 있겠다.

(18) 동사형



4.1.3. 정리

‘일본어와 한국어의 사동법 대조 연구 - 언어유형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는 Comrie(1989)의 언어유형론적 보편성이 일본어,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것이고 ‘한국어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연구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와의 비교, 대조를 중심으로-’는 형용사에 대한 품사범주 정립과 관련하여 언어유형론적 보편성(분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 기준으로 소위 같은 계통에 속하는 다른 언어들의 형용사 품사로서의 특징을 살펴본 것으로 그 출발점이 다르다. 전자는 언어유형론적 보편성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후자는 언어유형론적 보편성(분류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이를 같은 계통의 같은 지역 언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전자는 연역적 성격을 가진다면 후자는 귀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의 비교는 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유사한 언어로 간주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균형잡힌 언어 표본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Comrie(1989)에서도 언어 유형론이 비교 연구를 통해 가능한 이유는 같은 계통의 언어를 통해 언어사실을 범주화할 수 있고 다른 계통의 언어를 통해 범주화된 언어사실에 대한 유형적 정의가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연구는 우선 자료 구하기가 쉽고 잘 알려진 같은 계통의 언어를 선택했다고 할 것이다. 언어유형론이 인도유럽어, 유럽 중심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한국어 같은 소위 알타이어, 아시아 언어를 토대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일본어와 한국어의 사동법 대조 연구’는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 문법 현상을 바라본 것으로 특히 앞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국어 문법 현상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한국어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연구’도 개별 언어 전문가의 정밀한 검증 문제가 남아있다.

## 4.2. 기능주의적 접근

### 4.2.1. 관계절의 유형론

관계절에 대해서는 Keenan & Comrie(1977), Keenan(1985), Comrie(1989) 등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Keenan & Comrie(1977)에서는 50개의 언어를 표본으로 언어보편적으로 관계화가 잘 되는 성분들의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9) 관계화 가능성 위계  
주어 > 직접 목적어 > 비직접 목적어 > 소유격

또한 Comrie(1989)에서는 관계절에서의 핵 명사 역할을 다음과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a), (b), (c) 유형의 경우 관계절에서의 핵 명사의 역할이 명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d) 유형은 관계절에서의 핵명사 역할에 관한 명시적인 표시를 제공하지 않아 (a), (b), (c)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 (20) (a) 비축소(non-reduction) 유형  
(b) 대명사 보유(pronoun-retention) 유형  
(c) 관계대명사(relative-pronoun) 유형  
(d) 공백(gap) 방식

(b) ‘대명사 보유’ 유형과 (c) ‘관계대명사’ 유형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c)가 유럽 언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b) 대명사는 위치 이동하지 않지만 (c) 관계대명사는 관계절의 제일 앞부분으로 위치 이동하며 격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d) 유형이 바로 국어의 관계절인데 핵 명사가 관계절 내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백 (gap)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관계절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그 언어의 통사적 속성에 의한 전략’으로 예를 들어 관계절에 직접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가 채워져 있고 동사를 선행하는 주어의 위치가 비어 있으면 핵명사는 주어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둘째 실제 세계의 상식에 기반한 전략이 적용<sup>20)</sup>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현식이가 개를 때린 막대기) ‘현식’, ‘개’, ‘막대기’의 관계에서 막대기는 개를 때리는 ‘도구’일 때 가장 자연스럽다고 제시하였다. 이 경우 핵명사가 부사어로 해석되는 것이다.

김민국(2010)에서도 ‘관계화 가능성 위계’를 수용하여 적용하였는데 김민국(2010:139)에서는 관형어로 기능하는 소유격 명사의 경우 관계화 제약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였다. .

- (21) (가) a. 철수의 동생이 집에 갔다 --> 동생이 집에 간 철수
- b. 철수의 눈물이 우리를 울렸다 -->\*눈물이 우리를 울린 철수
- (나) a. 내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 내가 손을 잡은 철수
- b. 내가 철수의 모자를 썼다 --> \*내가 모자를 쓴 철수
- (다) 내가 철수의 학교에 갔다 --> \*내가 학교에 간 철수
- (라) 내가 철수의 집에서 공부했다 --> \*내가 집에서 공부한 철수

김민국(2010)에서는 엄밀하게 소유격 명사의 관계화 제약을 제시하고 있다. 곧 (가)와 (나)처럼 소유격 명사가 주어, 목적어 내부 성분이면 관계화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다), (라)처럼 사격보어나 부가어를 수식하는 소유격 명사의 경우에는 관계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소유격 명사의 관계화 제약은 소유격이 수식하는 명사구의 문장 성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1)은 대명사 ‘자기’로는 관계화가 가능하다.

- (22) (가) a. 철수의 동생이 집에 갔다 --> 동생이 집에 간 철수
- b. 철수의 눈물이 우리를 울렸다 -->자기 눈물이 우리를 울린 철수
- (나) a. 내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 내가 손을 잡은 철수
- b. 내가 철수의 모자를 썼다 --> 내가 자기 모자를 쓴 철수
- (다) 내가 철수의 학교에 갔다 --> 내가 자기 학교에 간 철수
- (라) 내가 철수의 집에서 공부했다 --> 내가 자기 집에서 공부한 철수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더 정밀한 관찰을 적용해 보면 국어에서는 주로 (d) ‘공백’이 나타나

20) 국어 관계절의 대표적인 핵명사 유형인 ‘공백’과 관련해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 (i) 연 선생이 산 백화점이 어디예요?  
삼성이 산 백화점이 어디예요? 연재훈(2012:444)

통사적으로는 두 문장의 ‘백화점’이 같은 위치에 나타나 동일하게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지만 (ii) 과 같이 각각 ‘부사어’, ‘목적어’로 해석되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이는 실제 세계의 상식에 기반한 전략이 적용되는, 의미화용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 (ii) 연 선생이 -----(에서) 산 백화점이 어디예요? (부사어 공백)  
삼성이 -----(을) 산 백화점이 어디예요? (목적어 공백)

지만 소유격의 경우 (b) 자기 ‘대명사’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핵명사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각 언어가 반드시 하나의 방식만으로 관계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 Comrie(1989)에서도 페르시아어의 경우 주어와 직접 목적어는 ‘공백’ 방식을 사용하고 비직접 목적어, 소유격에는 ‘대명사 보유’ 방식을 사용하며 말레이어에서도 주어는 ‘공백’ 방식으로 속격은 ‘대명사 보존’ 방식으로 관계화시킨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Comrie(1989)에서는 기존의 Keenan & Comrie(1977)의 ‘관계화 가능성 위계’에 더하여 ‘핵명사의 명시성 위계’를 제시하면서 명시적 방식을 사용할수록 관계화가능성 위계는 낮아지고 반대로 비명시적일수록 관계화가능성 위계는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23) a. 핵명사의 명시성 위계

비축소 > 대명사 > 관계대명사 > 공백



b. 관계화 가능성 위계

주어 > 직접 목적어 > 비직접 목적어 > 소유격

국어의 경우도 관계화 가능성이 낮은 ‘소유격’의 경우 명시성 위계가 높은 ‘대명사’ 방식을 사용하고 관계화 가능성이 높은 ‘주어, 직접 목적어’ 등은 명시성 위계가 낮은 ‘공백’ 방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두 유형론적 함의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페르시아어나 말레이어에도 적용된다.

(24) a. 소유격(관계화 가능성 낮음): 대명사(명시성 위계 높음)

내가 철수의 모자를 썼다. -> 내가 자기 모자를 쓴 철수

b. 주어(관계화 가능성 높음): 공백(명시성 위계 낮음)

내가 철수의 모자를 썼다. -> \_\_\_\_\_ 철수의 모자를 쓴 나

이번 장에서는 특히 일찍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관계절의 유형론에 대해 국어에서 하나의 방식만으로 관계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토대로 유형론적 보편성(관계화 가능성 위계)이 국어에 적용됨에 있어서 또다른 유형론적 보편성(핵명사의 명시성 위계)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 4.2.2. 부사절의 ‘수식’

남기심·고영근(2006:150-161)에 의하면 비종결어미에는 내포의 기능을 가지는 전성어미와 접속의 기능을 가진 연결어미가 있다. 이처럼 기존 논의에서는 문장의 확장 구성인 복문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는 ‘접속’에 대하여 ‘수식’이 아니라 ‘내포’를 대응시킨다. 그러나 김건희(2012a, 부사절의 수식과 접속-종속 접속절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김건희(2012b, 부사절과 관형사절의 ‘수식’)에서는 ‘접속’과 ‘내포’가 아닌 ‘접속’과 ‘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포가 한 문장의 성분절로 기능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명사절이 되면 주어, 목적어 등으로 그 자체로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되는 형상적(configurational)인 전형적인 내포를 의미하지만 부사절이 될 때는 부사어로서 문장의 다른 구성 성분을 수식하는 기능적인 것이 된다. 곧 부사절은 수식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성분절이 된 것이므로 부사절을 살펴보는 위 논문에서

는 ‘내포’와 ‘접속’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 중심의 ‘수식’과 ‘접속’을 대응시킨 것이다.  
이러한 ‘수식’은 단지 부사절, 종속 접속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법 범주와 관련된다.

- (25) 부사형 어미
  - 부사성 의존명사
  - 접속부사
  - 종속 접속어미
  - 대등 접속어미

‘접속부사’, ‘종속 접속어미’, ‘대등 접속어미’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의 기능이 강한 부류지만 김영희(1987), 민현식(2002), Song(2005) 등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수식’으로 본다면 ‘수식’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Alexiadou(1997)에서는 부사(adverb)는 품사 범주지만 ‘부사적(adverbial)’이란 용어는 다른 구 범주도 가지는 순수한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사적 기능은 순수한 부사이외의 다른 범주들이 부사의 분포와 수식 기능(modification)을 가지는 것이라고 부연하였고 실제로 부사적 기능(adverbial function)을 가지는 범주로 6 가지 유형을 영어, 그리스어를 예를 들며 제시하였다.

- (26) (a) Preposition phrase  
John loves Mary with great passion
- (b) Finite clauses  
John came to the party, although he was very tired
- (c) Non-finite clauses:
  - i) infinitives, ii) -ing participles, iii) -ed participlesJohn was playing to win  
Being the head of the department, John had a lot of power  
When urged by his friends, he gave up playing
- (d) Verbless clauses  
John was playing, unaware of the danger.
- (e) Noun Phrases  
Peter was playing last week

이처럼 다른 언어에서도 다양한 문법 범주들이 ‘수식’의 부사적 기능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국어학 일부 논의에서는 모든 접속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간주한다고까지 하였으나 특히 종속 접속어미가 이끄는, ‘수식’이 아닌 ‘접속’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종속 접속절은 의미, 통사적 측면에서도 부사형 어미가 이끄는 부사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sup>21)</sup> 일괄적으로 부사형 어미로 보는 것보다 이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고유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 더 합당함을 주장하였다. 즉 부사형 어미의 포괄적인 설정이 문법 형태소 본래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획일화된 문법 기술이 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언어유형론적 고찰의 핵심 기제인 ‘기능’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

21) 김건희(2012a)에서는 [수식], [접속]을 변별해 줄 수 있는 의미적, 통사적 근거인 ‘부정의 의미 영역, 주어 통제 여부, 시제 및 서법 제약’에 대해 동일하게 ‘-게’ 표지로 나타나는 부사절과 종속 접속절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종래의 국어학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언어들의 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보아 국어 문법 현상을 새롭게 보고자 한 것이다.

### 4.3. 의미·화용론적 분석 기준

#### 4.3.1. 품사 분류 기준: 김건희(2013:83-87) 참조

전통적으로 품사는 단어의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 특징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그러나 언어유형론적 접근에서는 기존의 기준에 화용적 기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구적인 논의는 Hopper & Thompson(1984)의 논의로 이 논의에서는 품사 부류에 대한 담화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김건희(2013)에서도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품사의 분류 기준에 대해 새롭게 고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4.3.2. 명령어 어미 ‘-어라’의 형용사 결합에 대하여-감탄형 어미 ‘-어라’와의 통합적 설명을 중심으로-

Sadock and Zwicky(1985)에서는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명령문은 미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으로 이것은 범언어적으로 요청, 주문, 제안 등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곧 ‘요구’ 이전에 화자의 소망과 기원이 내재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자인 화자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화자의 요구와 기대를 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화자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명령형 어미와의 결합도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것이다.

‘-(으)라, -어, -지, -게, -(으)오, -소, -구려, -(으)비시다, -(으)소서, -어라’ 등 명령형 어미가 다양하지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와 같은 관용구를 제외하고 유독 명령형 어미 ‘-어라’만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감탄형 어미 ‘-어라’와의 통합적인 성격을 관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곧 ‘감탄’은 화자의 평가 및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연히 화자 중심이고 형용사의 ‘명령형 어미’ 결합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향후를 기대하는 화자의 소망과 기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자’ 중심의 성격은 바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형용사’ 본래의 성격<sup>22)</sup>을 잘 반영하는 것이며 결국은 형용사에 명령형과 감탄형의 ‘-어라’가 결합한 것은 ‘주관적인 평가’라는 형용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화자 중심의 ‘평가’는 ‘동사+명령형 어미’가 보여주는 청자의 명시적인 ‘행위수행성’이 아니라 화자의 ‘소망, 기원’으로 연결된다. 아래 문장에서 ‘한결같아야 하는 주체의 의지나 의도’로 보이지 않고 형용사의 상태(한결같음)를 요구하는 화자의 소망, 기원이다.

- (27) 사사로운 욕심들에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아라.  
    늘 한결같아라.  
    사랑은 한결같아라.

22) 국어학 선행 연구에서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의 의미를 ‘주체의 의지나 의도’로 보았다. 그러나 형용사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된 것은 ‘명령형 어미’의 화자의 청자에 대한 명령 및 요구라는 화용적, 행위적(agentive)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지 굳이 결합하는 형용사에 범주를 벗어나는 의미적 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김건희(2010)에서는 Sadock and Zwicky(1985)의 언어유형론적 보편성을 토대로 ‘형용사+명령형 어미 -어라’에 대하여 화자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화자’는 화용론의 범주로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인 의미·화용론적 분석과 맞닿아 있다.

#### 4.4. 문법화(통시 유형론)

Croft(1990)에서는 모든 언어에 문법적 변이가 나타나며 이 변이들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많은 공시적 변이들은 진행 상태에 있는 언어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법화 과정은 공시적 언어 상태에서 자주 확인되며 어느 형태가 더 최근의 것인가의 결정은 그 형태들이 서로 같은 기원을 가진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으며 만약 그 형태들이 같은 기원을 가졌다면 좀 더 문법화된 형태가 더 최근의 형태인데 이는 동일한 형태소의 발전에서 문법화된 형태가 좀 더 후대의 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Croft(1990)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방적(unidirectional), 순환적(cyclic) 문법화에 따른 공시적 변이들은 인간언어 문법에 널리 퍼져있는 현상이고 국어학 논의에서도 일찍이 Rhee(1996), 안주호(1996), 박승운(1997)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문법화 논의가 이루어졌고 최근까지도 문법화를 주제로 한 논의들이 이어진다. 김건희(2009)에서도 ‘밖에’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 문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밖에’의 경우 명사구에서는 일찍이 문법화가 시작되어 [한정]의 보조사로 문법화가 완결된 반면 서술부에서는 현대 국어 시기로 와서 다시 [한정]이 [(부정)가능성]의 양태어미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양태어미는 앞서 언급한 Croft(1990)에 의하면 ‘밖에’의 가장 문법화된 형태로 가장 최근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밖에’의 문법화를 명사구와 서술부로 각각 나누어 다음과 같이 도식해 볼 수 있다.

(28) 명사구 ‘밖에’의 문법화  
의미 확장 : 구체적 장소 > 추상적 장소 > 제외 > 한정  
문법 범주 : 명사+격조사 > 후치사(부사구 형성) > 보조사

(29) ‘의존명사(수)+밖에, 관형형 어미+밖에’의 문법화  
의미 확장 : 한정 > (부정)가능성  
문법 범주 : 보조사 > 양태어미

‘명사구’에서는 [한정]의 보조사로 문법화가 완결된 반면 서술부에서는 다시 [한정]이 [(부정)가능성]의 양태어미로 문법화하였다. 즉 단순히 문법적 구성소의 차원을 벗어나 의미, 화용적 구성소인 양태 범주로 문법화된 것이다. ‘-르밖에’, ‘-르수밖에’는 선행 표현에 대한 강한 한정이 후행 표현의 부정을 함축하여 ‘(부정)가능성’ 혹은 ‘(유일)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30) 궁여지책으로 사인펜으로 창문을 까맣게 칠할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집 멍멍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 짚어덜밖에. (없다)

또한 (31)과 같은 메타언어적 문장도 ‘-르수밖에’가 양태 표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31) ‘수밖에’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Meillet(1926)에서는 의미 및 어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시했는데 현대 프랑스어 부정 표현 'pas'는 원래 부정을 뜻하는 'ne'와 함께 나타났으나 'ne'가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후행하는 부정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정)가능성'<sup>23)</sup>을 보이는 '-르밖에', '-르수밖에'는 이러한 Meillet(1926)의 의미 변화 과정에 들어맞는 예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Meillet(1926)는 범언어적으로 주어진 단어가 나타나는 환경 변화에 의한 의미, 어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Taboo와 같이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점상의 변화와 차용에 의한 변화를 의미, 어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Ramat(1987:38)에서는 언어변화와 유형론의 관계에 대해 '유형론은 언어현상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식이고 언어 변화는 어떻게, 왜의 문제인데 유형론적 접근은 유형에 대한 귀납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Meillet(1926)의 귀납적인 설명은 바로 '밖에'의 문법화, 곧 언어 변화의 문제를 푸는 데 또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 5.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어유형론의 논의 주제 및 접근 방법은 국어학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다.<sup>24)</sup> Whaley(1997:8)에서는 언어유형론은 문법 이론이 아니며 범언어적인 패턴과 그 패턴들 간의 상호 관련을 확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유형론의 연구 방법론과 결과물들은 원칙적으로 어떤 문법 이론과도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언어유형론의 다양한 언어학 분야와의 접목 가능성을 말해준다. 주요 언어유형론 저서에서 다루는 언어 유형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야는 (한)국어 교육, 역사 언어학과 언어 습득 분야이고 나아가 언어 문서화, 기록화(language documentation) 및 기능 중심의 언어유형론적 관점과 대립되는 형식 문법(formal grammar)까지도 포괄한다.

23) '(부정)가능성'이라는 양태 의미는 한 집합을 반드시 부정하는 '필수성'으로 도출된 유일한 '가능성'인데 '가능성'과 '필수성'은 Lyons(1977:787)에서 주장한 양태의 두 가지 기본 논리(logic)이다. 즉, 양태의 대표적인 유형인 인식(epistemic) 양태는 세부적으로 추정(Speculative)과 추론(Deductive)으로 나뉘는데 추정(Speculative)은 불확실성 곧 가능성을 나타내고, 추론(Deductive)은 관찰할 수 있는 증거로부터 얻어지는 필수성을 나타낸다. 또한 의무(deontic) 양태는 세부적으로 허락(Permissive)과 강제(Obligatory)로 나뉘는데 이러한 바탕에도 역시 가능성과 필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르밖에, -르수밖에'는 '가능성', '필수성'이라는 양태의 핵심 논리를 모두 담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르밖에, -르수밖에'는 '가능성', '필수성'의 양태 논리를 내포하며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양태소로 볼 수 있다.

24) 다만 이 글을 쓰면서 필자가 생각한 언어유형론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위해 언어 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본 유형 선정과 '추상성/구체성'의 균형 문제와 관련된다. 둘째 광범위한 언어전문가와 협력하지 않는 이상 단일 저자의 언어유형론적 논의로는 비교 대상 언어가 지역적, 계통적 언어 표본에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언어유형론적 보편성이 국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자칫하면 이러한 언어유형론의 언어보편성(language universals)이 생성문법의 언어보편성처럼 또하나의 본유적 명제로 작용할 수 있어 생성문법이 가지는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항상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유의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영근(2012), “언어 유형론 노트 (1)”, 형태론 14-1, 형태론편집위원회, 91-105쪽.
- 권재일(1986),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15, 국어학회, 195-215쪽.
- 김건희(2003), “형용사의 주격중출 구문과 여격주어 구문에 대하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1-37쪽.
- 김건희(2008), “한국어 형용사와 비대격”, 인문논총 60,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7-235쪽.
- 김건희(2009), “‘밖에’의 의미와 형태-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04, 한국어문학회, 103-140쪽.
- 김건희(2010), “명령형 어미 ‘-어라’의 형용사 결합에 대하여”,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137-161쪽.
- 김건희(2012a), “부사절의 수식과 접속-종속 접속절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글 297, 한글학회, 161-203쪽.
- 김건희(2012b), “부사절과 관형사절의 수식”,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63-91쪽.
- 김건희(2013), “품사의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언어유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글 300, 한글학회, 75-118쪽.
- 김민국(2010),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131-162쪽.
- 김영희(1987),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 11, 국어연구소, 56-66쪽.
- 남기심·고영근(2006),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언어학 31, 한국언어학회, 71-100쪽.
- 민현식(2002),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10, 한국어의미학회, 227-250쪽.
- 박승윤(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57-70쪽.
-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115-147쪽.
- 손호민(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한글학회, 61-95쪽.
- 안주호(1996),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재훈(1995), “기능-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 17, 한국언어학회, 203-230쪽.
- 연재훈(1995),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241-275쪽.
- 연재훈(2012),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국어학 63, 국어학회, 413-457쪽.
- Abbi A.(1990), *Experiential Constructions and the Subjecthood of the Experiencer NPs' in South Asian Languages*, In Manindra K. verma and K.P. Mohanan (eds.), *Experiencer Subjects in South Asian Languages*, Stanford:CSLI.
- Artemis Alexiadou(1997), *Adverb Placement: A case study in anti-symmetric syntax*,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Bybee, J. L. and Pagliuca, William and Perkins, Revere D.(1990), *On the Asymmetries in the Affixation of Grammatical Material*, In Croft, W. et al.(eds.), *Studies in Typology and Diachrony: Papers Presented to Joseph H. Greenberg on his 75th Birthday*, Amsterdam: John Benjamins. 1-42.
- Comrie, B.(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Oxford:Blackwell.
- Croft, W.(1990), *Typological Classification*,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45.
- Croft, W.(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Croft, W.(2000), *Parts of speech as typological universals and as language particular categories*, In Vogel P. M. & Comrie, B. (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 Classes*, Berlin: Mouton de Gruyter, 65-102.
- Croft, W.(2006),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itio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k, Simon C.(1997),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I:The Structure of the Clause*, Berlin and New York, NY: Mouton de Gruyter.
- Dixon, R. M. W.(1977),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1. 19-80.
- Dixon, R. M. W.(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Dixon, R. M. W. & Alexandra Y. Aikhenwald(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49.
- Dowty, D.(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 Dryer, M. S.(1992), The Greenbergian Word Order Correlations, *Language* 68, 81-138.
- Givón, T.(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vol. 2.
- Greenberg, J. H.(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Universals of Language*, MIT Press: Cambridge, MA, 73-113.
- Haspelmath, M.(2008), Parametric versus functional explanations of syntactic universals. In Theresa Biberauer(ed.), *The limits of syntactic variation*, Amsterdam: Benjamins, 75-107.
- Hawkins, J. A.(1983), Greenberg's and Vennemann's Universals of Word Order, *Word order universals*, Academic Press:New York, 19-57.
- Hopper, P. J. & Thompson, S. A.(1984), The discourse basis for lexical categories in universal grammar, *Language* 60, 703-752.
- Jakobson, R.(1957),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Repr. in R. Jakobson, Selected Writings, vol. 2. *Word and Language*, The Hague: Mouton, 1971, 130-47.)
- Keenan, E. L. & Comrie, B.(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 Keenan, E. L.(1985), Relative Clauses, In Shopen, T.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Complex Constru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1-170.
- Kibrik, A. E.(2001), Subject-oriented vs. subjectless languages, In Haspelmath, M. et al.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An international handbook-*, Walter de Gruyter.
- Koktová, Eva(1969), Word order and typology, In Palek, B. (ed.), *Typology: prototypes, item orderings and universals*, Charles University Press, 405-420.
- Lehmann, W. P.(1973), A structural Principle of Language and its implications, *Language* 49, 47-66.
- Lyons, J.(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illet, A.(1926)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énérale*, 2d ed. Vol. 1. Champion, Paris.
- Ramat, P.(1987), *Linguistic typology*, Mouton de Gruyter: Berlin.
- Rhee Seong-ha(1996), Grammaticalization of Korean placement verbs, *The SECOL Review* 21-2, 141-182.
- Sadock, J. M. & Zwicky, Arnold M.(1985), Speech Acts Distinctions in Syntax, In Shopen,

- Timothy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5-196.
- Sapir, E.(1921), *Types of Linguistic Structure, Language: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20-146.
- Sgall, P.(1984), On the notion of Type of Language, In Sgall, P.(eds.), *Contributions to functional syntax, semantics, and language comprehension*, John Benjamins:Amsterdam, 19-38.
- Silverstein, M.(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In R.M.W. Dixon (ed.)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12-171.
- Sohn Ho-Min(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Jae-Jung(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Pearson Education.(김기혁 옮김.(2009), 『언어유형론-형태론과 통사론』, 서울:보고사.)
- Song Jae-Jung(2005), *The Korean language: structure, use and context*,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ong Jae-Jung(ed.)(2011),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Steele, S.(1978), Word order variation: a typological study, In Greenberg, J. H. (eds.),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585-623.
- Vennemann, T.(1974), Theoretical Word Order Studies: Result and Problems, *Papere zur Linguistik* 7, 5-25.
- Vogel P. M. & Comrie, B.(eds.)(2000), *Approaches to the Typology*, Vol. 23. Berlin: Walter de Gruyter.
- Washio, R.(1995), *Interpreting Voice: A case study in lexical semantics*, Tokyo: kaitakusha.
- Wetzer, H.(1992), “Nouny” and “Verby” adjectivals: a typology of predicative adjectival constructions. In Kefer, M. and J. Van der Auwera(eds.), *Meaning and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223-262.
- Whaley, L. J.(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김기혁 옮김. (2008), 『언어 유형론』, 소통.)
- Yeon Jae-hoon(1996),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 on case-marking deviations, *Discourse and Cognition* 2, 147-175.

## ▣ 토 론

# “국어 문법 설명에 반영되는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 -비교, 기능, 의미·화용론적 분석-”에 대한 토론문

임근석(국민대)

발표 원고는 언어유형론의 발전 단계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주요 연구와 언어 유형론의 핵심 기제를 설명한 후, 실제로 유형론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국어 문법 현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언어유형론에 대한 압축적 소개와 국어학 연구에서 유형론 연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토론자 역시 매우 흥미롭게 발표자의 원고를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을지 조금 난감한 점이 있었다. 2장과 3장은 언어유형론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고 4장은 주로 발표자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언어유형론 연구가 국어 문법 연구에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각론 위주의 구체적인 물음을 드리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거칠고 피상적인 물음을 몇 개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제목의 ‘문법 설명에 반영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언어유형론의 연구 방법론이 국어 문법 설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인가? 부연 설명을 부탁 드린다.

둘째, 발표자는 언어유형론의 핵심 기제를 ‘비교, 기능, 의미·화용적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언어유형론의 연구 방법론이 ‘언어 비교’와 ‘기능주의적 태도’, ‘의미·화용적 특성’을 중시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언어 비교’, ‘기능주의적 태도’, ‘의미·화용적 특성의 중시’ 등은 언어유형론만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연구 방법론이라는 점이다. 발표자의 보충 답변을 부탁 드린다.

셋째, 유형론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비교의 도구인 언어학적 범주와 개념이 학자들 사이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일 터인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에서 형용사의 범주를 한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혹은 의미적 기준이었다면 범주 경계를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린다.

넷째, (22)의 문장에 대한 적절성 판단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듯하다. 특히 (22가a)는 토론자에게 매우 어색하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외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자료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자료를 사용하거나 잘못 분석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론 연구 논저들이 있음)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섯째, 언어유형론의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세계 언어학계에서 언어유형론 연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국어학계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

#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지역유형론에 초점을 맞추어-

박진호(서울대)

## < 차례 >

1. 소위 (우랄-)알타이 제어의 공통 특징
  2. 어순과 관련된 특징: 優性(dominance)과 조화(harmony)
  3. 유라시아 거대 언어 지역과 환태평양 거대 언어 지역
  4. 맺는 말
- 참고문헌

## 1. 소위 (우랄-)알타이 제어의 공통 특징<sup>1)</sup>

인도-유럽 제어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연구가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후,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인도-유럽 제어 이외의 언어들에도 눈을 돌려 이 언어들 사이의 친족관계를 밝히고 어족을 설정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의 드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많은 언어들 중 하나의 어족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 대규모 어족을 처음에는 투란(Turanian) 어족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우랄-알타이 어족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소위 우랄-알타이 제어가 하나의 어족에 속한다고 생각한 데에는, 인도-유럽 제어에 적용되었던 비교 방법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훨씬 막연한 차원의 공통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위 우랄-알타이 제어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특징이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Wiedemann (1838)

- ① 모음조화
- ② 문법적 성(gender)의 결여
- ③ 관사의 결여
- ④ 교착적 형태법(agglutimative morphology)
- ⑤ 소유인칭접사에 의한 명사의 어미변화
- ⑥ 풍부한 동사 파생 접사
- ⑦ 전치사 대신 후치사 사용
- ⑧ 수식어를 핵 명사 앞에 둠
- ⑨ 수사 뒤에 오는 명사가 항상 단수형임

1) 이 절의 내용은 松本克己(2007)의 제3장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 ⑩ 비교 기준을 탈격으로 표시
- ⑪ 소유동사의 결여
- ⑫ 부정동사에 의한 부정표현
- ⑬ 의문문 전용의 조사
- ⑭ (접속사 대신에) 풍부한 동명사, 부동사의 사용

이러한 우랄-알타이어의 공통 특징을 일본어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도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식의 논의가 Boller (1854), Aston (1877), Winkler (1884) 등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후지오카 쇼지(藤岡勝二, 1872-1935)라는 일본인 언어학자는 1901년~1905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東京帝國大學 교수로 취임한 뒤 1908년 ‘日本語の位置’라는 제목의 강연을 행하였는데, 여기서 일본어와 우랄-알타이어의 공통 특징으로서 다음의 14가지를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유럽 학자들의 우랄-알타이어 공통 특질론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일본어는 이 14개 특징 중 ③모음조화만 결여하고,<sup>2)</sup> 나머지 13개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藤岡(1908)

- ① 어두에 자음군이 오지 않는다.
- ② 어두에 r음이 오지 않는다.
- ③ 모음조화가 있다.
- ④ 관사가 없다.
- ⑤ 문법상의 성이 없다.
- ⑥ 동사의 활용이 오로지 접미사의 접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⑦ 그러한 접미사의 종류가 많다.
- ⑧ 대명사의 변화가 인구어와 다르다.
- ⑨ 전치사가 없고 후치사를 사용한다.
- ⑩ ‘have’에 상당하는 단어가 없고 ‘있다’에 의해 소유를 나타낸다.
- ⑪ 비교구문에서, 탈격 또는 그에 준하는 후치사를 사용한다.
- ⑫ 의문문에서 어순이 변하지 않는다. 의문의 표지가 문말에 온다.
- ⑬ 접속사의 사용이 적다.
- ⑭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온다.

그 뒤 우랄-알타이 어족을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으로 나누는 견해가 일반화되었는데, 우랄-알타이어 공통 특질론은 알타이어 공통 특질론으로 계승되었다[हतोरी 시로(服部史郎)(1958), 이기문(1972)].

(3) 服部(1958: 157ff)

- ① 어두에 자음군이 오지 않는다.
- ② 어두에 /r/이 오지 않는다.
- ③ 모음조화가 있다.
- ④ 단어의 형태가 2음절 이상인 것이 많다.

2) 일본어에서도 上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음조화의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 ⑤ 접미사, 어미, 접미부속어, 후치사를 많이 사용하고, 전치사가 없다.
- ⑥ 주어가 술어의 앞에 오고, 술어만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⑦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온다.
- ⑧ 보어나 목적어가 자신을 지배하는 동사의 앞에 온다.
- ⑨ 동사의 어간이 활용어미를 취하여, 여러 가지 연체형·연용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주어·객어·보어를 취하여 복문이 만들어진다.
- ⑩ 인구어의 관계대명사가 없다.

위의 (1)-(3)은 현대 언어유형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언어의 계통 분류의 근거로는 삼을 수 없는 특징들이다. 당시에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어떤 성질이 세계 언어들 가운데 흔한지 드문지에 대한 판단이 주로 유럽 언어들에 바탕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럽어들 가운데 흔한 성질이면 세계 언어 전체에서도 흔하고, 유럽어들 가운데 드문 성질이면 세계 언어 전체에서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의 (1)-(3)은 대체로 유럽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성질들이다. 유럽어와는 판이하게 다른 특징들을 유라시아의 많은 언어들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당시 유럽 학자들 눈에 심상치 않은 일로 비쳐졌고, 이들 언어가 동일 계통에 속할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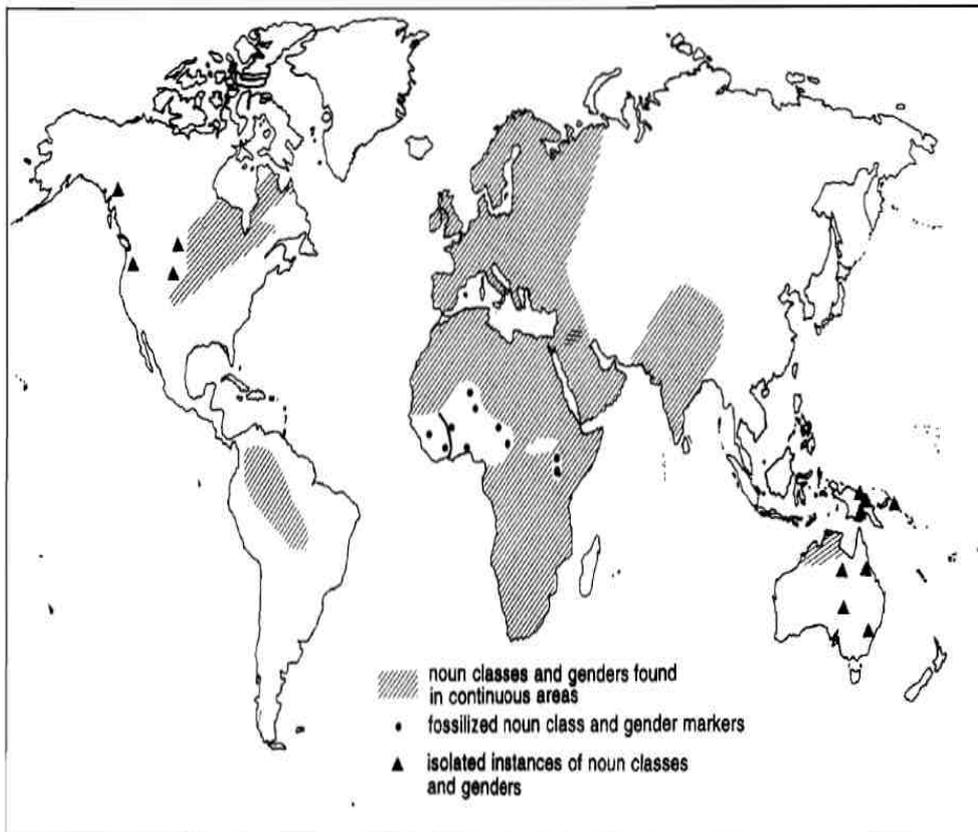
그러나 현대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1)-(3)에 나열된 성질 대다수가 별로 특이할 것이 없는 일반적 성질이다.

① 어두자음군: 어두(word-initial) 또는 음절초(syllable-initial) 위치에서 하나의 자음만 허용하는 언어가 자음군을 허용하는 언어들보다 훨씬 많다.

② 어두의 r음: 한국어, 일본어에는 유음 음소가 하나뿐인 데 반해, 우랄-알타이 제어에는 l과 r과의 두 유음 음소가 있다. 우랄-알타이 제어 가운데 r음이 어두에 올 수 있는 언어들도 있고, 유음의 어두 제약이 있는 언어에서도 어두에 올 수 없는 것은 두 유음 음소 중 r이다. 그런데 유음 음소를 둘 가지면서 r이 어두에 올 수 없는 언어는 우랄-알타이어 외의 다른 언어에도 매우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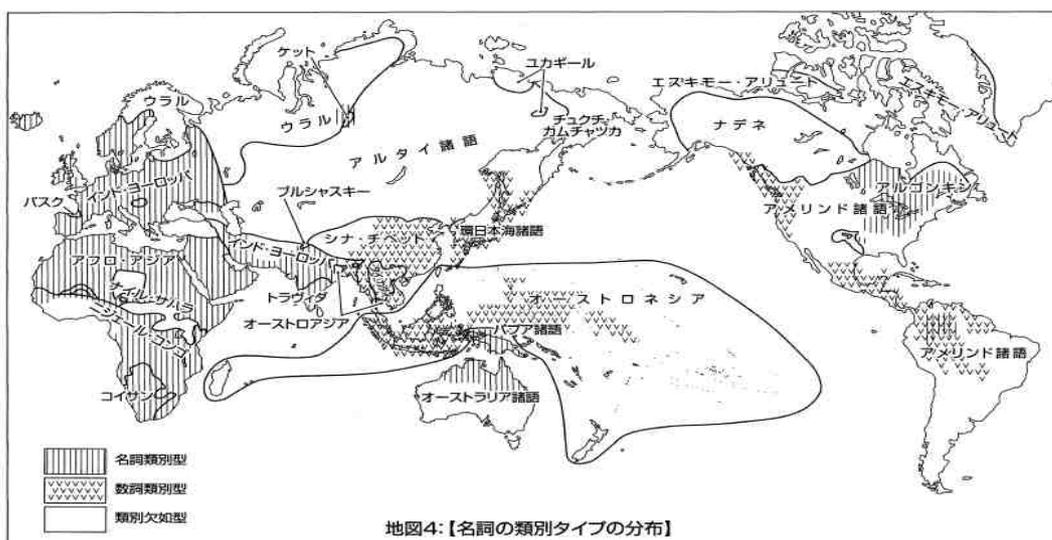
③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우랄-알타이어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 여러 어족에서 널리 발견된다. 모음조화의 유무보다는 모음조화가 어떤 유형인가가 더 중요하다.

④ 性: 성(gender)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우랄-알타이어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매우 많다. 성이 존재하는 언어는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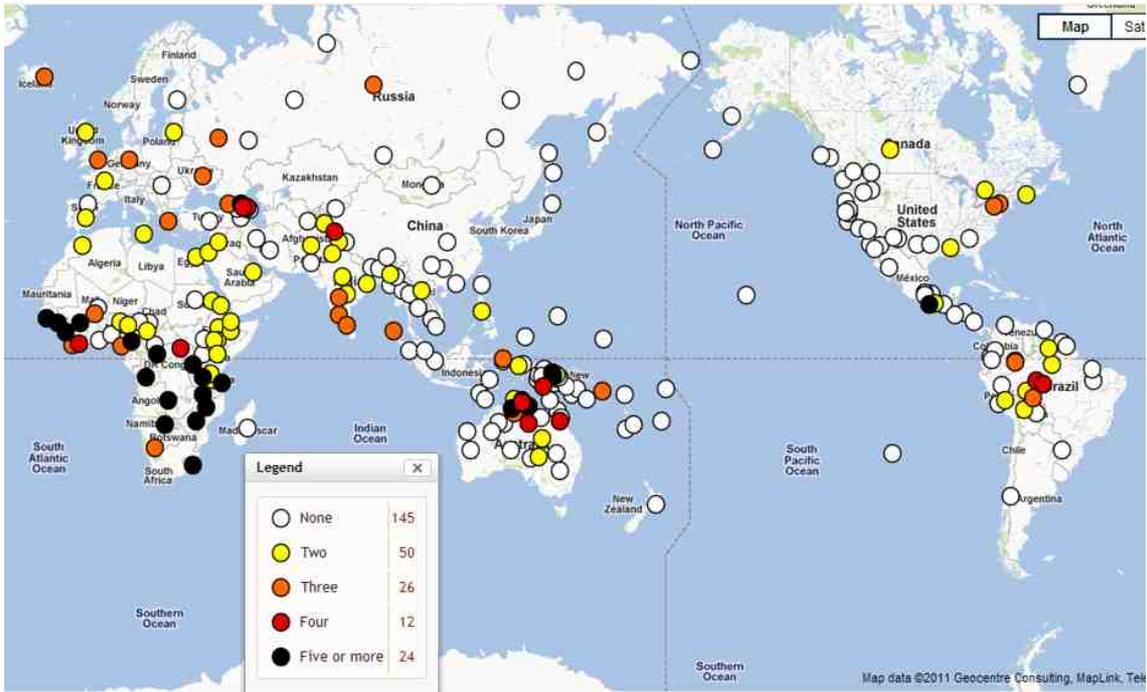
MAP 1. Distribution of noun classes and genders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그림 1> 성(명사부류)가 존재하는 언어의 분포: Aikhenvald (200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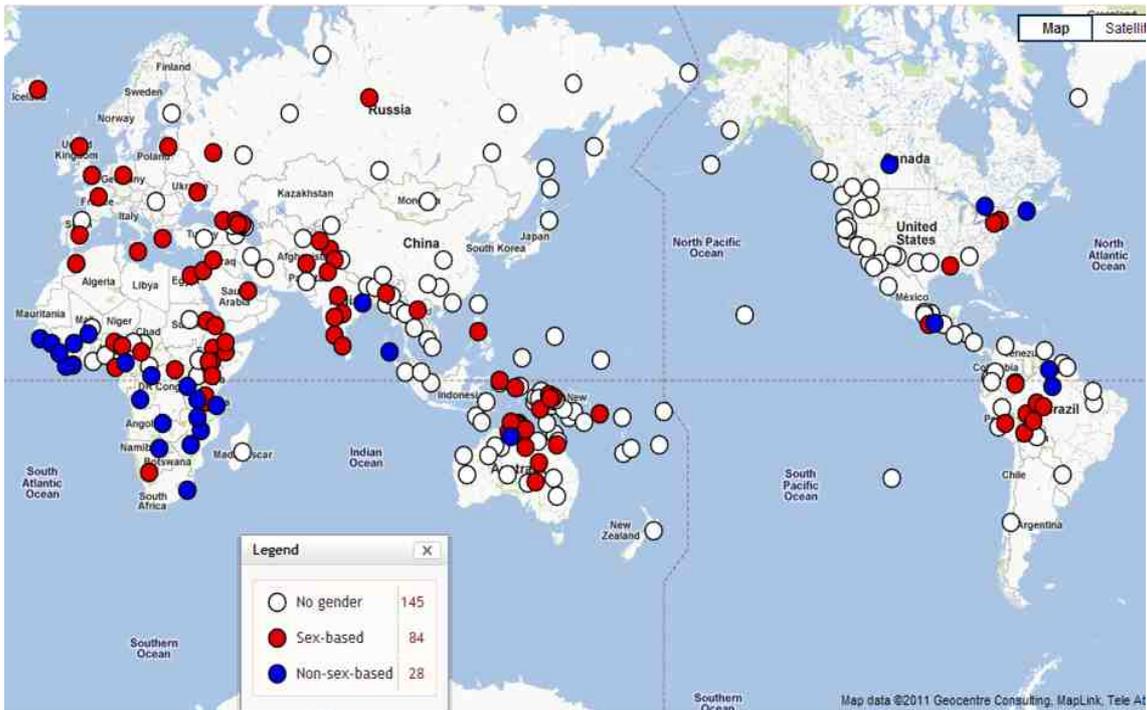


地図4: [名詞の類別タイプの分布]

<그림 2> 명사부류가 존재하는 언어(세로줄)와 수 분류사가 존재하는 언어(∨)의 분포: 松本克己(2007: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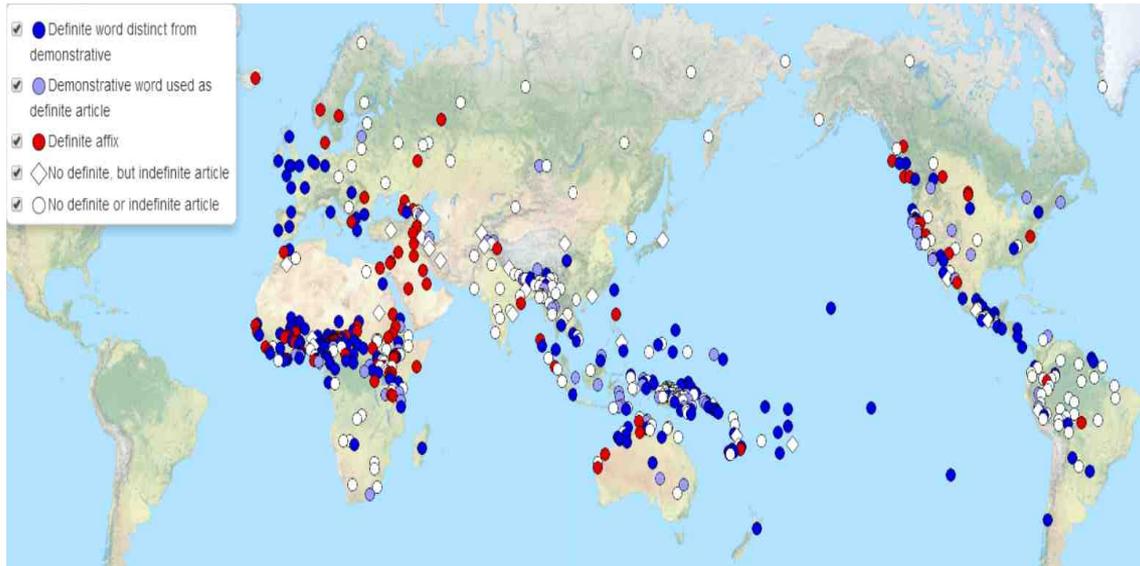
<그림 3> 성(명사부류)의 수: WALS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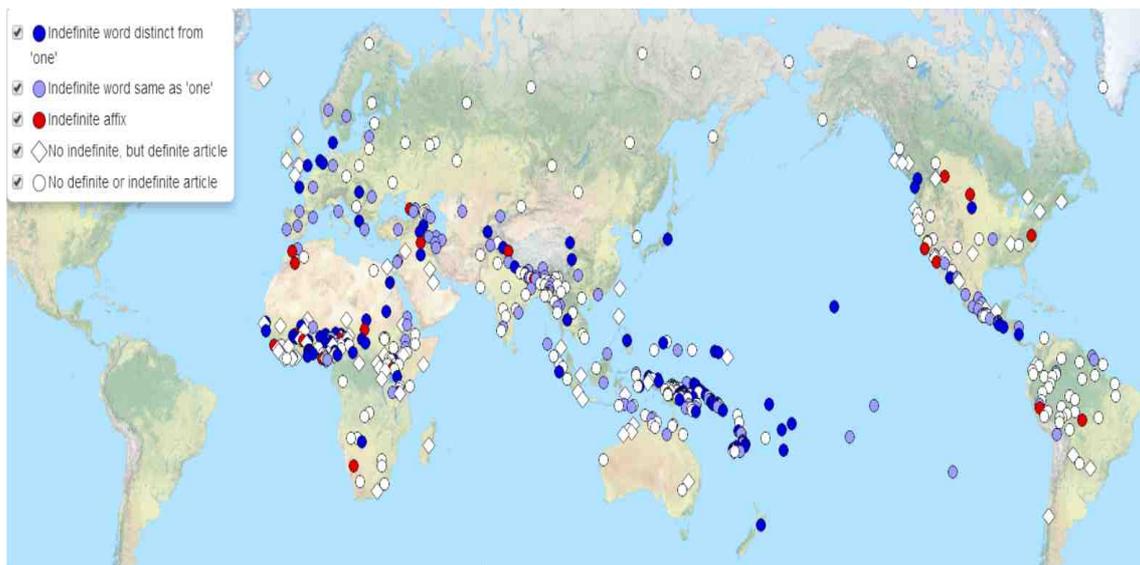
<그림 4> sex-기반 성과 非sex-기반 성: WALS 31

⑤ 관사: 단순한 지시사와 구별되는 관사를 따로 갖는 언어도 많이 있지만, 지시사와 구별되는 관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도 많이 있다. 더구나 한정 관사(definite article)와 비한정 관사(indefinite article) 양쪽을 다 갖는 언어는 유럽 지역을 벗어나면 드문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정 관사와 비한정 관사 양쪽을 외현적인 표지로 나타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둘 중 한정 관사 하나만 외현적 표지로 나타내고, 그 외현적 표지가 안 나타나면 비한정으로 해석되는 식의 체계가 훨씬 경제적이고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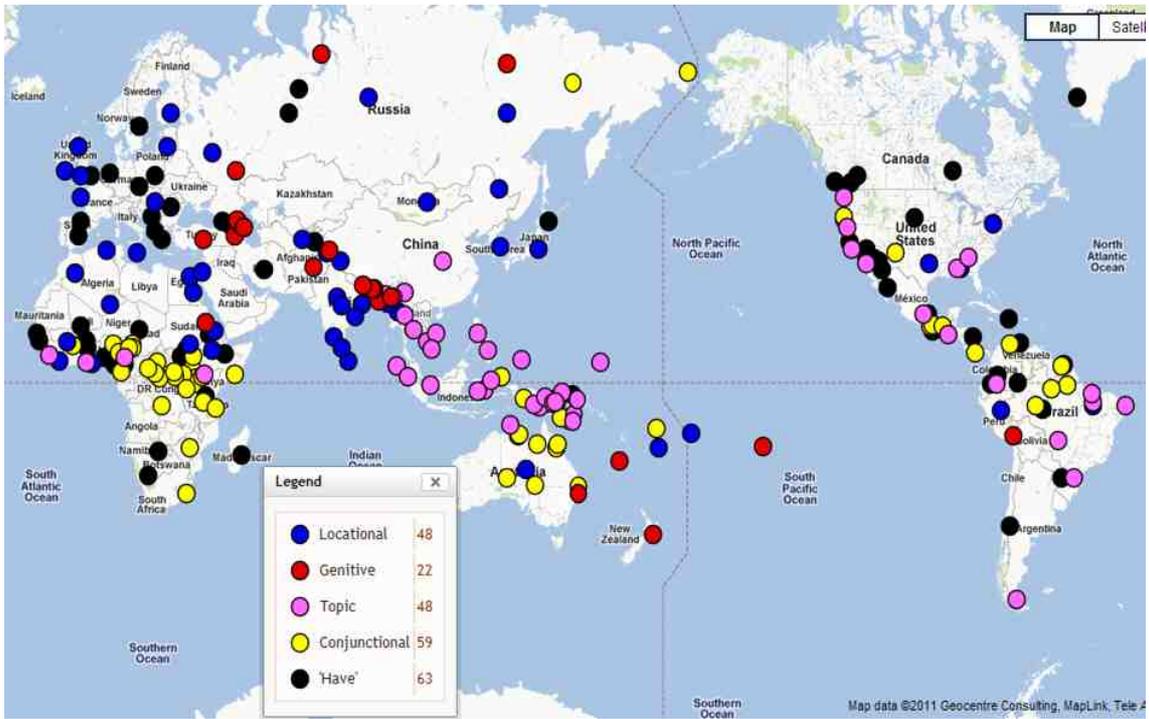
<그림 5> 한정 관사: WALS 37



<그림 6> 비한정 관사: WALS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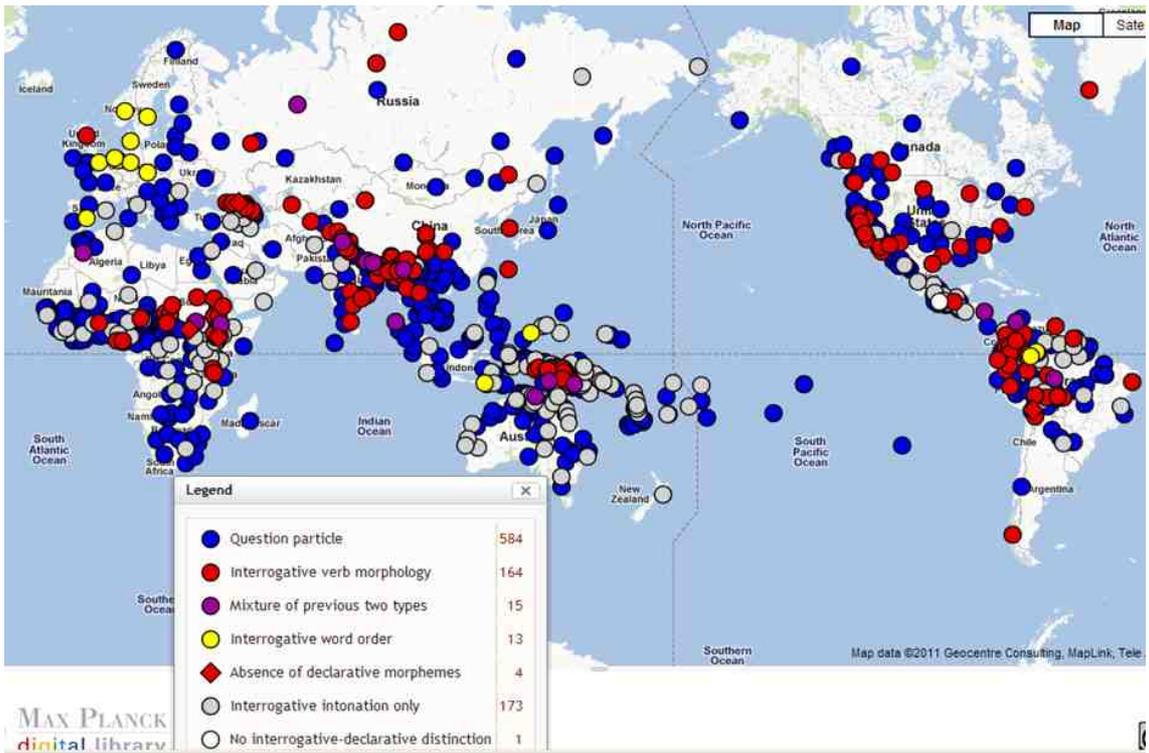
⑥ 접미사에 의한 교착적 형태법: 굴절어, 고립어뿐 아니라 교착어도 세계 언어들 가운데 매우 일반적이며, 교착적인 문법 표지는 접두사보다는 접미사 쪽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따라서 접미사에 의한 교착적 형태법은 morphological typology에서 default에 가까운 성질이다.

⑦ 소유 구문: 서술적 소유(predicative possession)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have' 같은 타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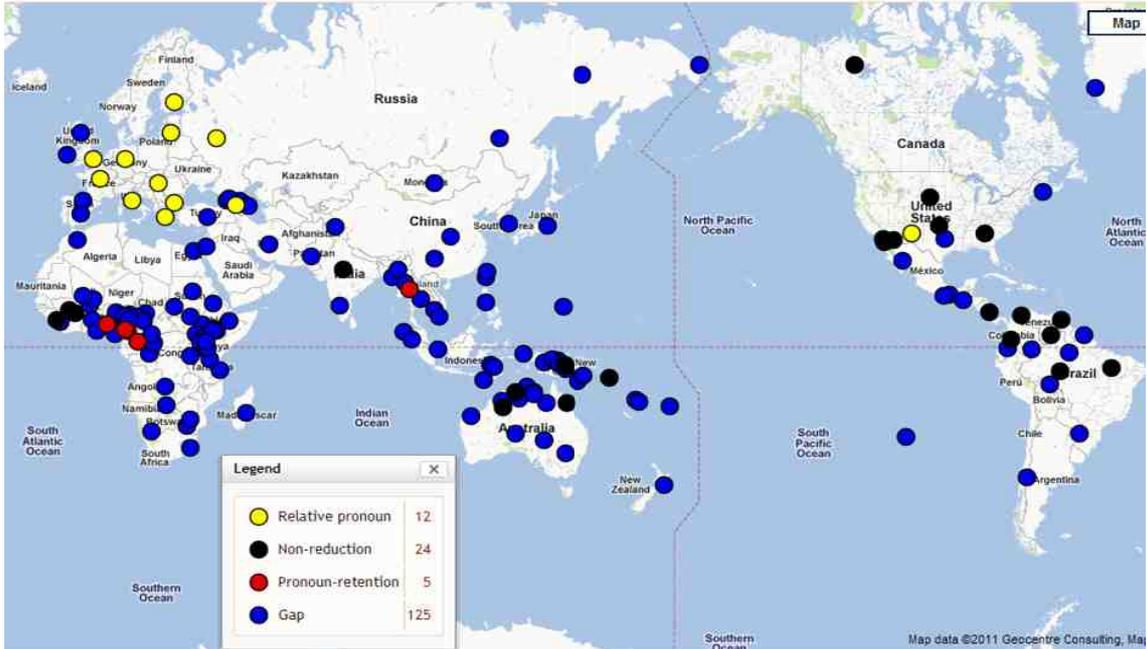
<그림 7> 서술적 소유 구문: WALS 117

⑧ 의문문: 평서문으로부터 의문문을 만들 때 어순의 변경을 주된 표지로 사용하는 언어는, 유럽 지역을 벗어나면 매우 드물다. 오히려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의문 첨사(question particle)를 사용하는 언어가 훨씬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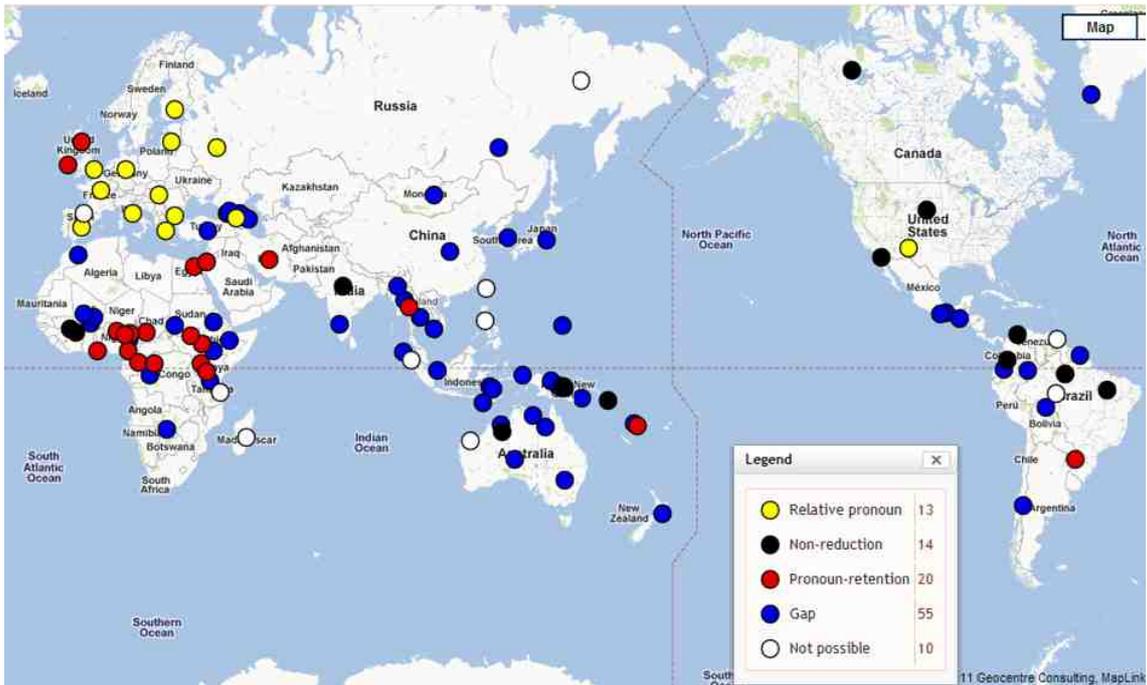


<그림 8> 판정 의문(polar question): WALS 116

⑨ 접속사, 관계대명사의 결여: 절과 절을 접속할 때 접속사를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종속절 술어의 활용형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다. 관계절 형성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유럽어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유럽을 벗어나면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 관계절 술어의 활용형(예컨대 분사(participle))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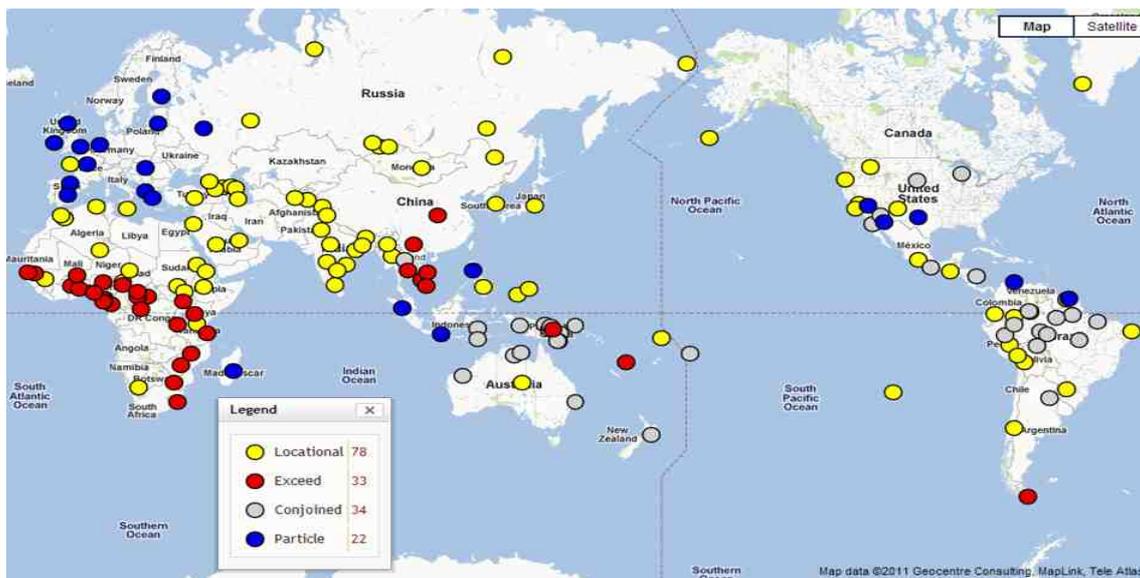


<그림 9> 주어의 관계화 방식: WALS 122



<그림 10> 사격어(oblique)의 관계화 방식: WALS 123

⑩ 비교 구문: 비교 구문에서 비교 기준(standard of comparison)에 처소 관련 격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 중 탈격을 사용하는 것이 또한 매우 일반적이다.



<그림 11> 비교 구문: WALS 121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언어의 계통적 분류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어떤 하나의 언어 또는 일군의 언어들이 지닌 성질이 주목할 만큼 충분히 특이한 성질, 범언어적으로 드문 성질인지, 아니면 세계 언어들 가운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질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일반적인 성질을 드문 성질이라고 오인하여, 이로부터 어떤 추론을 도출한다면 그 추론의 결론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일군의 언어들이 어떤 특징들의 묶음을 공유할 때, 이는 이들 언어가 하나의 조상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언어들끼리 서로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생긴 것일 수도 있다. 최근의 지역 유형론(areal typology)의 연구 성과는 후자의 요인으로 인해 생긴 언어간의 공통성이 매우 빈번하게 체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나타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어가 지닌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어순과 관련된 특징: 優性(dominance)과 조화(harmony)

위의 (1)-(3)에도 어순과 관련된 특징이 여럿 언급되어 있는데, 소위 (우랄-)알타이 제어 공통 특징론에서 지적된 어순과 관련된 특징 역시 (우랄-)알타이 제어만의 특징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1)-(3)에서는 표면적인 어순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어순과 관련하여 표면 현상뿐 아니라 보다 더 심층적인 패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S(주어), O(목적어), V(동사)가 형성하는 소위 기본 어순(basic word order)에 대해 일찍이 Greenberg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S와 O와 V가 형성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6개의 어순이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SOV와 SVO가 가장 우세해서 이 둘을 합하면 90% 가까이 되고 VSO가 10% 정도 되고, VOS, OSV, OVS는

극도로 드물고 매우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여러 어순 현상들 사이의 상관관계도 발견되었는데, V-O, Prep-N, N-Rel이 서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반대로 O-V, N-Postp, Rel-N이 서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Hawkins는 이러한 어순간의 상관관계에 더욱 주목하여, 특히 명사구 내에서 핵 명사와 그 수식어들이 보이는 어순을 연구하였다. 지시사(Dem), 수사(Num), 형용사(Adj), 속격어(G), 관계절(Rel) 이렇게 5가지 수식어가 핵 명사 앞에 놓이는지 뒤에 놓이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2^5=32$ 가지이지만, 전치사 언어에서 실제로는 7가지만 나타났다.

<표 1> 명사 및 그 수식어들의 순서

연번	Dem과 N의 어순	Num과 N의 어순	A와 N의 어순	G와 N의 어순	Rel과 N의 어순
①	NDem	NNum	NA	NG	NRel
②	DemN	NNum	NA	NG	NRel
③	NDem	NumN	NA	NG	NRel
④	DemN	NumN	NA	NG	NRel
⑤	DemN	NumN	AN	NG	NRel
⑥	DemN	NumN	AN	GN	NRel
⑦	DemN	NumN	AN	GN	RelN

위의 표에서 배경이 회색인 칸은 수식어가 핵 명사 앞에 오는 어순이고 나머지는 수식어가 핵 명사 뒤에 오는 어순이다. 언어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①에서 ⑦로 갈수록 대체로 수식어들이 핵 명사 앞에 오는 경향이 강하고 ⑦에서 ①로 갈수록 수식어들이 핵 명사 뒤에 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수식어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 명사 뒤에 오는 경향이 강하다. Hawkins는 이것을 Heaviness Serialization Principle이라고 불렀는데, 가벼운 수식어일수록 핵 명사 앞에 놓이는 경향이 있고 무거운 수식어일수록 핵 명사 뒤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수식어의 heaviness는 Rel > G > A > {Dem, Num}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sup>3)</sup>

Greenberg는 어순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과정에서 일찍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제안했다. 우성(優性, dominance)와 조화(harmony)가 바로 그것이다. 어순상의 두 가능성 중 대개 하나는 우성(dominant)이고 다른 하나는 열성(recessive)이다. 예컨대, N-Rel 어순과 Rel-N 어순 중에서는 전자가 우성이다. 즉, 세계 모든 언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계절은 핵 명사 앞에 오는 것보다는 뒤에 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조화는 한 언어 내에서 둘 이상의 어순 현상이 서로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V-O, Prep-N, N-Rel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 명사 수식어들도 일관되게 핵 명사 앞에 오거나 일관되게 핵 명사 뒤에 온다면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dominance가 범언어적 경향성이라면, harmony는 한 언어 내에서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dominance는 유표성(markedness)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dominance와 harmony는 각 언어의 어순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 두 힘이 같은 결과를 낳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어순이 실현된다. 예컨대 영어는 V-O, Prep-N의 어순을 보

3) 지시사(Dem)와 수사(Num) 사이에는 heaviness의 순서를 따지기 어렵다.

이므로 관계절이 핵 명사 뒤에 오는 것이 언어 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어순이자, 범언어적으로도 그것이 우성인 어순이므로, 영어에서는 관계절이 핵 명사 뒤에 오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dominance와 harmony 양쪽 다 여기는 어순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영어에서 관계절이 핵 명사 앞에 오는 어순은 영어 내적 조화에도 어긋나고 범언어적 경향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런 어순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ominance와 harmony가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는 언어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한국어는 O-V, N-Postp, Dem-N, Num-N, A-N, G-N의 어순을 보이므로 관계절도 핵 명사 앞에 오는 것이 한국어 내적 조화에 부합된다. 반면에 범언어적 dominance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절이 핵 명사 뒤에 오는 것이 우성이다. 즉 한국어에서 관계절은 핵 명사 앞에 오라는 harmony 측의 압력과 핵 명사 뒤에 오라는 dominance 측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 한국어는 harmony 측의 압력이 더 세서 관계절이 핵 명사 앞에 온다. 러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Evenki어도 한국어와 사정이 비슷하나, 이 언어의 관계절의 경우에는 harmony보다 dominance가 더 큰 힘을 발휘하여 관계절이 핵 명사 뒤에 온다.<sup>4)</sup>

dominance와 harmony 개념은 어순 현상뿐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언어 현상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평순모음과 원순모음 중 어느 것이 우성인가? 후설모음의 경우 원순모음이 우성이고, 전설모음의 경우 평순모음이 우성이다. 어떤 언어는 평순 대 원순의 대립을 후설 및 전설에서 일관되게 갖는다. 이 언어는 harmony의 힘이 강해서 전설에서 원순모음을 회피하는 dominance를 압도한 것이다. 한편 전설에서는 평순모음만 갖고 후설에서는 원순모음만 갖는 언어도 있다. 이 언어는 dominance가 harmony를 압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설에는 원순모음만 있고 후설에는 평순모음만 있는 언어는 없거나 매우 드물 것이다. 이런 언어는 harmony와 dominance 둘 다 여기기 때문이다.

구강 모음(oral vowel)과 비모음(nasal vowel) 둘 중에서는 물론 구강 모음이 우성이다. 비모음을 갖더라도 폐모음(closed vowel)보다는 개모음(open vowel)에서 갖기가 더 쉽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경우 개모음에서만 비모음을 갖는다. 이는 모든 위치에서 일관되게 비모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harmony를 희생하면서, 비모음이 개모음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dominance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남아메리카 Tucanoan 어족의 Cubeo어는 개모음 e, a, o뿐 아니라 폐모음 i, i, u도 그에 대응하는 비모음을 가진다. Cubeo는 폐모음에서 비모음을 회피한다는 dominance를 희생하면서, 모든 위치에서 일관되게 비모음을 갖는다는 harmony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개모음에서는 구강 모음만 있으면서 폐모음에서 구강 모음과 비모음의 짝을 지니고 있는 언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언어는 dominance와 harmony 둘 다 여기기 때문이다.

dominance와 harmony는 언뜻 이상하게 보이는 언어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때,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도움이 된다. ‘한 언어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데 왜 이 경우에만 유독 저런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흔히 범언어적인 dominance 때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각 조음위치별로 폐쇄음과 비음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p-m, t-n, k-n) 왜 유독 어두에서는 n만 안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는 범언어적으로 어두 위치에서 n이 열성이다/유표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반면에, ‘범언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일반적인데, 왜 유독 이 언어에서만 저런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흔히 그 언어 내부의 harmony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범언어적으로 관계절은 핵 명사 뒤에 오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어에서는 왜 뒤에 오는가?’라는 질문에는 한국어에서 일관되게

4) 여기에는 러시아어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핵이 뒤에 오는 harmony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다.

dominance와 harmony는 통시적 언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언어가 특정 harmony의 힘이 매우 강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 경우에 범언어적인 dominance 또한 매우 강하다면, harmony가 dominance에 굴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한국어는 핵이 뒤에 오는 harmony가 강해서 관계절마저도 핵 명사 앞에 오지만, 핵 명사 뒤에 오는 관계절도 점차 생겨나 쓰이고 있다. 즉, ‘[길에서 파는] 떡볶이’가 한국어의 harmony에 충실한 pre-head 관계절이라면, ‘떡볶이 [길에서 파는 거]’는 범언어적 dominance에 충실한 post-head 관계절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관계절이 새로 생겨서 구어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harmony의 틈새를 비집고 dominance가 반짝 힘을 발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범언어적으로 특정 dominance의 힘이 강하여 특정 언어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언어에서 이에 반하는 harmony의 힘이 그에 못지않게 강하다면, dominance를 굴복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男性-女性의 性(gender) 구분은 有情 명사에만 적용되고 無情 명사에는 적용 안 되거나 中性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라틴어에는 男性-女性-中性의 세 gender가 있었다. 그런데 현대 프랑스로 오면서 중성 gender를 상실하여, 모든 명사에 대해 男性-女性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無情 명사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두 gender 중 하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무정 명사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을 회피한다는 dominance의 힘을 누르고 모든 명사에 대해 일관되게 성 할당을 한다는 harmony가 승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dominance와 harmony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의 어순 현상을 보면,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 단순히 설명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가망이 별로 없고,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의미적 요인, 화용적(특히 정보구조상의) 요인, (화용적 요인의 하위범주라고 볼 수도 있는) 처리(processing) 관련 요인, 통사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 (4)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적 요인

##### ① 도상성

ㄱ. 의미상 서로 밀접히 관련된 성분들은 가까이 놓아라. (예: 수식어와 피수식어)

ㄴ. 시간적 순서, 인과적 순서에 따라 성분을 배열하라. (예: 원인-결과)

ㄷ. relator는 relatum들 사이에 놓아라.

(예: 부치사는 논항과 술어 사이. V-Prep-N, N-Postp-V)

##### ② 유정성 위계(animacy hierarchy): 유정성이 높은 것을 낮은 것 앞에 놓아라.

#### (5)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 관련 요인

##### ① 청자의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처리하기 쉽게 배열하라.

ㄱ. 무거운(heavy) 성분이 문장 중간에 삽입되는 것을 피하라.

예: 관계절 외치

I was reading a book in the room [which was written by a friend of mine].

ㄴ. center-embedding을 피하라.

예: [[[철수가 바보라고] 영희가 얘기했다고] 영수가 所聞을 퍼뜨렸다고] 창수가 떠벌렸다.

cf. 창수가 [영수가 [영희가 [철수가 바보라고] 얘기했다고] 所聞을 퍼뜨렸다고] 떠벌렸다.

② 경제성

ㄱ. 복원 가능한(recoverable) 성분은 생략하라.

ㄴ. 후보층: 문장 성분을 생략했다가, 청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청자가 생략된 성분을 identify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생략했던 성분을 뒤에 첨가하라.

예: 어디 갔니? …… 철수(말이야).

(6)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구조 관련 요인: 구정보(given/old information)와 신정보(new information)가 잘 구별될 수 있도록 배열하라.

① 구정보는 대개 신정보보다 앞에 놓아라.

예: 철수야, 내 책 어디에 두었니? / 영희가 내 책상에 무엇을 두었니?

② 초점 성분을 위해 특별한 위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초점을 그 자리에 놓아라.

예: 헝가리어, 한국어: 서술어 바로 앞, 영어: 의문사를 문두로 보냄.

(7) 통사적 요인

① 논항의 문법역할(grammatical role)을 어순으로 나타내는 문법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에 따라 배열하라.

예: 영어, 중국어: 주어는 동사 앞, 목적어는 동사 뒤

② 특정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구문을 사용해야 하고, 그 구문이 특정 어순을 요구하는 경우, 그 구문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배열하라.

예: 영어 수여 동사의 경우, 수령자(recipient)가 대상(theme)을 소유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수여 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ditransitive 구문(4형식)을 사용하라.  
(R-T)

③ 핵 위치 일관성: 핵과 비핵의 순서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하라.

④ 분지(branching) 구조 일관성: 좌분지 구조, 우분지 구조를 가능한 한 일관되게 하라.

위의 (4)-(7)에 나열된 요인들은 범언어적 dominance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여러 dominance들은 물론 거기에 harmony까지 함께 고려하여 어순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요인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인지는 언어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다. 관계절과 그 수식을 받는 핵 명사는 (4) 의미적 요인의 ①도상성(ㄱ)을 고려하면 서로 붙어 있는 게 좋지만, (5) 처리 요인 ①(ㄱ)을 고려하면 관계절을 문장 끝으로 위치시키는 게 좋다.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는 수여 사건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인과적/시간적 순서를 고려하면 ‘철수가 책을 영희에게 주었다’와 같이 배열하는 게 좋지만, 유정성 위계를 고려하면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와 같이 배열하는 게 좋다. ‘철수가 영희에게는 소설책을, 영수에게는 사전을 주었다’에서는 구정보인 ‘영희’와 ‘영수’를 앞에 놓고 신정보인 ‘소설책’과 ‘사전’을 뒤에 놓음으로써 정보구조 요인을 중시한 경우이다.

위의 여러 요인들 중 어느 것이 더 힘이 강한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어나 중국어는 (7) 통사적 요인의 힘이 강하여, 주어는 대개 동사 앞에, 목적어는 대개 동사 뒤에 놓이며, 이로부터 이탈할 때 매우 강한 동기가 있어야만 여기서 벗어난 어순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나 일본어는 정보구조의 요인이 매우 강하여, 술어는 대개 문말에 오지만, 술어 이외의 성분들은 대체로 구정보를 앞에, 신정보를 뒤에 둔다는 원리에 따라 배열된다. 통사적 요인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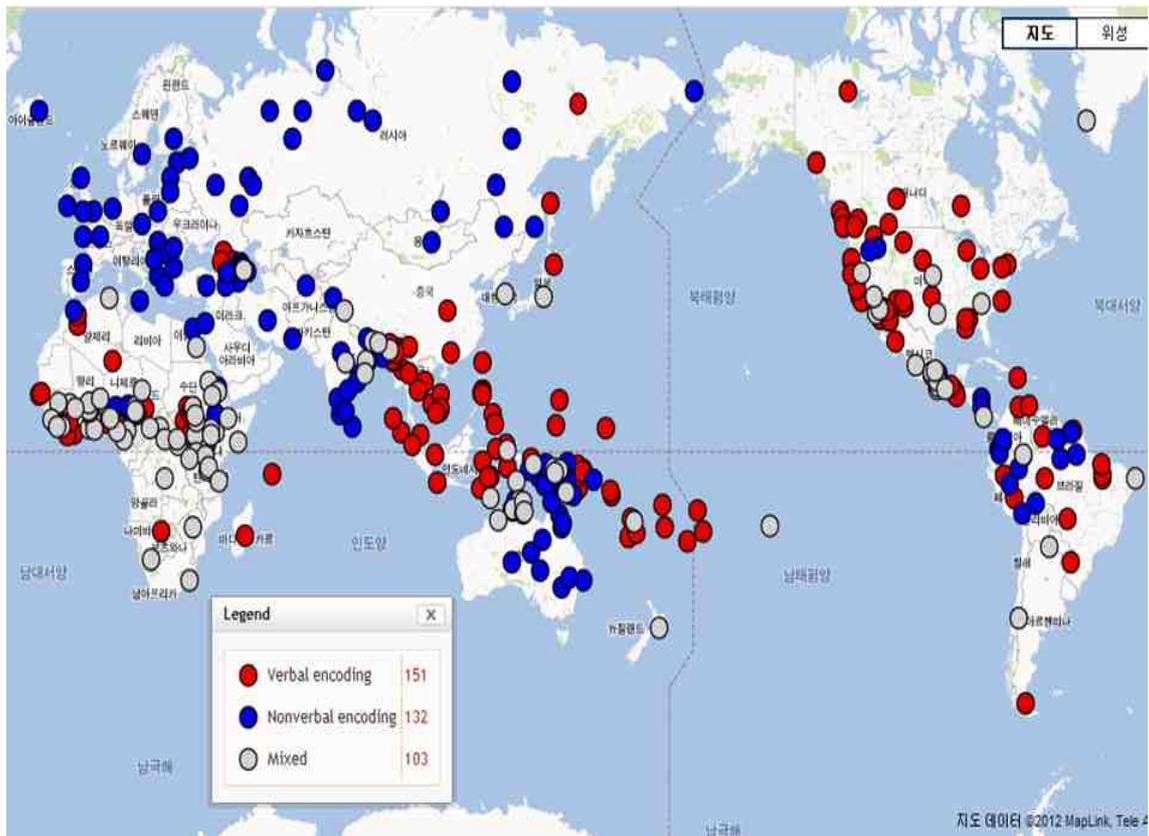
정보구조의 요인에 비하면 의미적 요인은 모든 언어에서 비교적 꾸준히 underlying force로서 작용하는 편인 듯하다. 그래도 중국어는 시간적/인과적 순서가 어순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편이다.

또한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힘의 상대적 강도 차이에 주목해 보면, 여러 요인의 힘이 비등비등하여 어순이 유동적인 언어도 있고(예: 한국어, 일본어), 어느 한 요인이 압도적으로 강하여 어순이 비교적 고정적인 언어도 있다(예: 영어). 한국어는 <표 1>에서 ⑦에 해당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핵이 일관되게 뒤에 온다는 harmony의 힘이 매우 강한 언어이다. 핵이 일관되게 앞에 오거나 일관되게 뒤에 오는 것을 추구하는 harmony는 모든 언어에 작용하나, <표 1>의 ②~⑥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보듯이, 때로는 dominance의 힘에 눌러 핵 위치가 非일관적인 언어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언어에 비하면 한국어는 head-final 어순을 고집하는 harmony가 매우 센 언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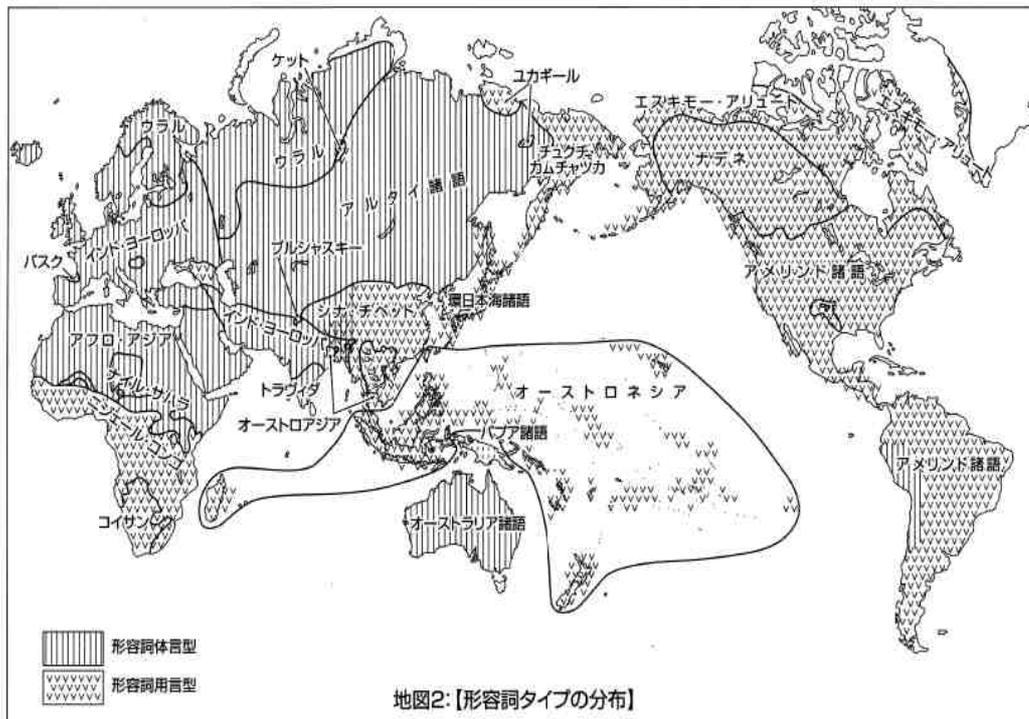
### 3. 유라시아 거대 언어 지역과 환태평양 거대 언어 지역

최근의 지역유형론의 연구 성과를 두루 살펴보면, 어떤 언어 특징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만 적용되어 그 특징의 지리적 분포가 지구상의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언어 특징이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언어 특징들의 분포 지역이 대체로 일치한다면, 이들 언어 특징을 공유하는 지역을 linguistic area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발칸 언어 지역, 발트해 연안 언어 지역, 지중해 연안 언어 지역 등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언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언어 특징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전체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태평양을 둘러싼 극동, 동남아, 태평양의 여러 섬들, 남북 아메리카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전자는 유라시아 거대 언어 지역, 후자는 환태평양 거대 언어 지역이라고 부를 만하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두 거대 언어 지역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어떤 언어 특징은 유라시아 대륙의 패턴을 따르고 또 다른 어떤 언어 특징은 환태평양 지역의 패턴을 따른다. 전통적으로는 전자가 주목을 받아 왔으나, 이들 특징은 (1)-(3)에서도 보았듯이 사실은 유라시아 언어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며, 언어 특징으로서의 중요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 반면에 최근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지닌 특징 중 유라시아 언어 지역과는 다르고 환태평양 지역과는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 지적되고 있다.

① 형용사: 유라시아는 명사성 형용사, 환태평양은 동사성 형용사. 한국어는 동사성 형용사. 일본어는 둘 다 가지고 있으나, 동사성 형용사가 더 오래되었고, 명사성 형용사는 나중에 생겼고 한자어/외래어에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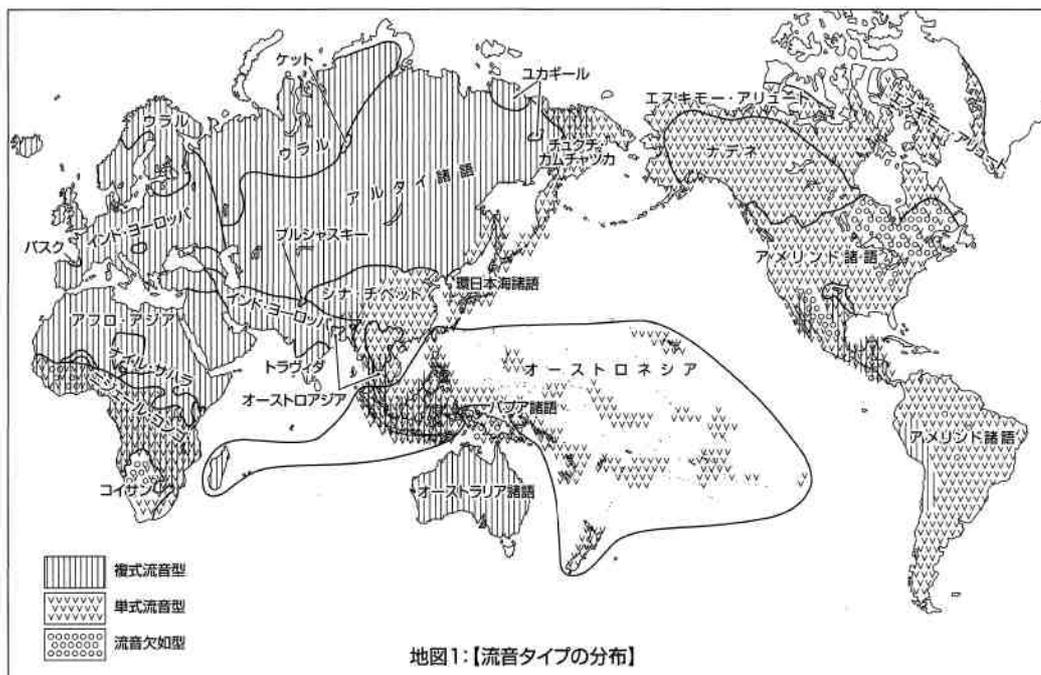
<그림 12>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의 encoding 방식: WALS 118



<그림 13> 명사성 형용사(세로줄)와 동사성 형용사(∨): 松本克己(2007: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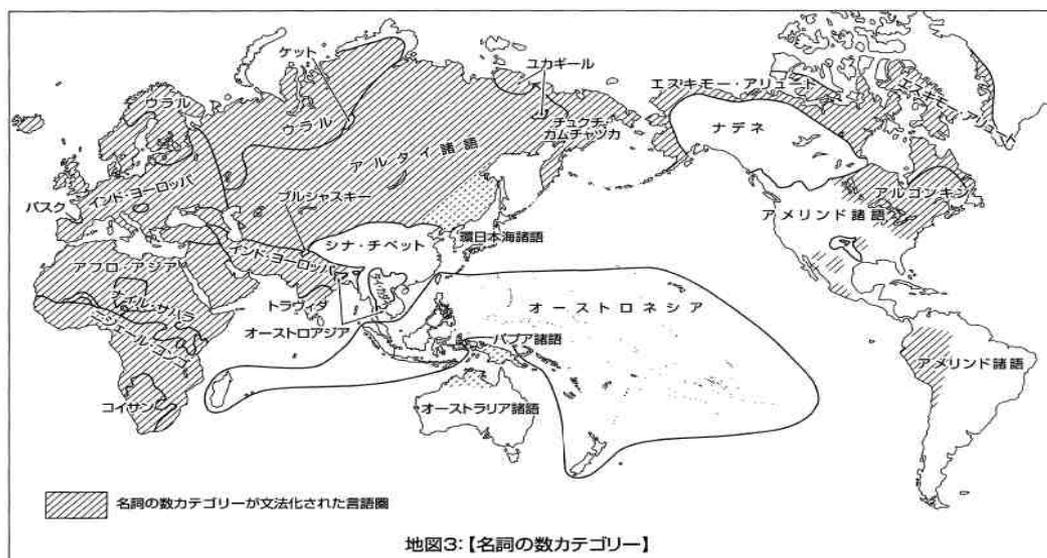
194 第4章 類型地理論から探る言語の違いと親族関係

② 유음: 유라시아는 유음 음소가 2개, 환태평양은 유음 음소가 1개. 한국어, 일본어는 1개.  
(고대 한국어에 유음 음소가 2개 있었다는 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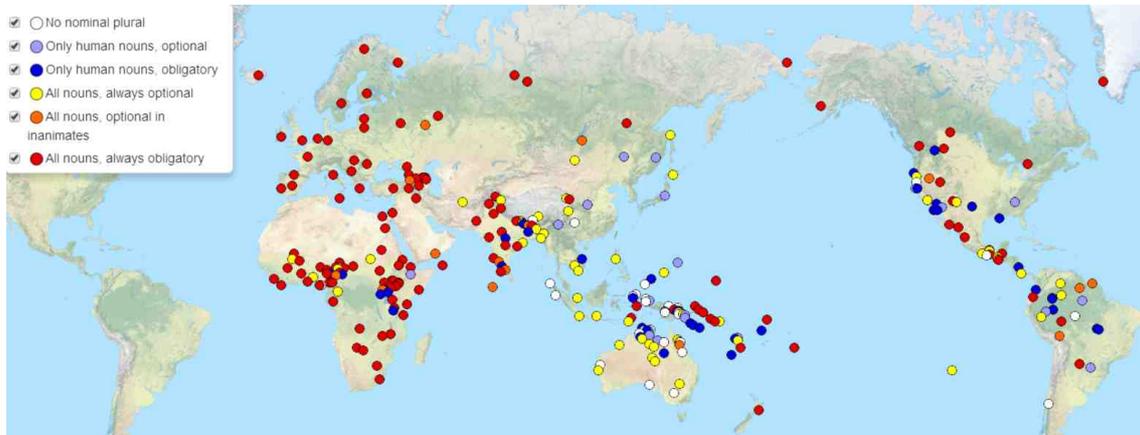


<그림 14> 유음 음소가 2개인 언어(세로줄)와 1개인 언어(∨): 松本克己(2007: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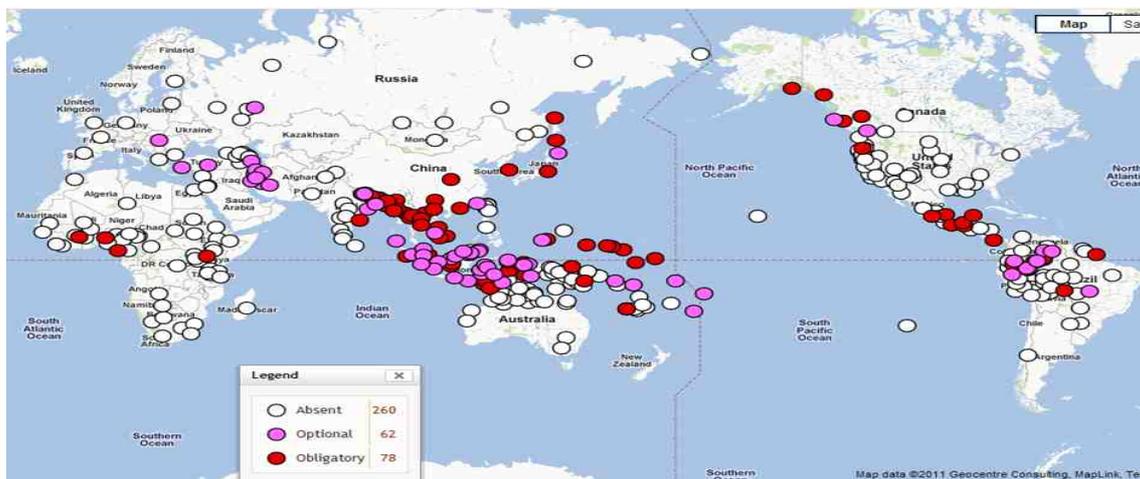
③ 수(number),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 유라시아는 문법적 범주로서 수가 존재하고 수 분류사가 없음. 환태평양은 문법적 범주로서 수가 없고 수 분류사가 발달해 있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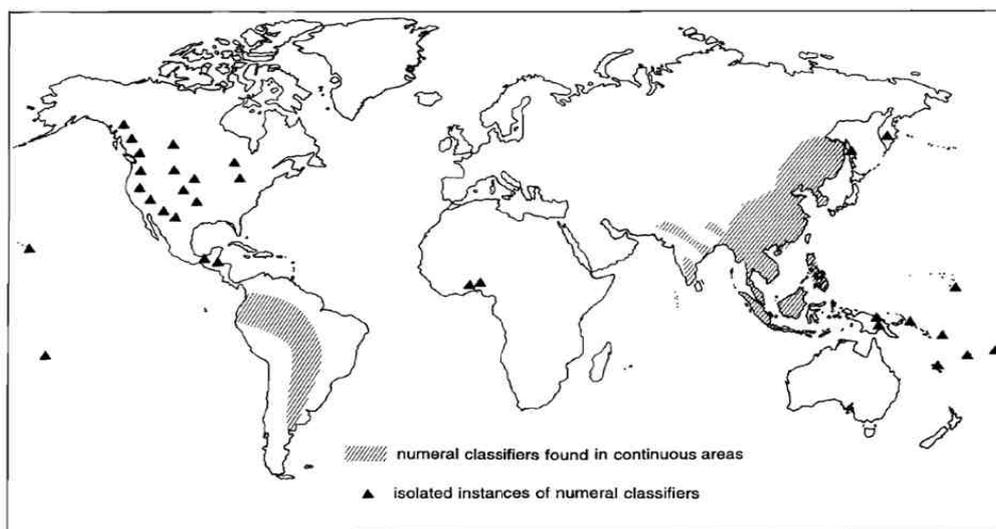
<그림 15> 명사의 수 범주가 문법화되어 있는 언어권: 松本克己(2007: 195)



<그림 16> 명사 복수의 표시: WALS 34



<그림 17> 수 분류사: WALS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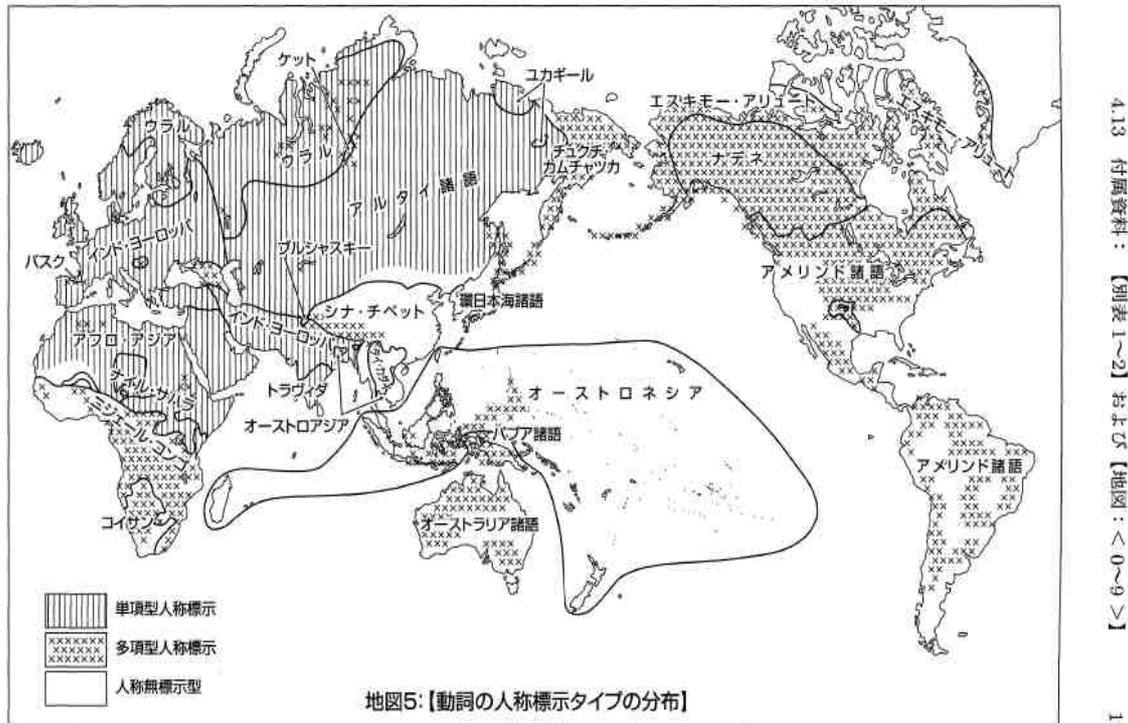


MAP 3. Distribution of numeral classifiers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그림 18> 수 분류사가 있는 언어의 분포: Aikhenvald (2000: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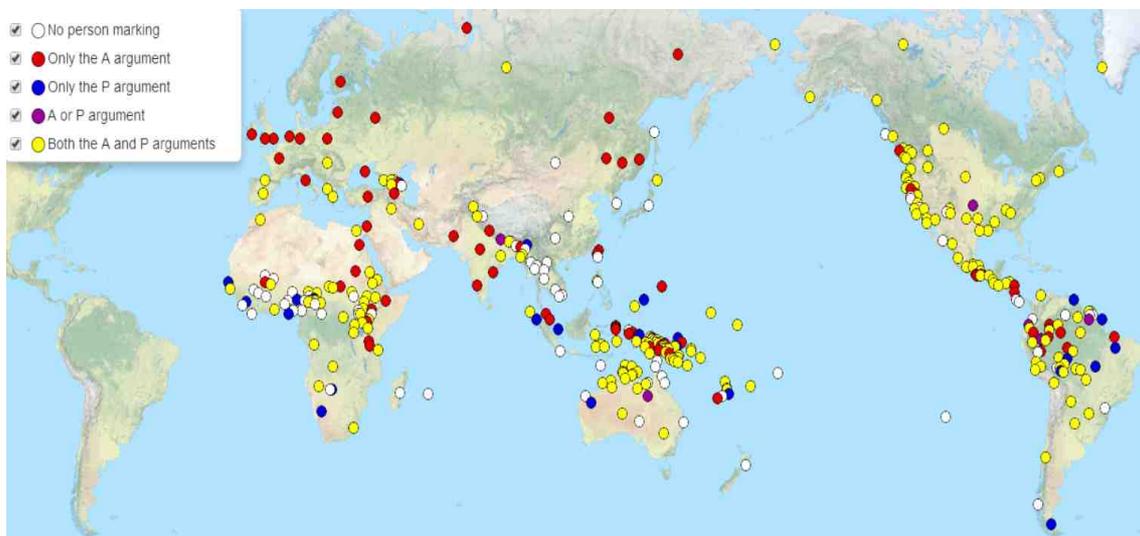
④ 현장지시사(demonstrative): 모든 알타이 제어, 대부분의 우랄 제어는 근칭 대 원칭의 2원 체계. 환태평양은 화자근칭, 청자근칭, 원칭의 3원 체계가 많음. 한국어, 일본어는 후자.

⑤ 인칭 어미: 유라시아는 대개 동사에 주어의 인칭(-수)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음(단항형 인칭 표시). 환태평양은 이런 어미가 없거나(인칭 무표시형) 주어뿐 아니라 기타(예: 목적어) 논항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음(다항형 인칭 표시). 한국어, 일본어는 인칭 무표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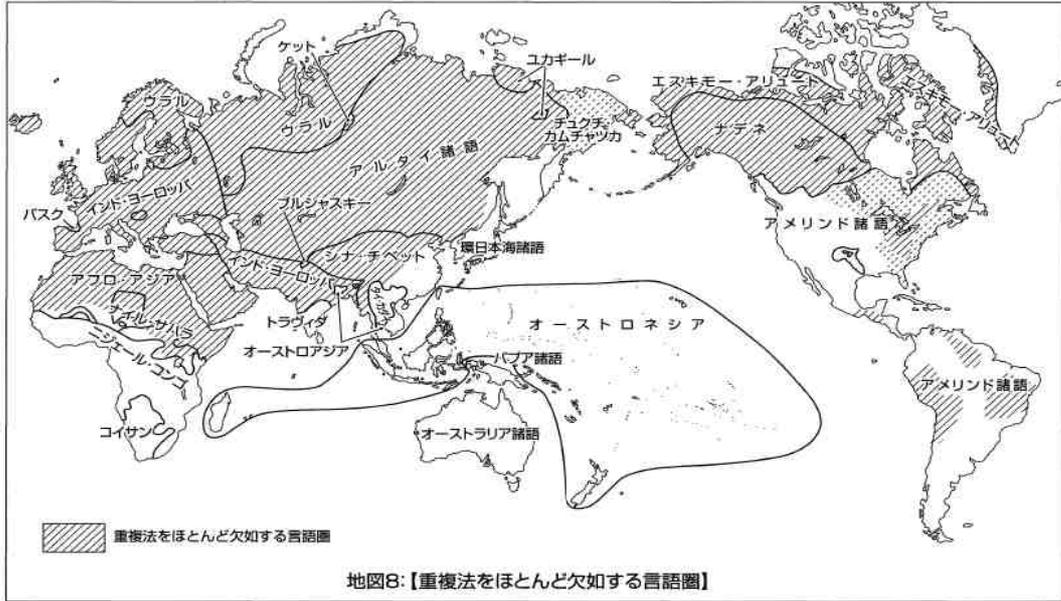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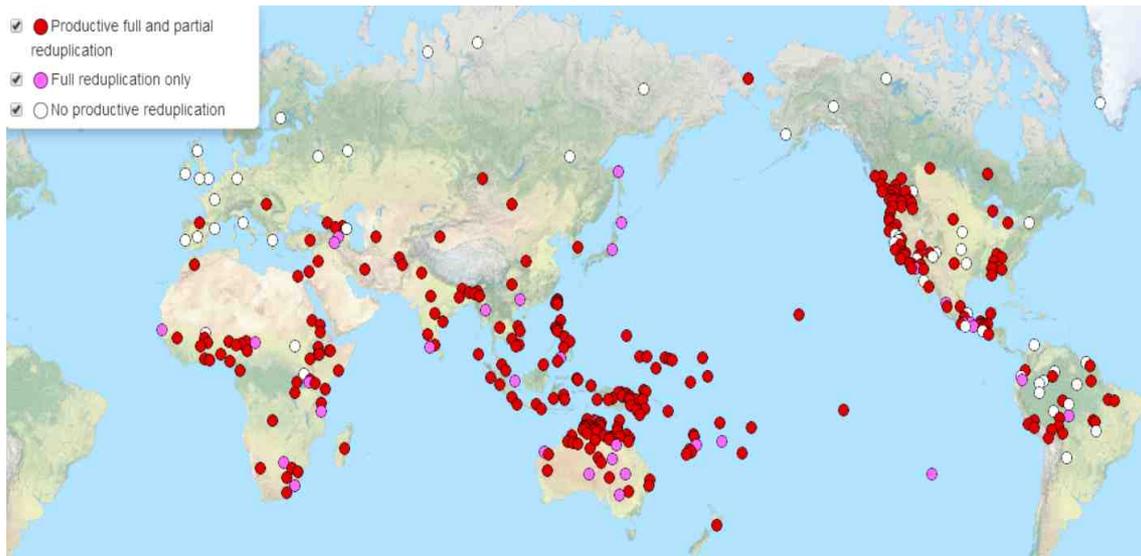
<그림 19> 동사의 인칭어미의 유형: 단항형(세로줄), 다항형(x): 松本克己(2007: 197)



⑥ 중첩(reduplication): 유라시아는 중첩을 문법요소의 표지로 별로 사용하지 않음. 환태평양은 복수 등에 흔히 사용. 한국어의 의문대명사 복수를 중첩으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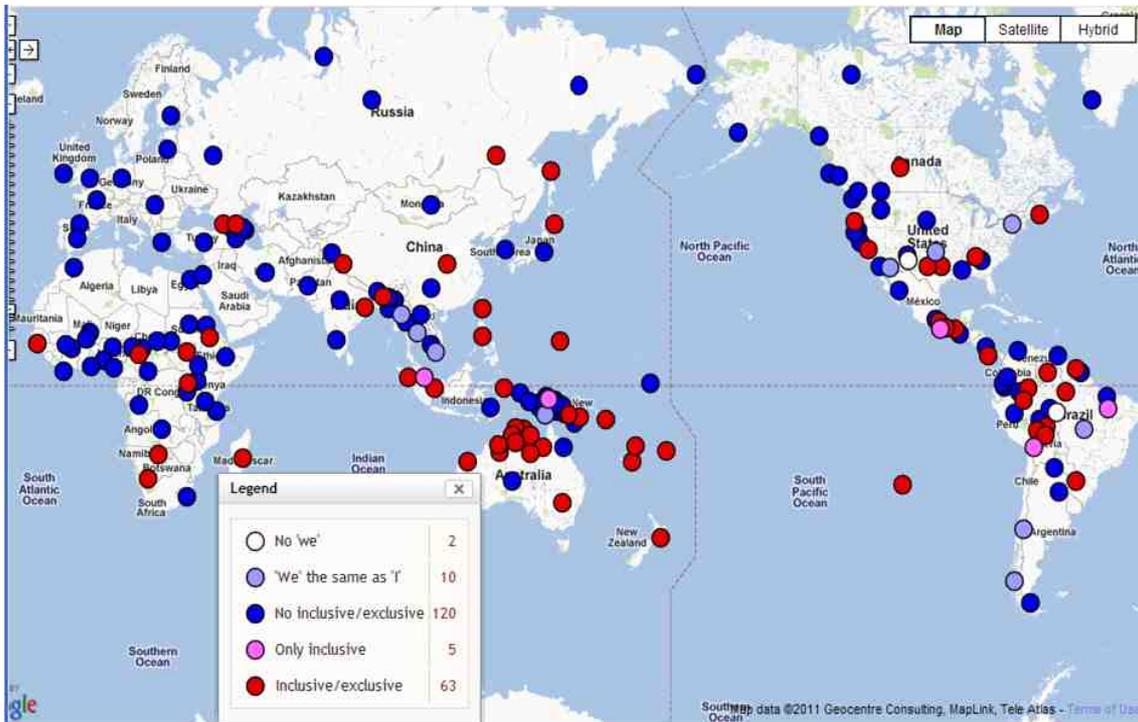


<그림 21> 중첩을 결여하는 언어권: 松本克己(2007: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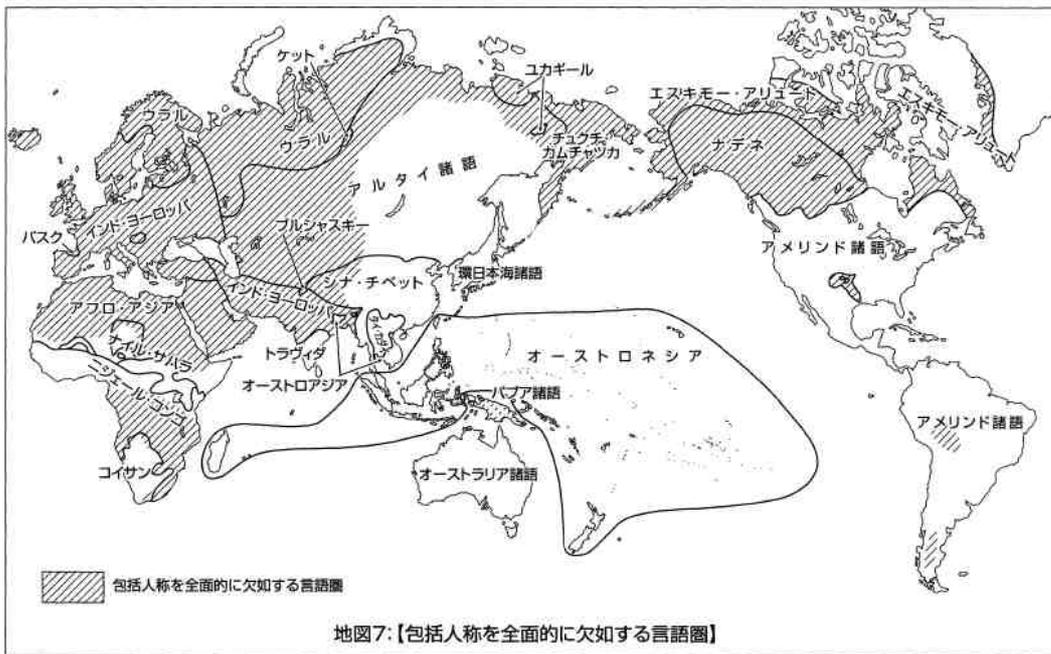


<그림 22> 중첩: WALS 27

⑦ 1+2인칭(포괄인칭): 전통적으로 1인칭 복수에서 포괄형-배제형으로 간주되어 온 현상 중 일부는 1+2인칭(화자와 청자를 지칭)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음. 이 1+2인칭 대명사가 유라시아에서는 매우 드물(통구스 제어와 몽골어는 예외). 환태평양에는 흔함. 한국어와 일본어는 고대에 1+2인칭 대명사가 있었던 흔적이 있음.



<그림 23> 자립 대명사에서의 포괄/배제 구분: WALS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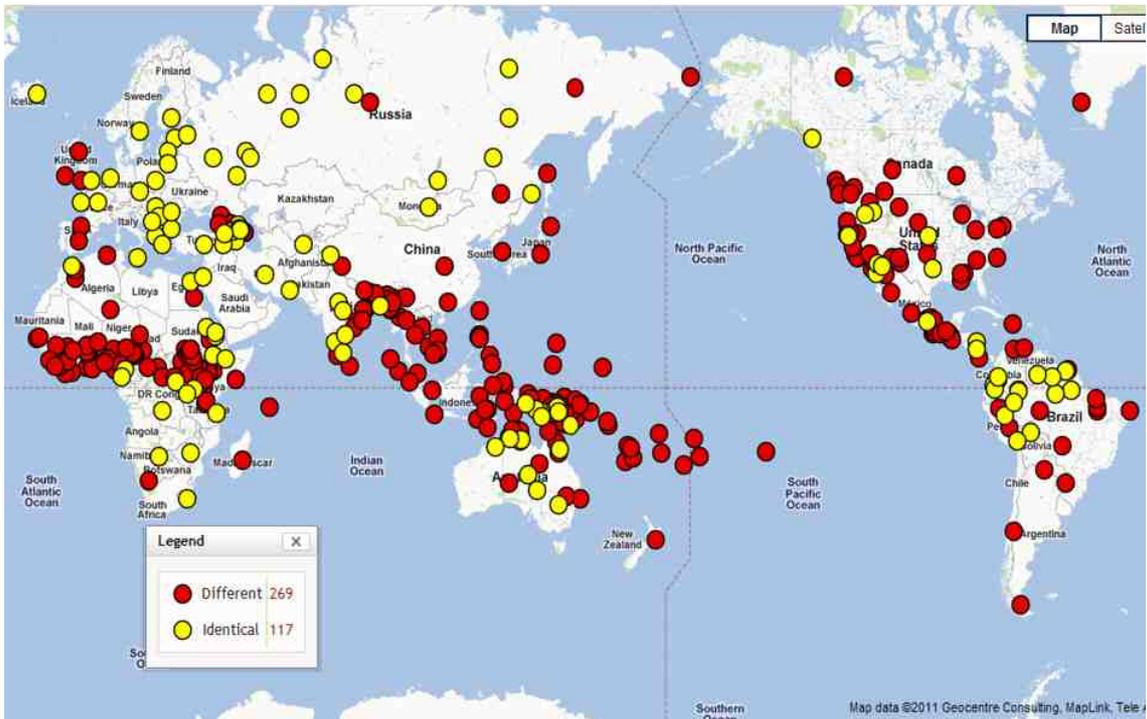


4.13 付属資料: 【別表1~2】および【地図: <0~9>】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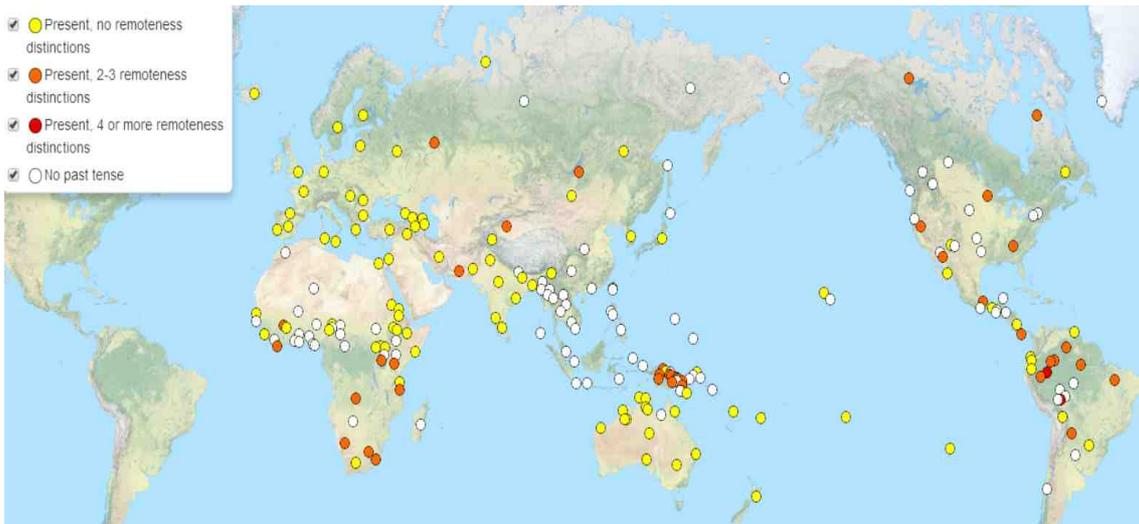
<그림 24> 1+2인칭(포괄인칭)을 결여하는 언어권(빛금): 松本克己(2007: 197)

㉔ 기사와 존재사: 유라시아는 하나의 요소가 기사와 존재사의 기능을 담당함. 환태평양은 이들이 구별되어 있음. 한국어, 일본어는 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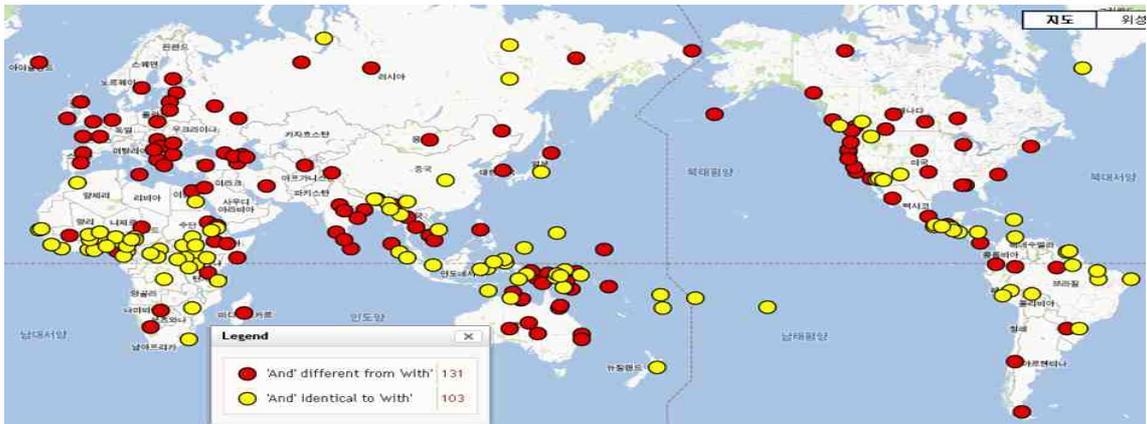
<그림 25> 명사 서술과 처소 서술: WALS 119

㉑ 시제: 유라시아는 대개 시제 언어(tensed language). 환태평양은 대개 무시제 언어(tenseless language). 고대 일본어는 무시제 언어였다가 현대 일본어로 오면서 시제 언어가 되었음. 현대 한국어는 시제 언어이나, 고대 한국어는 무시제 언어였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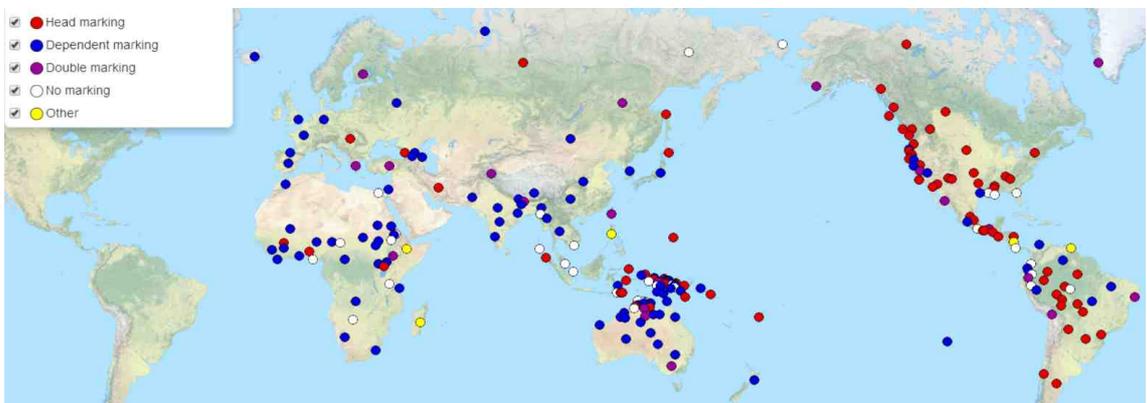
<그림 26> 과거-비과거의 시제 구분: WALS 66

㉒ AND-언어와 WITH-언어: 유라시아는 and를 뜻하는 요소와 with를 뜻하는 요소가 다름 (AND-언어). 환태평양은 하나의 요소가 두 의미를 담당(WITH-언어). 한국어, 일본어는 후자.



<그림 27> AND-언어(적색)와 WITH-언어(황색): WALS 63

- ⑪ 주어 부각형(subject prominent) 대 주제 부각형(topic prominent): 유라시아는 주어 부각형. 환태평양은 주제 부각형이 많음. 한국어, 일본어는 주제 부각형 내지 주어-주제 동시 부각형. (<그림 7>의 주제 소유 구문(topic possessive construction 참조))
- ⑫ 재귀사, 상호사: 유라시아는 대개 국소적 재귀사(local reflexive). 환태평양은 대개 장거리 재귀사(long-distance reflexive). 국소적 재귀사 중에는 재귀 표지가 동사에 붙는 일이 흔히 있음(verbal reflexive). 장거리 재귀사는 동사에 붙는 일이 없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후자. 상호사도 마찬가지.
- ⑬ 대우법/경어법: 유라시아는 대우법이 미발달, 환태평양은 발달한 언어가 많음. 한국어, 일본어는 후자.
- ⑭ 의성의태어: 유라시아는 의성의태어가 미발달, 환태평양은 발달. 한국어, 일본어는 후자.
- ⑮ 관형 소유 구성: 유라시아에서 알타이 제어 중 head marking(몽골어 John ger-ny “John house-his”) 또는 double marking(터키어 Hasan-un kitab-un “Hasan-Gen book-3sg”)인 언어가 간혹 있음. 환태평양에서 남북아메리카와 파푸아뉴기니에는 head marking이 꽤 있으나 동남아시아에는 head marking이 드뭅. 한국어는 dependent-marking(철수-의 책).



<그림 28> 관형 소유 구성에서 표지의 위치: WALS 24

#### 4. 맺는 말

“철수는 한국의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니?”라는 질문에 “매일 학교 가서 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라는 답변은 그리 informative한 답변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세계의 상당수 언어가 지닌 일반적인 성질을 들어 답한다면, 한국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그리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한국어가 지닌 성질 중 어떤 것이 세계 언어 가운데 드문/특별한 성질인지 잘 판단해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다. 장애음 음소 가운데 무기음, 유기음뿐 아니라 경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많은 언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일 것이다. case alignment의 측면에서 한국어는 주격-대격 체계인데, 대격뿐 아니라 주격도 외현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 흔치 않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이런 별난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언어는 별난 언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한 언어의 특징을 살펴볼 때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머무르기보다는, 보다 심층의 패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한 표면적 현상을 빚어내는 심층의 힘이나 요인들을 들춰내야 한다. dominance와 harmony의 개념은 그러한 탐구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한 언어가 지닌 특징은 지리적 분포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언어의 이러한 성질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것인지, 아니면 주위의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해당 언어를 포함하여 매우 좁은 지역에서는 그 성질이 일반적이거나 세계 언어 전체로 보면 비교적 드문 성질인 경우도 있다. 한편 해당 성질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경우 유라시아 거대 언어 지역과 환태평양 거대 언어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두 지역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때로는 둘 중 어느 한 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가 통시적 변화를 통해 상대방 지역의 성질로 변모한 경우도 있다. 매우 거대한 두 개의 지역 유형론적 힘이 한국어의 모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오고 있는 것이다.

---

5) 이 점은 일본어도 마찬가지이다.

6) 角田太作(2009)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어는 그리 별난 언어가 아니며, 오히려 영어가 상당히 별난 언어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들을 gold standard로 삼아, 유럽어와 다른 성질을 지닌 언어를 별난 언어로 취급했던 것이 Euro-centrism의 소산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 ■ 참고문헌

- 이기문(1972), 『國語史概説』(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 角田太作(2009), 『世界の言語と日本語: 言語類型論から見た日本語』(改訂版), 東京: くろしお  
出.
- 服部四郎(1958), アルタイ諸言語の構造, 『ユトパの科学 1』(=『日本語の系統』), pp. 255-274.
- 藤岡勝二(1908), 日本語の位置, 『国学院雑誌』第14卷 第8, 10, 11号.  
<http://kokugosi.seesaa.net/article/2842789.html>
- 松本克己(2007), 『世界言語のなかの日本語: 日本語系統論の新たな地平』, 東京: 三省堂.
- Aikhenvald, A. Y. (2000), *Classifiers: A Typology of Noun Classification De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 Boller, A. (1857), Nachweis daß das Japanische zum ural-altaischen Stamme gehört,  
*Sitzungsberichte der Wiener Akademie der Wissenschaft, Phil.-hist. Kl.* 23,  
393-481.
- Greenberg, J. 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Universals of Language*, pp. 73-113.
- Hawkins, J. A. (1983), *Word order universals*, Academic Press.
-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WALS), <http://wals.info/>
- Wiedemann, F. J. (1838), Über die früheren Sitze der tschudischen Völker und ihre  
Sprachverwandschaft mit den Völkern Mitteleasiens, *Einladung zur  
öffentlichen Prüfung im hiesigen Gymnasium am 27sten und 28sten Juni  
1838 von dem Oberlehrere der griechischen Sprache*.
- Winkler, H. (1884), *Ural-Altäische Völker und Sprachen*, Berlin.

## ■ 토 론

#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지역유형론에 초점을 맞추어-”에 대한 토론문

김양진(경희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어 문법론 연구에 언어유형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그린버그(Greenberg, 1963:)에서 제시된 우성(優性, dominance)와 조화(harmony)의 개념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방면의 연구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제 두어 가지와 미시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서너 가지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지난 세기에 주요하게 논의되다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해 나가지 못하던 계통론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 논문의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세기 계통론적 연구가 어려움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계통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음운 대응, 기초 어휘 대응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계통론 연구가 1차 자료 보다는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알타이어를 포함한, 우랄어와 기타 관련된 제 언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2차 자료를 근거로 설정된 국내의 논의들이, 서구 혹은 우랄알타이 제어의 실제 언어에 익숙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1차 자료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점이 우리의 계통론 연구가 지속되기 어려웠던 또 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어유형론적 거시 담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노정되어 있는데 한국의 학문적 환경에서 6,000여개에 달하는 세계 유수의 언어들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2차 자료만으로 구축되는 논의들이 또 다른 1차 자료들에 의해 반복해서 수정되어야 한다면 지난 세기에 겪었던 오류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杞憂)에 대해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좀더 들었으면 합니다.

2. 이 논문에서 말하는 지역유형론(areal typology)이 인접 지역의 언어적 연결 고리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공통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언어 접촉의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친족 관계의 언어 간의 공통성에 집중한 계통론적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어의 경우, 오랜 기간 국경을 인접한 만주어와 중국어(한어), 바다를 격한 일본어와 베트남어, 그밖에 몽골어, 러시아어 등에서 보이는 인접성 간 차이와 언어적 동질성 및 차이성의 문제가 과연 이러한 지역유형론적 관점에서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친연성의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접촉의 문제인지, 즉 어디

까지가 분기의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합류의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 공통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3.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가서, 어순과 관련하여 언어 보편성에 근거한 우성(優性, dominance)과 언어 개별성에 입각한 조화(harmony)의 대립에 의해 다양한 어순의 양상이 실현됨을 보였는데, 이러한 논의가 촘스키(Chomsky) 등에서 언급된 원리(principle)와 매개변인(parameter)에 따른 어순 변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언어 보편성의 압박과 언어 내적 조화의 개별성이 작용하여 세계 각 언어의 어순 변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4. 이 논문의 곳곳에서 언어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예를 들어, 고대 한국어는 비시제언어였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시제언어로 바뀌었다든지, 중세 한국어 모음 체계는 7모음 이었는데 현대 한국어 모음 체계는 10모음이라든지..) 이러한 변화가 각 언어마다 주어진다면 언어유형론에 따른 언어 지도는 매 시기마다 바뀌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요?

5. ‘떡볶이 [길에서 파는 거]’는 ‘떡볶이, [길에서 파는 거]’와 같은 동격절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구성에서 post-head 관계절이 ‘[길에서 파는 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6. 그림 12에서 한국어는 동사성 형용사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되었으나 그림상의 지도에는 mixed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WALS 118의 단순한 오류인지요?

7. 그림 14에서 알타이 제어는 유음이 2인데 반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유음이 1라는 판단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만주어는 유음이 l, r 둘인데 l은 어두와 어중, 어말에 모두 사용되고 ‘r’은 어두와 어말에는 사용되지 않고 어중에만 사용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역시 유음이 l, r 둘인데 ‘r’은 어두와 어중에, ‘l’은 어말에 사용되는데 ‘흐르다-흘러, 치르다-치러’의 대립을 ‘l’과 ‘r’의 대립으로 본다면 한국어에서 ‘r’은 어두와 어중에, ‘l’은 어중과 어말에 사용되는 두 개의 음소로 설정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어는 세로줄 지역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8. 인칭어미와 관련하여 한국어, 일본어는 인칭 무표시형이라 하였지만, 한국어의 경우 명령형어미와 2인칭 주어의 관계라든지 ‘-더-’와 1인칭 제약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인칭 일치 현상이 보이는데(중세국어의 ‘-오-’와 1인칭) 이는 문법적 판단이 달라짐에 따라 한국어의 지역유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좋은 발표에 우둔한 질문을 몇 가지 늘어놓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어학과 언어유형론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목정수(서울시립대)

< 차례 >

1. 머리말
  2. 언어유형론과 국어학의 문제점들
  3. 한국어 타동성 유형론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본고는 국어학과 언어유형론의 관계를 따져보고, 국어학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언어유형론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보이는 데 주목적을 둔다. 또한 언어유형론의 논의에 도움을 받아 국어학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언어유형론 논의에 국어학이 무비판적으로 함몰될 경우 자칫 국어의 현상을 왜곡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국어학이 세계 언어유형론 학계에 일정 정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어학이 오히려 주체적이고도 일관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확한 한국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국어는 누가 연구하는가?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을 국어학자라 하므로 당연히 국어는 국어학자가 연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국어학자인가? 특정 학과 출신이라야 국어학자인가? 필자는 로망스어학으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국어학자가 아니라 언어학자인가? 흔히 국어학자라는 사람들은 외국어 전공 학자들이 국어를 연구하면 약간 눈을 흘기고 국어를 국어로 보지 않고 외국어처럼 보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외국 이론에 국어를 꿰어 맞추느라 국어를 왜곡한다는 식의 혹독한 발언을 멈추지 않는다.<sup>1)</sup>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구 이론에 어둡고 그 이론이란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 속으로 초조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국을 감안하면, 국어를 누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간단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다. 그 어려운 질문에 우리는 언어유형론에 관심을 갖고 그 시각으로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당히 진정한 국어학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놓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국어학자는 진정한 국어학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다른 언어에 대한 관심과 분석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연구해야 국어학이라 할 수 있는가? 국어를 연구하는 데 특별한 고유의 방

1) 생성문법의 이론에 따라 한국어를 재단하는 논문을 쓴 영어학자들이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이라도 있긴 한가? 국어학 전통에서 관습화된 용어를 가지고 국어학과 다른 외국어학이나 일반언어학 영역을 구분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어학의 용어라는 것도 거의 대개는 서구 언어학의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고, 많은 부분 일본의 제조 공장을 통해 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으로 국어학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도 언어유형론이 어느 정도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사상과 언어 문제를 나란히 놓고 다루고 있는 아사리 마코토(淺利誠)의 저서 『일본어와 일본사상: 일본어를 통해 본 일본인의 사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어든 어떤 언어든 하나의 모(국)어라는 것은 내부의 시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국어를 제대로 보고 더 나아가 제대로 연구하려면 국어라는 숲속에서 헤매면 안 되고, 그 숲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사리 마코토의 말을 들어 보자.

“모어에 대해 초월론적이기는 힘들다. 또 모어를 ‘외부의 눈’으로 보고 다루는 일도 어렵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달리 모어를 다룰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모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어를 외부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모어와 외국어의 대조적 관점에서 모어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라는 숲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나와서 다시 국어라는 숲을 보기 위해서는 비교론적 시각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국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교의 준거점으로서 다른 언어를 봐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국어를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필연적인 방법론이 될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국어학자는 외국어 전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유형론과 국어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언어유형론의 순기능을 보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언어유형론의 역기능, 아니 국어학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보이고자 한다. 즉 언어유형론을 국어 현상에 잘못 적용하여 국어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사례를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이른바 ‘비주격 주어 구문’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고발로써 언어유형론의 맹신은 금물이고 국어학의 주체적 시각이 필수라는 점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 2. 언어유형론과 국어학의 문제점들

### 2.1. 비교 준거점의 문제

다음의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장소원(2011)이 제시한 것이다.

A-1. 어미와 조사가 발달된 언어이다.

A-2. 한국어의 문법 형태는 대체로 한 형태가 하나의 기능을 가진다.

- A-3.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의 구분이 문법에서 중요한 경우가 있다.
- A-4. 분류사(classifier), 단위성 의존명사 또는 '단위 명사'가 발달해 있다.

또한 장소원(2011)에서 주로 인도유럽어들을 비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언어유형론의 비교 또는 대조적 시각이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B-1. 한국어는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 쓰임이 극히 제약적이다.
  - B-2. 한국어에는 관계 대명사가 없다.
  - B-3.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다.
  - B-4. 한국어에는 접속사가 없다.
  - B-5. 한국어에는 주어와 같은 허형식이나 존재문의 잉여사가 없다.
  - B-6. 한국어에는 일치(一致, agreement 또는 concord) 현상이 없다.
  - B-7. 한국어에는 복수 대상에 반드시 복수 표지가 연결되지는 않는다.
  - B-8. 한국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 C-1. 한국어는 평서의 타동사문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유형 가운데 '주어(S)-목적어(O)-동사(V)'의 어순을 가지는 SOV형 언어이다. 즉 한국어는 동사-말(verb-final) 언어에 속한다.
  - C-2. 한국어의 수식 구성에서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즉 한국어는 좌분지(left-branching language) 언어에 속한다.
  - C-3. 한국어는 핵-끝머리(head-last 또는 head-final) 언어에 속한다.
  - C-4. 한국어는 동사를 제외한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자유 어순(free word order) 또는 부분적 자유 어순으로 표현된다.
  - C-5.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쉽게 생략될 수 있는 언어이다.
  - C-6. 한국어는 담화-중심적 언어의 성격을 가지며, 주제 부각형 언어의 특징을 강하게 가진다.
  - C-7. 한국어에는 통사적 이동이 드물거나 없다.
  - C-8. 한국어는 대우법(경어법 또는 높임법)이 정밀하게 발달했다.

이러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은 주로 영어나 프랑스어를 위시한 인구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인구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알타이제어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본다면, 영어와 프랑스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 A-1'. 영어는 조사가 없다.
- B-2'. 영어는 관형사형어미나 연체형어미가 없다.
- B-8'. 프랑스어는 관형사가 없고, 형용사의 행태가 동사보다 명사에 더 가깝다.
- C-5'. 프랑스어는 주어가 필수적인데, 인칭대명사의 성격이 일반 명사구와 다르고 어미와 유사하다.
- C-8'. 영어는 대우법(경어법 또는 높임법)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논의할지에 대해 선행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론적 비교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용어로 또는 어떤 시각으로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메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용어에 따라 비교 작업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에 열거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들은 개별화된 속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별 속성들 간의 상관된 다발로 포착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야 언어와 언어의 체계적인 유형론적 비교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 대상의 언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들의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비교 기준이나 준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통일된 문법용어로 같은 시각에서 기술된 언어 자료나 참조문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sup>2)</sup> 그러나 비교 작업을 위해서 미리 동일한 문법관을 공유하고 통일된 용어로 기술한 세계 언어의 문법서는 아직 없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정은 언어유형론의 비교는 세마지올로지(semasiology)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구체적 예로서 영어의 ‘-ing’과 한국어의 ‘-은/을’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 영어의 ‘-ing’은 ‘동명사/(현재)분사’의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고, 한국어의 ‘-은/을’은 ‘관형사형어미’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비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다면 ‘관형사형어미’와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영어의 어떤 것인가? 동명사 어미인가 관계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인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언어유형론의 비교를 위해서는 오노마지올로지(onomasiology)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3)</sup> 그러나 이 관점에서도 무엇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Haspelmath 2010a, Newmeyer 2010, Haspelmath 2010b). 개별 언어를 뛰어넘어 언어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 또는 개념어의 추출이 기준이 되는 특정 언어 없이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따져보자. 가령 형용사의 유형론을 연구할 때도 형용사란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형용사란 용어는 개념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인구어의 전통문법에서 형태론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용어이기 때문이다. ‘형용사’란 용어는 ‘adjective’의 번역 용어로서, ‘adjective’는 라틴어 ‘adjacere’와 관련되어 있고, ‘옆에/가까이 놓인’의 의미로, 홀로는 사용되지 않고 명사에 덧붙거나 명사를 ‘modify’하거나 ‘describe/qualify’하거나 하는 요소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립된 ‘adjective’가 한국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란 용어로 번역됨에 따라 새로운 시니피에가 형성되어 [+상태]의 의미자질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adjective’의 원의는 ‘관형사’란 용어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이 ‘관형사’를 ‘adnoun’이나 ‘modifier’ 등으로 역번역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과 무관치 않다.<sup>4)</sup> 따라서 한국어의 관형사는 자칫 잘못하면 형용사 유형론 논의에

2) 연재훈(2011: 5)에서는 이러한 개별어 연구와 언어유형론 연구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범언어적 보편성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언어 유형론과 각 개별 언어의 연구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각 개별 언어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는 광범위한 언어의 비교 분석을 전제로 하는 언어 유형론적 연구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론은 개별 언어의 기술문법에 우선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범언어적으로 확립된 유형론적 보편성은 개별 언어의 문법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3) 요체는 세마지올로지의 시각에서는 프랑스어의 인칭대명사 ‘Tu’와 ‘Vous’의 대립을 선어말어미 ‘-시-’의 유무대립과 비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다.

4) 일본어는 언어 현상적으로 보면 한국어와 매우 유사하지만, 일본어 문법의 상황은 한국어와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다. 일본어의 형용사와 형용동사라는 용어의 시니피에를 정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목정수 2009b).

서 고려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문제가 생긴다(목정수 2002, 2009b, 2013d 참조).

필자는 한국어의 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용어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분포 분석과 분류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그 후에는 외국어와의 비교 짝을 찾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야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sup>5)</sup> 이런 차원에서 심리술어(=주관동사=심리형용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소위 비주격 주어(non-nominative subject), 능격 주어(ergative subject) 등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한국어의 현상이 제대로 기술되고 언어유형론 논의에 제대로 원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 2.2. 한국어 어순 유형론의 문제

유형론 연구에서 한국어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어순(word order)이다.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주어와 목적어 성분이 서술어와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인간 언어의 유형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는데 국어학에서는 아직 주어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합의된 논의가 없다. 그리고 학교문법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필수 성분 또는 주성분으로 보면서도,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강창석 2011). 아무튼 세 성분의 순서가 문제가 되는 만큼, 그 유형의 수는 6가지가 된다.

SVO형, SOV형, OSV형, OVS형, VSO형, VOS형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문제가 그리 단순치가 않다. 필수 성분이라는 주어는 흔히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단문 내에서 아직 무엇이 주어인지가 불분명한 문장이 한두 개가 아니다. 소위 이중주어, 다중주어로 분석하는 입장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주격’, ‘주어’, ‘주체’, ‘주제’ 등의 개념과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1) 가. 그런 여자는 정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나. 그 칼로가 잘 안 잘린다고요?

다. 할아버지께서 돈이 많으신가 봐요.

라. 너는 뭐가 아니 누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마. 저는 딸이 둘, 아들이 하나입니다.

5) 필자는 주로 프랑스어나 루마니아어를 한국어의 비교 대상으로 하여, 어떤 문법 범주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어 조사들 가운데 ‘가, 들, 도, 는, 의, (이나, 이라도)’를 하나의 부류로 설정해야 할 근거를 마련한 후, 구조적으로 인구어의 한정사류 체계-영어의 ‘a, the, any, some’이 구체적인 대응 예임-와 비교한 것도 그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다. 관사가 없는 중국어의 경우에는 양사 구조와 연계하여 비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동사와 관련된 문법 범주로서는 ‘-(는)다, -(느)냐, -자, -(으)라, -(으)려’를 하나의 부류로 설정하고, 인구어 접속법(mode subjonctif) 형태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고, 또 왜 비교되어만 하는가를 제시한 적이 있다. 또한 한국어의 인용-접속법 어미로 부류화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히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의도형’ 종결/어말어미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용 형식의 논의에 ‘-(으)려’가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으)마’라는 약속형 어미는 빠져야 함을 지적하였다(목정수 2009b, 2011).

‘SOV’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문장도 흔히 발견된다.

(2) 가. 이거 너 안 가질 거면 나 줘.

나. 너 이번 주에 가니 고향?

다. 아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는 아빠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MBC FM 김성주 아나운서의 발화에서)

그러나 이때에도 변형이나 이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운율 구조는 찾기 어렵다. 다만, 직관적으로 이러한 순서가 유표적인 어순인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음 (3가)와 (4가)는 무표적인 기본 어순이고, (3나)와 (4나)는 유표적인 변형 어순이다.

(3)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코는 코끼리가 길지.

(4) 가. 철수가 나한테 손을 흔들어 주던데.

나. 나한테도 손을 흔들어 주데 철수가.

국어학에서는 한국어의 단문 구조를 서술어를 중심으로 논항 또는 부가어가 실현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보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

(5) 가. 철수가 잔다.

나. 철수가 예쁘다.

다. 철수가 머리가 크다.

라. 철수가 호랑이가 무섭다.

마. 철수가 학생이다.

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사. 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

아. 철수가 영희에게 미희의 소개를 한다.

이러한 전통은 오래되었다. 주시경, 최현배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문법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태도가 견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기심·고영근(1993: 234)에서도 그러하다. 직접 인용해 보자.

“국어의 모든 문장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 다” 중의 한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의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 다’의 내용에 따라 문장은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게 된다.

1. 바람이 분다.
2. 아이들이 공을 던진다.
3. 물이 얼음이 된다.
4. 국이 짜다.

- 5.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 6. 그가 주인이다.

이 문장들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각기 그 문장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필수적 성분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

고영근·구본관(2008: 271)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대로 옮겨와 보자.

“그런데 우리말의 문장은 현실적으로는 그 수효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그 뼈대는 다음 몇 가지이 기본적인 형식으로 간추릴 수 있다.

- (1) 가. 무엇이 어떠하다.
- 나. 무엇이 어찌한다.
- 다. 무엇이 무엇이다.
- 라.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 마. ①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 ② 무엇이 무엇이 된다.

(1)과 같이 구체적인 문장을 대표하는 꼴을 기본문형(基本文型)이라 부른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많이 사용되던 ‘꼴’이란 말이 있는데 물건을 만들 때 일정한 모양을 잡거나 뒤틀린 모양을 바로 잡는 데 사용하는 틀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문장은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기본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식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드물다. 고영근·구본관(2008)에 제시된 기본문형은 오히려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유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학에서 소위 이중주어 문장을 논할 때 다루는 예는 다음 (6)처럼 조사 ‘가’가 쓰인 문장이 대부분이다.

- (6) 가. 코끼리가 코가 길다.
- 나. 철수가 마누라가 무섭다.
- 다. 미도파가 구두가 값이 백 원이 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다.

- (7)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 나. 철수는 마누라가 무섭대.
- 다. 뭐 철수가 마누라를 무서워한다고?

필자는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설정할 때 위에서 전통적으로 제시한 방식보다 오히려 어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제로 빈도가 높은 조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문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어문법에서 명시적인 주어 성분은 생략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default) 값이다.

1. X-는 V-어미 (가을 하늘은 높다.)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2. X-는 Y-가 V-어미 (우리 마누라는 얼굴이 작아.)  
(철수는 마누라가 무섭대요.)  
(얼굴이 큰 영희는 성형을 적극 고려중이다.)
3. X-는 Y-를 V-어미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나 봅시다.)  
(너 밥 먹고 싶지?)
4. X-는 Y 이-어미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X-는 Y-(가) 아니-어미 (저는 교수가 아니에요.)

이처럼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주어, 목적어 등의 성분은 생략된 채 동사에 붙는 문법요소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을 구성할 수 있고,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정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어미를 비롯한 문법요소들, 즉 보조동사, 선어말어미, 의존명사(인칭대명사 포함), 조사(명사 포함)이므로, 문형을 제시할 때 이들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문법소를 중심으로 문장 구조를 파헤치는 시각이 더 타당한 것이다.

다음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의 기본 문장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8)과 (9)의 비교를 통해 보면, 주어나 목적어 성분이 문법적 요소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다.

- (8) 가. Je t'aime.  
나. (Io) ti amo.  
다. I love you.  
라. Te quiero.  
마. 我爱你.
- (9) 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난 너를 사랑한다.  
다. 난 너 사랑해.  
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 나 너 사랑해.  
바. 저 당신 사랑해요.  
사. 사랑해, 자기.

‘워아이니(我爱你), 떼끼에로(Te quiero), 사랑해’라는 노랫말에서 ‘워아이니, 떼끼에로, 사랑해’가 동등한 층위에 놓이는 것은 가사의 길이를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워아이니, 떼끼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동일 층위에 놓인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한국어 문장 ‘사랑해’에는 어말어미 ‘-어’가 들어있다는 것이, 스페인어의 ‘떼끼에로(Te quiero)’에는 일인칭어미 ‘-o’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중국어 ‘워아이니(我爱你)’에는 1인칭대명사 ‘我’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어의 ‘je t'aime’에서도 ‘je’라는 접어 성격의 1인칭대명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첨가될 수 있는 강제형 1인칭대명사 ‘moi’는 수의적인 요소이다. 이 중요한 필수요소들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6)

- (10) 가. *Ti amo.*
- 나. *Je t'aime.*
- 다. 사랑하-어.
- 라. 我爱你.

따라서 영어와 중국어를 예로 하여, SVO 유형을 설정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어는 (O)VS, 프랑스어는 SOV, 이탈리아어는 OVSO로 나타낼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문장 성분과 호응하는 문법요소를 중심으로 보면, 제약된 말 그대로의 어순의 유형론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보조동사를 통해서도 간접 목적어의 인칭 관계가 표현된다. 명시적인 명사 논항을 통한 것보다 문법요소인 보조동사 ‘-(어)주다’ 구성을 통해 여격의 인칭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목정수 2009b). ‘-(어)주다’ 구성 자체가 여격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 ‘-(어)주다’, ‘-(어)드리다’, ‘-(어)달다’와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에 따라 여격의 인칭성이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 (11) 가. ??나에게/날 위해 책 좀 읽어!
- 나. 나에게 책 좀 읽어 줘!
- 다. 나 책 좀 읽어 줘.
- 라. 책 좀 읽어 드려라 할아버지!
- 바. 책 좀 읽어 주세요 저!

또한 목정수(2013c)에서는 보조동사 ‘-(어)가다/오다’를 통해서 소위 방향격이 문법적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방향격이 ‘dependent-marking language’처럼 명사구의 격 실현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오히려 이는 전체 문장에서 수의적인 성분이 되고, 보조동사 구성이 필수적인 요소로 실현된다. 이런 사실은 한국어 문법에서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를 ‘head-marking language’라 볼 수 있는 측면이다.

---

6) 다음 라틴어와 영어의 활용표를 비교해 보자.

- (i) 라틴어 - 영어
- amo - I love
- amas - You love
- amat - He/She loves
- amamus - We love
- amatis - You(all) love
- amant - They love

그리고 프랑스어의 ‘je’, 영어의 ‘I’, 중국어의 ‘我’, 이탈리아어의 ‘-o’, 한국어의 ‘-어’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표준적(canonical)이라면 프랑스어의 ‘moi’나 라틴어의 ‘ego’, 영어의 ‘me’, 그리고 한국어의 ‘나/저’ 등은 덜 표준적인 비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Brown et al. 2012).

(12) 가. 이쪽으로 빨리 뛰어와!  
나. 저를 위해 이쪽으로 걸어와 주시겠어요?

(13) 가. 철수는 (위층으로) 뛰어올라갔다.  
나. \*?철수는 위층으로 뛰었다.  
다. \*?철수는 위층에서 뛰었다.  
라. 철수는 (위층에서) 뛰어내려왔다.

### 3. 한국어 타동성 유형론

#### 3.1. 타동성 유형론의 전제 조건: 주어 정의의 문제

어순 유형론 그중에서도 타동성 유형론 논의에서 문장의 성분, 즉 주어와 목적어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기본이다. Dixon(2010)의 A(gent), S(ubject), O(bject)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타동성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주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라고 부르는 문장에서 무엇이 진짜 주어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 주어 구문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유형론 논의에서 받아들인 ‘여격 주어’라는 개념도 국어학에서 이론적으로 보면 자충수를 두고 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를 소유 구문의 전형으로 보고, ‘나에게’를 여격 주어라 한다면, 이때 ‘시간이’라는 성분의 통사적 기능을 주어라 할 수는 없을 텐데,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도 문제이고, ‘할아버지께 시간이 많으시다’나 ‘김선생님께는 그 문제가 이해가 가십니까’와 같은 이상한 문장을 정문으로 받아들이는 무리수 또한 이러한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어의 문장 성분 중에서 다음 예에서 밑줄 친 ‘가형 성분’이 타동성 유형론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커 보인다. 필자는 이들도 목적어 성분에 해당하는 자격을 줄 근거도 충분하므로 이러한 구문을 타동사 유형론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sup>7)</sup>

(14) 가. 나는 떠난 그녀가 너무 그럽다.  
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  
다. 나는 언어학 책이 많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 문장의 주어 성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는 작업은 한국어의 어순 유형론과 타동성 유형론을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더불어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비주격 주어’ 개념의 허구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

7) 그러나 어순의 유형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성분 순서는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를형 성분’과 같기 때문이다.

(1) 가. 할아버지는 코를 많이 고신다. (기본 어순)  
나. 코는 할아버지가 많이 고신다. (주제화 구문)

(2) 가.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 (기본 어순)  
나. 코는 할아버지가 크시다. (주제화 구문)

- (15) 가.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 당신을 만나니 고향 생각이 절로 나는군요.  
 다. 잠이 잘 안 오나 보구나.  
 라. 왜 그렇게 힘이 들어 한대요?  
 마. 시간 있으세요?  
 바. 여자 친구 소개 좀 해 드릴까요?  
 사.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필자는 목정수(1998)에서부터 한국어 조사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위 주격조사, 대격조사, 속격조사는 다른 부사격조사/의미격조사들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들을 격어미 패러다임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사 ‘이/가’와 ‘을/를’은 격기능보다는 오히려 ‘도’와 ‘은/는’과 더불어 한정(determination)의 기능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들의 분포와 기능을 고려하여, 후치 한정사, 즉 후치 관사로 명명하고자 했다. 이처럼, 한국어의 조사 ‘이/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유형론에서 언급하는 어순의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순의 비교 기제가 되는 성분 중에서 주어 성분의 가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격 유형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격 실현이 격어미의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격 실현이 어순과 후치사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 후치사의 목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후치사의 기능에 대응되는 복합후치사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이/가’나 ‘을/를’이 격조사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라틴어의 주격이나 대격어미에 대응되는 것이라면 이들의 생략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가’나 ‘을/를’은 명사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나 동사 활용형에도 붙는다는 사실이다. 셋째, ‘께서’, ‘에서’, ‘이서’ 등의 여러 개의 주격조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가’가 격 패러다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영근·구본관 2008 참조).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른 부치사(=후치사) 성격의 다른 조사와는 사뭇 다른 분포를 갖는다.

이러한 결론은 또한 격(case)과 부치사(adposition)의 유형론을 논할 때 여기에 ‘이/가’, ‘을/를’, ‘의’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부사격조사로 분류되어 왔던 ‘에, 로, 와’나 ‘로부터, 에서, 에게, 부터, 까지, 처럼, 보다, 에 대해, 을 위해, 덕분에, 대신(에), 날, 때’ 등이 후치사 목록에 포함되어 부치사 유형론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16) 가. 도끼로 장작을 팠다.  
 나.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합시다.  
 다. 차 가지고 갈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라. 생일날 선물을 많이 받았다.  
 마.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직접 갔다.

아무튼 필자의 주장대로 ‘은/는’이 기본적으로 주어와 더 관계가 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의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이 타동성(transitivity)의 문제와 연계되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생긴다.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때 이러한 성분의 통사적 기능을 한국어 내적으로 따지는 논의와 동시에 프랑스어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7) 가. 우리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세요. - Mon grand-père a beaucoup d'argent.

나. 나 있잖아 그게 너무 알고 싶어. - Moi, je veux le savoir.

(18) 가. (너)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니?<sup>8)</sup> - Tu peux comprendre ce qu'il a dit?

나. (나) 문득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 Ça m'est soudain revenu à l'esprit.

### 3.2. 비주격 주어 논의의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유형론에 영향을 받아 펼쳐진 한국어의 소위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한 논의에서 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단이 논의 구조에 따라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소위 언어직관에 의한 문법성 판단에도 이론적 입장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제시하는 예문 가운데는 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는 다른 논자들과 필자의 논의의 차이를 대조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19)와 (20)처럼 한 짝으로 묶어 제시한 것들은 문법성 판단에서부터 다루는 문형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의도가 다른 논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인용 출처를 밝힌 것들에서 문법성 판단은 해당 논자들의 것임을 밝힌다.

(19) 가. 김선생님께(는) 순이가 필요하시다.

나. \*?순이에게(는) 김선생님이/께서 필요하시다.

(Yoon 2004: 267)

(20) 가. 김선생님은/김선생님께서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시대요.

나. \*김선생님에게 그 놈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다. \*?김선생님께 그 놈의 돈이 필요하실까?

(목정수 2013b: 92-93)

(19)의 예는 Yoon(2004)에서 따온 것인데, 이 논문은 영어로 한국어의 소위 '비주격 주어'에 대해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 유형론 학계에서 많이들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상한 문법성 판단도 문제이거니와, 이러한 구성이 한국어의 기본 구조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은 동사 '있다'의 논항구조와 의미를 논의할 때 어떤 예문들이 동원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한 예로 임근석(2012)에서는 '있다'의 소유 의미를 논하면서, 다음 (21)과 같은 형태의 예문을 기본 구조로 상정하고 있다. 필자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22)가 정상적이라 본다.

(21) 가. 나에게 꿈이 있다.

---

8) (18)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가. 선생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니?

나. 선생님 말씀을 다시 생각을 좀 해 봐.

- 나. 할아버지에게 돈이 많으시다.  
 (22) 가. 나는 꿈이 있어요.  
 나. 우리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세요.

이처럼, 동사 ‘있다’의 논항구조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그리고 ‘소유’와 ‘존재’의 개념은 매우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있다’는 존재와 소유의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그 구분을 존대형 ‘있으시다’와 ‘계시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 (23) 소유: [누구는] [무엇이] 있다. ‘있으시-’/‘있-’ 유형 => HAVE-유형  
 (24) 존재: [누가/무엇이] 있. ‘계시-’/‘있-’ 유형 => BE-유형

[X-는 Y-가 있-] 구문과 [X-에/에게(는) Y-가 있-] 구문이 별도의 구문이고, ‘있다’의 의미도 ‘소유’와 ‘존재’로 해석된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논거를 대고자 한다. 이보다 더 분명한 논거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필자는 (23)의 소유 구문에서 ‘Y-가’ 성분은 주어가 아닌 목적보어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와 동일한 통사 구조를 보이는 기술동사의 구문에서 제2논항 자리에 오는 명사구 성분도 목적보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목정수 2005). ‘많다’, ‘적다’ 등의 양의 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동사들도 소유동사 ‘있다’를 기본으로 해서 환언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있다’의 기본구조인 [X-는 Y-가 있-]처럼 [X-는 Y-가 많이/적게 있-] 구조로 분석됨으로써 ‘Y-가’ 성분을 목적보어로 분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면 [X-는 Y-가 있-] 구문에서 ‘Y-가’가 주어로 분석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를 들어보자. 먼저, 선어말어미 ‘-시-’와의 일치관계를 통한 진단이다. 이 구문에서 ‘있다’는 소유의 의미를 갖는데, 그때는 보충법 존대형 ‘계시다’가 대응되지 않는다. ‘계시다’가 대응되는 것은 [X-에 Y-가 있-]형의 존재 구문에서 ‘Y-가’ 성분이 [+존대] 자질을 갖는 경우이다. ‘있으시다’와 ‘계시다’의 호응을 통해, 주어진 구문에서 무엇이 주어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다.

- (25) 가. 아버님은 돈이 있으시다/\*계시다.  
 나. 당신은 돈이 많이 있으세요/\*계세요?  
 (26) 가. 사랑방에 할아버지가 계신다/\*있으시다.  
 나.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계세요/\*있으십니까?

동사 ‘있다’의 경우에 동사 구문 유형에 따라 존대표지 ‘-시-’의 결합형이 달리 쓰이기 때문에 ‘-시-’와 주어와의 호응/일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즉 존재동사로서의 용법은 ‘계시다’에, 소유동사로서의 용법은 ‘있으시다’에 대응된다.

- (27) 가. 할아버지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세요.

9) 영어의 ‘have’와 ‘be’의 의미 지도(semantic map)와 한국어의 ‘있다’와 ‘이다’의 의미 지도를 대조해 보면 그 의미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겹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영어의 ‘have’의 짝으로 ‘가시다’를 설정하는 것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목정수(2005)를 참조하라.

나. 나도 할아버지가 있어! 너만 있냐?

다. 할아버지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28) 가. 할아버지는 지금 안방에 계셔.

나. 나에게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신다.

다. 할아버지는 지금 신문을 읽고 계세요.

둘째로, 관계절 구성에서 ‘Y-가’ 성분은 관계절의 머리어(head)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경우와 평행한 양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관계절화 가능성의 위계에서 ‘주어’가 ‘목적어’나 ‘사격보어(처소 > 도구)’에 비해서 높은 것을 고려하면, ‘X-는’ 성분보다 ‘Y-가’ 성분이 주어성(subjecthood)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재훈 2003 참조).

(29) 가. 돈이 많으신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가 많으신 돈

다. 안방에 계신 할아버지

(30) 가. 호랑이가 무서운 나

나. \*내가 무서운 호랑이

다. 나에게 무서운 호랑이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소위 ‘여격 주어’ 개념이다. ‘심리동사’의 구문을 논할 때 제시되는 예문의 형태는 다음 (31가)와 같은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31나)의 기저문에서 나온 표층구조로 파악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생성문법의 틀에서도 이런 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세계 언어유형론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대세가 되도록 국어학의 논의 구조가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필자는 (32가)의 구조 자체가 기본 문장이라고 보고 있다. (31나) 같은 구조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표적인 문장 구조라 보고 있고, (32다)는 (32가)와 논항구조와 의미 구조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31) 가.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

나. 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

(32) 가. 나는 마누라가 무섭다. (be afraid of Y)

나. 내가 마누라가 무섭다니, 천하의 목정수도 이제 인생 종쳤구먼.

다. 나에게도 호랑이는 무섭다. ← 호랑이는 나에게도 무섭다. (be scary to X)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유형론 학계에서 ‘non-nominative subject’ 또는 ‘non-canonical marking of subjects’의 개념으로 논의되는 것들과 국어학의 논의가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왜곡된 사실이 그 논의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Aikhenvald, Dixon & Onishi 2001, Bhaskararao & Subbarao 2004 참조). 또한 한국어의 ‘비주격 주어’, ‘여격 주어’ 등의 논의에서는 격 형태와 성분의 기능이 혼동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범언어적 관점에서 논의된 ‘여격 주어’의 개념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여격 주어 구문을 논하고 있는 연재훈(1996)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여격 주어’ 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의 사격 주어(oblique subject)라고 하는 것은 그 논항이 사격형으로만 실현되는 제약이 있다(Jung 2009, 정하경 2013 참조).

그러나 한국어 ‘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나 ‘할아버지께 돈이 있으시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장 자체의 문법성도 의심되거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나 ‘할아버지는 돈이 있으시다’의 구조가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기본적인 문장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어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다. 러시아어의 경우에 ‘여격 주어’가 ‘주격’형으로 해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힌디어의 이른바 속격 주어(phrase determinative)의 구조도 그렇다(Montaut 1991). 다음 (33)과 (34)과 같은 소유 구문에서 ‘mere’와 ‘unka:’처럼 속격(genitive)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격형 ‘mere’ 자리에 다른 주격(nominative)형 ‘mai:N’이나 능격(ergative)형 ‘maiNne’, 여격(dative)형 ‘mujhe’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33) mere do bha:i: haiN  
 나-속격 두 동생-남성복수 있다-현재-남성복수  
 ‘나는 동생이 두 명 있다. = 나는 동생이 둘이다.’

(34) unka: caRhne ka: abhya:s nahi:N hai  
 그들-속격 등산-속격 연습-남성단수 아니(neg) 있다-현재-남성단수  
 ‘그들은 등산의 경험이 없다.’

따라서 유형론의 틀을 따라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예문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나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나 필자는 ‘여격 주어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재훈(1996, 2003)에서처럼 ‘여격형’ 논항이 ‘-시-’와 호응하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주어 성분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는 ‘가형 성분’은 그러면 어떤 성분으로 분석해야 할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연재훈(1996, 2003)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논의가 보여주는 한계이자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유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임동훈(2000)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 대한 서정수(1977, 1984)의 문법성 판단에 대한 비판-서정수의 (35가)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으면서 (35나)에 대해서는 ‘는’을 제거하면 아주 어색해진다고 지적하고 있음-도 그렇고, 이러한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동훈(2000)에서 제시한 ‘사회적 화시소’ 등의 개념도 다 이러한 주어 개념에 대한 오해 내지 부정확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sup>10)</sup> 임동훈(2000: 65)에서는 서정수(1977, 1984)의 ‘주제 존대설’에 대해서 ‘-시-’의 존대 대상이 주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긍정적으로도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35가)과 같은 예는 특수한 상황에서 쓰인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시-’가 청자경어에도 관여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함으로써 임동훈(2011)의 ‘청자 존대 요소’로서의 ‘-시-’의 문법화 논의를 암시하고 있다. 필자는 목정수(2013b)에서 (35가)의 예문에 대한 서정수(1977, 1984)의 문법성 판단, 즉 ‘주제 존대

10) ‘-시-’의 일치소는 ‘NP-∅, NP-께서, NP-께서는, NP-가, NP-는’ 등과 호응하고, NP-에게, NP-에게는, NP-께, NP-께는’ 등과는 잘 호응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설'을 전면 부정했고, (35나)도 특수한 상황, 즉 '김선생님'이 3자가 아니라 청자일 경우에도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6가, 나, 다)의 구조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자가 노린 것은 이러한 그의 문법성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데올로기를 추적해 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목정수(2013b)를 참조하기 바란다.

(35) 가. 김선생님께는 그 문제가 이해가 가십니까?

나. ??김선생님께 그 문제가 이해가 가십니까?

다. \*김선생님께는 그 문제가 이해가 가실 것이다.

(임동훈 2000: 64-65)

(36) 가. 김선생님께서는 그 문제가 이해가 가십니까/되십니까?

나. 김선생님은 그 문제가 이해가 가십니까/되십니까?

다. 김선생님도 그 문제가 이해가 가시는가 봐.

(목정수 2013b: 83)

다음 임흥빈(1985)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의 해결방안에서도 다음 (37)과 같은 이상한 예문이 등장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주어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정수(2013b)에서는 (38)과 같은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 주어 자리에 '이것은'과 '아버님은'이 있기 때문에 '-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면, 해당 예문의 자연성/문법성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

(37) 가. 이것이 아버님의 유품이다.

나. 아버님의 손이 떨리신다.

(임흥빈 1985: 307)

(38) 가. 이것은 아버님의 유품이다.

나. 아버님은 손이 떨리시는 모양이야.

(목정수 2013b: 77)

최근 과도한 존대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업계의 종사원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에서의 '-시-'도 주어 인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쪽으로 앉으실 게요'라든지 '사모님, 모터가 고장나셨습니다', '손님, 다 해서 5만 원이십니다' 등의 예에서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시-'에 대해서 주체존대 요소로서의 '-시-'와 청자존대 요소로서의 '-시-'를 문법화의 기제로 별개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임동훈, 2011), 필자는 이 보다는, 선어말어미 '-시-'를 간단히 '주어 존대 요소'로 규정하는 방식이 위 문장에서 누구/무엇을 주어로 보고 문장을 펼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입장에서 있다. 관련하여 '\*?할 아버지에게 책이 있으시다' 같은 예보다는 '할아버지는 책이 있으시다'가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과 '선생님, 안녕하세요?'에서나 '손님, 저쪽에서 계산하세요'에서나 '손님,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에서 '-시-'가 관여하는 층위는 동일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목정수 2013b). 한국어의 주어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시-'를 이용하여 '-시-'에 반응하는 성분이 나타나는 자리가 주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맘에 듭니다'에서 '친구' 대신에 '할아버지'의 [+존대] 자질을 갖는 '할아버지'를 대치했을 때, '\*할아버지가 맘에 드십니다'처럼 비문이 되는 경우는 '친구가' 성분을 주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저는 할아버지가 맘에 듭니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문장의 주어 성분은 ‘저는’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타동사문에서의 현상과 동일하다.

(39) 가. 저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나. 저는 할아버님을 보았습니다/뵈었습니다/\*보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문법에서 무엇을 주어로 볼 것인가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조사 ‘이/가’가 붙은 성분을 무조건 주어로 보는 눈멀 현상이 ‘가형 성분’을 목적으로 취하는 구문을 타동성 논의에서 제외시켰고, 더 나아가서 ‘-시-’와 관련된 문법성 판단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소위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관련하여 국어학계에 널리 퍼져있는 개념이 ‘직접 존대’와 ‘간접 존대’의 개념인데,<sup>11)</sup> 본고에서는 ‘직접 존대’와 ‘간접 존대’의 개념은 ‘주어’ 개념에 대한 이론적 차이에서 나온 파생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시-’ 자체에 ‘직접 존대’의 기능과 ‘간접 존대’의 기능이 이중적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신다’나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나 ‘-시-’는 똑같이 주어 ‘할아버지는’을 ‘직접 존대’하는 것이다.

### 3.3. 일본어 문장 구조에 대한 논의와 문법성 판단의 문제

여기서는 잠시 본 논의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그렇지만 본 논의와 매우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일본어 가능동사(potential verb) 구문의 문법성에 대한 일본 생성문법 학자들의 판단과 비언어학자(=국어교육 전공자)의 판단의 차이를 보이고자 한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국어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는 오기노 신사쿠라는 박사과정생의 발표를 들었다. 그런데 거기서 평소 의문점을 갖고 있던 것을 해소하게 되는 값진 경험을 한 바가 있어,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오기노(2013)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의 학습 능력, 즉 ‘국어’ 능력의 저하를 문제 삼으면서, 佐藤사토(2013)가 현재의 일본대학생들의 보고서를 조사하여 조사 사용법, 주어와 술어의 관계 등의 문법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등 일본 대학생들의 국어 문법 능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사 사용법의 오류라고 지적된 문장인데, 이 문장 구조는 일본 생성문법 학자들이 소위 ‘non-nominative subject’의 예로 많이 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일본인 일반인(서울시립대 국문과에 유학 온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주어 자리에 오는 성분의 구조가 ‘に’가 아닌 ‘は’일 때 훨씬 자연스럽게 또 그 구조가 훨씬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여러 차례 재확인하여, 이런 사실을 한국 유형론 연구회에 소개도 하고 여러 일본어 전공자들에게 지적도 해 준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어의 가능동사 구조에서나 소유동사 ‘いる’ 구문에서 주어 성분이 ‘N-に’ 또는 ‘N-(に)は’의 소위 비주격형으로 나타난다고 기술되고 있는 실정은 그리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어학계의 논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 하겠다. 오기노(2013: 329)에서 조사 사용법 오류의 예로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40)의 예가 우리 논의와 관계있는 것이다.<sup>12)</sup>

11) 이러한 개념은 ‘높임법’의 체계를 설정할 때, 일차적으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고, 다시 ‘주체 높임법’을 하위분류할 때 나온 개념이다. 고영근·구본관(2008) 등을 위시한 학교문법에서 그대로 수용되었고, 최근 권재일(2012)에서도 더 고착화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40) ‘実習がおわり、私にはたくさんの課題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실습이 끝나, 나에게  
게는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私には(나에게는)’ → ‘私は(나는)’

(41) ‘実習したことによって、自分の欠点がしることができたので、(실습한 것으로 자신의 결  
점이 알 수 있어서,)’ ‘欠点が(결점이)’ → ‘欠点を(결점을)’

생성문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 Shibatani(2001)에서는 여격 주어(dative subject) 구문에 대  
해서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가능동사 구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법성 판단을 내  
리고 있다.

(42) 가. Ai ga/wa Ken ga suki da.

Ai nom/top Ken nom like cop

‘Ai likes Ken.’

나. Ai ni (wa) eigo ga hanaseru.

Ai dat (top) English nom can speak

‘Ai can speak English.’

다. Ai ga eigo ga hanaseru. (cf. 40나)

Ai nom English nom can speak

‘Ai can speak English.’

라. \*Ai ni Ken ga suki da. (cf. 40가)

Ai dat Ken nom like cop

‘Ai likes Ken.’

여기서 (42나)의 가능동사 구문에 대한 생성문법학자 Shibatani(2001)의 문법성 판단과 앞  
서 국어교육 전공자 오기노(2013)의 조사 사용 오류에 대한 지적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  
다. 그 실상이 어떤지는 더 논의해 보면 되겠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문법  
성 판단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 부분이다. 필자가 추측컨대, 시바타니  
를 위시한 일본 생성문법학자들은 위 (42나) 구문에서 ‘英語が’를 주어로 보고 싶은, 아니 그  
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한 문장에 주어는 하나라는 생성문법이나 형식문법에서 주장  
하는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른 성분을 비주어라고 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비주격 성분이 기저형을 이루고 표면형의 주격은 이에서 변형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자는 논의가 형성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다음 문장에서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고 문  
법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43가)도 가능한 구성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3나)나

---

12) 이런 일본어 구문에서 사용된 서술어는 ‘dekiru’인데,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성문법학자들이 제시한 바대로 일본어 기본 구조에서는  
‘X-ni(wa)’나 ‘X-wa’ 구조가 다 가능할지 몰라도, 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다음 (1)보다는 (2)가 훨  
씬 자연스러워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1)은 비문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 가. ?\*너에게(는) 영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니?

나. ?\*너에게(는) 영어가 되니?

(2) 가. 너는 영어를 하는 게 가능하니?

나. 네가 영어가 된다고?

(43다)가 훨씬 자연스럽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3) 가. 私に日本語が読めます。  
나. 私は日本語が読めます。  
다. あなたが日本語が読めると?

### 3.4. 두 번째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

목정수(2005)에서는 기술동사나 주관동사의 제2논항인 ‘가형 성분’이 주어로 파악될 수 없음을 보였고, 이 ‘가형 성분’은 서술어와 함께 서술절이 아닌 서술어구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소위 이중주어 구문에서 진성 주어는 제1논항 성분이 담당하는 것이고, 제2논항은 비주어, 즉 목적보어로 봐야 한다는 ‘단일주어설’을 내세운 바 있다. 이어 목정수(2014a, 2014b)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대용언 ‘그러다’와 ‘그러하다/그렇다’를 통해 대용언은 ‘주어+서술어’ 전체를 대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소위 서술절의 ‘가형 성분’이 주어가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다음 이중 주어 구문에서 소위 서술절이 대용언 ‘그러하다’에 의해 대용된다는 것은 이 서술절이 절이 아닌 구 구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 (44) 가. 코끼리가 코가 길지요.  
나. 코끼리도 그래요?  
다. 코도 그래요?  
(45)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요.  
나. 너도 그래?  
다. 뱀도 그래?

여기서 (44나)의 ‘그래요’는 ‘코가 길어요’를 대용한다. 그렇지만 (44다)의 ‘그래요’는 ‘코끼리가 길어요’를 대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래요’는 ‘코끼리도’라는 성분이 생략된 것을 전제로 해서 ‘길어요’라는 서술어만을 대용할 수 있다. (45나)와 (45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그래’는 ‘(호랑이가) 무섭다’만을 대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하다’가 ‘코가 길다’를 대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주어+서술어]의 절 구성이 아니라 [비주어+서술어]의 구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목적어가 주제화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사정이 다르다. 다음 (46)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와 ‘세종대왕께서 만드시다’는 ‘그러시다’로 대용할 수 없다.

- (46) 가. 철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러 나갔다.  
나.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  
(47) 가. \*영수도 그러셔서 공부를 포기했다.  
나. \*촉우기도 그러셨다.

(47)이 비문인 이유는 이 문장에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와 ‘세종대왕께서 만드

시다'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이들이 서술구가 아니라 서술절, 즉 문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복문에서 연결어미의 '주어 동일성 제약'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등 연결어미인 '-고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주어 동일성 제약'을 지켜야 한다. 다음 (48나)의 비문법성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48) 가. 저는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나. \*저는 결혼하고도 남편은 일을 계속하고 싶어해요.

이를 통해 '잠이 오다' 구성에서 '잠이'라는 성분이 진성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 가. 포도주를 두 잔 마시고도 잠이 안 왔어요.

나. 포도주를 두 잔이나 드시고도 잠이 안 오세요?

연결어미 '-고도'의 '주어 동일성 제약'에 의하면, 후행절에서 '잠이'가 주어라면 선행절의 주어로 상정될 수 있는 인물명사와 다르므로 이 문장은 비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복문에서 후행절의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와 같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 주어는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인 것이다. 여기서의 1인칭 주어인 '나/저'가 된다.

(50) 가. (나는<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마시고도 (∅<sub>i</sub>) 잠이 안 왔어요.

나. (∅<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마시고도 (나는<sub>i</sub>) 잠이 안 왔어요.

다. \*그는 포도주를 두 잔 마시고도 나는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문장에서의 주어도 마찬가지이다.

(51) 가. 그는<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마시고도 (∅<sub>i</sub>) 잠이 안 오나 봅니다.

나. (∅<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마시고도 그는<sub>i</sub> 잠이 안 오나 봅니다.

다. \*그는<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마시고도 (∅<sub>j</sub>) 잠이 안 오나 봅니다.

(52) 가. 할아버지는<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드시고도 (∅<sub>i</sub>) 잠이 안 오세요?

나. (∅<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드시고도 할아버지는<sub>i</sub> 잠이 안 오세요?

다. \*할아버지는<sub>i</sub> 포도주를 두 잔 드시고도 (∅<sub>i</sub>) 잠이 안 오세요?

마지막으로 결합가(valency) 이론에 의지하여, 이중 주어 구문에서, 대주어, 소주어, 서술절의 개념으로 논항구조를 설명하려는 논의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용언(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또는 용언에 해당하는 용언구가 결합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항구조나 결합가를 설정하는 언어에서 목격되는 범언어적 현상이다.<sup>13)</sup> 논항구조

13)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필자의 지식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서술절이란 개념을 인정했을 때 이러한 서술절이 또 다른 논항을 요구하는 현상이 있는 언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본고의 관점은 유효하다.

를 보여주는 결합가 사전을 참조하면, 대부분 다 서술어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다 채워지면 기본 단문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루마니아어 등에서는 모두 그렇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같은 성분은 논항으로서 서술어에 의해 요구된 것이다. 다음은 모두 하나의 단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53) 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대요.

- 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 다. 저는 목정수라고 합니다.
- 라. 코끼리는 코가 길다.
- 마. 철수는 키가 무척 크다.
- 바. 가을 하늘은 높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다 채워졌을 때 기본적인 단문이 구성된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같은 성분은 논항으로서 서술어에 의해 요구된다. 전체 문장은 결합가 실현의 결과이지, 다시 다른 논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장의 핵을 동사로 보고 주어가 실현된 단계에서의 핵을 동사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사의 논항 요구는 이미 실현된 것이기에 다시 이것이 중심이 되어 또 다른 논항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서술어가 논항으로 요구한 성분과의 결합이 제3의 서술어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합성동사나 서술어구처럼 되어야 그것이 핵이 되어 다른 논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서술어 ‘길다’가 ‘코가’를 소주어 논항으로 요구하고 ‘코가 길다’가 또다시 주제(=대주어) 논항으로 ‘코끼리는’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코가 길다’를 문장 단위로 보는 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sup>14)</sup> 절(=문장)은 결합가가 실현된 단위라서 또 다른 논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가 길다’의 결합체를 서술절(=문장)이 아니라 서술어구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길다’가 요구한 ‘코가’와의 결합을 VP 구성으로 파악하면, 이 VP의 핵은 여전히 ‘길다’가 유지하고 있고 ‘코가’와의 결합체인 ‘코가 길다’가 연어 구성(collocation)이나 관용구(idiom)처럼 하나의 단위로 개념화되거나 하나의 서술어로 될 가능성을 유지한 채, ‘코가 긴’ 대상을 주어 논항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4)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 나. 철수는 이 업계에서 발이 넓다. [발(이) 넓다 → 발넓다]
- 다. 아휴, 정말 힘 들다. [힘(이) 들다 → 힘들다]
- 라. 계단 운동하시니까 정말 땀이 많이 나시지요? [땀(이) 나다 → 땀나다]
- 마. 자 이제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다/가다 → 이해되다/가다]

이렇게 되면 ‘길다’라는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도 달라진다는 일반적 현상을 포착할

14) 이 때문에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서술어 ‘길다’를 1항 술어로 보고, 이 문장을 ‘코끼리의 코가 길다’라는 심층구조에서 도출된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길다’의 논항은 ‘코끼리의 코가’로 하 나만 요구되기 때문이다. 1항 술어의 논항이 실현된 ‘코가 길다’가 절이라면 이미 논항 실현이 끝난 단문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절이 다시 새로운 논항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수 있다.

(55) 한강이 한국에서 제일 길다. (한 자리 서술어 = be long)

(56) 코끼리는 코가 길다. (두 자리 서술어 = have ... long)

동사 '있다'도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 해석도 달라지고, 그 구문에 따라 존대형도 달라지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존재동사 '있다'의 논항구조는 [(NP2-에) NP1-이 있다]이고 소유동사 '있다'의 논항구조는 [NP1-은 NP2-가 있다]이다.

(57) 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다.

나. 나한테는 이모가 두 분 계시다.

(존재동사 '있다' -> 존대형 '계시다')

(58) 가. 나는 꿈이 있다.

나. 할아버지는 책이 많이 있으시다.

(소유동사 '있다' -> 존대형 '있으시다')

영어의 'have' 동사도 논항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59) 가. I have a book. (두 자리 서술어)

나. He had the kindness to tell me the way.

(60) 가. I'll have him a good teacher in future. (세 자리 서술어)

나. I want you to have this room clean and tidy.

다. When did you last have your hair cut?

라. I can't have you playing outside with a bad cold!

또한, 범언어적으로 보아도, 해당 서술어가 논항의 자리에 절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서술)절이 새로운 논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think' 등의 사유동사나 인지동사가 목적보어로 'that 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어느 절이 그 절 밖의 새로운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

(61) 가. I don't think that it is true.

나. I guess (that) I can get there in time.

다. Let us suppose that the news is really true.

한국어에서도 인지동사나 발화동사 등이 완형 보문절을 취할 때 나타나는 조사 '이/가'와 '을/를'의 교체 현상에 대해 이른바 ECM(예외적 격 표시) 구문으로 논의되어 왔는데(엄홍준·김용하 2009), 이러한 교체도 완형 보문이 그 절 밖의 다른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62)에서 '그녀를'이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서 상위문의 목적어 자리로

옮겨간 것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것을 모문 동사 ‘생각하다’, ‘보다’, ‘가정하다’에 의해 격 지배 받는 것인지 내포문의 요구에 의해서 실현된 논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62) 가. 그녀가/그녀를 예쁘다고 생각해?

나. 나는 그녀가/그녀를 머리가 크다고 봐.

다. 그녀가/그녀를 범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4. 맺음말

국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외국어라는 잣대를 통해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유형론적 비교 작업은 국어학의 필수적인 방법론이 된다. 따라서 언어유형론은 국어학의 예비 조건이 된다 하겠다. 그리고 한국어가 언어유형론의 자료가 되어 그 이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분석이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일반언어학적 용어로 명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가 다르더라도 현상 자체가 비교의 짝이 되어야 할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교의 짝을 설정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외관상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전체 체계 속에서의 위치 점검을 통해 비교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들을 평등하게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본고에서는 유형론적 논의에 힘써 한국어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기술의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한국어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어학에서 세계 유형론 학계에 제대로 된 한국어 자료를 제공하게 될 때, 언어유형론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동시에 국어학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창석(2011), “국어 문법과 主語”, 《개신어문연구》 33, 47-77.
- 고영근(2013), “민족어 의존·결합가 문법과 그 유형론적 접근: 언어 유형론 노트 (4)”, 《2013 형태론 가을 집담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문법연구》 1, 271-311.
- 남기심(1986), “서술절의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191-198.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47-78.
-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71-99.
- 목정수(2003), “한국어-불어 대조 번역을 통한 구문 분석 시론: 종결어미의 인칭 정보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55-2, 719-758.
-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 목정수(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75-99.
- 목정수(2007), “‘이다’를 기능동사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어문연구》 136, 7-27.
- 목정수(2009a), “한국어학에서의 소쉬르 수용의 문제: 기욤을 매개로”, 《언어학》 53, 27-53.
- 목정수(2009b),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태학사.
- 목정수(2010a), “계사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시적)이다/(유명)하다’의 정체”, 《시학과 언어학》 19, 99-125.
- 목정수(2011),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 단어 부류의 정립: 그 유형론과 부사 파생”, 《언어학》 61, 131-159.
- 목정수(2011), “한국어 구어 문법의 정립: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을 지향하며”, 《우리말글》 28, 57-98.
- 목정수(2013a), “한국어의 핵심을 꿰뚫어 본 교육 문법서: Yeon &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를 중심으로”, 《형태론》 16-1, 55-81.
- 목정수(2013b),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7, 63-105.
- 목정수(2013c), 한국어 방향격 표시의 세분화 기제: 보조동사 ‘-(어)가다/오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3, 161-188.
- 목정수(2013d), 《한국어, 보편과 특수 사이》, 태학사.
- 목정수(2014a), 허웅 선생의 일반언어학 이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계승을 위한 제언, 《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보기》, 박이정, 33-82.
- 목정수(2014b),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6, 101-126.
-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459-519.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하우.

- 변광수 편저(2003), 《세계 주요 언어》, 도서출판 역락.
- 손호민(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61-95.
- 아사리 마코토(淺利誠) (2008), 《일본어와 일본사상: 일본어를 통해 본 일본인의 사고》, 박양순 옮김, 한울.
- 엄홍준·김용하(2009),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 거표시 구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고찰”, 《언어》 34-3, 583-602.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241-275.
- 연재훈(2003),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Saffron Books, London.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오기노 신사쿠(2013), “일본 초·중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 그리고 대학 국어 문법 교육의 역할”, 《초·중등학교의 국어교육과 대학의 국어교육: 위계성과 질적 수월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29-347.
- 우순조(1995), “내포문과 평가구문”, 《국어학》 26, 59-98.
- 이정복(2010), “상황 주제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217-246.
- 임근석(2012),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소유 서술구문 연구를 위한 기초적 논의”, 《우리말글》, 45-76.
- 임동훈(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31-66.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임동훈(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 의미학》 36, 39-63.
- 임흥빈(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111-148.
- 임흥빈(1985),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視點), 《국어학》 14, 287-336.
- 임흥빈(1990), “존경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388-400.
- 장소원(2011), “한국어 문법론”, 《서울대학교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 정인상(1990), “주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241-247.
- 정하경(2013), “The development of oblique subjects in (North) Russian”, 《(사)한국언어학회 2013년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80.
- 최성호(2009), “한국어 “교착” 현상에 대한 연구: 러시아어 굴절과 비교하여”, 《언어학》 55, 169-195.
- 최성호(2013), “교착 통사론: 생략과 부가”, 《언어학》 65, 3-37.
- 최현배(1963), 《우리말본》(3판), 정음문화사.
- 허웅(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사론》, 샘문화사.
- 大野晋(1978), 《日本語の文法を考える》, 岩歩波書店.
- Blake, B. J. (2004), *Cas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nche-Benveniste, C. et al. (1984), *Pronom et Syntaxe: L'approche pronominale et son application au français*, Société d'Etudes Linguistiques et Anthropologiques de France.

- Brown, D., M. Chumakina, G.G. Corbett (2012), *Canonical Morphology and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Jonin (2008), "Particles and postpositions in Korean", In Kurzon & Adler (eds.) (2008), pp.133-170.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 (ed.) (1987), *The World's Major Languages*, Croom Helm.
- Corbett, G.G. et al. (eds.) (1993), *Heads in gramma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 1: Method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Garry, J. & C. Rubino (eds.) (2001), *Facts about the World's Languages*, A new England Publishing Associates Book.
- Greenberg, J. (ed.) (1966), *Universals of Language*, second ed., The MIT Press.
- Guillaume, G. (1971), *Leçons de linguistique 1948-1949, Série B, Psychosystématique du langage: Principes, méthodes et applications (I)*,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Lille; Paris, Klincksieck.
- Guillaume, G. (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Paris, Klincksieck et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 Guillaume, G. (1974), *Leçons de linguistique 1949-1950, Série A,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I*, publiées par R. Valin,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 Hagège, C. (2010), *Adposi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2003), "The geometry of gr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 In Michael Tomasello (ed.),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vol. 2, Lawrence Erlbaum, 211-242.
- Haspelmath, M. (2010a), "Compar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ategories in cross-linguistic studies", *Language* 86-3, 663-687.
- Haspelmath, M. (2010b), "The interplay between compar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ategories (Reply to Newmeyer)", *Language* 86-3, 696-699.
- Haspelmath, M., M. Dryer, D. Gil & B. Comrie (eds.) (2005),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artin, E. König, W. Oesterreicher and W. Raible (eds.) (2001),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 2*, de Gruyter.
- Hewson, J. & V. Bubenik (2006), *From case to adposition: the development of configurational syntax in Indo-Europe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irtle, W. (2007), *Lessons on the English Verb*,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Hirtle, W. (2009), *Lessons on the Noun Phrase in English*,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Jung, Hakyung (2009), "Possessive subjects, nominalization, and ergativity in North Russian", Bubenik, Hewson and Rose (eds.), *Grammatical Change in Indo-Europe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7-220.
- Katzner, K. (1975), *The Languages of the World*,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Kurzton, D. & S. Adler (eds.) (2008), *Adpositions: pragmatic, semantic and syntactic perspectiv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i, C. N. (ed.) (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Makino Seiichi and Michio Tsutsui (1986), *A Dictionary of Basic Japanese Grammar*, The Japan Teimes, Tokyo.
- Makino Seiichi and Michio Tsutsui (1995), *A Dictionary of Intermediate Japanese Grammar*, The Japan Teimes, Tokyo.
- Martin, Samuel E.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uttle.
- Montaut, Annie (1991), "Constructions objectives, subjectives et déterminatives en hindi/urdu: où les paramètres sémantiques croisent les paramètres discursifs", *Sur la transitivité dans les langues*, LINX nr. 24, 111-132.
- Newmeyer, F. J. (2010), "On compar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ategories: A reply to Haspelmath", *Language* 86-3, 688-695.
- Ruhlen, M. (1987), *A Guide to the World's Languages, vol. 1,2,3*,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ibatani Masayoshi (2001), "Non-canonical constructions in Japanese", Aikhenvald, Dixon and Onishi (eds.), *Non-canonical Marking of Subjects and Object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07-354.
- Sohn, H-M.(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snière, L. (1959),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 Valin, R. (1981), *Perspectives Psychomécaniques sur la Syntaxe*, (Cahiers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Whaley, L.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SAGE Publications.
- Yeon &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 Yoon, James H. (2004), "Non-nominative (major) subjects and case stacking in Korean", Bhaskararao & Subbarao (eds.), *Non-nominative Subjects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65-314.

## ■ 토 론

# “국어학과 언어 유형론-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토론문

박동근(건국대)

이 연구는 객관적인 국어 연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언어 유형론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언어 유형론이 국어학의 예비 조건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무비판적인 언어 유형론에 함몰됨으로써 국어 현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 연구에서 언어 유형론에 역기능 사례로 ‘비교 준거의 문제’, ‘어순 유형론의 문제’, 특히 ‘비주격 주어 구문’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국어 연구에 주체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어학이 기본적으로 서구의 언어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로 대표되는 범언어적 언어 이론에 대한 연구는 학자의 기본적 소양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구어 = 범언어적 기준”에 이끌리어 국어를 왜곡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 특히 7~80년대 생성문법 연구에서 비문의 무분별한 적용이 있었으며,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유형론적 연구 결과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자께서 국어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관찰과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근거로 언어 유형론에 근거한 국어의 ‘여격 주어’ 설정을 비판하고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흥미롭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통사론 분야에 과묵한 토론자로서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능력 밖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연구와 언어유형론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앞서도 지적했듯이 오늘 발표자께서는 서론과과 결론에서 언어 연구에서 유형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머리말에서 “**진정한 국어학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다른 언어에 대한 관심과 분석 능력”이 필요하며 맺음말에서는 “국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외국어라는 잣대를 통해 **볼 수밖에 없다**”는 필연론을 펴셨습니다. 물론 오늘 주제가 ‘언어 유형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머리말에서 언급한 “서구 이론에 어둡고 속으로 초조하기도 한” 국어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어 유형론적 근거한 든 비교·대조적 방법이 과연 국어연구의 필수적인 지식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특히 언어 유형론의 기본 방법인 ‘비교’나 ‘대조’는 ‘증명’의 수단이라기보다 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언어 유형론에 바탕을 둔 범언어적 현상들의 불투명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언어 유형론이 결국 개별 언어에 대한 지식의 종합물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개별 언어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전제가 되는데 이는 결국 순환적인 문제입니다. 3.2에서 지적한 Yoon(2004)의 사례처럼 적절하지 않은 국어의 해석이 다른 언어의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역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예, 국어의 단모음 체계) 연재훈(2011)의 지적처럼 “범언어적으로 확립된 유형론적 보편성은 개별 언어의 문법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만 여전히 언어 유형에 근거한 보편적 사실이 증명의 수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주요 언어 이외의 언어를 가져다가 국어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필자께서 각주 13)에 지적한 것처럼 흔히 우리가 범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자의 지식 범주에 있는 것들일 수 있다는 점은 특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자의 논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라는 제목과 달리 실제 언어 유형론의 부정적 사례가 중점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격 주어’라는 범언어적 현상(?)인 유형론적 연구 결과물은 국어 연구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된 것인지? 또 초기 생성 문법연구자들이 국어 연구에 범했던 보편성에 대한 과도 적용과 같은 오류가 언어 유형론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걸러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2부

# 제1 분과 발표



#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하여

소신애(승실대)

## < 차례 >

1. 서론
  2. 기존 논의 검토
  3.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 실현 양상
  4. 비어두 ㄱ 구개음화의 저지 요인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ㄷ 구개음화와 달리, ㄱ 구개음화는 어두 위치에서만 실현되고, 비어두 위치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ㄱ 구개음화가 지닌 일종의 제약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ㄱ 구개음화가 어두에서 생산적으로 실현되는 방언에서도 비어두 위치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ㄱ 구개음화가 조음적 요인에 근거한 음운 현상으로서 ‘동화’의 일종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음성적 동기가 어두에만 작용하는 현상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음변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어두 위치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에 비추어 볼 때도, ㄱ 구개음화의 적용 양상은 설명을 요한다.

ㄱ 구개음화의 적용 양상에서 보이는 이 같은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에서도 종종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인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ㄱ 구개음화의 음절 위치별 실현 양상 및 그 기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실제로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는 기존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거나, 언급이 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되어 왔다. 예컨대, ‘해바라기(向日化)’의 방언형인 ‘해바라지’나 ‘요긴하다(要緊)’의 방언형인 ‘요진하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ㄱ 구개음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고, 비어두 위치에서 보이는 ㄱ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 및 그 출현 기제에 대해 정밀히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ㄱ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는 요인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 2. 기존 논의 검토

ㄱ 구개음화는 국어의 구개음화에 관한 논의 가운데서도 항상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

다. 때문에 ㄱ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에 대한 정밀한 기술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기존 논의에서 ㄱ 구개음화는 어두 위치에서만 일어나는 제약이 있다는 정도로 소략하게 기술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金完鎭(1971: 111)은 “南部 諸方言에서 볼 수 있는 ‘ㄱ’의 口蓋音化는 아직 單語의 첫 音節에서만 發見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적어도 筆者의 觀察한 바로는 ‘가기’, ‘먹기’, ‘먹이다’, ‘아기’ 等에서의 ‘기’가 口蓋音化된 例란, 아무리 前進的인 ideolect라 하더라도 가지는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술은 실제 현상이 다소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ㄱ 구개음화와 연관된 다양한 예들을 보다 정밀히 관찰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일부 논의에서는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崔銓承(1986: 300-305)은 ㄱ 구개음화가 제2음절 이하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제약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반면에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19세기 후기 문헌 자료에 ‘삼키-(呑)>삼치-’의 변화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고유어 형태소 내부의 비어두 음절에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白斗鉉(1992: 340-344)는 한자어의 비어두 음절에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를 제시하였다. ‘덩목정(鄭牧卿), 요진(要緊), 근지(根機), 학쫘(學校)’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또한 지극히 소수인 까닭에 여전히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ㄱ 구개음화가 어두 위치에서만 일어난다고 기술한 논의들은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종류의 설명이 제안되었다.

첫째,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규칙 발생 시기의 측면에서 설명한 경우이다. 洪允杓(1985: 150-152)는 18세기 초에 구개음화 규칙이 ‘형태소 경계’와 ‘어두 음절의 어간 형태소 내부’에만 적용되는 상태에서 ㄱ 구개음화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때문에 ㄱ 구개음화는 비어두 음절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어두 음절에서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규칙 협소화’의 결과 ㄱ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영역이 축소된 상태에서 ㄱ 구개음화 규칙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ㄱ 구개음화 규칙은 ‘어두’에서 발생하여 ‘비어두’까지 확산되지 못한 채 ‘규칙 소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사실상 결과론적 기술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음변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발생하여 어두 위치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왜 ㄱ 구개음화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 부합하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ㄱ 구개음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비어두 위치에서 어두 위치로 규칙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볼 때, ㄱ 구개음화가 이와 다른 변화 방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음라우트 규칙과의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 경우이다(田光鉉, 1977: 75-76, 崔玉敬, 1994: 61-64, 김주필 1994: 144-148, 161-162, 郭忠求, 2001: 251 등). 동일한 음 연쇄에 음라우트 규칙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ㄱ 구개음화의 적용이 저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예컨대, ‘고기(肉)’가 음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받아 ‘괴기’가 되면 그것은 다시 ‘\*괴지’로 구개음화될 수 없다고 본다.<sup>1)</sup>

1) 이는 ㄱ 구개음화 규칙의 우선 적용으로 인해 음라우트가 저지되는 경우와 대비된다. 예컨대, ‘바디(袴)’가 ㄱ 구개음화됨으로써 ‘바지’가 되면, ‘\*배지’로 음라우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田光鉉(1977: 75-76)은 ‘/kileki/(기러기), /køki/(고기), /ɛki/(아기), /kampiki/(깁부기), /hɛpaleki/(해바라기)’ 등의 예를 제시하고, “先行母音이 前部 母音이거나 前部母音化의 可能性이 있을 때 /k/의 口蓋音化는 制約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現象은 /k/의 第二音節 以下에 있어서 口蓋音化가 Umlaut와 有關함을 暗示”한다고 보았다.

郭忠求(2001: 251) 또한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면 k-구개음화 규칙은 공전하게 마련”이므로 “k-구개음화는 어두 위치에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한다면 k-구개음화 규칙은 움라우트 규칙보다는 후대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 k-구개음화 규칙이 없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평안·육진·황해·경기방언에는 움라우트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洪允杓(1985: 150-152)도 형태소 경계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움라우트 규칙과 구개음화 규칙 간의 상호배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ㄷ 구개음화가 형태소 경계에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다’가 ‘머지다’로 되지 않는 이유를 움라우트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口蓋音化規則이 적용되면 i움라우트 規則은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周知하는 바이지만, i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면 口蓋音化規則이 적용될 수 없다는 두 規則 사이의 相互排他性이 存在할 수 있는지는 아직 未知數”라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구개음화 규칙과 움라우트 규칙의 상호배타성을 전제한 일련의 논의는 이들 규칙이 그 음운론적 동인에 있어 동질적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구개음화 규칙과 움라우트 규칙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金完鎭(1975: 2-3), 李秉根(1976: 105-106)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金完鎭(1975: 2-3)는 “子音 ㄷ, ㄱ, ㅎ 등을 同化主로 하여 有機的 逆行同化를 이룰 때 口蓋音化現象이라 불리우고, 母音을 同化主로 하여 調和的 逆行同化를 이룰 때 움라우트 現象을 示顯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같이 넓은 意味에서의 ‘i’의 逆行同化에 들 것”이라고 하였다.

李秉根(1976: 105-106)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의 상관성을 인정하되, 두 음운 규칙이 상호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口蓋音化의 被同化音인 口蓋音은 곧바로 움라우트規則의 音韻論的 制約을 불러 일으키는 介在子音이 되기 때문에, 결국 두 規則들이 相互排他的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두 規則은 하나의 規則範疇에 들면서도 音韻論的 制約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구개음화 규칙과 움라우트 규칙 간의 동질성을 상정할 때, 이들의 공통점으로 언급되어 온 것은 양자가 모두 구개성(口蓋性)을 지향한다는 점이었다.

崔玉敬(1994: 61-64)는 구개음화와 움라우트를 ‘구개동화’에 속하는 공모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ㄱ 구개음화가 어두에만 적용되고 비어두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이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움라우트가 시기적으로 ㄱ 구개음화에 앞섬으로써 움라우트의 ‘구개성 지향’이 먼저 실현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동화 영역 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예컨대, ‘먹이다’가 ‘메기다’로 움라우트되면 ‘구개성 지향’이 성취되는 까닭에, ‘메지다’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날 필요성이 없어져 ㄱ 구개음화가 비실현되었다고 본 것이다.

김주필(1994: 144-148, 161-162)도 ㄱ 구개음화가 어두 위치에 국한되어 일어난 현상을 구개음화와 움라우트의 공모성 및 상호배타성에 의거하여 설명하였다. ㄱ이 구개음으로 바뀌면 움라우트(여기서는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가 일어날 수 없는데, 역사적으로 구개성 반모음 첨가 규칙이 먼저 적용됨으로 인하여, ㄱ 구개음화가 제2음절 이하로 확산되는 것이 차단

되었다고 보았다.<sup>2)</sup>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에서 개재 자음이 구개음이면, 그 구개음이  $i$ 나  $y$ 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므로  $i$ 나  $y$ 가 선행 음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구개음이 개재 자음으로 놓이면 구개성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선, 선행 음절에 음라우트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후행 음절에  $\gamma$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 실제로 방언을 폭넓게 관찰해 보면 음라우트와  $\gamma$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도 관찰할 수 있다. ‘핵조(학교)’, ‘잠꾸레지(잠꾸러기)’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gamma$  구개음화와 음라우트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한층 더 정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비어두 위치에서 음라우트가 먼저 적용됨으로써  $\gamma$  구개음화가 어두 위치에 한정되었다고 할 때, 이것이 단순히 규칙 발생 선후의 문제인지 해당 규칙의 세력 문제인지를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음라우트 규칙과  $\gamma$  구개음화 규칙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음라우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비어두 위치에서  $\gamma$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gamma$  구개음화의 인지적 측면과 연관지은 논의이다. 즉,  $\gamma$  구개음화는 다른 구개음화와 달리, 인지적 요인이 관여한 현상으로서, 이 때문에 그 발생 환경이 제1음절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종희·권병로(2011: 52-68)은  $\gamma$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동인을 청자 중심의 인지적 측면에서 재고찰하는 가운데,  $\gamma$  구개음화의 제한적 출현 분포를 언급하였다.  $\gamma$  구개음화는 “‘ $i$ ’ 모음 앞에서 ‘ $\gamma$ ’과 ‘ $\gamma$ ’의 음향적 유사성에 말미암은 청자의 인지적 혼동에 의해 발생한” 음운 변화이며, “제1음절에서만  $\gamma$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질 형태소의 제1음절 위치는 기능 부담량이 크고 따라서 인지적 단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논의는 기존에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동인과 기제를 조음적 측면에서만 설명했던 것과 달리 구개음화의 인지적 측면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3)</sup> 그러나 이 견해 또한 비어두 위치에서  $\gamma$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gamma$  구개음화에 인지적 동인이 관여한다는 주장의 방증으로서  $\gamma$  구개음화의 분포 제약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gamma$  구개음화에 인지적 동인이 관여한다는 사실과  $\gamma$  구개음화가 어두 위치에 국한되어 실현되는 양상 간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mma$  구개음화의 인지적 측면과 비어두 위치에서의  $\gamma$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정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 3. 비어두 위치의 $\gamma$ 구개음화 실현 양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는 대부분  $\gamma$  구개음화가 어두 위치에만 한정되어 일어난다고 기술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비어두 위치에서  $\gamma$  구개음화가 실현된 예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조건 환경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sup>4)</sup>

2) 김주필(1994: 120-122)은 ‘ $i$ 나  $y$ 에 의해 선행 음절의 후설모음에 반모음  $y$ 가 첨가되는 현상’을 ‘구개성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 부른다.

3) 이 같은 견해는  $\gamma$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이 현상의 음운론적 동인을 연관지어 해석한 것으로,  $\gamma$  구개음화와  $\gamma$  구개음화가 보이는 적용 양상의 차이를 규칙 외적인 차원이 아닌 규칙 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 시도라 여겨진다.

4) 본고에 제시하는 자료는 일차적으로,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표 1>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 실현 양상 I 5)

표준어형	ㄱ 구개음화형	非구개음화형
노래기(<노락이 <놀여기>)(環蟲)	노래지<경남>, 노랙지<경북><전남> 등	노래기, 노래끼, 노래기, 노루기, 노루래기, 노리기, 뇌리기 등
검부러기	검부라지<전남>	검부라기, 검부래기, 검부레기 등
시래기(靑莖)	시라지<강원><경남><평남><함경><황해><충남><중국>[밀강], 시래지<중국>, 씨라지<중국>[화룡]	시라기, 시래기, 씨라기, 씨래기 등
해오라기	해오라지<전남>	해오라기, 해오래기, 해우래기 등
찌꺼기(<줏의)	찌그리지<경남>, 찌꺼지<강원>, 찌찌기<경남>	찌그러기, 찌그레기, 찌꺼기, 찌께기, 찌끼기 등
번데기(<본도기)	번더지<강원><함북>, 번데지<함경><중국>[연길], 본더지<강원>, 본도지<강원><함남>, 본드지<함남>, 분두지<함경><중국>[계동, 밀강, 월청, 화룡] 등	번데기, 번딕기, 번디기, 본대기, 본데기, 본디기, 분대기, 분두기, 분디기, 빈데기, 빈디기 등
해바라기(말음절)(向日花)	해바라지<전남><강원>, hebaradzik'ot해바라지꽃<전남>[진도]	해개우래기, 해라배기, 해바라기, 해바래기, 해바레기, 해배래기, 해보라기, 해자바래기, 해자부라기, 해자부래기, 해자우래기, 해장우래기, 해즈래배기, 해바레기 등
깜부기	가무지<함경><전국>, 감부지<함경><중국>, 까무지<함남>, 감부지<함경>	감부기, 감뵈기, 까무기, 깜부기, 깜뵈기, 깜비기 등
누더기	누더지<경북><전남>, 누덕지<전라><중국>[교화]<충남><김용배(1991/1998)전남 p.337>, 두더지<전남>, 두덕지(두덕찌)<전라>, 현두덕지(현두덕찌)<전남>	누더기, 누데기, 두더기, 두덕기, 현두데기 등
구기다	꾸지다<전라><함북>, 꾀지다<경남>	꾸기다, 꾀기다 등
구겨지다	꾸저지다<전남>	꾸겨지다, 꾸기지다, 꾀게지다, 꾀기지다 등
잠꾸러기	잠꾸레지<강원>, 잠꾸럭지<강원>	잠꾸러기, 잠꾸레기 등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2007년)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이는 남북한 방언 및 해외 한국어 자료를 망라한 것으로, 기존에 간행된 방언 자료집, 사전, 단행본, 잡지, 군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자료의 원전을 찾아 확인·대조하였다. 그 밖에 필자의 현지 조사 자료, 관련 논저에 수록된 자료도 함께 제시한다. 본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언형을 위주로 제시하며, 지면상 <전남·전북>은 <전라>로, <경남·경북>은 <경상>으로, <충남·충북>은 <충청>으로, <평남·평북>은 <평안>으로, <함남·함북>은 <함경>으로 표시한다. 필자의 현지 조사 자료(2006~2011 조사, 제보자 김금례(1925년생, 女) 씨, 전남 진도군)는 음성형을 함께 제시하며, 기존 논저나 보고서에서 가져 온 자료는 약호로써 출처를 명시한다.

- 5) 약호 <진도지역어>는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을, <영광지역어>는 『전남 영광 지역의 언어와 생활』을, <청원지역어>는 『충북 청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을, <산청지역어>는 『경남 산청 지역의 언어와 생활』을 가리킨다. <전남보고서>는 『2010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를 가리킨다. 본문에 제시한 자료의 분포 표시에서 <중국>[밀강, 월청, 회룡봉, 화룡, 연길, 아동, 훈춘, 계동]은 함경(특히 함북) 방언권에 해당하고, <중국>[무순, 개현]은 평안(특히 평북), <중국>[교화, 영진]은 전북, <중국>[할빈, 서광, 태래, 오상]은 경상(특히 경북), <중국>[돈화, 입신]은 충남, <중국>[류하]는 경기 방언권에 해당한다(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집필조, 1985: 3-6).

뿌리(<불휘)(根)	뿌랭지<경북>, 뿌러지<경남><중국>[서광, 태래], 뿌렁지<충남><강원><경북><평안><함경><전남>, 뿌레지<함북> 등	뿌랭기, 뿌러기, 뿌렁기, 뿌레기 등
귀때기(耳)	귀퉁지<함남>	귀때기, 귀떼기, 귀퉁이 등
구더기	구더지<전라>, 구데지<전북>	구더기, 구데기 등
삼키다(<숨씨-)(呑)	숨지다<제주>, 삼치다<제주><함경><중국>[연길, 훈춘], 숨지다<제주>	숨키다, 삼키다, 상키다, 생키다, 생키다 등
일으키다(<니르키다<니르햐다)(使起)	이러나치다(일어나치다)<전남>, 이르친다<충북>, 일바치다<경상>, 일아치다<전남>, 일어치다<전남>, 일치다<전남> 등	이러나키다<전남>, 이러키다, 이르키다, 일바키다<경남>, 일배키다<경남>, 일키다<전남> 등
-습니까(cf. -습니까)	쏘다질꺼야남짜[쏟아질 것 아닙니까] <진도지역어p.78>, 읍니까[읍니까]<전남>	이썸니까[있잖습니까]<진도지역어 p.218>, 안 심니까[세우잖습니까]<진도지역어p.248>, 읍니까[읍니까]<전남>, 읍니까[읍니까]<전남>, 멋입니까[무엇입니까]<전남>, 장입니까[장입니까]<전남>
-끼리	-끼리<함경><황해><강원>, 사람덜끼리두[사람들끼리도], 여자덜끼리두[여자들끼리도], 식꾸끼리[식구끼리], 상재끼리[상제끼리], 막때기끼리[막대기끼리], 이상 <청원지역어p.36, 38, 102, 112, 250>, 동서끼리:[동서끼리]<산청지역어p.22, p.107> 등	
끼리끼리	끼리끼리<전남><강원><함경>	

기존 논의에서 ㄱ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가 존재한다. 예컨대, ‘해바라지(해바라기), 삼치다(삼키다)’처럼, 고유어 형태소 내부의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분포상으로는 <경기>를 제외한 전 방언에서 이 같은 예가 관찰되며, <전라>, <경상>, <함경>, <강원>’ 방언에서 특히 이러한 예가 많다. 이는 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생산적인 지역 분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예는 어두 위치의 구개음화형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지만, ㄱ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정밀히 기술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예들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예의 존재는 ㄱ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존 논의를 한층 더 정밀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 또한 추가할 수 있다.

<표 2>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 실현 양상 II 6)

표준어형	ㄱ 구개음화형	非구개음화형
요긴하다(要緊-)	yo:dʒinada요:진아다<경기>[인천], 요 진하다<제주>	
학교(學校)	학조(학쵸, 학쵸)<경상>, 핵쵸(핵쵸) <경상>	학교, 핵교, 핵:교<산청지역어p.36, 38> 등
중학교(中學校)	중핵쵸<산청지역어p.30>	중악교, 중액교, 중학교, 중학피, 중핵고, 중핵교 등
고등학교(高等學校)	고데~액쵸<산청지역어p.123>	고등학교<산청지역어p.468> cf. 국민해포[국민학교]<산청지역어 p.30, 123>, 사간학교[사관학교] <산청지역어p.468>
안경(眼鏡)	양:정<전남보고서p.63>	양:경, 양:깁<전남보고서p.63>
삼겹살(三-)	sandʒəps'al산접살<전남>	
제격(-格)	지적<경남>[창원]	제격

위의 예들은 한자어 혹은 한자가 포함된 어사들 중에서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보여 주는 것들이다. 이들 어사는 대개 단일어처럼 쓰이고 있는 까닭에, 여기서 관찰되는 구개음화를 복합어 내부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예들 또한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의 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복합어의 비어두 음절에 ㄱ 구개음화형이 출현하는 예를 일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 실현 양상 III

표준어형	ㄱ 구개음화형	非구개음화형
보릿겨	버리쵸<경남>, 보리제<경남>, 보리쵸<충북><경남>, 보리쵸<진도지역어p.58>, 보릿제(보릿쵸)<전남><충북>, 보리제<제주>, 보릿저<전남><충남>, 보릿제<강원><전라>, pos'alj'enin mongindʒeragodo 'ago보쌀쵸는 몽근제라고도 하고[보릿겨는 몽근겨라고도 하고]<전남>[진도] 등	버리게, 버리겨, 버릿개, 버릿 게, 버릿겨, 보리게, 보리겨, 보릿게, 보릿겨 등
등겨	곤저<충남>, 등재<전남>, 등저<충남>, 등제<강원><경기><전남>, 잇저<충남> 등	곤겨, 등개, 등게, 등겨, 잇겨 등
왕겨	거친저<충남>, 맵재<전라>, 맵저<전북>, 맵제<전라>, 맵지<전북>, 맷재<경북><전남>, 맷저<충남><전남>, 아시제<중국>[화룡], 양지<경남>, 왕재<전남>, 왕저<전라><충남>, 왕제<경남><강원><전라>, 왕저<전북>, wandʒe왕제<전남>[진도], 왕지<경상><전북>, 왕:저<충남>, 왕저<충남>, 왕지<충북>, 왕저<충남> 등	거출게, 아시게, 아이겨, 양게, 양기<경남>, 왕게, 왕게, 왕기 <경남>, 왕:겨, 왕개, 왕개, 왕 게, 왕겨, 왕기, 왕개, 왕게, 왕겨 등
콩기름	kʰondʒirim 콩지름<전남>[진도], 콩지름<경남><함경>, 콩지럼<전북><충북>, 콩지름<강원><경기><전라><제주><충청>, 콩질굼<함경>, 콩질금<함경>	콩기름, 콩기림, 콩길굼, 콩길 금 등

6) '요긴하다' 항목의 음성 전사형은 필자가 직접 전사한 인천 지역어형으로, 제보자는 70세 여성이며, 전형적인 경기 방언을 구사한다. 이 제보자의 발화에서는 '두지지도 잘해(뒤지기도 잘해)'처럼 명사형 어미 '-기'를 종종 '지'로 발음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전남 방언형 '산접살'은 '삼겹살'에 ㄱ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삼접살), ㅈ에 의한 중자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산접살).

참기름	찬지름<전라><충북><경남>, 촌지름<제주>, 참지름<강원><경기><경상><전라><제주><충남><함경>, 창지름<경남>, ʃʰamdʒirim 참지름<전남>[진도], 찬지름<충북>, 책지름<강원><경기><전북><충청>	츄기름, 참기름, 창기름, 책기름, 책기름, 책기름, 책기름 등
들기름	tildʒirim 들지름<전남>[진도], 들지름<강원><경기><경남><전라><제주><충북>, 들찌름<전남><경남> 등	들기름, 들기름 등
왜기름	애지름<산청지역어p.94>, 애지름<경상>, 왜지름<경상>, 외지름<경상> 등	애기름<경남>, 왜기름<함남><평남> 등
옛기름	옛지름<전남>, yetʃ'irim 옛지름<전남>[진도], 옛지름(여찌름, 옛찌름)<전라><경북><제주><충남><강원>, 옛질검<경북>, 옛질굼(옛질굼)<경북><전북>, 옛질굼(여질굼, 열질굼, 옛질굼)<강원><경기><경상><전라><충청><중국>, 이질굼<경남> 등	옛기름(여끼름, 열기름, 옛끼름), 옛길굼(열길굼), 옛기름<경기>, 옛기름<경기> 등
훗짐(분짐)	분짐<제주><함북>, 분:짐<경상><함북>, 헛짐<전남>, 훗:짐<전남>, 훗짐<제주>, 헛짐<제주>, 훗:짐<전남>	분짐, 훗짐
한길	큰질<경상><충청><함경><중국>[할빈, 둔화, 계동, 연길, 화룡, 아동, 입신], 한질<경상><제주>[전지역], 행질<충남>	큰길<중국>[회룡봉, 오상, 영진], 한길<함북>, 항길<전국>, 행길<강원><경기><경북><전라><충청><함북><중국>[류하, 교화]
셋길	새:짚<경북>, 셋:짚(셋:짚)<경상><전남>, 셋질(셋짚)<전남>, 셋:짚(셋:짚)<전남><경남>, 셋질<전라><제주>[전역], 소리짚<경남><전라><제주><충청>, 토끼짚<강원><평안><황해> 등	새:길<경상>, 색길<전남>, 셋:길<경남><전남>, 셋길(셋짚)<강원><경상><전남><충북><평안><황해>, 소리길<경북><황해>, 토끼길<강원> 등
밀기울	mildʒu:l 밀줄:<전남>[진도], 미지울<충남>, 미찌불<경북>, 밀저울<충남>, 밀지불<경상>, 밀지울<강원><경기><전라><충남><산청지역어p.66>, 밀찌울<전남><산청지역어p.68> 등	밀겨울, 밀기울, 밀끼울 등
백일기침(百日-)	베길지침<진도지역어p.258>	
해바라기(cf.*히갸브리)(제2음절) (向日花)	해자구리<강원>, 해자바리<함경><중국>[화룡], 해자바래기<함남>, 해자보리<함경>, 해자부라기<함경>, 해자부래<함북>, 해자부래기<함남>, 해자부리<함경><중국>[계동, 화룡, 밀강, 훈춘], 해자불<함경><중국>[계동, 연길], 해자와리<강원>, 해자우래기<강원>, 해자우리<강원><함남>, 해자우래기<강원>, 해재부리<함북><중국>, 해자브리<함북> 등	해가부리, 해가오리, 해가와리, 해가우리, 해가부리, 해가오리, 해가우리, 해개부리, 해개불, 해개우리, 해개부리, 해기우리 등
연방개(延燻契)	연:반재<청원지역어p.38>	연방개<청원지역어p.36>, 연방개:<청원지역어p.36>
성주경(-經)	성주평<청원지역어p.340>	성주경<청원지역어p.338>

金完鎭(1971: 111)은 ㄱ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겨’(糠)

7) 李秉根(1997: 65-69)은 ‘해바라기’의 방언형을 ‘해바라기(해#바라<부라-, 向>+기)’계, ‘해자부리(해#자불<자불-, 睡>+이)’계, ‘해가우리(해#가울<가불-, 傾>+이)’계로 분류하였다. 郭忠求(1997: 131-132)도 ‘해바라기’의 방언형을 ‘바라(望)’계와 ‘자불(眠)’계의 두 종류로 나눈 바 있다. 그러나 본고는 ‘해자부리’계와 ‘해가우리’계를 모두 ‘\*히#가불(傾)+이’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가’에 대한 ㄱ 구개음화 혹은 y 탈락을 상정할 경우, ‘해자부리’계와 ‘해가우리’계의 방언형을 단일한 어형에서 발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울다(傾)’의 방언형인 ‘개불뚝하다, 까불다, 자올다, 자올다, 지부다, 지불다, 짜올다’ 등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를 ‘저’로 發音하는 사람이 複合語 ‘왕겨’는 ‘왕겨’ 또는 ‘왕겨’ 等으로 발음하는 것”도 이러한 비어두 제약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방언 자료를 두루 살펴보면, ‘왕저, 왕제’는 물론 ‘왕저’와 같은 예들도 찾아볼 수 있다. 복합어의 비어두 음절에서는 ㄱ 구개음화형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콩지름’과 같은 복합어의 예에 대해 洪允杓(1985: 152-153)는, 어기인 ‘기름’이 구개음화되어 ‘지름’이 된 뒤 ‘콩지름’이라는 단어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미 어두에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어형이 복합어의 후행 요소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따른다면, 복합어의 비어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ㄱ 구개음화형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어두 위치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나 복합어의 비어두 위치에 나타나는 모든 ㄱ 구개음화형이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겪은 것일까? 그렇다면 ‘왕저(왕겨)’나 ‘찬지름(참기름)’, ‘햇집(햇김)’, ‘행질(한길)’과 같은 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어의 음라우트 규칙이 ‘ㅈ’을 개재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면, 이 같은 예들은 ‘왕+겨’, ‘참+기름’, ‘화+ㅅ+김’, ‘한+길’과 같은 어형성 과정을 거친 후, 음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고, 그 이후 비어두 위치에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왕겨’의 경우에는 ‘왕+저’와 같은 어형성을 상정할 경우, 음라우트의 동화주인 y가 없으므로 음라우트 규칙이 적용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왕저’와 같은 어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어의 경우에도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후 복합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과 더불어, 복합어가 형성된 후 ㄱ 구개음화가 적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이다.<sup>8)</sup>

끝으로, 다음과 같은 과도 교정의 예 또한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표 4>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형<sup>9)</sup>

표준어형	ㄱ 구개음화 과도교정형	非과도교정형
행주(<힝즈)	행기<전남>, 행기끈<전북>, 행기포<전라><경남>, 행기피<전남><경남>, 행깃베<전남>, 행깃보<전남>, 행기피<전남>, 행깃베<전남>, 행깃보<전남> 등	행쥐, 행지, 행지보, 행깃보(행지뽀), 행지뽀, 행지포, 행지푸, 행지피, 행깃베, 행깃보 등
행주질	행기질<전남>[완도]	행지질
미꾸라지(cf. 뿔구리)	미꼬래기<경북>, 미꼬레기<전남><제주>, 미꾸래기<경북>	미꼬라지, 미꾸라지, 미꾸래지 등
두더지	두대기<경남>, 두더기<강원><경북><충남>, 두데기<강원><경기><경상><전남><충청><중국>[돈화], 두두기<경기><경북>, 두디기<경북><충청>, 뒤데기<경북><전남>, 쥐데기<전남>, 쥐드기<충북>, 쥐디기<충북> 등	두대지, 두더지, 두데지, 두두지, 두디지, 뒤더지, 쥐더지, 쥐도지 등

8) 음라우트 규칙의 개재 자음 조건을 완화하여, 국어의 음라우트가 ㅈ을 개재한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면,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상정하지 않고도 ‘찬지름, 햇집, 행질’과 같은 예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왕저’와 같은 예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9) 崔銓承(1986: 304)에 제시된 ‘집제(金堤)>김계’, ‘집계역(金蹄驛)>진계역’이나, 白斗鉉(1992: 342-344)에 제시된 ‘목경(牧卿)>목정>목명’, ‘맛디->맛지->맛기-’ 등의 예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김주필(1994: 77-78)는 ‘맛디->맛기-’를 과도 교정이 아닌 문법 층위의 유추 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가리키다(<ㄱㄹ키다)(指)	가리키다<경북>, ㄱ르키다<제주>, 가 르키다<경상><전남><충청><평안><강 원><함북><중국>[할빈, 돈화, 개현], ㄱ리키다<제주>, 가리키다<경상><강 원><경기><전남><충청><중국>, 갈키 다<경상><전라><충북><중국>[교화], 겔키다<경남> 등	가라치다, 가러치다, ㄱ르치다, 가 르치다, ㄱ리치다, 가리치다, 갈치 다, 겔:치다, 겔치다, 겔치다, 게리 치다 등
동지죽(冬至粥)	동기죽<전남보고서p.35>	동지죽<전남보고서p.35>
명주(明紬)	명기베<전남보고서p.52>	명주베, 명지베<전남보고서p.52>
명주실(明紬-)	명기실<전남보고서p.52>	명지실, 명지실<전남보고서p.52>
명절(名日)	명길<영광지역어p.292>, 명길<평안>	명일, 명질, 명일, 명질 등
생전(生前)	생견<전남>[광주, 진도]	생전<전남>[구례, 광양, 여수, 생 전<전남>[전역(구례, 광양, 여수 제 외)]

위의 예들은 형태소 내부의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이 일어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음운 변화의 과도 교정형이 관찰된다는 것은 해당 음운 변화가 그만큼 생산적임을 의미한다. ㄱ 구개음화의 과도 교정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蘇信愛, 2007: 192-196). 이에 기존 논의에서는 주로 어두 위치에서 일어난 ㄱ 구개음화의 과도 교정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만큼, 실제로 그에 대한 과도 교정 또한 어두 위치에서 빈번히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ㄱ 구개음화의 과도 교정은 어두뿐 아니라 비어두 위치에서도 간혹 관찰된다. 물론 그 수효에 있어서는 어두 음절의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이 같은 예는 비어두 위치에서도 ㄱ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0)</sup> 특히, ㄱ 구개음화가 생산적인 지역에서 비어두 위치의 과도 교정 또한 관찰된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국어의 ㄱ 구개음화는 주로 어두 위치에서 일어나되, 비어두 위치에서도 간혹 일어난 예가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ㄱ 구개음화의 비어두 제약을 상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ㄱ 구개음화의 비어두 제약에 관한 기존의 설명은 실재하는 다양한 예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보다 정밀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앞서 살펴본 ㄱ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제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0) 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생산적인 만큼 과도 교정 또한 어두 위치에서 많이 나타나고,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비생산적인 만큼 이에 대한 과도 교정 또한 드물게 나타난다. 단, 후자의 과도 교정은 비생산적인 음변화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도 교정과는 성격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음변화에 대해 과도 교정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비생산적인 음변화라 하더라도 청자에 의한 과도 분석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비어두 ㄱ 구개음화의 저지 요인

### 4.1. 음라우트 규칙과의 경쟁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저지하는 요인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음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들 수 있다. 기존 논의에서 언급해 온 것처럼, 선행 음절에 음라우트가 일어난 경우에는 뒤 음절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ㄱ이 음라우트의 개재 자음으로 분포하는 환경에서는 음라우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ㄱ 구개음화가 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음라우트가 역사적으로 ㄱ 구개음화보다 먼저 발생하여 적용되었다고 보면, 이 같은 현상은 규칙 발생의 선후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같은 시기에 공존하는 단계가 있었다고 보면, 경쟁관계의 두 규칙 중 음라우트가 ㄱ 구개음화보다 더 강한 적용력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음라우트와 구개음화의 배타적 적용은 근본적으로 이 두 규칙의 음운론적 동기가 같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되어 왔다. 두 규칙 모두 구개모음류  $i(y)$ 에 의한 역행 동화 규칙으로서, ‘구개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두 규칙이 모두 적용될 경우 해당 어사 내에는 ‘구개성의 연접’이 초래되며, 이 같은 동일 자질의 연접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자는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sup>11)</sup>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설명은 보다 더 정밀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에 대한 반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 설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예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선행 음절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나고 후행 음절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유형 1>), 둘째, 선행 음절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고 후행 음절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유형 2>), 셋째, 인접한 선후행 음절에서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유형 3>)를 살펴보기로 한다.<sup>12)</sup>

<유형 1>은 기존 논의에서 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음라우트 규칙이 비어두의 ㄱ 구개음화 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유형 2>는 기존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음라우트 규칙보다 ㄱ 구개음화 규칙이 비어두 위치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유형 3>은 기존 논의에 대한 반례로서, 음라우트와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러한 예의 존재는 음라우트 규칙과 구개음화 규칙의 상호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게 한다.

앞의 [표 1], [표 2]의 예들 중 음라우트의 조건 환경을 지닌 것들만 추출하여 위의 유형별로 재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1) 동일 층렬에 동일 요소가 인접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약인 필수 굴곡 원리(Obligatory Contour Principle, OCP)(Leben, 1973)는 언어 보편적 제약 중 하나이다.

12) 이 세 가지 유형 외에, <유형 4>에 해당하는 예도 존재한다. 즉, 인접한 선후행 음절에서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나지 않은 예도 있다. 이는 음라우트 규칙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라 할 수 있다.

<표 5>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 적용 유형별 예<sup>13)</sup>

표준어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검부러기	검부래기, 검부레기	검부라지<전남>	
시래기	시래기, 씨래기	시라지<강원><경남><평남><함경><황해><충남><중국>[밀강], 씨라지<중국>[화룡]	시래지<중국>
해오라기	해오래기, 해우래기	해오라지<전남>	
찌꺼기	찌그래기, 찌께기, 찌끼기	찌그러지<경남>, 찌꺼지<강원>	찌찌기<경남>
번데기	번데기, 번딤기, 번디기, 본대기, 본데기, 본디기, 분대기, 분디기, 빈데기, 빈디기 등	번더지<강원><함북>, 본더지<강원>, 본도지<강원><함남>, 본드지<함남>, 분두지<함경><중국>[계동, 밀강, 월청, 화룡] 등	번데지<함경><중국>[연길]
해바라기 (말음절)	해바래기, 해바레기, 해배래기 등	해바라지<전남><강원>, hɛbaradjik'ot 해바라지꽃<전남>[진도]	
깜부기	깜뵈기, 깜뵈기, 깜비기 등	가무지<함경><전국>, 감부지<함경><중국>, 까무지<함남>, 감부지<함경>	
누더기	누데기, 현두데기	누더지<경북><전남>, 누덕지<전라><중국>[교화]<충남><김용배(1991/1998)전남p.337>, 두더지<전남>, 두덕지(두덕찌)<전라>, 현두덕지(현두덕찌)<전남>	
꾸기다	꾸기다	꾸지다<전라><함북>, 꼭지다<경남>	
꾸겨지다	꾸게지다, 꾸기지다	꾸저지다<전남>	
잠꾸러기	잠꾸래기	잠꾸러지<강원>	잠꾸레지<강원>
뿌리	뿌랭기, 뿌래기	뿌러지<경남><중국>[서광, 태래], 뿌렁지<충남><강원><경북><평안><함경><전남>	뿌랭지<경북>, 뿌레지<함북>
구더기	구데기	구더지<전라>	구데지<전북>
삼키다	생키다, 생키다	숨지다<제주>, 삼치다<제주><함경><중국>[연길, 훈춘], 숨지다<제주>	
일으키다	일배키다<경남>	이러나치다(일어나치다)<전남>, 이르친다<충북>, 일바치다<경상>, 일아치다<전남>, 일어치다<전남> 등	
요긴하다		yo:ɟjinada요:진아다<경기>[인천], 요진하다<제주>	
학교	핵교, 핵:꼬<산청지역어p.36, 38> 등	학조(학쵸, 학쵸)<경상>	핵쵸(핵쵸)<경상>
중학교	중액교, 중핵고, 중핵교 등		중핵쵸<산청지역어p.30>
고등학교	cf. 공민해꼬[국민학교]<산청지역어p.30, 123>		고데~액쵸<산청지역어p.123>
안경		양:정<전남보고서p.63>	
삼겹살		sándʒəps'al삼겹살<전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라우트 규칙과 ㄱ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양상은 기존에 언급되었

13) 해당 방언형에 대한 음라우트 및 ㄱ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여부는 대상 항목의 고어형 혹은 재구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ㄱ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음절의 선행 음절에 전설모음을 지닌 어사는 음라우트 규칙이 공전하는 환경을 지녔으므로 [표 5]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던 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기존에는 <유형 1>에 해당하는 예들만 주로 언급되었으나, 실제로는 <유형 2>와 <유형 3>에 해당하는 예들도 관찰되는 것이다.

우선, <유형 2>를 보자.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은 채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만 일어난 예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대개 음라우트 규칙이 먼저 발생하여 적용됨으로써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출현된 것으로 기술해 왔다. 그러나 음라우트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난 예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존 논의를 재고케 한다. 이는 음라우트 규칙과 ㄱ 구개음화 규칙이 같은 시기에 공존하며 경쟁하던 상태에서 ㄱ 구개음화 규칙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음라우트 규칙이 출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라우트 규칙과 ㄱ 구개음화 규칙의 상대적 연대순을 모든 지역 및 어휘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

또, 음라우트 규칙과 ㄱ 구개음화 규칙 가운데 어떠한 규칙이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음라우트 규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ㄱ 구개음화 규칙이 우선 적용된 예가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예들에 한해서는 ㄱ 구개음화 규칙이 우세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규칙 간의 경쟁은 이들 규칙 간의 상하위 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음라우트를 지배하는 제약과 ㄱ 구개음화를 지배하는 제약 간의 등급이 미정된 상태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규칙이 상호배타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여전히 기존의 설명에 부합한다. 결과적으로 구개성 연접을 회피하기 위하여 두 규칙 중 하나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형 3>을 보자. 음라우트와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가 존재한다. 기존의 설명에 따르면, 음라우트가 일어난 경우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음라우트만 일어나고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은 예가 상당수 관찰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음라우트와 구개음화의 동시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개성 연접 회피’라는 공통의 목표 또한 절대적인 제약은 될 수 없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전설모음이 선행하는 환경에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에 대해서도 평행하게 적용될 수 있다.<sup>14)</sup> ‘노래기, 해바라기(cf.\*히갸브리)(제2음절), 귀때기, -습니까(cf.-습니까), -끼리, 끼리끼리, 제격’ 등의 방언형에서 관찰되는 ㄱ 구개음화형도 ‘구개성 연접 금지’ 제약을 어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들 항목은 음라우트와는 무관하지만, 비어두 위치에 ㄱ 구개음화가 일어날 경우 ‘전설모음-구개자음’의 연쇄가 초래된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복합어의 경우, ㄱ 구개음화형이 복합어의 비어두에 위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개성’이 연접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만약 ‘구개성 연접 금지’ 제약이 표면 층위에 작용하는 절대적 제약이라면, 이 같은 복합어의 출현 또한 저지되었어야 할 것이다.

14) 田光鉉(1977: 75-76)에서 “先行母音이 前部 母音이거나 前部母音化의 可能性이 있을 때 /k/의 口蓋音化는 制約을 받는다.”고 한 것을 상기할 수 있다.

<표 6> 전설모음-ㄱ 구개음화형 연접 복합어

	표준어형	전설모음-ㄱ 구개음화형
(1)	참기름	챙지름, 챙지름
	엿기름	이찜금
	햇김	헛짐, 헛짐, 헛:짐
	한길	행질
	왕겨	왕:저, 왕저, 왕지, 왕저 등
(2)	보릿겨	버리째, 보리제, 보리째, 보리째, 보릿재(보릿째), 보리체, 보릿저, 보릿제
	왜기름	애지름, 왜지름, 외지름 등
	삿길	새:찜, 삿:찜(삿:찜), 삿질(삿찜), 삿:찜(삿:찜), 삿질, 소리찜, 토끼찜 등
	백일기침	베길지침
	해바라기 (cf.*히갠바리)	해자구리, 해자바리, 해자바래기, 해자보리, 해자부라기, 해자부래, 해자부래기, 해자부리, 해자불, 해자와리, 해자우래기, 해자우리, 해장우래기, 해재부리, 해자브리 등
	왕겨	거친저, 맵재, 맵저, 맵제, 맵지, 맷재, 맷저, 아시제
	밀기울	mildʒu:1밀줄:, 미지울, 미찌불, 밀저울, 밀지불, 밀지울, 밀찌울 등

위의 (1)에 해당하는 예들은 복합어 내부에 움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모두 적용된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움라우트에 의해 도출된 전설모음과 ㄱ 구개음화형이 연접한 경우라 하겠다. (2)의 예들은 복합어의 후행 요소가 ㄱ 구개음화형이고, 그 선행 음절이 전설모음을 지닌 것들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설모음과 구개자음의 연접은 회피되는 경향이 있을 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볼 때, 움라우트와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 간에는 대체로 출혈 관계(bleeding relation)가 성립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두 음운 규칙의 동시 적용을 회피하는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는 ‘구개성 연접 금지’ 제약 또한 절대적인 제약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반 가능한 제약으로서, 일종의 경향성(tendency)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때, 경쟁하는 두 규칙 중 대부분의 경우에 움라우트 규칙이 더 우세한 이유는 무엇일까? 움라우트 규칙을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ㄱ 구개음화 규칙을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보다 더 상위의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하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ㄱ 구개음화와 달리, ㄷ 구개음화 규칙은 비어두 위치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움라우트 규칙이 출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ㄷ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이 움라우트 규칙보다 다소 앞선다 하더라도, 이들 규칙은 일정 기간 공존하는 시기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V_1tV_2(V_1: \text{후설모음}, V_2: \text{구개모음류})$ ’ 연쇄에서 ㄷ 구개음화가 움라우트보다 우세했던 이유는, ㄷ 구개음화를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움라우트를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보다 상위의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ti’(‘ty’)와 같은 ‘치조음과 구개모음류의 연쇄’를 금지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 $V_1CV_2(V_1: \text{후설모음}, V_2: \text{구개모음류})$ ’와 같은 ‘후설모음과 구개모음류의 인접 음절 출현’을 금지하는 제약보다 상위의 제약이었기 때문이다. 해

당 음 연쇄에서 ‘후설모음의 전설화’보다 ‘치조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요구가 더 우세한 결과, ㄷ 구개음화가 음라우트보다 우선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반면, 대개의 경우, ㄱ 구개음화를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은 음라우트를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보다 하위의 제약일 가능성이 크다. 즉, ‘ $V_1kV_2$ ( $V_1$ : 후설모음,  $V_2$ : 구개모음류)’ 연쇄에서 ‘ki(‘ky)’와 같은 ‘연구개음과 구개모음류의 연쇄’를 금지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후설모음과 구개모음류의 인접 음절 출현’을 금지하는 제약보다 하위의 제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음 연쇄에서 ‘연구개음의 구개음화’보다 ‘후설모음의 전설화’에 대한 요구가 더 우세한 결과, 음라우트가 ㄱ 구개음화보다 우선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사에 따라, 지역에 따라, 혹은 화자에 따라 음라우트 규칙과 ㄱ 구개음화 규칙의 우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유형 2> 및 <유형 3>과 같은 예가 출현하게 된다. <유형 3>처럼 음라우트와 구개음화가 모두 적용된 예는, 음라우트 규칙을 지배하는 제약과 ㄱ 구개음화 규칙을 지배하는 제약이 각각 동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구개성 연결을 금지하는 제약이 하위의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17)</sup> 때문에, <유형 1>, <유형 2>, <유형 3>을 모두 고려하면, 위의 세 제약 간에 등급이 미정된 단계가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첫째, 음라우트 규칙과 ㄱ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양상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두 규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음라우트만 일어난 예(<유형 1>), ㄱ 구개음화만 일어난 예(<유형 2>),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유형 3>)가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 2>의 존재는 적어도 이들 예에 한해,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대등한 규칙으로 상호 경쟁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유형 3>의 존재는 음라우트와 구개음화의 동시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개성 연결 금지’ 또한 절대적인 제약은 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음라우트 규칙이 더 우세한 이유는 음라우트 규칙을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ㄱ 구개음화 규칙을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보다 더 상위의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을 모두 고려하면, 위의 세 제약 간에 등급이 미정된 단계가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음라우트 규칙과의 경쟁’이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저지하는 요인 중 하나임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개성 연결 금지’ 제약 또한 위반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때, ㄱ 구개음화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을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 4.2.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 규칙과의 경쟁

ㅎ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흔히 유성음 간에서 ㅎ이 약화·탈락된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 유성음 사이의 ㅎ은 일반적으로 약화·탈락되는 까닭에 ㅎ 구

15) 이들 현상이 ‘동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조음 편이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음 연쇄에서 ‘치조음과 구개모음류의 연쇄’가 ‘후설모음과 구개모음류의 인접 음절 출현’보다 더 큰 조음상의 노력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6) 조음 편이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음 연쇄에서 ‘후설모음과 구개모음류의 인접 음절 출현’이 ‘연구개음과 구개모음류의 연쇄’보다 더 큰 조음상의 노력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7) 실제로 <유형 3>은 구개음화 규칙과 음라우트 규칙이 모두 생산적인 방언(<경상>, <전라>, <함경>, <강원>(1예))에서 주로 출현한다.

개음화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고는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에 의해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저지될 가능성 또한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ㄱ 약화·탈락이 주로 중세 및 그 이전 시기에 ‘ㄹ, y’ 뒤에서 일어난 현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ㄹ, y’ 외에 비음 및 모음 뒤에서도 ㄱ 약화·탈락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모음 사이의 ㄱ 약화·탈락은 여전히 매우 생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빠른 속도의 일상 발화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히 관찰되며, ‘i’를 비롯한 고모음 앞에서 약화·탈락되는 경우가 많다(소신애, 2013: 131).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될 환경을 지닌 어사들이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을 겪은 예들을 일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 실현 양상

표준어형	ㄱ 약화·탈락형	ㄱ 유지형
노래기(<노락이 <놀여기>)(環蟲)	노냉이<경기>, 노래~이<강원><충북>, 노래이<경상>, 노랭이<경상><전북><충남>, 노래이<경상>, 노오니이<경남>, 사니<전남>, 사니~이<경남>, 사닝이<경남>, 싸니~이<경남>, 싸닝이<경남>, 요냉이<전남>, 요녕이<전남>	노내기, 노래기, 노레기, 노오니기, 사니기, 싸니기, 요내기 등
씨래기(靑莖)	씨레이<경남>	씨래기, 씨레기 등
찌꺼기(<줏의)	찌개~이<전남>, 찌갱이<경북>, 찌게이<전남>, 찌갱이<강원><전남><제주>, 찌기이<경남>, 찌깁이<경상><전남>, 찌꺼레이<경남>, 찌깁이<제주>, 찌끄랭이<경기>, 찌끄레이<경북>, 찌끄리이[hi], 찌꺼리~이 이상<산청지역어p.238, 316, 400>, 찌끼이<경남> 등	찌개기, 찌깨기, 찌꺼래기, 찌끄래기, 찌끄레기, 찌끼기 등
뽕대기(<본도기)	뽕대이<경남>, 뽕다이<경남>, 번대이<경북>, 본다이<경남>, 뽕다이<경남>, 뽕대:이<산청지역어p.182>, 뽕대<산청지역어p.182>, 뽕대이<산청지역어p.188>, 뽕대:이<산청지역어p.158>, 뽕대이[hi]<산청지역어p.182, 194, 219> 등	뽕대기, 뽕대기, 번대기, 본대기<김용배(1991/1998)전남p.344>, 본대기, 뽕대기<산청지역어p.182, 188>, 뽕대기<산청지역어p.180, 182> 등
깜부기	깜대:이<경남>, 깜대~이<경남>, 깜덩이<충남>, 깜디~이<경남>, 깜다이<경북>, 깜배~이<경남>, 깜뱅이<경남>, 깜뱅이<경남>, 깜부~이<경북>, 깜비<경북>, 깜비:<경상>, 깜비이<경남>, 깜비~이<경남>, 깜빙이<경남>	깜대기, 깜대기, 깜배기, 깜베기, 깜부기, 깜비기 등
누더기	누디<경남>, 누데이<함남>, 두디이<경남>, 두디:<경남>, 훈털뱅이<충남>, 훈:털뱅이<경남>, 누데이<함남>, 훈털뱅이<중국>	누대기, 누디기, 두디기, 훈털배기 등
뿌리(<불휘>)(根)	부랭이<경기>, 부리:<경남>, 부링이<경북>, 뿌:리~이<경남>, 뿌래~이<충청><경상><전라>, 뿌래이<경상>, 뿌랭이<경상><경기><충청><전라><제주>, 뿌러~이<전북>, 뿌렁이<전남><충남>, 뿌레~이<충북><경남><전북>, 뿌레이<경북><전라><평안><함경>, 뿌레히<경북>, 뿌랭이<전라><충청><강원><경기><제주><경상>, 뿌리~이<경남>, 뿌리:<경남>, 뿌리이<경남>, 뿌리히<경상>, 뿌링이<충청><경상><전라> 등	부레기, 뿌래기, 뿌랭기, 뿌러기, 뿌렁기, 뿌레기, 뿌레기, 뿌레기, 뿌리기, 뿌리기 등

18) 郭忠求(2001: 251)은 국어에서 ㅎ이 오직 어두 위치에만 분포하는 까닭에 ㅎ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使.被動詞에서는 語基의 말자음에 접사 ‘히’가 결합되면 有氣音化하고, 부사 파생 접사 ‘-이’가 결합될 때에는 모음간 환경에서 /h/가 탈락한다.”고 하였다.

깍두기	각띠이<경남>, 깍대이<경남>, 깍데이<경남>, 깍디이<경남>, 깍떼이<경남>, 깍띠이<경남>	각뚜기, 깍대기, 깍데기, 깍디기, 깍떼기, 깍띠기 등
조개	조개~이<제주>, 조갱이<제주>, 조갱이<제주>	조가기, 조개기<제주> 등
바지락조개	빤지래이<경남>	빤지래기<경남>, 뵤지래기<경남>
두드리기	두드래이<경북>, 두드랭이<강원>, 두드리이<경남>, 두드리이<경남>	두드래기, 두드레기, 두드리기, 두드리기 등
지게작대기	꼬작대이, 코작대이<김용배(1991/1998)전남p.370, p.357>	작대기<김용배(1991/1998)전남 p.370, p.357>
포대기	두디이<경남>, 포대이<함남>, 푸대이<경북>, 푸데<전남>	두디기, 포대기, 푸대기 등
요포대기	요포댕이<함남>	요포대기<함남>
보자기	보재이<경북>, 보제이<경남>, 뽀재이<경남>	보재기<김용배(1991/1998)전남 p.365>, 보제기, 뽀재기 등
소나기	쏘내이<김용배(1991/1998)전남p.324>, 쏘내~이<경북>	쏘내기
짜라기눈	짜래이눈<김용배(1991/1998)전남p.324>	짜래기, 짜래기눈, 짜래기눈:, 짜래기, 짜래기눈, 짜래기눈: 등
고기	게이<경남>, 괴이<전남>, 괴이~<김용배(1991/1998)전남p.333, 369>(고기; 魚, 肉)	게기, 괴기<김용배(1991/1998)전남p.333, 369> 등
쇠고기	세게이<경남>, 소게이<경남>, 쇠게이<김용배(1991/1998)전남p.341><경남>, 쇠괴이<강원><평남><함경><황해><경남>	세게기, 소게기, 쇠게기, 쇠괴기 등
메뚜기	매뜨이<경남>, 매띠:<경남>, 메띠이<경남>, 메띵이<경남>, 메통이<전남>, 메띠<경남>, 미띠:<경북>, 밀:티<경북>, 밀띠:<경북>	매뜨기, 매띠:기, 매띠기, 메띵기, 메투기, 미띠기, 미티기, 밀띠기 등
팜띠	팜따래이<경남>, 팜때이<경북>, 팜뚜댕이<전남>, 팜뜨래이<경남>, 팜뜨래이<경남>	팜따래기, 팜때기, 팜뚜대기, 팜뜨래기, 팜뜨래기 등
꼭대기	꼬태이<경기>, 꼭댕이<경남><강원>	꼭대기, 꼭댕기 등
산꼭대기	산꼭대이<김용배(1991/1998)전남p.325>, 산꼭댕:<경남> cf. 머리꼭떼이(정수리)<김용배(1991/1998)전남 p.331>	산꼭대기, 산꼭댕기 등
오라기	오랭이<강원><경상><전남>, 오랭이<강원>	오래기, 오레기
생기다	생이다<전남>	생기다<전남>
다래끼(cf. 드라치)	다랭이<강원><평안><황해>, 대랭이<황해>, 따랭이<평안><충국>[무순]	다래기<전남>, 대래기, 대래기 등
두더지	뒤쥐~이<경남>, 뒤지이<경남>, 뒤징이<경남>, 디디이<경남>	뒤쥐기, 뒤지기, 디디기 등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어두 유성음 환경의 ‘기[gi]’는 [ni], [hi] 등으로 약화되거나, [g]가 탈락되어 [i]로 실현되기도 한다. 분포상, 전 지역 방언에서 이러한 예가 관찰되는데 특히 <전라>, <경상> 등 남부 방언에 이러한 예가 많다. 이들 방언에 ㄱ 구개음화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어두 유성음 환경의 ‘기[gi]’에 대해서는 ‘ㄱ 구개음화 규칙’과 ‘ㄱ 약화·탈락 규칙’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적용되면 다른 하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규칙은 출혈 관계에 있기도 하다.<sup>19)</sup>

19) 물론, ㄱ 구개음화가 먼저 적용되어 ‘지’가 된 후, 유성음 간 ‘ㅈ’이 약화·탈락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ㄱ 약화·탈락이 먼저 적용된 후에는 ㄱ 구개음화의 피동화주가 없어지므로 ㄱ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없다.

결국, 'V<sub>1</sub>CV<sub>2</sub>(V<sub>1</sub>: 후설모음, V<sub>2</sub>: 구개모음류)'처럼 선행 음절이 후설모음을 포함하고 있고, 후행 음절에 '[gi]([gy])'가 포함된 어사에 대해서는 '움라우트 규칙', 'ㄱ 구개음화 규칙',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 규칙'이 경쟁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ㄱ 구개음화 규칙은 두 가지 경쟁적 음운 규칙의 존재로 인하여 비어두의 '[gi]([gy])'에 적용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 규칙은 경음 [k']나 유기음 [k<sup>h</sup>]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때문에, 평음 /k/의 경우에 한해서만 비어두 위치에서 ㄱ 구개음화 규칙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두 ㄱ 구개음화 환경을 지닌 대부분의 어사가 유형 빈도상 [k'i]([k'y])나 [k<sup>h</sup>i]([k<sup>h</sup>y])보다는 [gi]([gy])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 규칙이 ㄱ 구개음화의 비실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4.3. 지각적 요인의 작용

앞에서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저지하는 요인으로 '움라우트 규칙' 및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 규칙'의 우선 적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지각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는 조음적 요인에 의한 동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연구개음의 구개음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음적 요인뿐 아니라 지각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Ohala 1992: 320, Guion 1996, 1998: 18-22, Blevins 2004: 138-139 등). 국어의 ㄱ 구개음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견해가 제안된 바 있다(박종희·권병로, 2011: 48-67). 본고 또한 ㄱ 구개음화의 조음적 동인을 인정하되, 지각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Guion(1998: 20-30)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유성 연구개음보다 무성 연구개음의 구개음화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상, 무성 연구개음(=[k])은 유성 연구개음(=[g])보다 경구개 치경음(=[tʃ]([dʒ]))과 음향적으로 더욱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같은 음향적 요인을 고려할 때, ㄱ 구개음화가 주로 어두 위치에서 일어나고 비어두 위치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지각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국어의 /k/는 어두 위치에서 무성음 [k]로 실현되고, 비어두의 유성음 환경에서는 유성음 [g]로 실현되므로, 비어두보다는 어두 위치에서 경구개 치경음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또한 ㄱ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어두 위치에서 연구개음이 무성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성음 뒤를 제외한 환경에서 ㄱ(=/k/)은 ㄱ[k']이나 ㅋ[k<sup>h</sup>]으로 실현되며, 기원적인 /ㄱ(=/k')/, /ㅋ(=/k<sup>h</sup>)/은 모든 환경에서 무성 경음과 무성 유기음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유성 연구개음을 제외한 비어두 연구개음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어두 ㄱ 구개음화 환경을 지닌 대부분의 어사가 유성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음향적 요인이 ㄱ 구개음화의 비실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 평음 /k/는 어두 위치에서는 항상 무성 평음 [k]로 실현되지만, 비어두 위치에서는 유성음 뒤에서만 유성 평음 [g]로 실현될 수 있다. /h/를 제외한 무성 장애음 뒤에서는 무성 경음 [k']로 실현되고, /h/ 뒤에서는 축약되어 무성 유기음 [k<sup>h</sup>]로 실현된다.

## 5. 결론

본고는 ㄱ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여, 비어두 위치에서 보이는 ㄱ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 및 그 출현 기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ㄱ 구개음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을 저지하는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찾고자 하였다. 주된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어의 ㄱ 구개음화는 주로 어두 위치에서 일어나되, 비어두 위치에서도 간혹 일어난 예가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ㄱ 구개음화의 비어두 제약을 상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ㄱ 구개음화의 비어두 제약에 관한 기존의 설명은 실재하는 다양한 예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보다 정밀화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음라우트 규칙과 ㄱ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양상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두 규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음라우트만 일어난 예(<유형 1>), ㄱ 구개음화만 일어난 예(<유형 2>),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유형 3>)가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유형 2>의 존재는 적어도 이들 예에 한해, 음라우트와 ㄱ 구개음화가 대등한 규칙으로 상호 경쟁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유형 3>의 존재는 음라우트와 구개음화의 동시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개성 연접 금지’ 또한 절대적인 제약은 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음라우트 규칙이 더 우세한 이유는 음라우트 규칙을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ㄱ 구개음화 규칙을 지배하는 음운론적 제약보다 더 상위의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을 모두 고려하면, 위의 세 제약 간에 등급이 미정된 단계가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에 의해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저지될 가능성 또한 있다. ‘ $V_1CV_2$ ( $V_1$ : 후설모음,  $V_2$ : 구개모음류)’처럼 선행 음절이 후설모음을 포함하고 있고, 후행 음절에 ‘[gi]([gy])’가 포함된 어사에 대해서는 ‘음라우트 규칙’, ‘ㄱ 구개음화 규칙’, ‘유성음 간 ㄱ 약화·탈락 규칙’이 경쟁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저지하는 요인으로 ‘지각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성 연구개음(=[k])은 유성 연구개음(=[g])보다 경구개 치경음(=[tʃ]([dʒ]))과 음향적으로 더욱 유사하므로, 비어두보다는 어두 위치에서 경구개 치경음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단지 제한되는 경향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제한하는 요인 또한 단일하지 않으며, 실로 다양한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저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어두 ㄱ 구개음화의 적용을 저지하는 일련의 음운 규칙과 그러한 규칙을 지배하는 제약들 간의 상호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 ■ 참고문헌

- 郭忠求(1997), 국어사전의 방언 표제어와 그 주석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 93, 129-156.
- 郭忠求(2001), 口蓋音化 規則의 發生과 그 擴散, 《震檀學報》 92, 237-268.
- 金完鎭(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0, 91-115.
- 金完鎭(1975), 全羅道 方言 音韻論의 研究 方向 設定을 爲하여, <어학> 2(全北大), 1-6.
- 김용배(1991/1998), 《전라남도방언연구》, 學古房.
- 김정대(2011), 《경남 산청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김주필(1994), 17.1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박경래(2009), 《충북 청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박종희·권병로(2011), ㄱ 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 《한글》 291, 47-72.
- 白斗鉉(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太學社.
- 蘇信愛(2002), 延邊 琿春地域 朝鮮語의 進行中인 音變化 研究 - 口蓋音化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강대).
- 蘇信愛(2007), 言語 變化 機制로서의 過度 矯正 - 20世紀 初 咸北 方言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5-1(133호), 183-207.
- 소신애(2013), 모음 간 ㄱ 약화.탈락에 대하여 - 방언 구술 발화 자료를 중심으로, 《방언학》 18, 한국방언학회, 107-146.
- 이기갑(2009),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이기갑(2011), 《전남 영광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이기갑 외(2010), 《2010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 음운, 문법)》, 국립국어원.
- 李秉根(1976), 派生語形成과 i 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99-112.
- 李秉根(1997), '해바라기(向日花)'의 語彙史, 《冠嶽語文研究》 22, 61-73.
- 田光鉉(1977), 全羅北道 益山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어학》(全北大) 4, 71-92.
- 崔玉敬(1994), 구개음화와 움라우트의 共謀性에 관한 通時的 研究, 석사학위논문(서강대).
- 崔銓承(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 洪允杓(1985), 口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研究, 《震檀學報》 60, 143-157.
-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집필조(1985),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Blevins, J. (2004), *Evolutionary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ion, S. G. (1996), *Velar Palatalization: Coarticulation, Perception and Sound Change*, PhD dis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Guion, S. G. (1998),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Sound Change of Velar Palatalization, *Phonetica* 55, 18-52.
- Leben, W. (1973), *Suprasegme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 Ohala, J. J. (1981), The Listener as a Source of Sound Change, In C. S. Masek, R. A. Hendrick and M. F. Miller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Language and Behavior*, Chicago Linguistic Society, 178-203.
- Ohala, J. J. (1992), What's cognitive, what's not, in sound change, In Kellermann, Morrissey (eds.), *Diachrony within Synchrony: Language History and*

*Cognition*, Duisburger Arbeiten zur Sprach- und Kulturwissenschaft  
14, 309-355.

## ■ 토 론

###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김봉국(부산교대)

이 논문은 기존의 ㄱ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한 방언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한 후, ㄱ 구개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과 출현 기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논의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 자료를 환경별로 꼼꼼히 정리함으로써 ㄱ 구개음화 현상의 환경을 좀더 정밀하게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비어두 ㄱ 구개음화의 저지 요인을 음라우트와의 관계, 유성음간 ㄱ 약화·탈락, 지각적 요인의 작용 등으로 보고서 논의한 것은 ㄱ 구개음화에 새로운 음운론적 해석이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필자의 ㄱ 구개음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의미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ㄷ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방언 자료뿐만 아니라 문헌 자료에서도 비어두 위치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필자의 논의를 받아들여더라도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를 보이는 방언 자료의 성격 문제입니다. 이 글의 필자가 언급한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다 필자의 자료를 덧붙였다고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의 자료는 균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언의 분포를 확인하기에는 적절한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 분포와 비어두 위치의 ㄱ 구개음화의 방언 분포가 일치할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비어두 ㄱ 구개음화의 저지 요인을 언급하면서 <표 5>의 예를 들고 있는데, 제시된 단어들 중에서 접미사 ‘-아기, -아지’ 등이 결합한 파생어로 볼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동귀의 관점에서 <표 7>의 예들에서는 ‘-앙이, -엉이’등이 결합한 파생어로 볼 가능성도 열어 놓았으면 합니다. 접미사가 결합한 예라면 ㄱ 구개음화와 관련되지 않은 예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근대국어 표기법 연구<sup>1)</sup>

-운음 언해를 중심으로-

박혜란(건국대)

< 차례 >

1. 서론
  2. 자료 검토 방법
  3. 연철과 분철 표기
  4. 중철표기
  5. 재음소화
  6.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근대 국어 표기법의 방향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음운 변화로 인한 표기의 변천<sup>2)</sup>과 둘째는 표기자의 발음과 문법 의식에 의한 경향 때문에 나타난 연철, 중철, 분철의 표기이다. 근대국어 전 시기인 중세국어의 표기법은 음소주의에 따른 연철표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현대국어의 표기법은 문법의식이 발달한 형태음소적표기를 지향하는 분철표기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음소주의에서 형태음소주의로 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표기법에 있어 상당히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국어<sup>3)</sup>는 현실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간형태소를 보존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 연철표기와 형태소의 기본형은 보존되지만 발음과 표기가 멀어지는 단점을 가진 분철표기, 그리고 이 둘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중철표기가 등장한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웠던 근대 국어 표기법 안에서도 변화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연철표기에서 분철표기로 표기법이 옮겨간다.<sup>4)</sup>

- 1)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논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 연구 성과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연구 과정 중의 자료 분류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2) 예를 들면, 어두자음군이 된소리가 되면서 나타난 표기의 혼란이나 종성의 ‘ㅅ’과 ‘ㄷ’표기가 중화되어 표기된 것과 원래 종성 ‘ㅅ’의 혼동 등이 있다.
- 3) 중세국어는 15-16세기, 근대국어는 임진왜란(1592년)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 현대국어는 20세기 이후를 말한다.

둘째, 분철표기의 경향도 체언의 곡용에서 용언의 활용으로 확대되어 간다.<sup>5)</sup>

셋째, 중철표기의 경우 근대국어 초기의 경우 완전 중철이 우세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부분 중철이 그 명맥을 이어가며 완전중철은 분철표기로 대체된다.<sup>6)</sup>

위의 변화 양상과 문헌이 쓰인 시기를 비교해 본다면 위의 사실을 검증함과 동시에 문헌이 갖고 있는 표기의 특성과 더불어 18세기 후기의 기준이 되는 표기법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나온 문헌들은 율음언해를 비롯하여 역학서, 교민서, 언간이나 산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자료들은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법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으나 문헌마다 차이가 보이며 그것은 지은이 또는 언해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어떤 문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18세기 후기 문헌인 『율음언해』<sup>7)</sup> 27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율음언해』를 대상문헌으로 한 이유는 근대 국어의 표준어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율음언해』의 화자는 왕이지만, 언해를 담당한 이들은 담당관청의 관리나 이를 위해 임명된 관원들이었다. 따라서 『율음언해』에서 사용된 언어는 궁중어 또는 서울 사대부의 언어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율음언해』는 그 당시 상류계층의 정제된 언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당시 표기를 정해 놓은 정서법은 없었지만, 현대국어 표준어의 기준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언어는 표준어적 성격이 강하며, 표기법과 발음현상도 가장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율음은 한사람이 언해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류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잘 드러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8)</sup>

## 2. 자료 검토 방법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근대국어 변화의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율음언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언어

4) 표기법 발달에 대한 논의는 첫째, 연철>중철>분철과정으로 보는 견해(이익섭 1985, 홍운표 1986)과 둘째, 연철>분철>중철과정으로 보는 견해(김중진 1986, 이영덕 1995), 셋째, 연철>연철/중철/분철>분철 과정으로 보는 견해(허삼복 1995)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이 중 첫째 견해를 따라 중철표기를 연철과 분철 사이에 나타난 표기로 본다.

5) 체언의 어간은 형태·의미 면에서 자립적이거나 용언의 어간은 의미 면에서는 자립적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어간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체언보다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 때문에 용언의 어간을 분리해서 분철로 표기하는 것이 체언의 분철표기보다 늦어졌다.(안병희 1990)

6) 김소연(2011)에서는 중철표기의 분류기준 가운데 '정도성'을 통해 중철표기의 생성·소멸 시기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7) 『율음언해』는 왕이 관리나 백성들에게 내리는 율음을 언해한 책이다. 율음은 주로 비상시 민심수습, 흉년에 민정위로, 세금 및 공물의 탕감, 왕가의 경사 시 하사품, 천주교에 대한 척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8세기 후반 정도 때의 율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8) 중세국어에는 '訓民正音', 현대국어에는 '한글맞춤법통일안'과 같은 일종의 정서법이 존재하였지만, 근대국어에서는 표기의 원칙을 정해 놓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상류계층에 의해 언해된 『율음언해』가 가장 정서법에 가까웠으리란 생각과 함께 근대국어를 대표하는 보편성을 갖는다고 본다.

자료를 계량화상태로 가공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자료 검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말뭉치 구축하기

이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문헌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나, 본고에서는 세종계획21 말뭉치의 결과물을 사용해, 이를 일일이 말뭉치로 구축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다.

2) 원본 대조하기

말뭉치와 원전을 비교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통해 오류부분을 찾아내고 수정하였다.

3) 기초작업

한글2010 매크로를 사용하여 단어를 어절단위로 분석한 후 원전의 이름을 넣은 후 표기법에 따른 식별기호를 붙인다. 식별기호는 1음절일 때에는 숫자 0을 넣고 분철이나 연철, 중철이 나타날 수 없는 환경에서는 1을 넣었다. 또한 분철과 연철, 중철, 재음소화가 나타날 때 각각 3, 4, 5, 6을 넣었다.

4) 통계

분석하여야 하는 부분의 통계 값을 쉽게 구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엑셀 파일로 변환 후 원하는 결과치를 얻는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다.

대신과 경지 써 아래 빅관의게 기유희읍논 룬음이라 오호   라 나의 고품과 경지와 나의 빅료논 다 나의 기유희을 드르라	예) 어제계주룬음
--	-----------



1	대신과 <어제19a>
1	경지 <어제19a>
0	써 <어제19a>
1	아래 <어제19a>
3	빅관의게 <어제19a>
1	기유희읍논 <어제19a>
3	룬음이라 <어제19a>
1	오호   라 <어제19a>
1	나의 <어제19a>
1	고굉과 <어제19a>
1	경지와 <어제19a>

1	나의 <어제19a>
1	빅료논<어제19a>
0	다 <어제19a>
1	나의 <어제19a>
3	기유흠을 <어제19a>
4	드르라 <어제19a>

### 3. 연철과 분철 표기

#### 3.1. 연철표기

연철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 어휘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 등 문법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 실제 발음에 따라서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밝히지 않고 어휘형태소의 끝 자음을 문법형태소의 초성에 표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음언해』에서는 어간 말음 ‘ㄱ,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에서 연철표기가 나타난다. 분철표기가 체언에서 용언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연철표기는 용언에서의 표기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은 체언과 용언에 따른 연철표기이다.

##### 3.1.1 체언의 표기

(ㄱ) 마리[言], 수뢰논(車), 수레박회(車輪)

(ㄴ) 저그미(細), 듯ㅎ미

뜨즐(情), 쓰지(意), 비출, 비치, 머글

(ㄱ)은 체언 내부에서의 연철표기로 이러한 표기는 (ㄴ)의 표기에 비해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ㄴ)은 형태소 경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 시 체언의 말음이 후행하는 조사의 초성으로 연철된다.

##### 3.1.2 용언의 표기

(ㄱ) 니르코, 썬러진, 드라난, 드러오며(入), ㄱ르샤디(曰),

(ㄴ) 드르니(聽), 바드니, 본바다(禮), 어더(得), 베프러(施)

(ㄷ) 만커든, 일코(失)

(ㄱ)은 용언의 내부, (ㄴ)은 용언의 경계에서의 표기 (ㄷ)은 겹받침 중 하나가 후행하는 어미와

합쳐져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겹받침 중 하나가 후행하는 음절에 연이어 소리난다.

### 3.2. 분철표기

분철표기는 문법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어간과 어미를 형태소로 구분하려는 문법의식이 발달하여 나타난 표기이다. 분철표기는 체언의 곡용에서 시작하여 용언의 활용으로 이어졌다. 분철표기가 용언에서 뒤늦게 나타난 이유는 활용에 따른 불규칙적 변화와 어미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운음언해』에서는 어간말음이 ‘ㄱ, ㄴ, ㄹ, ㅁ, ㅂ, ㅅ’일 때 분철표기가 나타나 거의 모든 표기에서 분철이 등장하나 동명사형은 여전히 연결 표기와 분철 표기가 섞인 혼란 속에 있다.

#### 3.2.1. 체언의 표기

(ㄱ) 가죽을(皮), 곳은(所),

녁으로(方), 눈이(雪), 날에(日), 누물에

독으로(瓮), 돈이(錢), 들에(野)

마음속을(衷情), 몸의(身), 마음이라(心),

밤에(夜), 바람이(風), 벼슬의(簪纓)

손가락을(指), 술의(車), 생각이(想),

뜻이(意), 짝름이라

일이며(事), 음식이(食), 오늘은(今日), 아침의(朝),

잠이(寢)<F3b>, 즘음에(際),

초불을(燭), 출췌희췌이라, 청췌이(請)

탈을, 털이(毛), 풀을,

흙을(土), 헛소문췌이요(取虛名), 혼인의(婚), 힘이(力),

쌀을(米)

(ㄴ) ㄱㄹ침을, ㄱㄹ침이며, ㄱ절흙이, 깃뭇을

감동흙이, 고희이니, 괴로움을

닐음을이라, 다스림을, 두려흙이러니,

못흙을, 못흙이, 베풀음이라, 상의흙으로

아니흙은, 아님이, 아름다움을, 안도흙을

즐기오심을, 즐김과, 즐김을, 처분흙을, 진흙흙이

흙이니, 흙이라, 환집흙을

(ㄷ) 깃브기를, 밧기를, 만들기에, 대무허기논

먹이기논, 먹이기를, 밧기를, 굶기를

(ㄹ) 극진이, 췌연히, 급히, 모름죽이, 모름죽이,

오히려, 각별이, 낫낫히, 너그러이, 너그러히, 넉넉히

(ㄱ)은 체언+조사의 결합이다. (ㄴ)은 동명사형 어미 ‘ㄹ’이 붙어 조사와 분철된 표기이다. 동명사형어미 ‘ㄹ’이 붙은 경우는 연철과 분철이 모두 많이 나타난다. (ㄷ) 동명사형 어미 ‘기’에 조사가 붙은 것이다. 근대국어에 들어 동명사형 어미 ‘-기’의 쓰임이 많아졌다. 하지만 『윤음언해』에서는 ‘-기’보다 ‘-(으)ㄹ’의 사용이 여전히 생산적이었다. (ㄹ) 부사도 독립성이 있으므로 체언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부사 내에서도 분철표기가 나타났는데 부사의 경우 동일어의 경우 분철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 3.2.2 용언의 표기

- (ㄱ) 녀이고(思), 녀이논(親), 녹이며, 먹이기, 굴으샤되, 굴오디, 일우고, 술의(車)
- (ㄴ) 먹어도, 먹여, 밧으려(作), 밧은, 붉은, 열어 품어, 품은, 품엇다가, 들으니(聞), 들으매(聽), 프른, 밧아,
- (ㄷ) 불이지, 속이니, 점을어

(ㄱ)은 용언의 내부, (ㄴ)은 용언의 경계에서의 분철이 일어나는 것이다. (ㄷ)은 각각 ‘부리다, 소기다, 저물다’의 과도 분철이다.

### 3.3. 분철의 경향성

분철표기는 17세기에는 명사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일 때 표기를 하였으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말음이 ‘ㄱ, ㅁ, ㄴ, ㅂ’일 때 거의 모든 표기를 분철표기로 하였다. 이는 분철표기의 환경이 폭넓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분철의 경향이 곡용>활용으로 확대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음언해』가 18세기 후기 문헌임을 미루어 볼 때 분철이 곡용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나타난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나타나는 환경	체언의 곡용	용언의 활용
사용횟수	3, 717	670

위의 표를 보면 분철은 체언의 곡용에서 84.7%(3, 717회)일어났고 용언의 활용에서는

15.3%(670회)일어났다. 곡용에서의 분철이 활용에서보다 약 5.5배 더 일어난 것이다. 이 결과는 언해자들이 분철 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용언의 활용보다 더 문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분철 표기가 폭넓게 사용되나 동명사형과 조사의 결합시에는 여전히 연철로 표기한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2) 동명사형 어미 + 조사

나타나는 환경	연철표기	분철표기
사용횟수	670	284

동명사형 ‘ㄹ’이 올 때에는 70%(670회)가 연철표기로 사용되었고, 30%(284회)가 분철표기로 사용되었다. 근대 국어 후기로 갈수록 분철표기가 확대되어가는 것과 다르게 동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결합시에 아직까지 연철표기가 우세하다.<sup>9)</sup> 그 이유는 동명사형 어미가 쓰인 것이 아직 언해자들에게 명사형으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철표기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 3.4. 표기의 혼기

『윤음언해』에서 연철과 분철이 표기될 수 있는 환경에서 분철의 표기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분철은 약 4700어절, 연철은 약 2600어절이 쓰여 분철이 연철보다 약 2배 가까이 표기되었다. 연철과 분철이 혼기되는 어휘에 대한 연철표기와 분철표기의 예와 그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1) 것-

‘것-’의 경우 ‘거시’, ‘거슨’, ‘거슬’로 나타나는데 이때, 연철표기만 251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7종성법의 사용으로 인한 ‘ㄷ’과의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ㄷ’말음 어간이 ‘ㅅ’말음 어간으로 합류되어 표기되는 7종성법이 표기체계로 정착된다. 이때 ‘ㅅ’말음어간의 경우 분철은 나타나지 않고 연철표기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7종성으로 합류하면서 받침 ‘s’와 ‘t’를 구별하기 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근대국어의 다른 문헌들을 보면 받침 ‘ㅅ’의 경우 연철표기를 사용하고, ‘ㄷ’의 경우 분철표기를 사용하여 이 둘을 구분하였다.<sup>11)</sup>

9) 이는 성인출(2004)에서 명사형 어미 ‘ㄹ’의 분철과 연철이 거의 비슷한 세력이라는 점과 다르게 분석되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연철이 분철보다 약 2배 이상 더 나타난다.

10) 『윤음언해』에서 나타나는 혼기의 예는 어휘 수가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다른 어휘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어휘 몇 개로 예를 들었다.

11) 이익섭, 1985

## (2) 니르다 / 닐으다

‘닐으-’의 경우 ‘니른’, ‘니른족’이 연철표기로 각각 11회와 1회 사용되었다. 반면, 분철표기는 ‘닐을’과 ‘닐은’이 각각 4회 사용되었다.

## (3) 녀기다 / 녀이다

‘녀기-’의 경우 ‘녀겨’, ‘녀기느’, ‘녀기거든’, ‘녀기며’, ‘녀기지’, ‘녀기미’, ‘녀기믈’, ‘녀기니’, ‘녀기리오’, ‘녀길’의 용례를 보이며 연철표기가 13회 사용된 반면 ‘녀이-’는 ‘녀이기느’에서 1회만 분철표기로 나타남을 보였다. 이 경우 연철표기가 우세하게 나타나 ‘녀기-’의 경우 아직 연해자들이 형태소로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4) 소기다 / 속이다

‘소기-’의 경우 ‘소겨’, ‘소기느’, ‘소기고’, ‘소길’, ‘소기믈’의 용례가 6회 연철표기 되었고 ‘속이-’의 경우 분철표기로 ‘속인다’, ‘속이며’, ‘속이라’, ‘속여’, ‘속이리오’, ‘속이리라’, ‘속이니이여’의 7개의 용례가 11회 나타났다.

## (5) 말뚝아마 / 말뚝압아

‘말뚝압아’와 ‘말뚝아마’는 각각 3회, 5회 사용되어 연철표기와 분철표기가 비슷한 횟수로 사용되었다.

## (6) 남다

‘남다’의 경우 연철표기로 ‘나믄’과 ‘나믈’의 용례가 보이는데 이는 5회에 걸쳐 나타난 반면, ‘남은’, ‘남을’과 같은 분철표기는 총 12회 나타났다.

## (7) 가르다 / 굴오다

‘가르다’의 경우 문헌 안에서 연철표기된 경우로 나타난 것은 ‘가로되’ 1번 뿐이었으며 ‘굴오다’의 경우 ‘굴온’, ‘굴오되’, ‘굴오사디’, ‘굴오디’와 같은 용례로 총 74회 나타났는데 연철표기보다 분철표기된 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중철표기인 ‘굴로되’도 한차례 나타났다.

(1)부터 (7)까지를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연철과 분철이 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중철표기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혼기들을 종합해 보면 연철>분철의 경향을 띄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연철과 분철이 모두 가능한 단어들의 환경에서 분철표기가 연철표기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이러한 혼기의 혼란 속에서도 표기법이 분철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4. 중철표기

중철표기는 문법에 대한 인식의 강화와 더불어 발음을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가 더해서 나타난 과도기적 표기방식이다. 분철표기는 어간말자음을 지니고 있는 단어에 한해 나타나며 자동적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일어난다.<sup>12)</sup> 중철표기는 16세기에 등장하여 17세기 『가례언해』나 『동국신속삼강행실』에서 활발히 나타나며 그 이후 문헌들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아진 상태를 보인다. 18세기에 들어서도 중철표기는 문헌에 따라 조금 활발하게 살아나다가 또 문헌에 따라 쇠퇴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음언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 중철표기가 낮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윤음언해』에서는 어간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경우 중철이 나타난다.

### 4.1. 완전중철

곳곳시, 녀녀흠물, 먼니(速)  
버룻슬, 못슬

### 4.2. 부분중철

- 1) 뉘토와, 벳치여, 좃차,
- 2) 길너, 길니지, 날니지,  
    닐너, 날노빠, 날노(我),  
    널녀, 널니며, 달나, 달니,  
    머물너, 물녀(浪), 물니기가,  
    물니물, 말니니, 블너오미,  
    올나, 올나올, 올녀(上), 일노(以是),  
    올니고(上), 풀니게, 흘너

『윤음언해』에서 나타나는 중철은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또한 부분중철이 완전중철보다 훨씬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점은 1)의 경우 보다 2)의 경우에서 중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ㄹㄹ’이었던 표기가 ‘ㄹㄴ’으로 나타나 이 표기가 우세하다는 점이다. 근대국어에서 어중위치의 ‘ㄹㄹ’이 ‘ㄹㄴ’으로 혼기되는 것은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본 자료에서 ‘ㄹㄴ’형만 나타난다. 이것은 이미 ‘ㄹㄴ’에 의한 표기가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2) 홍윤표(1987)에서는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것들은 분철표기를 행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중철표기가 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 머그니>먹그니>먹으니

## 5. 재음소화

근대국어 표기 특징 중 하나가 모음간 유기음 표기이다. 근대국어 표기법인 7종성법 때문에 유기음은 어말에 쓰일 수 없었다. 따라서 종성에서 ‘ㄱ, ㅌ, ㅍ, ㅊ’의 발음을 갖는 어휘들은 ‘ㄱ+ㅎ, ㄷ+ㅎ, ㅂ+ㅎ, ㅈ+ㅎ’로 표기되었다. 『운음언해』에서 나타나는 재음소화 현상은 총 41회 나타나며 ㅈ+ㅎ의 재음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1) 녑흐로(方)
- (2) 몯흐로논(陸), 밋혜(本), 밧혜(田), 쫓혜(終)
- (3) 늣히며(尊), 깊흔(深), 덩히시니(庇), 앓하(痛)

(1)의 경우 단 1회만 나오는데 동일의미로 ‘녑으로’가 나타난다. ‘녑’에서 ‘녑’으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녑ㅎ’뿐이다. 따라서 ‘녑’에서 ‘ㄱ+ㅎ’가 재음소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은 ‘ㄷ+ㅎ’의 재음소화이다. ‘ㅌ’을 절음시켜 발음하면 ‘ㄷ’의 발음위치에 멈추어 있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을 발음할 때 ‘ㅎ’이 모음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ㄷ’과 ‘ㅎ’으로 나뉘어 발음되는 것이다. 이것은 (3)의 ‘ㅍ’음이 ‘ㅂ+ㅎ’으로 나뉘어 발음된 것 과도 같은 원리이다.

## 6. 결론

근대국어시기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와 같이 정해져 있는 정서법은 없다. 따라서 다양한 표기체계가 공존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표기 변화의 흐름은 가늠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근대국어 표기체계의 흐름에 맞추어 『운음언해』에서 나타나는 표기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기체계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운음언해를 18세기 후기의 표준 국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토대가 되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본고는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기존 근대 국어 표기법의 연구에 대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자료에 대한 검증이다. 필자는 『운음언해』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성격을 가진 문헌을 비교하여, 문헌에 따른(더 나아가 작가 또는 언해자에 따른) 표기법의 차이와 음운현상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고에서 『운음언해』의 표기법이 근대국어 표기법과 상통함을 갖는다는 사실을 비교해 본 것은 후속연구에 대한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김형규(1975), 국어사개요, 일조각.
- 김소연(2011), 「근대국어 중철표기의 유형 검토」, 『우리말연구』28, 우리말학회.
-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민현식(2008), 「19세기 국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 성인출(2004), 『18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 송미영(2013),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학연구』9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안병희(1990), 「규장각소장 근대국어자료의 서지학적 검토」, 『서지학보』, 한국서지학회.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 이익섭(1985), 「근대한국어문헌의 표기법 연구」, 『조선학보』114, 조선학회.
- 이익섭(1990), 「근대 국어문헌의 표기 체계-중철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이익섭(1993), 「근대국어 표기법의 성격과 특징」, 『정신문화연구』16-1,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주행(1999), 「근대국어 표기법에 대한 형태론적 이해」, 『정신문화연구』16-1, 한국학중앙연구원.
- 허삼복(1995), 「중세국어 양음절성과 중철표기에 대하여」, 『한어문교육』3,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홍윤표(1983), 「근대국어 표기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국어국문학』89, 국어국문학회.
- 홍윤표(1986),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19, 고려대학교.
- 홍윤표(1987), 「근대국어의 어간말자음군 표기에 대하여」, 『국어학』16, 국어학회.
- 홍윤표(1993), 「근대국어 한글문헌의 중철표기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16-1, 한국학중앙연구원.

## ■ 토 론

# “근대국어 표기법 연구-운음 언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유권(대진대)

.이 연구는 ‘운음언해’라는 18세기 후반 문헌을 중심으로 근대국어 표기법을 살핀 연구이다. 근대국어 연구를 비롯한 표기법 연구는 우리 국어문법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음운연구 특히 변동규칙 연구에서 우선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표기법에 대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연구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점점더 혼란스러워졌던 근대의 표기법 흐름을 상류층의 향유였던 운음언해라는 문헌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표기법 연구에서 기계적으로 음운환경이나 분포를 가지고 논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언어외적인 요인 즉 계층이라는 요인을 염두에 두고 문헌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운음언해를 중심으로 한 표기법 분석을 통해, 표기법 전반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철표기에서 과도기적 표기형태를 거쳐 오늘날 분철표기로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려 했다는 점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운음언해라는 문헌 선택의 이유를 십분지 이해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비록 한 문헌 안이지만, 개량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그 경향을 보여 주려 했다는 점에서 가치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곡용과 활용의 표기법적 차이를 계량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보다 많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첫째, 아직 학위논문을 위한 과정에 있는 연구지만, 표기법 연구에 있어서 관찰적 타당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연구자가 자료에 대한 검증이 목적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관찰적 타당성에만 치우쳤다는 점에서 표기법 연구의 진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둘째, 운음언해의 표기법이 근대국어의 표기법과 어떻게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는지 보다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 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예를 들어 중철표기와 재음소화의 경우, 좀더 자세한 설명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러한 경향만 제시하는 것보다 왜 이러한 중철표기와 재음소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근대국어 표기법 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보다 명확한 연구 목적과 대상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끝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지 현상만 보여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면 연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방법론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 자료에 대한 검토 방법만 제시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무엇이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분석태도를 지니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한다.

부족한 저에게 토론을 맡겨주신 한말연구학회 선생님들과 박혜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선어말어미 ‘-느-’의 변화

남미정(서강대)

## < 차례 >

1. 머리말
  2. ‘-느-’ 변화의 조건 환경
  3. ‘-느-’ 변화의 양상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현대국어의 선어말어미 ‘-느-’에 대해서는 현재시제(혹은 비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느-’가 보이는 분포상의 제약 때문에 형태소 분석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sup>1)</sup> 또한 몇몇 경우의 ‘-느-’는 형용사나 과거시제 ‘-었-’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시제로서의 의미기능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대국어에서 ‘-느-’가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의 ‘-느-’가 형태, 기능상 단순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2)</sup> 대체로 ‘간다/먹는다’에 나타나는 ‘-느/는’은 분석이 가능하고 의미기능도 유지하고 있으나 ‘먹는데/먹었는데’에 나타나는 ‘-느-’는 분석의 가능성과 의미의 명료함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현대국어에서 ‘-느-’가 보이는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대국어의 ‘-느-’는 분포 환경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유형이 밝아온 역사적 과정의 차이로 인해 현대국어와 같은 다층적인 성격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느-’가 단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

1) 현대국어에서 현재시제를 담당하는 형태소를 일단 ‘-느-’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후의 논의를 고려하면 기본형 ‘-느-’보다는 ‘-는-’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나 기존의 관례를 따라 ‘-느-’로 지칭한다.

2) 현대국어의 ‘-느-’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논의로는 한동완(1986)을 들 수 있다. 한동완(1986)에서는 현대국어의 ‘-느-’를 ‘-었-’과 대립을 이루는 본연의 ‘-느-’와 ‘-더-’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약화된 ‘-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본연의 ‘-느-’는 [상황시 및 인식시의 동시성]의 의미로, 약화된 ‘-느-’는 [인식시의 동시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현대국어의 ‘-느-’를 두 가지로 파악하고 모두 분석하는 입장이다. 문숙영(2009)는 현대국어의 ‘-느-’를 세 부류로 나누어 ‘비과거시제’에 해당하는 본연의 ‘-느-’와 시제 표시의 기능이 없는 약화된 ‘-느-’, 그리고 응축형 어미의 일부로서 분석이 불가능한 ‘-느-’로 구분하였다. ‘-느-’의 일부를 분석하고 분석한 ‘-느-’ 가운데 본연의 ‘-느-’에만 의미를 부여하였다. 임동훈(2010) 역시 문숙영(2009)와 비슷한 입장으로 “종결어미의 일부로 융합한 경우나 일부 의문형 어미나 연결어미 앞에 나타난 경우”는 공형태의 ‘-느-’로 처리하였다. 한편 허철구(2003)에서는 ‘-느다, -는, -는데’ 등 서로 차이가 있는 어미들에서 ‘-느-’의 일관된 기능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공식적으로 ‘-느-’를 분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며 ‘-느-’ 관련 논의들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느-’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왔다. ‘-느-’의 이형태를 기준으로 ‘-느-’의 유형을 분류한 논의도 있고 ‘-느-’의 출현 환경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였으며 ‘-느-’와 대립관계를 이루는 형식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느-’가 보이는 다층적인 성격에 대한 인식은 이형태의 다양함보다는 그 출현환경의 이질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출현환경에 따라 대립관계도 달라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고는 ‘-느-’의 출현환경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제1유형: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고 ‘-었-’과 결합이 불가능한 유형
  - ① ‘-는다’ 선행동사 어간의 종성 유무에 따라 ‘-는/ㄴ-’으로 교체한다.
  - ② ‘-는구나’ 선행동사 어간의 종성 유무에 관계없이 ‘-는-’으로 실현된다.
  - ③ ‘-는’ 선행동사 어간의 종성 유무에 관계없이 ‘-느-’로 실현된다.
  
2. 제2유형: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고 ‘-었-’과 결합이 가능한 유형<sup>3)</sup>
  - ① ‘-는데, -는지, -는가, -느냐’ 선행동사 어간의 종성 유무에 관계없이 ‘-느-’로 실현되고 ‘\*예쁘는데’와 같이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다. 과거형은 ‘먹는데/먹었는데’와 같이 ‘-느-: -었느-’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 ② ‘-는걸’ 선행동사 어간의 종성 유무에 관계없이 ‘-느-’로 실현되고 형용사에 결합할 수 없다는 점은 ①과 동일하나 동사의 과거형이 ‘먹는걸/먹었는걸’의 대립도 가능하고 ‘먹는걸/먹은걸’의 대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3. 제3유형: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고 ‘-었-’과 결합이 가능한 유형  
 ‘-습니다, -네, -니’ 통합형어미 구성에서 재분석될 수 있는 ‘-느-’로 형용사나 ‘-었-’과의 결합이 자유롭다.

제1유형은 현대국어에서 현재시제 어미로 분류되어 온 ‘-느-’이다. 이때의 ‘-느-’는 과거시제 ‘-었-’이나 과거지각 ‘-더-’와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관련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느-’에 후행하는 어미 부류가 일정하게 제약되어 있고 형성 시기가 늦은 반말체 어미류와는 통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느-’가 활발한 생산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포가 제한적이라고 해서 형태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제한된 분포 내에서 현재시제로서의 쓰임이 확고하다면 충분히 독자적인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 관형형 ‘-는’ 구성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구성상으로 보면 다른 관형형어미 포함 구성인 제2유형에 가까우나 기능상 관형절의 현재시제를 담당하고 있고 ‘-었-’이나 ‘-더-’, 형용사와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1유형으로 분류해 둔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의 ‘-느-’는 과거시제 ‘-었-’이나 형용사와도 통합한다는 점에서 제1유형과 구분되며 따라서 온전한 현재시제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제2유형의 ‘-느-’는 ‘-는데, -는지, -는가, 냐’ 등 관형형어미를 포함한 구성이 새로운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로 굳어진 부류와 통합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제3유형의 ‘-느-’는 형태상으로 축약의 정도가

3) 본고에서 제2유형으로 분류한 ‘-느-’에 대해 문숙영(2009: 195), 임동훈(2010: 10)에서는 형용사와의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 제2유형의 ‘-느-’가 형용사와 통합하는 경우는 ‘-었-’이 선접될 때뿐이며 ‘-느-’ 단독으로는 형용사와 통합할 수 없다.

심하고 형용사나 ‘-었-’과의 통합에 제약이 없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세 가지 다른 층위의 ‘-느-’가 각기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에 대한 추적을 통해 하나의 형태소가 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최종 귀착점은 현대국어 ‘-느-’이지만 변화의 중심에 있는 형식은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느-’라 할 수 있다. 즉 선어말어미 ‘-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이유로 현대국어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느-’를 대상으로 하되 ‘-느-’의 의미변화 자체가 초점이라기보다 ‘-느-’의 변화가 유발된 분포 조건과 각 유형에 따른 ‘-느-’ 변화의 양상을 살피는데에 본 논의의 목적이 있다.

현대국어에서 ‘-느-’가 분포하는 세 가지 유형의 환경에서 ‘-느-’의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2유형이다. ‘-어 잇-’ 구성이 ‘-었-’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잇-’이 관형형어미 ‘-ㄴ-’을 포함한 구성과 통합될 때 ‘-느-’와 통합하는 제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었느-’ 결합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느-’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제2유형부터 촉발된 ‘-느-’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1유형과 제3유형의 ‘-느-’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2. ‘-느-’ 변화의 조건 환경

제2유형 ‘-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에서 ‘잇-’과 관련한 ‘-느-’의 분포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느-’ 변화의 시작은 ‘-어 잇->-었-’의 변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시제 ‘-었-’의 형성으로 인한 시제 체계의 재편 과정에서 ‘-느-’가 어떤 변화를 겪기도 했겠지만 시제 체계의 재편보다는 형태 결합상의 제약으로 인한 ‘-느-’의 약화가 먼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잇-’이 관형형어미 ‘-ㄴ-’이 포함된 어미 부류와 결합할 때 ‘-느-’가 통합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느-’의 변화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중세국어에서 ‘-느-’가 결합 가능한 어말어미에는 평서형 ‘-다, -니라’, 의문형 ‘-냐(뇨), -ㄴ다, -ㄴ가(고)’, 감탄형 ‘-ㄴ더’, 연결어미 ‘-니’, 관형형어미 ‘-ㄴ-’이 있다.<sup>4)</sup> 이 가운데 ‘-다’를 제외하면 모두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 ‘-ㄴ-’이 포함된 어미류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의 경우 ‘-느-’와 결합하는 예가 대부분 내포문 구성인 경우가 많고 특히 ‘잇-’이 종결어미 ‘-다’ 앞에서 ‘-느-’와 통합한 ‘잇느다’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 결국 중세국어에서 ‘잇-’이 ‘-느-’와 결합할 때 그에 후행하는 어미는 관형형어미 ‘-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혹은 ‘잇-’이 관형형어미가 포함된 구성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항상 ‘-느-’가 개재되어야 하는 결합상의 제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제약은 ‘-느-’의 기능이나 현대국어 ‘잇-’의 특성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중세국어의 ‘-느-’가 시제 요소인지

4) 현대국어에서는 종결어미 ‘-구나’에 ‘-느-’가 선행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고나’나 ‘-고녀’(‘-구나’의 전신)에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된 예가 흔치 않다. <번역노걸대>에 ‘모르느고나’ <번노 상: 27a, 50b>가 단 2회 출현할 뿐이다. ‘-고나’와 ‘-느-’의 결합은 17세기 이후에 활발해지므로 일단 목록에서는 제외한다.

5) 이러한 제약이 절대적이었던다고는 할 수 없다. ‘잇느다’형은 발견되지 않지만 ‘잇느이다’형이 4회 확인되고 ‘잇-’이 ‘-니라’와 ‘-느-’ 없이 바로 결합한 ‘이시니라’형도 15여회 확인된다. 또한 ‘잇느다’는 없지만 ‘잇노라’형이 30여회 쓰이고 있어 이 제약이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이 ‘잇느-ㄴ-’의 결합 빈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제약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서법 혹은 상 요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성과 관련된 의미를 표시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동사의 경우 ‘-느-’의 결합여부에 따라 현재와 과거로 구분되는 시간상의 대립체계를 상징할 수 있다. 한편 ‘잇-’의 경우 현대국어에서는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두루 갖고 있고 각 용법에 따라 ‘-느-’의 결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형용사적 쓰임의 ‘잇-’에도 ‘-느-’가 결합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잇느-’형이 항상 현재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잇느-’형이 현재라면 ‘-느-’의 부재에 따른 과거형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을 ‘잇+-느+-ㄴ(X)(관형형어미가 포함된 어미류)’로 표시해 볼 때 이것이 ‘잇-’의 특이성으로 인한 것인지 선어말어미 ‘-느-’ 혹은 관형형어미 ‘-ㄴ’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결합제약이 ‘-어 잇->-엇-’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느-’의 변화가 촉발된 것은 분명하다.

- (1) 가. 네 着디 아니호는 거슨 잇느녀 업스녀 <능엄경 1:74a>  
나. 네 짜해 가 저그나 니천 잇느녀 <번역노결대 상:13a>
- (2) 가. 엇데 제 欺弄호야 손지 보며 드로매 머므려 잇는다 <능엄경 4:74b>  
나. 아히호고 엇디 잇는다 <순천김씨간찰 86:3>
- (3) 가. 그딕를 因호야 消息을 묻노니 도히 잇는가 阮元瑜여 <두시언해 23:23a>  
나. 네 이 됴에 콩 답 다 잇는가 업슨가 <번역노결대 상18a>
- (4) 가. 포이 무로디 尊者스 우희 쏘 다룬 上座 | 잇느니잇가 <석보상절 24:43b>  
나. 儂이 趙州식 무로디 가히는 佛性이 잇느니잇가 업스니잇가  
<몽산법어(고운사) 38b>

(1~4)는 ‘잇-’이 의문형어미와 통합할 때 항상 ‘-느-’가 개재하는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 (1)은 의문형어미 ‘-냐/녀/니여’ 등이 ‘잇-’과 통합한 예인데 항상 ‘-느-’가 개재한 형만 출현하고 ‘-느-’가 없는 ‘이시녀, 이시냐, 이시니여, 이시니야’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역시 ‘잇는다’형에 대응하는 ‘이신다’형은 나타나지 않으며 (3)의 ‘잇는가’나 (4)의 ‘잇느니잇가’에 대응하는 ‘이신가’나 ‘이시니잇가’도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느-’가 사태의 현재성과 관련된 의미를 담당했다고 할 때 ‘잇-’이 의문형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느-’의 결합여부에 따른 ‘현재:비현재’ 혹은 ‘현재:과거’의 대립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다음은 ‘-느-:∅-’의 대립이 확인되기는 하나 빈도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이다.

- (5) 가. 無所有는 잇는 것 업슬씨니 이 하느른 色과 空과 識心과 다 업고 識性이 잇느니라 <월인석보 1:36a>  
나. 두 鐵圍山 썩시 어드븐 짜해 地獄이 버러 잇느니라 <월인석보 1:28b>  
다. 橋陳如를 濟渡호샤 羅漢이 드외니 儂이라 혼 일후미 이시니라<석보상절 13:59b>

6) 중세국어 ‘잇-’의 분포 현황을 정리한 이안구(2002: 20-21)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있다’의 의문형에서 ‘-느-’ 부재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시기에 ‘-느-’ 결합형으로 모두 굳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6) 가. 楞伽山이 南天竺 바루 7새 잇느니 神通 잇는 사르미사 가느니라  
 <석보상절 6:43b>  
 나. 谿<sup>느</sup>는 물 잇는 잇고리오 잇은 고리라 <월인석보 13:45a>  
 다. 始作이 이시며 잇츠미 잇신 후에사 圓備 잇릴씨 <석보상절 21:20b>
- (7) 가. 太子 | 니르샤디 몸뚱 이시면 受苦<sup>르</sup>윈 이리 잇느니 나도 잇려<sup>르</sup>히로다 잇시고  
 <석보상절 3:17b>  
 나. 如來 거르샤매 세 가짓 이리 잇느니 神通 내샤 虛空에 거르샤미 잇나히오  
 <월인석보 2:37b>  
 다. 臨회<sup>스</sup> 7웁 고온 사르미 白帝城에 잇시니 이 놀애를 神妙히 잇츠미 精神이 楊楊  
잇도다 <두시연해 16:48a>

(5)는 ‘잇느니라’와 ‘이시니라’의 예인데 중세국어에서는 ‘잇느니라’가 350여회, ‘이시니라’가 15회 정도 출현한다. (6)은 ‘잇-’이 관형형어미 ‘-ㄴ’과 결합하는 예인데 주로 ‘잇는’으로 쓰이고 ‘잇신’은 후행하는 명사가 ‘뻘, 땀, 時節, 적, 제, 後, 則’ 등인 경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안구 2002: 22) (7)은 ‘잇느니’와 ‘이시니’의 대립을 제시한 것인데 중세국어에서 ‘잇느니’는 480회 정도, ‘이시니’는 ‘85’회 정도 출현한다.(이안구 2002: 23) 다른 어미들에 비해 연결어미 ‘-니’는 ‘-느-’ 부재형의 빈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다.

이상과 같이 중세국어 ‘잇-’의 활용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1~4)와 같이 ‘-느-’ 결합형만 있고 ‘-느-’ 부재형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5~7)과 같이 ‘-느-’ 결합형과 ‘-느-’ 부재형이 함께 나타나지만 ‘-느-’ 결합형의 빈도가 ‘-느-’ 부재형에 비해 훨씬 우세한 경우이다. 여기서 (5)는 다소 예외적인데 ‘-느-’ 결합형과 부재형이 공존한다는 점에서는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후의 변화 양상을 보면 오히려 첫 번째 유형인 ‘-느냐’나 ‘-느가’ 부류와 유사하다. 이는 ‘이시니라’의 출현이 매우 한정적이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느-’가 결합하지 않은 ‘이시니라’형이 쓰이긴 했으나 주로 (5다)와 같이 ‘~일후미 이시니라’와 같은 구문에 한정되어 쓰이고 곧 ‘잇느니라’형으로 통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5)는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잇-’의 활용 양상을 ‘-느-’의 변화와 관련지어 볼 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잇-’이 관형형어미가 포함된 어미류와 통합할 때 왜 ‘-느-’가 개재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이다. 즉 ‘잇--+느--+ㄴ(X)’와 같은 제약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는 이러한 구성에 나타나는 ‘-느-’의 의미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느-’ 부재형이 아예 배제되는 경우는 왜 그러한지, ‘-느-’ 결합형과 부재형이 공존하는 경우는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셋째는 ‘-어 잇-’ 구성이 ‘-엿-, -엇-’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어미류들의 변화 양상에 대한 문제이다. 중세국어의 ‘잇-’은 대부분 ‘-느-’와 결합하는 활용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어 잇-’ 구성이 ‘-엿-, -엇-’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느-’, 혹은 ‘-느-’를 포함한 어미류들 역시 일정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느-’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잇--+느--+ㄴ(X)’와 같은 결합제약이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제약이 ‘잇-’의 특성 때문인지, ‘-느-’나 관형형어미 ‘-ㄴ’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대국어 시기의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관련 형식들을 참조하면 ‘잇-’보다는 ‘-느-’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일 가능성이 높다. 중세국어의 ‘-느-’와 관련되는 고대국어 시



나. 爾ニ時ト十ニ十ニ三ニ明ニ三ニ大ニ滅ニ諦ニ三ニ金ニ剛ニ智ニ三ニ釋ニ迦ニ牟ニ尼ニ佛ト一ニ  
<구역인왕경 02:10-11>

다. 是レ如ク支ト第ニ六ニ心ト能ク生ク死ク大ニ闇ト破ニ滅ト三ニ入ト三ニ故レ是レ名ト下ニ  
<금광명경 02:09-10>

(12) 가. 何レ等ト一ニ是レ事ト有ク一ニ三ニ故ク是レ事ト有ク一ニ丁トノレ合ト爲ス  
<화엄경소 01:17>

나. 當ハ知ル一ニ廣ニ說ク一ニ十ニ六ニ種ト有ク一ニ亦ク菩ニ薩ト地ト中ト當ハ說ク自トノレ尸ト  
如ク支ト一ニ一ニ丁ト <유가사지론 04:13-14>

다. 是レ如ク支ト一ニ名ト下ニ爲ス涅ト槃ト首ト爲ス一ニ三ニ有ク一ニ所ト七ニ廣ニ義ト一ニ尸ト一ニ  
<유가사지론 06:12>

(11)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ㄱ’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관형형어미 ‘-ㄴ’은 동명사어미에서 기능이 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독구결 자료에서 ‘-ㄴ’의 동명사적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11가)의 ‘住ト一ニ(주흔)’이나 (11나)의 ‘三ニ一ニ(흔신)’, (11다)의 ‘破滅ト三ニ一ニ(破滅헉건)’과 같은 예를 통해 ‘-ㄴ(ㄴ)’이 ‘-ㄴ-’와 통합하지 않고도 사용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는 ‘-ㄴ-’가 개재하지 않고 ‘有ク(잇-)’이 관형형어미 ‘-ㄴ(ㄴ)’와 직접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잇-’과 관형형어미의 통합에서 ‘-ㄴ-’가 개재하지 않은 예가 훨씬 우세하게 나타난다.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이러한 통합상의 특징은 14세기의 음독구결 자료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다만 ‘-ㄴ-’에 해당하는 형식이 평서형어미 ‘-다’와 통합한 예가 몇몇 발견되기는 한다.

(13) 가. 過去諸菩薩ト已ニ誦ト三ニ未來諸菩薩ト當ニ誦ト三ニ現在諸菩薩ト今ニ誦ト三ニヒトスト  
<범망경 43a>

나. 阿難ト譬ト如トスト有ク人ト以ク兩ト手ト指ク急ト塞ト其ト耳ト一ニ耳ト根ト勞ト故ト頭ト中ト作ク聲ト三ニヒト <능엄경 3:2b>

(14) 가. 世尊 此諸大衆 不悟如來ト發ニ明ト三ニ二ニ種ト精ト見ト色ト空ト一ニ是レ非ト是レ義ト三ニヒト <능엄경 2:23b>

나. 佛 卽ニ豎ト臂ト告ト阿ト難ト言ト若ク此ト顛ト倒ト一ニ首ト尾ト相ト搜ト一ニ諸ト世ト間ト人ト一ニ倍ト膽ト視ト三ニヒト <능엄경 2:32b>

(13)은 14세기 음독구결 자료에서 중세국어의 ‘-ㄴ-’에 대응되는 ‘-ㄷ-’가 주로 ‘三ニヒト스(헉느니라)’, ‘三ニヒト스(헉느니)’와 같은 구성에 쓰이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sup>9)</sup> 이 시기의 ‘-히스(니라), -히(니)’는 석독구결에서 동명사형 구성으로 나타났던 ‘-ㄱト一ニ, -ㄱ’이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sup>10)</sup> (14)는 ‘三ニヒト스(헉느이다)’, ‘三ニ히ト스(헉느다)’와 같이 ‘-ㄷ-’가

9) 음독구결에서는 석독구결의 ‘ㄷ’에 대응되는 형태가 ‘ㄷ’나 ‘ㅌ’로 나타난다. ‘ㅌ’는 주로 ‘-ㄴ-+-오-’로 분석되는 경우이다.

10) 석독구결에서는 동명사어미 ‘-ㄱ’ 단독으로도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었다. 이러한 용법의 동명사어미 ‘-ㄴ’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통합형이 재구조화되어 형성된 어미가 중세국어 연결어미 ‘-니’인데 14세기의 음독구결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다’ 혹은 ‘-이다’에 직접 통합한 예인데 이러한 형식은 기림사본 능엄경 권2에서만 총3회 출현한다. 음독구결 자료에서는 ‘-ㄷ-’의 분포가 다소 확장되기는 하나 여전히 석독구결에서 확인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세기 음독구결 자료인 <범망경(엄인섭본)>과 <능엄경(기림사본)>(권2~4)에서 ‘-ㄷ-’가 통합된 구결연결체 목록과 그 출현횟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5) ‘-ㄷ-’가 포함된 구결연결체  
가. 범망경

	결합 어미	구결연결체	출현횟수
-ㄴ-+-ㄴ(X)	-ㄷ(니)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7회
	-ㄷㅅ(니라)	ㄴ ㅌ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25회
	-ㄷ ㄴ(ㄴ)	ㄴ ㅌ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2회
-ㄴ-+-ㄷ	-ㅌ(라(다))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4회

나. 능엄경

	결합 어미	구결연결체	출현횟수
-ㄴ-+-ㄴ(X)	-ㄷ(니)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180회
	-ㄷㅅ(니라)	ㄴ ㅌ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129회
	-ㄷ ㅌ(니오)	ㄴ ㅌ ㅌ ㅌ ㅌ	1회
	-ㄷ ㄴ ㄴ(ㄴ명)	ㄴ ㅌ ㄴ ㄴ	2회
	-ㄷ ㄴ(ㄴ)	ㄴ ㅌ ㄴ, ㄴ ㅌ ㄴ, ㄴ ㅌ ㅌ ㄴ	53회
-ㄴ-+-ㄷ	-ㅌ(라(다))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ㄴ ㅌ ㅌ ㅌ ㅌ	25회

<범망경>과 <능엄경>에서 확인되는 구결연결체들을 비교해보면 ‘-ㄴ-’의 분포 확대 과정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14세기 초기 자료로 추정되는 <범망경>에 비해 14세기 후기 자료로 추정되는 <능엄경>에서 더 다양한 ‘-ㄴ-’ 결합 형식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와 직접 결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그리고 이러한 활용 패턴은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ㄴ-’와 거의 유사하다.

요컨대 ‘-ㄴ-’는 고대국어 시기에는 관형형어미와 결합하던 형식이었는데 관형형어미를 포함한 구성이 어미로 재구조화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어미류들과의 결합으로 분포를 확대한다.<sup>12)</sup> 새로운 어미라 하더라도 관형형어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ㄴ-’와 관형형어미와의 결

11) 이러한 차이가 시대에 따른 ‘-ㄴ-’의 변화와 관련된 차이인지 단순 자료상의 차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석독구결-범망경-능엄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ㄴ-’ 결합 형식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로 볼 때 ‘-ㄴ-’의 분포 확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12)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ㄴ-’로 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국어의 ‘內’도 이러한 결합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재영(2000)에 따르면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는 선어말어미 ‘-內-’가 문장 종결

합제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14세기 무렵부터는 평서형어미와도 결합하게 되는데 여전히 관형형어미와의 결합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이 중세국어에까지 이어진다.<sup>13)</sup> 결국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잇--+ㄴ--+ㄴ(X)’와 같은 결합제약은 ‘-ㄴ-’의 기원적인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그런데 선어말어미 ‘-ㄴ-’가 관형형어미 부류를 선호하는 특징으로 인해 ‘잇--+ㄴ--+ㄴ(X)’와 같은 제약이 생겼다고 할 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제약이 왜 유독 ‘잇-’에 국한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ㄴ--+ㄴ(X)’와 같은 제약이 있다면 모든 동사에 일관되게 적용될 법한데 다른 동사류에 비해 ‘잇ㄴ다’형이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잇-’가 가진 어떤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현대국어의 ‘잇-’은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으로 구분되며 각 용법에 따라 ‘-ㄴ-’의 결합여부가 결정된다.<sup>15)</sup>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 비해 ‘잇-’의 용법상의 구분이 그리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에 따라 ‘-ㄴ-’의 결합이 결정되었다기보다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내포문에서는 주로 ‘잇다’형으로 나타나고 문장 종결형에서는 ‘잇ㄴ니라’형이 많이 쓰였다. ‘잇노라’형이 30여회 출현하는데 주로 <두시연해>에 많이 나타나 자료상의 제약을 보인다. 중세국어의 시제 질서를 따르면 동사의 경우 ‘-ㄴ-’ 결합형은 현재로 해석되고 부정법 ‘-∅-’는 과거로 해석된다. 반면 형용사의 경우는 부정법 ‘-∅-’가 현재로 해석되고 형용사의 과거 표현은 ‘-더-’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국어의 ‘잇-’이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두루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ㄴ-’가 결합되지 않은 ‘잇다’나 ‘이시니라’ 등은 과거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현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의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ㄴ-’ 결합형을 선호하게 되고 ‘-ㄴ-’ 부재형은 현재와 과거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잇--+ㄴ--+ㄴ(X)’와 같은 제약은 기원적으로 ‘-ㄴ-’가 ‘-ㄴ-’을 선호하고 또 ‘잇-’이 ‘-ㄴ-’를 선호하게 된 결과 발생한 제약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 3. ‘-ㄴ-’ 변화의 양상

다음은 ‘-어 잇-’ 구성이 ‘-엇-, -엇-’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어미류들의 변화

- 
- 어미 ‘-之’나 ‘-如’ 앞에 오는 일이 거의 없고 대개는 접속어미와 통합한 것이거나 관형 구성이나 동명사 구성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승재(1992)에서도 고려시대 이두에서 ‘內’가 동명사어미 혹은 관형형어미로 쓰인 ‘乎’(-온)과 주로 통합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 13) 관형형어미가 통합되지 않은 ‘잇노라’나 ‘잇ㄴ이다’형은 근대국어로 갈수록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ㄴ-’의 분포는 관형형어미를 넘어서 꾸준히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ㄴ(x)’와 통합한 ‘-ㄴ-’는 후행어미와 융합되어 새로운 어미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면 분포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 14) 이렇게 볼 때 ‘-ㄴ-’가 관형형어미를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ㄴ-’의 의미기능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ㄴ-’의 특이성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ㄴ-’와 ‘-ㄴ-’의 의미기능 중 일부분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제약으로 추정할 뿐이다.
- 15) 현대국어 ‘잇-’을 어떤 품사에 소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으나 ‘잇-’이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잇-’, ‘없-’을 묶어 ‘존재사’라는 범주를 설정한 견해도 있고(서정수 1994 등), 이들을 모두 ‘형용사’로 보는 견해(유현경 1998, 임흥빈 2001 등)도 있으나 대다수의 논의에서는 형용사로서의 ‘잇-’과 동사로서의 ‘잇-’을 인정하고 있다(송철의 1995, 배주채 2000). ‘잇-’의 범주 문제 및 형태.통사적 특징,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안구(2002)를 참조할 수 있다.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보았듯이 중세국어의 ‘잇-’은 대부분 ‘-느-’와 결합하는 활용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어 잇-’ 구성이 ‘-엣-, -엇-’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느-’, 혹은 ‘-느-’를 포함한 어미류들 역시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류들의 변화는 앞서 (1~7)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잇-’의 결합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느-’ 결합형과 부재형의 대립이 없는 ‘-느냐, -느가’와 ‘-느’ 부재형의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느니라’ 등은 ‘-느-’와 후행하는 어미류와의 밀착도가 높게 나타나 현대국어에서는 ‘-느냐, -느가, -느니라’ 등이 하나의 어미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중세국어의 ‘-느니’는 ‘-느니’로 어미화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느-’가 탈락하고 ‘-으니’로 교체되는 유형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관형형어미 ‘-느’는 현대국어에서도 ‘-은, -을’과 함께 시제 대립을 유지하고 있어 ‘-느-’가 그 기능을 잃지 않는 경우이다. 결국 ‘-느-’가 어떤 구성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어미로 재구조화되는 ‘-느냐, -느가, -느니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sup>16)</sup> 이들은 중세국어부터 ‘잇느-+--냐/느가/-니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잇-’에 있어서는 ‘-으냐:-느냐’의 대립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어 잇느- > -엣느-’의 변화는 15세기부터 나타나고 ‘-엇느-’형은 15세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에 활발해진다. <번역노걸대>나 <순천김씨연간>에는 모두 ‘-엇느-’형으로 나타나 16세기에는 이미 ‘-어 잇->-엣->-엇-’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6) 가. 시러곰 아니 玄圃山이 므여더 왓느니아 아니 瀟湘이 드워텃느니아  
 <두시연해 16:29b>  
 나. 쥬신하 썩 잇느녀 몬흐얏느녀 <번역노걸대 上:22b>  
 다. 제 어든 종 흐나홀 주연느냐 <순천김씨연간 66:10>
- (17) 가. 디는 둠비치 집 물리 꺄독흐니 그덧 늦비치 비취엇느가 오히려 疑心<sup>17)</sup>흐노라  
 <두시연해 11:52a>  
 나. 두리 물어디여 잇더니 이제 고타 잇느가 몬흐얏느가 <번역노걸대 상:26b>  
 다. 민셔방 안해는 주건느가도 너겨 미양 설오니 <순천김씨연간 68:9>
- (18) 가. 顧愷이 그리미 버렸느니 頭陀入 碑는 구스레 사갓느니라 <두시연해 20:13b>  
 나. 이제 그 도즈기 구윗 옥애 이셔 가텃느니라 <노걸대연해 上30b-31a>  
 다. 서르 미쳐 사르미나 브리고져 흐시더니 더리 나가 도니 몰 갓느니라

15세기의 ‘-엇느-’형은 <두시연해>에서만 확인된다. 대부분의 15세기 자료에서는 ‘-엣느-’로 나타나는 점에 비춰볼 때 <두시연해>는 비교적 후대형이 반영된 자료라 할 수 있다. 16세기부터는 ‘-엇느-’형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엇느-’와 같은 축약형은 ‘잇-+--느-+--느(X)’ 구성에 있는 ‘-느-’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잇느냐’나 ‘잇느가’ 등은 항상 ‘-느-’가 결합된 상태로만 쓰였고 ‘잇느니라’나 ‘잇느니’ 등은 ‘-느-’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느-’ 결합형과 부재형 사이에 큰 의미차이가 발견되지는

16) 예문 (1-4)에 제시된 것처럼 ‘-느-’ 부재형이 나타나지 않는 어미로는 ‘-느다’나 ‘-느니잇가(고)’도 있지만 현대국어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대국어에서 확인되는 어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느니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느-’ 부재형도 나타나나 수적으로 미미하고 변화 양상도 ‘-느냐’류와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여기서 함께 다룬다.

않는다.<sup>17)</sup>(최동주 1995: 57, 이안구 2002: 23) 즉 ‘-엇느-’의 ‘-엇-’이 ‘결과상대상’ 혹은 ‘완료’이든 ‘과거시제’이든 이때의 ‘-느-’는 ‘잇-’과 ‘-ㄴ-’ 사이에 필수적(혹은 준필수적)으로 개재하는 형식일 뿐이므로 ‘과거:현재’와 같은 의미충돌은 없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엇느-’와 같은 축약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느-’의 의미가 약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엇느-’로 인해 ‘-느-’의 의미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느-’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엇느-’와 같은 축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느-’는 ‘-느--+ㄴ(x)’ 구성의 일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엇-’은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엇느냐, -엇는가, -엇느니라’ 등은 ‘-엇--+느냐/-는가/-느니라’로 분석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미로 재구조화되는 부류들과 달리 ‘-느니’는 다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제시한 부류들과 같이 ‘잇느니’는 ‘-느-’가 결합하지 않은 ‘이시니’와 혼용되어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잇느니’형은 근대국어로 가면 ‘이시니’로 교체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이기갑 1985, 최동주 1995)

(19) 가. 더 동녃 겨티 헛 간 빈 방 잇느니 네 보라 가라 <번역노걸대 상:67a-b>  
나. 더 동녃 겨티 헛 간 빈 방이 이시니 네 보라 가라 <노걸대연해 상:60b>

(20) 가. 이러면 근 틈 외 잇느니 이제 족재 가져오마 <번역노걸대 상:63b>  
나. 이러면 저런 외 이시니 이제 족제 가져오마 <노걸대연해 상:57a>

(21) 가. 鸚鵡 | 시름드윈 쓰들 머것느니 聰明하야 제 짜 여희여슈믈 스랑흐눗다  
<두시언해 17:17a-b>  
나. 菩薩은 順히 行하야 니르러 覺 7새 드러 섯느니 일후미 等覺이라  
<능엄경 8:51b>  
다. 또 어미 주글 제 그딛게 부촉하야 겨집비며 즈식도 업섯느니 그디는 두 즈식 잇  
거니 주근들 므스기 뉘웃브로 <이륜행실도(옥산서원본) 14a>

(19), (20)은 ‘잇느니>이시니’의 교체를 보여주는 용례이다. 이기갑(1985: 248)에 따르면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연해>, <번역박통사>와 <박통사언해>에서 이러한 교체가 활발히 나타나며 이들 자료에서 ‘이시니’가 ‘잇느니’로 바뀐 예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미 중세국어 시기부터 ‘잇느니’와 ‘이시니’가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가 탈락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느냐’나 ‘-는가’처럼 ‘-느-’가 융합되지 않고 탈락하게 된 데에는 ‘-으니’의 특이성이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으니’는 현대국어에 비해 의미영역이 넓었으며 종결어미에 가까운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허용 1975, 이현희 1994) 이러한 ‘-으니’의 특성으로 중세국어에서 ‘-느-’가 선접되는 연결어미는 ‘-으니’밖에 없었다. 그런데 17세기 무렵부터 ‘-으니’는 ‘계기적 상황’과 ‘이유’의 의미로 축소되며 의미특성상 후행절에 대해 종속성이 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최동주 1995: 153) 이러한 ‘-으니’ 자체

17) 고영근(1981: 68)에서는 ‘이슈라, 이쇼라’가 ‘과거시제를 표시하는 부정법으로보다는 ‘잇노라’의 변이형으로 보아질 때가 많다.’고 하였으며 최동주(1995: 57)에서는 ‘잇-’이 ‘있게 되다, 생겨나다’의 의미로 해석될 때만 ‘이시니라’를 과거로 볼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잇느니라’의 수의적 교체형이라 하였다.

의 변화로 인해 다른 연결어미 부류들과 동일한 활용패턴으로 변화하게 된 결과 ‘-느-’ 탈락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잇느니’는 (19), (20)과 같이 ‘-느-’가 탈락하여 ‘이시니’로 통일되는 한편 (21)과 같이 ‘-엇느니’형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엇느니’형은 앞의 ‘-엇느냐’나 ‘-엇는가’와 마찬가지로 ‘-엇--+느니’로 분석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때의 ‘-느니’는 현대국어에 ‘-느니’로 남아 있다.

요컨대 ‘잇느니’형은 두 방향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느-’ 결합형과 부재형이 공존했지만 큰 의미차이 없이 수의적으로 교체했고 그러한 결과 ‘-느-’ 탈락을 경험하게 된다.<sup>18)</sup> 한편으로는 다른 ‘잇--+느--+ㄴ(x)’ 부류와 같이 ‘-느니’로 재구조화되는 결과 현대국어에서는 ‘-으니’와 ‘-느니’가 각각의 어미로 쓰이게 되었다.

변화의 마지막 유형은 관형형어미 ‘-느’이다. ‘-느’는 현대국어에서도 ‘-은, -을’과 대립관계를 이루며 현재시제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국어 관형절에 나타나는 ‘-∅:-느-’의 시제 대립은 중세국어적 질서를 그대로 보여 주는 한편 관형절의 보수적 성격을 드러내 준다. 접속문이나 종결문에서는 과거시제 ‘-엇-’의 형성으로 인해 ‘-엇:-느-’ 혹은 ‘-엇:-∅-’로 새로운 시제 대립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관형절은 ‘-엇-’이 침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중세국어식 시제 대립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유독 관형형어미 ‘-느’만 다른 ‘-느--+ㄴ(x)’ 구성과 달리 ‘-엇느’형으로 귀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22) 가. 바르래 돈논 히를 몬져 맞느니 銀河爰 버렸느 버리 갖고로 비취엿도다

<두시언해 14:24b

나. 劉器之 待帝스 벼슬흐엿더니 처섬 급데흐야 두 동년과 參政스 벼슬흐엿느 張觀 이를 뵈더니 <번역소학 9:52b>

중세국어에서 ‘잇느’ 역시 ‘이신’과 공존하기는 했으나 ‘이신’은 후행하는 명사가 ‘故, 적, 제, 後, 然後’처럼 제한된 경우에만 쓰였고 대부분은 ‘잇느’으로 나타난다. ‘-어 잇느’이 축약된 ‘-엇느’는 (22)와 같이 중세국어부터 나타나며 대략 18세기까지 이 형식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최동주(1995: 156)에서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엇느’이 ‘-엇-’ 문법화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관형절의 ‘-엇느’가 점차 소멸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엇느’ 구성에 나타나는 ‘-엇-’은 대부분 ‘과거’가 아니라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격이 과거로 굳어져 가는 일반 ‘-엇-’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엇느’형이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관형절의 ‘-엇-’은 과거로 해석될 수 없었는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관형절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도 ‘은:느:을’의 시제 대립이 확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한다. 다른 형식들에 비해 ‘은:느:을’의 대립 속에서 ‘-은’이 자신의 용법을 확고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엇느’과의 세력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19)</sup>

18) ‘잇--+느--+ㄴ(x)’ 구성에 있는 ‘-느-’가 온전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 형태의 변화 방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기능이 없는 요소가 탈락하거나 선행형 요소 중 하나와 융합되거나 하는 방향인데 ‘잇느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 경우이다. ‘-느냐, -느가, -느니라’는 ‘-느-’가 후행요소와 융합된 경우인데 방언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기갑(1985: 252)에 따르면 전남방언에서는 ‘-느가, -느냐, -느니, -느’ 등이 ‘-느-’가 결합하지 않은 ‘-은가, -으냐, -으니, -은’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전남방언은 ‘-느-’ 탈락으로 귀결된 경우라 하겠다.

19) 최동주(1995: 156)에서는 ‘-엇-’의 문법화로 인해 ‘-느-’가 시제적 의미를 상실하고 화자의 시점이 발화시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느-’의 재해석이 관형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엇-’의 문법화를 거부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엇느-’ 구성에

#### 4. 맺음말

본 논의는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느-’를 대상으로 ‘-느-’의 변화가 선명히 부각되는 ‘잇--+느--+L(x)’ 부류를 대상으로 ‘-느-’ 변화의 조건 환경과 변화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는 중세국어 이후에 등장하는 ‘-느디’나 ‘-느겔’도 포함되어야 하나 이는 이후의 논의에서 보충하기로 한다. 또한 머리말에서 제시한 ‘-느-’의 유형 분류에서 평서형, 감탄형어미에 선접되는 ‘-L/는’, ‘-는’과 하나의 어미로 융합된 제3유형의 ‘-느-’에 대해서도 역시 이후의 논의에서 보강하기로 한다.

본 논의는 ‘-느-’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는 입장인데 특히 중세국어의 ‘-느-’는 서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서법과 시제 혹은 상과 시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복합 체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엇-’의 생성으로 시제체계로의 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느-’ 역시 ‘-엇-’의 생성으로 인해 현재시제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느-’가 현재시제로 확립되는 시기는 기존의 ‘-느-’는 ‘-느냐, -느가, -느니라’ 등으로 어미화한 이후이고 여기에 편입되지 않은 ‘-느다’나 ‘-느구나’만 새롭게 부여된 현재시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중세국어에서 ‘잇느다’나 ‘잇느구나’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미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현대국어에서 온전한 현재 의미를 지닌 형식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

나타나는 ‘-느-’는 시제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엇느-’는 과거를 표시하는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데 ‘-엇느’의 과거표시기능은 ‘-은’으로 인해 세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고영근(199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 김동식(1988), 「선어말어미 {느}에 대하여」, 『언어』 13-1, 171-202
- 김영옥(1999), 「舊譯仁王經 구결의 사상과 서법 선어말어미」, 『구결연구』 5, 147-164.
- 김영옥(2000), 「14세기 국어의 사상과 서법」, 『구결연구』 6, 61-85.
- 김정대(1997), 「'-느-'의 변화와 경남 방언」, 『연구원 논집』 제3집,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7-59.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 민경모(2010), 「서법(Mood) 구현 형식에 대한 일고찰-서법 범주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40집, 417-452.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원.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
- 백두현(1997), 「高麗 時代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27-95.
- 이기갑(1985), 「현실법 표지 「-느-」의 변천」, 『역사언어학』(김방한선생회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241-261, 전예원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11-249.
- 임동훈(2010),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3-44.
- 전후민(2011), 「현대 국어 선어말어미 '-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영(2000),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느-'와 그 변화」, 『형태론』 2권1호, 73-106.
- 최동주(1995), 「국어 사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주(2002a), 「전기 근대국어의 사상체계에 관한 연구」, 『어문학』 76, 한국어문학회, 119-152.
- 최동주(2002b), 「후기 근대국어의 사상체계에 관한 연구」, 『언어』 27, 한국언어학회, 507-534.
- 한동완(1985), 「현재시제 선어말 {느}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서강어문』 5-1, 29-62.
- 한동완(1986), 「과거 시제 '었'의 통시론적 고찰」, 『국어학』 15, 217-248.
- 한동완(1993), 「'-느-' 탈락형 어미에 대하여」, 『서강어문』 9-1, 45-61.
- 허철구(2003), 「'-느-' 통합형 어미 기술에 대한 시론」, 『사람어문연구』 제15집, 343-366.
- 홍종선(2008), 「국어의 시제 형태소 체계와 그 기능 변이」, 『한글』 282, 97-123.

## ■ 토론

# “선어말어미 ‘-느-’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김병건(한국국제대)

이 논문은 ‘먹는다/먹었다’와 ‘먹는데/먹었는데’의 대비에서 보이는 ‘느’의 복합적 성격의 원인을 통시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엇-’으로 축약되는 ‘-어 잇-’의 ‘잇-’을 통해 “‘-느-’의 약화”와 “‘-느냐, -는가, -느니라’ 등의 어미화”를 설명한 것은 매우 독창적인 시각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무지가 발표자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1. “‘-어 잇-’이 ‘-엇-’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잇-’이 관형형어미 ‘-ㄴ’을 포함한 구성과 통합될 때 ‘-느-’와 통합되는 제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엇느-’ 결합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느-’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잇--+느--+LX’와 같은 구성으로만 나타난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 ① 하지만 이는 ‘이시니라’ ‘이시니’ 등이 발견되기 때문에 모든 문맥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이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잇-’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느’가 결합하면 당연히 ‘이시느-’가 아닌 ‘잇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시느니라, \*잇니라’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잇느니라, 이시니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그리고 ‘-는가’와 ‘-ㄴ가’의 교체는 아래와 같이 대체적으로 ‘있다, 없다, 동사’에서는 ‘-는가’, ‘이다, 아니다, 형용사’에서는 ‘-ㄴ가(은가)’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sup>20)</sup>

(1) 있다, 없다, 동사: 잇는가(두언 21:12), 날오려 히시는가(석보 13:25), 오신가(월각, 상 1-2:23), 읊는가(능엄 2:40), 說法히시는가(월각 상 1-2:23), 거리치디 못히는가(두언 24:28), 보는가(월석 1:1, 기2), 잇더신가(용 88장)
(2) 이다, 아니다, 형용사: 便安은가(두언 18:5), 光明은가(월석 10:7), 고진가(석보 11:32), 나샤미신가(법화 3:106), 곤훈가(능엄 2:96), 더븐가(월석 10:14), 貧乏은가(두언 22:28), 眞實 아닌가(능엄 2:38), 사르민가(월석 1:15), 勅書   신가(석보 24:51)

이렇게 본다면 ‘잇는가’는 가능해도, ‘\*이시는가’, ‘\*이신가’, ‘\*이슨가’ 등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잇--+...+LX’의 ‘...’에 ‘-느-’를 요구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0) “동사에서는 ‘-느-’에 기대어 현재시제가 표시되지 않는 형용사와 서술격조사에서는 특별한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영근(2010), 제3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72쪽)

2. (1) “ㅌ는 대부분 관형형 어미와 통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쪽), (2) “ㄷ이 ‘ㄴ’와 통합하지 않고도 사용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쪽), (3) “14세기 음독구결 자료에서 … ㅌ의 분포가 다소 확장되기는 하나 여전히 석독구결에서 확인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7쪽), (4) “14세기 후기 자료로 추정되는 <능엄경>에서 더 다양한 ‘ㄴ’ 결합형식들을 확인할 수 있고”(8쪽)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1)과 (2)를 보아 둘은 서로 분포가 다른데 ‘ㅌ’를 ‘ㄴ’의 선대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둘째, (2)와 (3)으로 보아서는 “‘ㄴ’은 고대국어 시기에는 관형형어미와 결합하던 형식이었는데 …… 새로운 어미라 하더라도 관형형어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ㄴ’와 관형형어미와의 결합제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타]

3. 2쪽 제2유형 ①에서 보면, “\*예쁘는데와 같이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고 하여 ‘예쁘데’의 ‘-(으)ㄴ데’ 등은 ‘ㄴ’이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3쪽에 “이 가운데 ‘-다’를 제외하면 모두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 ‘-ㄴ’이 포함된 어미류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는데’ 등의 ‘ㄴ’을 제외한 ‘ㄴ’은 관형형어미(혹은 동명사어미)라 본 듯합니다. 그렇다면 ‘먹는다/잔다/작구나/예쁘다’처럼 ‘ㄴ/ㄴ’과 ‘∅’이 교체되는 ‘는다’의 ‘ㄴ’과, ‘먹는구나/자는구나/작구나/예쁘구나’처럼 ‘ㄴ’과 ‘∅’이 교체되는 ‘는구나’의 ‘ㄴ’에서 ‘ㄴ’을 제외한 ‘ㄴ’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 ‘ㄴ’은 ‘ㄴ’의 이형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들 ‘ㄴ’이 ‘ㄴ(현재시제)+ㄴ(관형형어미)’인 ‘는데, 는지, 는가’의 ‘ㄴ’과는 달리 ‘ㄴ’의 이형태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왜 ‘-는구나’의 ‘-ㄴ’과는 달리 ‘-는다’의 ‘ㄴ’은 ‘ㄴ’의 이형태를 추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4. 2쪽 제3유형의 ‘-니’는 4쪽 (7가,나)와 같이 ‘-ㄴ니’로도 나타나는데, “재분석될 수 있는 ‘-ㄴ-’”(2쪽)로 볼 수 있습니까?



## 제2부

# 제2| 분과 발표



# 경어법의 변화 원인 일고찰

신성철(국민대)

## < 차례 >

1. 서론
  2. 연구사 및 연구 방법
  3. 언어 형식의 변천
  4. 삼강오륜과 경어법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이 글은 경어법 체계가 변화된 근본 원인으로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교 문화, 특히 삼강오륜의 윤리에 있음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교의 전래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대학(大學)’을 세운 시기를 하한으로 잡는데,<sup>1)</sup> 삼국시대에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설치되었던 것이 그 이전부터 유입되었던 것이다. 특히 고려 말기에 들어온 성리학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통치 원칙으로 수용되기 시작하고, 조선의 개국과 함께 성리학은 사적인 교양의 차원이 아닌 국가이념 또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공적 의미체계로 전환된다(정태식 2005:359).

고려 이전 시대, 즉 중세국어 이전의 경어법은 유무 대립에 의한 이원적 체계였다.<sup>2)</sup>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원적인 유무 대립이 무너지고 시작한다. 상대 높임법의 ‘하야씨’체의 등장은 삼원적 대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며, 또한 주체 높임의 ‘먹다’류의 ‘\*좌-’와 ‘-시-’가 결합한 ‘좌시-’와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지만, ‘좌하-’의 용법 구별도 이원적 대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리학을 신분 계급의 사상이나 계급주의의 지배 원리로서 지배와 예속 관계를 정당화한 논리였다. 특히 삼강은 수직적·일반적 윤리 체제로 설명되는데, 조선 전기의 교화서 간행본들은 삼강과 오륜 중에서 삼강에 치중하였다. 《삼강행실도》(1434)의 간행, 언해본 《삼강행실도》(1481), 《속삼강행실도》(1514),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등의 간행 사업은 삼강을 백

1)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4.2.5.

2) 이승재(1998)에서는 주체 높임법이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삼원적 대립이 나타난다고 하나 박진호(1998)에서는 서법의 선어말어미로 해석하여 이원적 대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성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국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15세기의 ‘하야씨’체는 삼강을 지배 원리로 강조하는 사회 변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15세기의 간행본 중에 《석보상절》(1446), 《월인석보》(1459), 《내훈》(1475)에서만 나타난다. ‘하야씨’체가 사용되는 장면은 대부분 신분, 지위, 상황적 요인에서 상위자와 하위자인 수직 관계가 확인된다. 특히 《내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야씨’체, 아내는 남편에게 ‘하쇼씨’체를 사용하고 있어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유교의 기본 윤리 관념으로서 삼강오륜의 강화가 경어법 체계의 변화원인으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삼강오륜과 경어법 용례를 이어주는 매개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문헌의 성격’을 경어법 체계와 사회적 현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의 성격’이란 경어법이 분화된 초기의 몇몇 용례와 특이한 형식의 용례가 사용된 문헌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간행본은 편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여러 번의 수정과 기록을 거쳐 발행된다는 점에서 인공언어의 성격을 지니며, 중앙 관청에서 간행된다는 점에서 규범성을 지닌 자료로 판단된다. 간행본에 나타난 경어법 분화 초기 용례와 특이 형식 용례는 편찬에 참여한 다수의 편찬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특히 그 간행본이 특정 윤리 관념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면, 경어법의 적용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사 및 연구 방법

경어법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는 외국인에 의해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이윤하 2001:16), 이후 국내 학자에 의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sup>3)</sup>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는 경어법 체계가 이원적 대립이었으며(서종학 1987:24, 박진호 1998, 윤용선 2006:325), 상대 높임법도 기원적으로는 유무 대립에 기초한 이원적 체계였다(윤용선 2006:327).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경어법 중에서 상대 높임법을 제외한 주체 높임 등의 유무 대립에 의한 이원적 체계가 현대국어에서도 그대로 유효하지만,<sup>4)</sup> 상대 높임법은 이원적 대립에서 15세기에 삼원적 대립으로 바뀌고, 17세기에는 중간등급이 분화되어 사원적 대립으로 변화되고, 19세기 말에 ‘해요’체와 ‘해’체가 등장하면서 현대국어의 다원적 체계가 형성된다.<sup>5)</sup> 또한 특이하게도 주체 높임법 중에서 ‘먹다’류의 어휘적 경어<sup>6)</sup>가 중세국어에는 삼원적 대립을 보이나,

3) 국어의 경어법에 대한 시기별 연구사는 이윤하(2001)에 정리와 분석이 잘 되어 있어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글은 경어법 체계를 정립하거나 새롭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의 변화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기 때문에 경어법 체계나 그 대립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4) 신성철(2012:173~182)에서는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가 15세기에는 ‘먹-//\*좌-’의 이원적 대립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좌시-’의 용법을 포함한다면 삼원적 대립이 나타나며, 16세기에는 ‘먹-/자-/자시-’의 삼원적 대립, 17세기에는 ‘먹-/자-/자시-/잡습->잡수-’의 사원적 대립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대국어에 이른다고 한다.

5) 현대국어의 상대높임법 체계는 이익섭(1974: 60)에서는 ‘해라’체와 ‘하계’체 사이에 ‘해’체, ‘하오’체와 ‘하소서’체 사이에 ‘해요’체를 배치한 육원적 체계, 고영근(1974: 85)에서는 ‘하소서’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의 사원 대립과 ‘해’체와 ‘해요’체의 이원 대립으로 구분되는 이원 계열의 다원적 체계, 서정수(1984)에서는 이원 계열의 다원적 체계로 보나 사원 대립을 격식체로, 이원 대립을 비격식체로 구분한다. 또한 이윤하(2001: 268)에서는 격식체에 ‘하소서체, 하오체, 해라체’, 비격식체에 ‘해요체, 하계체, 해체’를 나누는 이원 계열의 삼원 체계로 논의하고 있다.

6) ‘먹다’류 주체 높임의 어휘적 경어만이 다원적 체계를 보일 뿐이며, 여타의 주체 높임의 어휘적 경어는 ‘자-/주무시-’, ‘있-/계시-’, ‘죽-/돌아가시-’, ‘아프-/편찮-’ 등처럼 이원적 체계를 보인다. 또한 한두 개의 가감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먹다’류 주체 높임의 어휘적 경우는 한자어를 제외하면 이들

17세기에는 '잡수다(<잡습-)가 등장하면서 등급 체계로는 사원적 대립으로 변화된다(신성철 2012:173~175).

우리 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에 여타의 경어법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어처럼 세분화된 다원적 체계를 보이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상대 높임법처럼 세분화되고 정직한 경어법을 갖춘 언어는 몇몇 언어에 불과하다.<sup>7)</sup> 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인 경어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다양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논의되어 경어법 체계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의 사실과 규칙이 밝혀졌다. 특히 경어법 체계와 언어 형식의 변천, 그리고 그 대응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과 형태는 정밀한 부분까지 밝혀져 있다.<sup>8)</sup> 경어법 중에서 '먹다'류 어휘적 경어를 제외한 주제 높임법은 중세국어 이전 시기부터 현대국어까지 대립 체계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상대 높임법은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대립 체계는 분화에 분화를 경험한다. 이원적 대립이 삼원적, 사원적 대립으로, 그리고 현대국어의 다원적 체계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언어 형식의 변천에 대한 연구도 언어 내적으로 매우 세밀히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어법 체계, 특히 상대 높임법이 중세국어 이전의 이원적 대립에서 삼원적 대립으로 분화되고, 다시 사원적 대립 등의 다원적 체계로 분화되는 변천 원인에 대해서 언어 내적으로 접근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경어법 체계의 변화 등에 대하여 박영순(1988:83~87)에서는 언어 변화가 사회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9)</sup> 정준영(1995)에서는 언어 변화의 요인으로 사회적 신분의 분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고, 윤용선(2006:326)에서는 사회의 변화, 즉 언어 상황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회 구조의 복잡화를 그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경어법 체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경어법 체계 변화의 요인으로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대응시키고 있는데,<sup>10)</sup> 바로 언어 외적인 부분에서 그 변화 요인을 고찰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경어법 체계의 변화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언어 현상과 사회 현상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론이 사용되었다.<sup>11)</sup> 나란한 두 평행선을 두고, 한 축에는 경어법 체계를 시기별로 분석, 정리하고, 나머지 축에는 당대의 사회적 현상을 분석, 정리하여 시대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현상을 추출하여 경어법 체계의 변화 원인으로 주장한 것이다.

언어 내적인 언어 형식만으로는 변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언어 외적인 사회적 요인을 도입한 사회언어학적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언어 변화와 사회적 요인과의 관련성 등을 두루 밝힌 양질의 연구 성과물이 다량으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언어 변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이고 능동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한 축에는 공시적 또는 통시적 언어 변화를 배열하고, 한 축에는 사회 구조의 변화나 사회 현상을 시대적으로 배치하고, 서로 시대적으로 대응시키는

이 전부이다.

7) 복잡한 경어법을 가진 언어로는 일본어, 자바어 등이 알려져 있다(이익섭 2000:196~199). 또한 인도에서도 복잡한 체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약간의 논란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15세기 국어의 상대 높임법 체계를 이원적 체계로 보거나(허용 1975), '반말'을 별도의 등급으로 인정한 사원적 체계로 보기도 한다(고영근 1987). 시대별로 상대 높임법에 대한 견해차에 대한 논의는 황문환(2002), 이승희(2007)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글에서는 상대 높임법 체계의 변천에 대해 이승희(2007)의 견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지, 이 글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9) 박영순(1988)에서는 사회 변동의 요인으로 ①자주성의 확보, ②산업과 경제의 발달, ③권위주의와 비민주주의의 투쟁, ④가치관의 다양화 등을 든다.

10) 서정수(1980:393)에서는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이경우(2003:269~270)에서는 사회제도, 즉 신분제도의 변화를 경어법의 변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11) 윤용선(2006)에서는 '사회 구조의 복잡화'를 언급할 뿐 세부적으로 사회 구조를 논의하지 않는다.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변화와 사회적 구조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연성만이 확인될 뿐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상하 판단의 요인이 복잡화해짐으로써 현실 세계의 등급 영역이 분화되어 화용론적 상황이 다원화되고, 각 영역에 언어 형식이 고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언어적 높임 등급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윤용선 2006:327~328), 본고에서는 역으로 언어적 높임 등급에 대응하는 언어 형식이 사용된 초기의 용례와 특이 용례를 중심으로 하여 용례의 서술 내용과 그 상황을 분석하여 다원화된 화용론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등급이 반영된 문헌의 성격에서 복잡화된 상하 판단의 요인으로서의 사회 변화를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규명된 사회 변화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경어법의 변화 원인으로 고찰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해당 용례를 모두 추적,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형태가 나타난 몇몇 용례와 특이 용례를 중심으로 그들이 사용된 문헌의 성격을 살펴보고, 용례의 서술 내용과 그 상황, 그리고 시대적 조건을 연계하여 경어법 체계의 변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 축에는 용례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나머지 축에는 사회적 현상을 나열하여 단순히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다. 평행선처럼 두 축을 두는 것은 기존의 연구 방법과 동일하지만, 한 축에는 초기의 몇몇 용례와 특이 용례를 배치하고, 나머지 축에 사회적 현상을 나열하기 이전에, 그 용례가 나타난 문헌의 성격, 용례의 서술 내용과 그 상황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로 산출된 사회적 현상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의 성격’이 경어법 체계와 사회적 현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12)</sup>

### 3. 언어 형식의 변천

상대 높임법은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는 이원적 대립으로 판단되지만, 15세기에 삼원적 대립으로 바뀌고, 17세기에는 사원적 대립으로 변화한다. 또한 주체 높임법 중에서 ‘먹다’류 어휘적 경어도 15세기에는 ‘먹-, 좌시-/좌하-’<sup>13)</sup>, 16세기에는 ‘먹-, 자-, 자시-’의 삼원적 대립, 17세기에는 ‘먹-, 자-, 자시-, 잡습-’의 사원적 대립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다(신성철 2012:173~185). 결국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이전 시기에는 이원적 대립을 보이던 경어법이, 중세국어에 들면서 상대 높임법과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에서는 삼원적 대립으로 분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을 보이는 언어 형식을 보이는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한다면 언어 형식의 변천만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언어 형태가 사용된

12) 이때의 문헌 자료는 주로 간본 자료가 해당된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경어법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즉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와 발신자의 성별, 관계 등을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문헌 자료이다. 그러나 한글 편지는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한 번의 기록으로 완성된 자연언어의 성격을 지닌 필사본이라면, 간본 자료는 대부분 편찬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여러 번의 기록과 수정을 거쳐 발행된 인공언어의 성격을 지닌 간행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편지 등의 자필본인 필사본에서는 간행본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의 언어 상태가 나타나며, 작성자 한 사람의 언어 인식이 반영된다. 반면에서 간본 자료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언어 상태가 나타나지만, 편찬에 참여한 여러 사람의 언어 인식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용례가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간행본에 함께 나타날지라도 용례의 가치는 동일할 수 없으며, 간행본이 시대적 언어생활의 규범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 신성철(2012:182)에서는 15세기에 중간등급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우연한 공백으로 보았는데, ‘좌-’의 용례가 확인되지 않지만 중간등급에 해당하며, ‘좌시-’는 ‘좌+시-’의 통사적 결합형으로 ‘좌-’에 의해서 중간등급, ‘-시-’로 인하여 높임등급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좌하-’는 자체적으로 높임등급에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된다.

몇몇 용례와 특이 용례를 중심으로 용례의 서술 내용과 그 상황과 용례가 나타난 문헌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현상과 연계해 보고자 한다.

### 3.1. 경어법 체계의 변화

15,6세기의 상대 높임법은 삼원적 체계로 알려져 있다. 15세기에는 ‘ᄃ쇼셔체/ᄃ야씨체/ᄃ라체’,<sup>14)</sup> 16세기에는 ‘ᄃ쇼셔체/ᄃ야씨→ᄃ소체/ᄃ라체’가 대립되는 삼원적 체계를 보이며, 17세기에는 ‘ᄃ쇼셔체/ᄃ옵소체/ᄃ소체/ᄃ라체’의 사원적 체계를 변화되어, 18세기에는 ‘ᄃ옵소→ᄃ오체’의 언어 형식이 변화가 발생하지만 17세기의 사원적 체계를 이어받아 현대국어까지 계승된다.<sup>15)</sup> 그리고 주체 높임의 ‘ᄃ다’류 어휘적 경어도 15세기에는 ‘ᄃ-, 좌시-(>자시-)/좌ᄃ-’, 16세기에는 ‘ᄃ-, 자-, 자시-’의 삼원적 대립을 형성하며, 17세기에는 ‘ᄃ-, 자-, 자시-, 잡습-(>잡수-)’의 사원적 체계로 변화된다(신성철 2012).

상대 높임법과 주체 높임의 ‘ᄃ다’류 어휘적 경어의 분화된 용례가 나타난 간행 자료를 살펴보면, 15세기에는 상대 높임법의 ‘ᄃ야씨’체가 《석보상절》(1446), 《월인석보》(1459), 《내훈》(1475)에서 나타나며,<sup>16)</sup> ‘ᄃ다’류 어휘적 경어의 특이 형태로 ‘좌ᄃ-’가 《내훈》(1475)에서만 나타난다. 16세기에는 상대 높임법의 ‘ᄃ야씨’체가 《이륜행실도》(1518)에서 나타나며,<sup>17)</sup> ‘ᄃ다’류 어휘적 경어의 특이 형태는 간행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며 《번역노걸대》(1517 이전), <순천김씨묘출토언간>(16세기 중후기)에서 ‘자시-’형이 아닌 ‘자-’형이 확인되다.

#### (1) ‘ᄃ야씨’체 용례<sup>18)</sup>

7. 그 쥘 드려 무로디 그뒷 아바니미 잇느닛가 對答호디 잇느니이다 婆羅門이 날오디 내 보아져 ᄃ

14) 16세기에 ‘ᄃ야씨→ᄃ소체’의 과정을 거치는 ‘ᄃ소’체가 이미 15세기 문헌 자료에서 발견된다. 배영환(2012:230)에서는 15세기 말, 즉 1490년대에 작성된 ‘신창맹씨묘출토언간’의 문장종결 형식에 ‘ᄃ소’체가 등장한다고 한다. 16세기에서도 ‘ᄃ소’체는 주로 가장 전형적인 화계인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서 등장하는 상대 높임법으로, ‘신창맹씨묘출토언간’도 전형적인 ‘나신결(남편)→신창맹씨(아내)’의 화계에 해당한다. 배영환(2012:231)에서는 15세기 말에 작성된 한글 편지에 ‘ᄃ소’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ᄃ소’체의 발달 과정과 그 관련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필자의 판단으로도 15세기를 제외한 16~18세기의 청자 높임법 연구에 주로 사용된 자료가 ‘조선시대 한글 편지’임을 감안한다면 문헌 자료의 균질성을 위해서 ‘신창맹씨묘출토언간’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어 형식과 사회적 현식의 매개체로 문헌 자료의 성격을 중시하는 바이고, 간본 자료가 언어생활의 규범성을 지녔기에 ‘ᄃ야씨’체로 제시한다.

15) 이원적 체계로 보는 견해는 허용(1975), 한재영(1998), 양영희(2001) 등이 있으며, 사원적 체계로 보는 견해는 고영근(1987), 장윤희(2002) 등이 있다. 중세국어의 상대 높임법 체계에 대해서는 이승희(2007)의 견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상대 높임법에 대한 견해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용선(2006), 이승희(2007)를 참고하기 바란다.

16) 《내훈》의 1475년 간행된 초간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일본 나고야(名古屋)의 호사문고(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을해자본(乙亥字本)이며, ‘정역완 역주(1998), 《내훈》, 학원사의 영인본과 ‘국립국어원(2011) 국어문헌자료총서 3 《내훈》, 채륜’의 현대어역 및 주석을 이용하였다.

17) 《선가귀감》(1569)에도 ‘ᄃ야씨’체가 등장한다. 그러나 15세기와는 달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이 문헌에 ‘ᄃ쇼셔’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ᄃ야씨’체는 아주높임 등급의 역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최명옥 1996). 《선가귀감》(1569)에 나타난 ‘ᄃ야씨’체의 용례와 자세한 풀이는 이승희(2007:125~126)를 참조하기 바란다.

18) 이승희(2007)에서는 상대 높임법의 종결어미의 출현 횟수를 헤아리지 않고, 동일한 대화 참여자가 출현하는 상황은 모두 1회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산정하면 ‘ᄃ야씨’체가 사용된 대화가 15세기에 8회, 16세기에 6회 나타나서 총 14회가 발견된다(이승희 2007:주10). 《석보상절》에 3회, 《월인석보》에 4회, 《내훈》에 1회가 나타나며, 《이륜행실도》에 3회, 《선가귀감》에 3회씩 나타난다.

늑다 {술박썬} <석보 6:14b>

- ㄴ. 婆羅門이 …중략… 太子의 맛디고 닐오디 늑외야 늑 주디 마르쇼셔 太子 | 닐오디 …중략… 그디 드려 가면 내 {깃구렁다} <월석 20:85a>
- ㄷ. 帝 니르샤디 …중략… 后의 술오샤디 어제 그딧 마를 드로니 무스매 來往하야 닛디 {물헝리로칭다} <내훈 2하:37a>  
 ㅅ 죽재 니려 절하샤 술오샤디 …중략… 그러나 더욱 저근 허므를 赦하샤 그 사르물 保소홀디니 이다 帝 깃그샤 {도헝다} 하시다 <내훈 2하:45a>  
 ㅅ 小學書를 외오이시고 …중략… 帝 니르샤디 {올헝다} 내 하마 親王과 駙馬와 大學生과로다 講論하며 {넓게 황다} <내훈 2하:50b-51a>  
 ㅅ 물즈와 니르샤디 大學生이 언매나 하니잇고 帝 니르샤디 {數千잉다} <내훈 2하:61b>
- ㄹ. 범식기 당원빅과 본향애 갈 제 닐우디 …중략… 그디 어머니 {보소오링다} <이론 33a>
- ㄹ. 니면니 저른 제 …중략… 헝 선비 …중략… 닐우디 겨뵈 사름미 모르느니 그디 이 은늘 날 송장에 쓰고 남겨든 그디 {가져셔} <이론 38a>
- ㅂ. 유작기와 흙의 가 이천 선싱을 보더니 …중략… 닐우디 그디내 그저 겨시더니 오늘리 점그니 가 {쉬어샤} <이론 47a>

(1)은 ‘하야썬’체가 나타난 용례이다. (1ㄱ)은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나타난 용례를 하나씩 보인 것이며, (1ㄷ)은 《내훈》에 나타난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1ㄹ~ㄹ)은 《이론행실도》에 사용된 용례이다.<sup>19)</sup>

(1ㄱ)은 婆羅門이 나이 어리지만 처음 보는, 신분이 높은 長者의 딸에게 ‘하야썬’체를 사용한 것이며, (1ㄴ)은 太子가 婆羅門에게 사용한 예로 신분적으로는 태자가 높지만 바라문을 대우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것이다. (1ㄷ)은 한나라 고조가 왕비에게 ‘하야썬’체를 사용한 경우이며, (1ㄹ~ㅂ)은 각각 동문수학한 동기 사이, 재상의 說客으로 있는 두 선비 사이, 이천 선생과 형의 제자들 사이에서 높여 대우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것이다.

(2) ‘좌하-’형 용례

- ㄱ. 님금씩 뵈셔 밥 머그실 저기 님금이 祭하거든 문져 {좌터시다} (侍食於君하실시 君祭어시든 先飯이러시다) <내훈 1:10a>
- ㄴ. 文王이 病이 잇거시든 武王이 곳갈씩를 밧디 아니하샤 養하습더시니 文王이 헝 번 반 {좌하야시든} 쏘 헝 번 반 좌시며 文王이 두 번 반 {좌하야시든} 쏘 두 번 반 좌터시다 (文王이 有病이시어든 武王이 不設冠帶而養하더시니 文王이 一飯이어든 亦一飯하시며 文王이 再飯이어시든 亦再飯하더시다) <내훈 1:41a>
- ㄷ. 文王이 두 번 반 좌하야시든 쏘 두 번 반 {좌터시다} (文王이 再飯이어시든 亦再飯하더시다) <내훈 1:41a>

(3) ‘자-’[食]형 용례

- ㄱ. 큰 형님 문져 헝 잔 자소 <번노 상:63b>
- ㄴ. 후바글 붓가셔 헝 보긔 아흙 눈 세 조금 녀허 달혀 {자소} (남편→아내) <순천김씨-27>

19) 이들 용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승희(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2)는 ‘\*좌--+ㅎ-’가 결합한 ‘좌ㅎ-’의 용법을 보여 주는 용례이며,<sup>20)</sup> (3)은 중간등급을 실현하는 곳에 ‘자-’형이 사용된 용례이다.

(2ㄱ)에서 먹는 행위의 주체는 공자이다. 특히 임금이 행위 주체인 ‘祭ㅎ거든’에서는 구결문에 ‘-어시든’처럼 ‘-시-’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해문에 ‘-시-’가 없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공자가 행위 주체인 ‘좌터시다’에서는 구결문과 언해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임금과 공자는 모두 높임의 대상이지만 언어 형식을 달리 사용한 것은 공자를 더 높여 표현한 것이다. (2ㄴ)은 중국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먹는 행위를 표현하여 ‘좌ㅎ-’와 ‘좌시-’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문왕(아버지)와 무왕(아들)의 화계에서 아버지는 두 번 모두 ‘좌ㅎ-’로 언해하고, 아들은 ‘좌시-’뿐만 아니라 (2ㄷ)에서처럼 ‘좌ㅎ-’로 언해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아버지인 문왕이 아들인 무왕보다 높임의 대상이므로, 아버지인 문왕에 사용된 ‘좌ㅎ-’가 ‘좌시-’보다 더 높이는 언어 형식인 것이다(신성철 2012:181).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공자, 그리고 문왕이나 무왕 모두 높이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 사이에서 높임이 적용될 때 ‘좌시-’가 아니라 ‘좌ㅎ-’라는 특이 형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ㄱ)은 나이가 세 살 위인 점(店) 주인과의 대화 장면에서 나타난 용례이고, (3ㄴ)은 남편이 아내(순천김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된 용례이다. 중세국어의 ‘좌시-(>자시-)’형이 아닌 ‘자-’형과 16세기 상대 높임법의 중간 등급인 ‘ㅎ소’체에 해당하는 문장종결 형식 ‘-소/-소’와 결합된 것이다. 상대 높임법의 문장종결 형식이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데, ‘자-’도 중간 등급을 담당하는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로 판단된다. 특히 (2)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15세기 국어의 ‘\*좌-’는 실질 형태소이며 독립적인 어간으로 분석될 수 있다.<sup>21)</sup> 즉 ‘좌시-’와 ‘좌ㅎ-’가 각각 ‘\*좌-’와 ‘-시-’, ‘\*좌-’와 ‘-ㅎ-’로 형태 분석이 되며, ‘\*좌-’에 결합하는 형식이 ‘-ㅎ-’나, ‘-시-’이냐에 따라 높임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이다(신성철 2012:181).

‘좌시-(>자시-)’와 함께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인 ‘잡습-(>잡수-)’는 중세국어 시기에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홀연히 17세기 국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가장 이른 용례가 <진주하씨묘출토연간>(17세기 초중기) 중에서 임인 시월 열엿썩날’ 연기(年紀)가 적힌 <진주하씨-106>이다. 임인(壬寅)은 1602년에 해당한다. 현존의 간행본 중에서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잡습-’이 최초로 확인되는 문헌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이다.

#### (4) ‘잡습-’[食]형 용례

- ㄱ. 쇠고기 네 오리 심포 열 닷 적습건마는 흔 저거나 {잡스오시게} 보내옵는다<진주하씨-106>
- ㄴ. 어미 병들거늘 손 네 가락을 그쳐 {잡소오니} 병이 즉시 도흐니라(母病斷手四指以服之)<동삼 효 4:41b>

(4ㄱ)은 사위인 광주가 장모에게 1602년 보낸 문안 편지이다. ‘쇠고기, 심포’ 등을 ‘장모’가 먹는 행위에 대하여 ‘잡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행위 주체는 ‘장모’는 사위인 광주에게 높임의 대상이 된다. 특히 <진주하씨묘출토연간>에는 ‘자-’형과 ‘자시-’형이 아내와 남편이 행위

20) 일찍이 신창순(1966: 17)에서 본래의 형태가 ‘좌-’ 또는 ‘좌ㅎ-’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이선영(2010: 109)에도 이러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21) 15세기는, ‘좌시-(<자시-)’에 대한 어휘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휘화의 예외적인 용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비록 <<내훈>>의 한정된 용례만이 확인될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특히 16,17세기 교체기의 ‘자소/자소’나 17세기의 ‘자습시-’ 등의 용례는 ‘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용례로, 15세기에 ‘\*좌-’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16,17세기의 이러한 언어 형식에 대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주체일 때 나타나고 있어, ‘잡습-’, ‘자시-’, ‘자-’의 대립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4ㄴ)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의 용례로, ‘잡습-’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 문헌에 ‘도석의 던들을 {잡소오매}(朝夕奉奠)’<동삼 열2:36b>와 같이 형태가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어 ‘차려 올리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음식을 올리는 행위’에서 ‘먹는 행위’로 의미 확대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ㄴ)에 사용된 ‘잡소오니’의 대응 한자가 ‘服’이어서 ‘먹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한데, 《역어유해》(1690)에서 ‘服藥 약 먹다’<역어 상:63a>이 그 증거이다(신성철 2012:176~177).

### 3.2. 문헌 자료의 성격

#### 3.2.1. 경어법 관련 문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언어 형식이 사용된 초기의 용례와 특이 용례가 확인된 문헌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는 《석보상절》(1446), 《월인석보》(1459), 《내훈》(1475)이며, 16세기는 《이륜행실도》(1518), 《번역노걸대》(1517 이전), <순천김씨묘출토언간>(16세기 중후기), 17세기는 <진주하씨묘출토언간>(17세기 초중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등이 관련된다.

《석보상절》, 《월인석보》는 불서류이고, 《번역노걸대》는 역서류이며, 《내훈》, 《이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교화서로 분류된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 <진주하씨묘출토언간>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이다. 한글 편지는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한 번의 기록으로 완성된 자연언어의 성격을 지닌 필사본으로, 작성자 한 사람의 언어 인식이 주로 반영된다. 당시의 실생활에 가까운 언어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간행본은 편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여러 번의 수정과 기록을 거쳐 발행된다는 점에서 인공언어의 성격을 지닌다. 더불어 중앙 관청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표준어에 견주는 규범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편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들 문헌 자료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경어법과 관련된 초기 형태의 용례와 특이 용례가 확인되는 문헌 자료의 유형이 확인된다.

교화서인 《내훈》, 《이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각각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경어법 관련 초기 언어 형식과 특이 언어 형식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즉 《내훈》(1475)은 상대 높임법의 ‘하야씨’체가 나타나며,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 ‘좌하-’가 유일하게 나타나며, 《이륜행실도》(1518)는 15세기의 ‘하야씨’를 계승한 16세기의 유일한 문헌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는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 ‘잡습-’이 최초로 나타난 간행본이다.

그런데 《내훈》은 중국의 《열녀전》·《소학》·《여교》·《명감》에서 부녀자의 훈육에 요긴한 내용을 선별하여 편찬되었으며, 옛날 여성들의 생활 규범이 어떠했는지를 알려 주는 교화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륜행실도》는 유교의 기본 윤리 관념인 오륜(五倫) 중에서 장유(長幼)와 봉우(朋友)를 널리 알리기 위해 편찬한 교화서이며,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조선 초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의 속편으로서 일반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책이었다. 《내훈》은 부녀자의 훈육을 위하여 편찬되었으나, 원전이 《열녀전》·《소학》·《여교》·《명감》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여성들에게 유교의 기본 윤리 관념인 오륜(五倫)과 삼강(三綱)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륜행실도》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는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주 내용이 장유와 봉우의 이론과 삼강이다. 특히 《이륜행실도》 간행은 앞서 1434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가 효자·충신·열녀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실제적인 오륜도(五倫圖)의 완결을 의미한다고 한다.<sup>22)</sup>

### 3.2.2. 조선 시대의 교화서

우리나라에서 유교의 기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간행한 최초의 교화서는 1346년(충목왕 2년)에 편찬한 《효행록(孝行錄)》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1405년(태종 5년)에 권근이 주를 붙이고, 1413년에 태종 13년 《효행록》에서 뽑아 그림을 그려서 이제현의 찬과 권근의 주를 붙여 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1428년(조선 세종 10)에 개정되어 중간된다(김향수 1998:233). 이 책은 효행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것으로, 상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윤리가 기본 내용으로 이루고 있다(김훈식 1998:248). 이렇게 시작된 조선시대의 교화서는 《삼강행실도》(1432)의 편찬을 시작으로 《내훈》(1475), 《속삼강행실도》(1514), 《이륜행실도》(1518),<sup>23)</sup> 《경민편언해》(1519),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오륜행실도》(1797) 등을 간행한다.<sup>24)</sup> 특히 세종이 처음에는 《효행록》을 통한 교화를 모색하다가 《삼강행실도》를 만든 것은孝와 忠과 烈을 묶어 하나의 통일적인 윤리 체계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김향수 1998:233). 즉 가부장적 윤리를 바탕으로 군신 윤리의 보급을 통해 명분론적 사회 질서를 세우려 한 것은 일관된 통치 윤리를 체계화한 것이다(김훈식 1998:273, 김향수 1998:233).

개정판 《효행록》과 《삼강행실도》에 그림이 포함된 것을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까지 삼강의 윤리를 보급하려는 것이며, 《내훈》은 삼강의 윤리에 기반을 둔 부녀자의 생활 윤리를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를 위하여 언해문과 함께 간행되었다. 1481년에는 《삼강행실도》을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을 간행하였으며, 《속삼강행실도》(1514), 《이륜행실도》(1518)는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그림이 실린 언해본으로 편찬된다. 유교의 기본 윤리 관념인 오륜(五倫)과 삼강(三綱)을 일관된 통치 윤리로 체계화하고 일반 백성에게 보급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삼강행실도》는 성종 때에 개찬하여 전국에 반포하고, 종종 때에서도 1510년과 1511년에 중외에 반포하고, 1514년에는 《속삼강행실도》를 간행, 반포하였다. 조선 전기의 이러한 편찬 사업은 유교의 기본 윤리 관념인 오륜(五倫)과 삼강(三綱) 중에서 삼강에 관한 것들이 압도적이었다. 즉 고려 말기에 들어온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본격적인 삼강의 사회적 확산 노력은 세종대의 《삼강행실도》의 간행과 더불어 전개된다. 유교의 기본 윤리 관념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행실도를 간행하고 전국적인 보급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실학이 조선 후기에 융성해지면서, 삼강에서 오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sup>25)</sup> 즉 조선 후기로 올수록 오륜을 중심으로 한 백성에 대한 교화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고, 삼강오륜이 백성에게 일상적인 규범으로 정착된다.

22)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4.2.5.

23) 《이륜행실도》는 다른 행실도류와 달리 중앙 관청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간행한 것을 중앙에서 교정, 간행하여 반포하는 형식을 취했던 간행본이다. 다른 행실도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24) 《경민편언해》(1519)는 현재 전하지 않으며, 1579년의 중간본과 1658년 본문 내용과 언해를 새롭게 한 개간본 등이 전해진다. 또한 《여씨향약언해》(1518), 《정속언해》(1518) 등의 교화서가 존재하지만 중앙 관청에서 간행된 것이 아니라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간행한 책이다. 간행본이지만, 중앙 관청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어서 제외하였다.

25) 이상의 내용은 안외순(2005:197~204)를 참고하여 필자가 조정해 놓은 것이다.

#### 4. 삼강오륜과 경어법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즉 유교의 기본 윤리의 출발점이 바로 삼강오륜인 것이다. 삼강오륜은 유교의 기본 윤리가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를 일컫는 것으로, 삼강은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이며, 오륜은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 해당된다.

조선 전기에 삼강오륜 중에서 가부장적 윤리와 군신 윤리를 통해 명분론적 사회 질서를 세우려는 국가적 통치의 차원에서 더욱 강조된 것은 삼강이었다. 이는 조선 전기에 중앙 관청에서 간행된 ‘행실도류’에서 대다수가 ‘삼강행실도류’라는 점에서 조선 전기의 통치 세력은 오륜과 삼강 중에서 오륜을 중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간행한 《이륜행실도》은 전통적인 유교 정치를 회복하고 민간 생활에 있어서도 윤리적 규범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편찬된 것이다. 국가 통치가 아니라 향촌 사회의 화합과 질서 유지에 긴요한 덕목으로 장유유서와 봉우유신을 선택한 것이다. 삼강의 ‘충효열’이 수직적 인간 관계에 기반은 두었다면, 이륜의 ‘장유’와 ‘봉우’는 향촌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수평적 인간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백두현 2009:275). 달리 말하자면 삼강의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은 수직적·일반적 윤리 체제를 전제로 한다면, 오륜은 수평적·상호무혜적 윤리를 전제로 하는 관념인 것이다(안외순 2005:187~192).

삼강의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은 명분의 핵심으로 사용된다. 국가적 통치를 위하여 전체적인 수직적인 질서 체계를 구축하는데, 君과 臣의 명분에서 양반, 상민, 천민의 신분이 구별되고, 父와 子の 명분에서 적자와 서자, 장자와 중자(衆子)의 지위가 구분되고, 夫와 婦의 명분에서 정처(正妻), 양첩(良妾), 천첩(賤妾)의 지위가 구분되는데(최봉영 2003:55), 인간 사이의 위계를 나타낸 것이다.

삼강이 강조된 간행본에서도 이처럼 사회 변화에 따른 상하 판단의 요인이 복잡화해지자 각 신분과 지위에 따라 경어법의 분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내훈》(1475)에 나타난 상대 높임법의 ‘하야씨’체와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 ‘좌하-’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 ‘잡습-’은 동질성이 분석된다. 즉 새롭게 구분된 수직적 질서 체계에 대응하는 언어 형식이 고정적으로 대응되면서 언어적 높임 등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야씨’체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것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하야씨’체가 아닌 ‘하쇼씨’체가 나타나고 있어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좌하-’와 ‘잡습-’이 주체 높임의 ‘먹다’류 어휘적 경어 체계에서 최상위의 높임등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위계의 등급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인식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오륜의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 실천된 사회는 쌍무호혜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쌍무적이고 호혜적인 각자의 의무 수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존중받는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 즉 오륜은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사이의 상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편의 다른 한편에 대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이륜행실도》에 사용된 ‘하야씨’체는 쌍무적이고 호혜적인 즉 수평적 질서 체계에 대응하는 언어 형식이 언어적 높임 등급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중간등급에 해당하며, 이들의 용례가 대부분 동위자나 하위자를 대우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어, 위계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질서와 조화를 위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려는 인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경어법 체계의 변천이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경어법의 언어 형식과 사회적 요인을 양축에 나란히 배열하고 시대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어법 체계의 변천을 설명하려는 기존의 논의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경어법 분화 초기 용례와 특이 형식 용례가 나타나는 문헌의 성격을 밝히고, 이를 사회적 요인과 결부하는 매개물로 삼고자 하였다.

## ■ 참고문헌

- 고영근(1974), 현대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118-157.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항수(1998),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 229-245.
- 김훈식(1998), 《삼강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 85, 247-273
- 박영순(1988), 사회변동과 언어, 《한국학연구》 1-1, 59-89.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배영환(2012), 현존 最古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연구》 15, 211-239.
- 백두현(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단학보》 108, 263-297.
- 서정수(1980),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II), 《한글》 167, 357-387.
- 서정수(1984), 《존대법 연구》, 한신문화사.
- 서종학(1987), 古代國語의 敬語法에 대하여 《인문연구》 9-1, 1-25.
- 신성철(2010),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국어사적 고찰, 《어문학》 107, 65-90.
- 신성철(2012) '먹다'류 어휘적 대우의 통시적 연구. 《국어학》 63, 159-194.
- 신성철(2013) '들다[食]의 형성 과정과 기능-다의화와 주체 높임을 중심으로-. 《국어학》 66, 137-164.
- 신창순(1966), 15세기 국어의 보충법의 존대말, 《한글학회》 137, 9-36.
- 안병희(1965), 15세기 국어의 공손법의 한 연구, 《국어국문학》 28, 117-126.
- 안외순(2005), 오륜과 삼강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본 유가정치사상, 《동양철학연구》 44, 183-207.
- 윤용선(2006), 국어 대우법의 통시적 이해, 《국어학》 47, 321-376.
- 윤용선(2012), 언해 자료의 역사와 언어 양상에 대한 검토, 《우리말글》 56, 139-168.
- 우준호(2004), 오륜과 삼강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중국학논총》 18집, 403-424.
- 이경우(2003), 국어 경어법 변화에 대한 연구(1), 《국어교육》, 269-300.
- 이선영(2010), 15세기 국어의 어휘적 대우, 《어문논집》 44, 104-126.
- 이승재(1998), 고려중기 구결 자료의 경어법 체계,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843-878.
- 이승희(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국어학총서 59, 태학사.
- 이윤하(2001),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역락.
- 이익섭(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39-64.
-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개정판), 민음사.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정준영(1995), 《조선후기의 신분변동과 청자존대법 체계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사회학과).
- 정태식(2005), 조선왕조 초기 성리학적 정사논쟁(正邪論爭)의 정치적 전개과정과 제도화과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37, 355-378.
- 최명옥(1996), 16세기 한국어의 존비법 연구, 《조선학보》 164.
- 최봉영(2003), 조선시대 유교적 의리관과 갈등 관리,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집문당, 43-68.
- 한 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 허 용(1975), 《15세기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황문환(2002). 《16.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국어학총서 35, 태학사.

## ■ 토론

# “경어법의 변화 원인 일고찰”에 대한 토론문

배영환(서원대)

위 논문은 국어 경어법 체계의 변화 이유 중의 하나가 유교 문화, 그중 삼강오륜의 윤리에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삼강오륜과 경어법의 용례를 이어 주는 매개물로 ‘문헌의 성격’으로 보고 이를 논의한 것입니다. 특히, 상대높임법 중 ‘햏야씨’체와 ‘떡다’의 어휘적 존대의 특이 형태인 ‘좌햏-’가 <내훈>에만 나타나고, ‘잡습-’과 같은 형태 역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 처음 나타나는 등,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이러한 예들이 우연이 아니고 유교 관련 문헌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국어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책무를 다할까 합니다.

1. 경어법의 변천을 사회적 요인이 아닌 언어 내적인 요인으로 보려는 시도는 매우 참신한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을 찾는 데 문헌의 출현 요소에 초점을 두었고, 결국에는 그러한 요인을 관련된 문헌의 공통점, 즉 유교적인 성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다시 언어 외적인 요소로 귀납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상대경어법의 등급 중 ‘햏야씨’체는 『석보상절』을 비롯한 다른 불교 관계 문헌에서도 나타나므로 『내훈』에만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햏야씨’체를 삼강오륜 중 ‘夫婦有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3. ‘떡다’의 어휘적인 존대어들이 유교 관계 문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다른 어휘들의 분포와 최초 출현 양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국어에는 다른 어휘적인 높임말이 존재합니다. 가령, 주체와 관련된 ‘진지, 계시다, 편찮다, 드시다’ 등이 있고, 또 객체와 관련된 ‘여쭙다, 모시다, 뵈다, 드리다’ 등도 있습니다. 이들의 최초 출현 내지 분포도 고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4. 유교 관계 문헌에서 주체경어법과 상대경어법 등의 변화의 단초들이 발견된다고 하

셨는데, 중세국어에서 경어법의 중심 축이었던 객체경어법에서는 별다른 단초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 두 경어법에서 유교와 관련된 변화가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맛(이) 있다’의 의미론

김진해(경희대)

< 차례 >

1. 문제 제기
  2. ‘맛(이) 있다’의 의미 유형
  3. ‘맛(이) 있다’의 의미 해석
  4.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1. 문제 제기

이 발표는 아주 소박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맛(이) 있다’라는 구성이 왜 ‘맛이 좋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나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 글은 ‘맛(이) 있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예에 대한 가능한 해석 방법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특정 표현에 대한 적절한 의미 해석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맛(이) 있다’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표현의 전체 의미를 구성요소의 의미 합만으로는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맛(이) 있다’를 관용어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이 구성은 ‘호박씨를 까다’나 ‘미역국을 먹다’처럼 구성요소의 의미와 전혀 다른 관용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맛(이) 있다’의 의미를 다루는 것은 필연적으로 단어 의미에 대한 표준적 견해인 문자주의(literalism)에 대한 비판을 수반하게 된다.<sup>1)</sup> 이 발표를 통해 한 단어나 구성의 의미 해석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sup>2)</sup> 구 단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 층위의 독립적인 의미 단위를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한국어 ‘맛(이) 있다’의 의미가 갖는 특이성은 이에 대응하는 다른 언어를 비교하면 더욱 드러난다.

(1) ㄱ. 맛(이) 있다. (Ko.)

taste BE/exist

ㄴ. おいしい(美味しい) / うまい(旨い/甘い/美味い) (Jp.)<sup>3)</sup>

1) 문자주의는 작은 의미 단위들을 합성하면 문장 의미가 산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문자주의적 관점에서 언어 의미는 단어로 부호화되는 원자적 의미 단위들을 규칙에 따라 결합함으로써 생성된다.

2) 물론 Wierzbicka(1985: 329)의 언급처럼, ‘쉽지 않다’에서 ‘불가능하다’로 점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언어학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맛(이) 있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은 ‘おいしい(美味しい)’가 가장 일반적이다. ‘うまい(旨い)’는 젊

- oishii                      umai  
 cf. 味が 良い(맛이 좋다)  
 ajiga yoi  
 ㄷ. 好吃 / 可口 (Cha.)  
 hāochī kěkǒu(입에 맞다)  
 cf. 有味  
 yǒuwèi  
 ㄹ. It tastes good/great/delicious. (Eng.)  
 It is delicious.  
 cf. It tastes awful. It is awful/terrible.  
 ㄱ. avoir bon goût (Fr.)  
 BE/HAVE good taste  
 ㅂ. ser sabr-oso / delici-oso (Esp.)  
 BE sabor(n.)-adj.suffix delicia(n.)-adj.suffix  
 ㅅ. swad acha hai / swad-isht hai (Ind.)  
 taste(n.) good(adj.) BE(v.) tast(e)-y(adj) BE(v.)

## 2. ‘맛(이) 있다’의 의미 유형

‘맛(이) 있다’에 쓰인 ‘있다’는 기존의 논의에 따른다면 비양도성 소유 구문<sup>4)</sup>이라고 볼 수 있다. 박양규(1972: 14~17)에 따르면 소유 구문은 ‘분리할 수 없는 소유’와 ‘분리할 수 있는 소유’로 나뉜다. 이와 비슷하게 신선경(1997/2002)<sup>5)</sup>에서는 소유 구문을 ‘양도성 소유

은 층(특히 남자)이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일본어에서는 ‘味(aji)’만으로는 ‘좋은 맛’의 뜻을 갖고 있지 않다. ‘味(aji)’만 쓰려면 ‘味(あじ)が良(よ)い(ajiga yoi)’로 쓰거나 ‘いい味(あじ)ですね(ii aji desune)’라고 써야 한다.

- 4) 신선경(1997/2002: 78-99)에 따르면, 소유 구문은 ‘있다’의 다른 구문과 달리 (1) 소유주를 나타내는 처격 명사구가 반드시 문두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어순 제약이 있고, (2) 처소 명사구(NP1)와 대상격 명사구(NP2)가 ‘NP1의 NP2’와 같이 속격 구성을 이룬다는 특성을 갖는다.  
 5) 신선경(1997/2002)에서는 ‘있다’의 의미 유형을 ‘존재’와 ‘소유’로 대별하고 그 하위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   |              |                                       |
|--------|---|--------------|---------------------------------------|
| (1) 존재 | — | 존재론적 존재 (상태) | 예) 신은 분명히 있다.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
|        |   | 유형론적 존재 (상태) | 예) 동물에는 무척추 동물과 유척추 동물이 있다.           |
|        |   | 사건적 존재 (과정)  | 예) 아이들이 오늘은 집에만 있다. 주말에만이라도 집에 좀 있거라. |
|        |   | 처소적 존재 (상태)  | 예) 책들이 책상 위에 있다. 그 일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
| (2) 소유 | — | 양도성 소유 (상태)  | 예) 동생이 586 컴퓨터가 있다. 철수에게 내 책이 있다.     |
|        |   | 비양도성 소유 (상태) | 예) 호랑이에게/가 꼬리가 있다. 그 연필에/이 지우개가 있다.   |

‘있다’ 구문의 통사/의미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안되었다. 예컨대, 박양규(1972: 12~21)에서는 ‘존재 사실, 종류, 분리할 수 없는 소유, 분리할 수 있는 소유, 소재’ 등 5개로 분류, 최호철(1993)은 2개(지정격<물건>, 지정격<사람>)로, 남기심(1993)은 ‘존재, 소재, 소유, 지위 역할’ 등 4개로, 양정석(1995)에서는 ‘비능력성(존재), 능력성(존재), 능력성(소유), 능력성(존재)’ 등 4개로, 고석주(1996)에서는 ‘있다’의 표면적 구문 형태에 따라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있다’ 구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alienable possession)'와 '비양도성 소유(inalienable possession)'로 나누었다. 둘의 차이는 다음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 (2) 가. 친구에게/가 집이 있다.
    - 나. 옆집 아저씨에게/가 외제차가 있다.
  
  - (3) 가. 새에게/가 날개가 있다. (전체와 부분-신체)
    - 나. 그 연필에/이 지우개가 있다. (전체와 부분)
    - 다. 김 박사에게/가 아들이 하나 있다. (친족 관계)
    - 르. 사람에게/이 이성이 있다. (개체와 속성)
- (신선경 1997/2002: 85-86 부분 인용)

예 (2)의 양도성 소유 구문은 소유주와 소유 대상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개체로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소유주와 소유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이다.<sup>6)</sup> 반면에 예 (3)의 비양도성 소유 구문은 소유주와 소유 대상의 의미적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소유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소유 구문을 양도성과 비양도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NP1'과 'NP2'의 의미 관계의 차이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맛(이) 있다' 구문의 경우 'NP1'과 'NP2'(맛)의 관계는 비양도성 소유 중에서 '개체와 속성(property)'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4) 이 집 떡볶이가 맛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비양도성 소유 구문에서는 처소 명사구(NP1)가 처격과 주격 조사가 모두 사용 가능한 데 비해, '맛(이) 있다' 구문은 처격 조사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차이점을 보인다.

- (5) 가. 이 음식이/\*?에 맛이 있다.
  - 나. 과메기가/\*?에 맛이 있다.

이는 여타의 소유 구문과 달리, '맛(이) 있다'가 결합의 긴밀성이 높은 구성으로 재구조화되어 이 구성 전체가 주격 명사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6) 가. 학장이/에게 힘이 있다.
  - 나. 방금 지나간 사람이/?에게 포스가 있다.
  - 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게 멋이 있다.
  - 르. 위층 남자가/?에게 성질이 있다.
  - 미. 그 사람이/?에게 뒤끝이 있다.
  - 비. 새로 나온 게임이/\*에 재미가 있다.
  - 시. 우리 딸이/\*에게 교육에 뜻이 있다.

이러한 처격 명사구의 허용 여부는 NP2와 '있다' 간의 긴밀성의 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6) 그래서 전형적인 양도성 소유 구문은 소유주 명사구가 [+human]이라는 자질 제약을 갖는다.

### 3. ‘맛(이) 있다’의 의미 해석

‘맛(이) 있다’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 $A \oplus B = AC$ ’, ‘ $A \oplus B = CB$ ’, ‘ $A \oplus B = A \Leftrightarrow B$ ’로 보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 3.1. 해석1: ‘맛이 좋다’

첫 번째 가능한 해석으로 ‘맛’은 독립적인 의미를 유지하되, ‘있다’의 하위 의미에 ‘좋다’와 같은 긍정의 의미가 별도로 더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있다’의 의미 유형에 ‘존재’, ‘소유’ 외에 ‘긍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맛(이) 있다’의 의미를 ‘맛이 좋다’로 해석하는 것은 사전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사전 표제어 ‘맛있다’에 대한 뜻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맛있다’에 대한 사전 뜻풀이

- ㄱ. 『표준국어대사전』: 음식의 맛이 좋다.
- ㄴ. 『우리말큰사전』: 맛이 좋다.
- ㄷ. 『연세한국어사전』: 맛이 좋다.
- ㄹ.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음식이) 맛이 좋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유사한 예들로 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8) ㄱ. 그 선배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분위기가 있었다.  
ㄴ. 방이 모양 있게 꾸며져 있었다.

‘분위기’나 ‘모양’도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분위기가 있다’, ‘모양이 있다’에 쓰인 ‘있다’가 긍정적 의미(‘좋다’)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존재’나 ‘소유’의 의미를 갖는 ‘있다’가 ‘좋다’로 연결될 수 있는 의미적 연결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다음과 같이 ‘나쁘다’로 해석되는 예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 (9) ㄱ. 매서운 눈초리를 가진 그는 제법 성깔이 있다.  
ㄴ.(=6ㄹ) 위층 남자가 성질이 있다.

물론 예문 (9ㄱ)에 쓰인 ‘성깔’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있다’가 ‘나쁘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깔이 사납다’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성깔’이 독립적인 의미인 성질(성격)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7) ‘소갈머리’나 ‘소갈딱지’도 ‘마음이나 생각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주로 ‘소갈머리/소갈딱지 없다’, ‘소갈머리/소갈딱지 좁다’ 등으로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개는 암체이긴 해도 소갈머리/소갈딱지는 있어.’로도 쓰인다. ‘싸가지’도 ‘짹’이나 ‘짹수’보다 속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로 ‘싸가지(가) 없다’로 쓰이지만, ‘싸가지(가) 있다’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의 태도나 낯새, 징조’에 대해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깔/성질이 있다’에 쓰인 ‘성깔/성질’은 독립적이고 ‘있다’가 ‘나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있다’가 ‘좋다’라는 의미와 정반대의 ‘나쁘다’의 의미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소유, 존재, 긍정, 부정’).

### 3.2. 해석2: ‘좋은 맛이 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있다’의 의미는 그대로 두고, ‘좋은 맛이 있다’에서 수식어 ‘좋은’이 생략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있다’의 의미가 선행 명사구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볼 때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있다’의 의미유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맛’에 ‘좋은 맛’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입증 불가능하다. ‘맛’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좋은’이 와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맛’이 긍정적인 맛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데, ‘나쁜 맛이 있다’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쓴/단/매운/신/떫은} 맛이 있다’도 상정 가능하다. 또한 ‘맛(이) 있다’에 쓰인 ‘맛’만 ‘좋은 맛’으로 해석되고, ‘맛(이) 나쁘다’ 등에서는 다시 독립적인 의미의 ‘맛’이라고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맛이 없다’의 경우도 ‘좋은 맛이 없다’ 외에 ‘나쁜 맛이 없다’, ‘{쓴/단/매운/신/떫은} 맛이 없다’도 모두 상정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있다’가 반드시 ‘좋은 맛’의 존재를 가정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물론 전통적인 역사미론의 시각에서 ‘맛’의 의미가 특수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수화(specialization)는 새로운 의미의 적용 범위가 예전 의미의 적용 범위에서 하위집합을 뜻할 때이다(Geeraerts 2010/2013: 58). ‘말씀’이 기독교에서는 ‘성서’를 뜻하게 된다거나, ‘아내, 여자’를 뜻하던 ‘queen’이 ‘왕의 아내나 여성 군주’만을 뜻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특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단어들은 언어사용자의 의미적 기억 속에 저장된 탈문맥화되고 부호화된 의미라고 한다면, ‘맛’의 하위 의미 중에 ‘좋은 맛’을 뜻하는 의의가 부호화(encoding)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맛(이) 있다’를 특정한 은유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유이론에서 [존재는 좋은 것이다(Being is Good.)]라는 것이 성립할지도 의문이다. 다만, 개념적 환유를 하위분류한 Kövecses & Radden(1998: 68)의 논의에서 참고할 만한 설명을 찾을 수는 있다. 즉, 개념적 환유의 하위유형<sup>8)</sup> 중에서 문화적 선호(cultural preferences)에 기반을 둔 [이상적인 것이 이상적이지 않은 것에 우선한다(Ideal Over Non-Ideal)]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원리는 ‘이상적인 사례’는 ‘사회적인 바람직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이상적인 남편’은 사회적으로 가족을 잘 부양하고, 충실하며, 건강하며, 주위의 평판도 좋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You are a Judas’에 쓰인 ‘Judas’처럼 부정적인 범주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배신자의 모습을 대표하는 존재가 이상적으로 사용된다(이상 Kövecses & Radden 1998: 68 참고). 이를 ‘맛’에 적용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맛’중에서 ‘좋은 맛’이 이상적인 맛을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는 의심스럽다.

한편 ‘맛’이 ‘좋은 맛’이라는 구별되는 하위의의를 갖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다음의 ‘time’과 비교해 볼 때 더 뚜렷해진다. Evans(2005, 2009)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time’은 상

8) Kövecses & Radden(1998: 37-77)에서는 개념적 환유에서 가능한 매체에 대한 제약을 크게 (1)인간 경험, (2) 지각적 현저성, (3) 문화적 선호도, (4) 의사소통적 원리로 나누었고, 각각의 유형에 특정한 환유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한 의미적 기준 또는 형태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휘개념에 차이를 보인다.

- (10) ㄱ. During the dinner date, the time seemed to fly. [지속시간]
- ㄴ. The time for a decision is getting closer. [순간]
- ㄷ. The old man's time [=death] is fast approaching. [사건]
- ㄹ. Time flows on (forever). [모체(matrix)]

(10ㄱ)은 시간적 양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고, (10ㄴ)은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특정한 시간적 순간과 관련된다. (10ㄷ)은 언어외적 문맥에 따라 '죽음'이라는 사건과 관련되며, (10ㄹ)은 모든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는 바탕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네 개의 'time'은 변별적인 어휘개념을 갖는다.

한국어에도 '결승전이 벌어지는 동안, 시간이 쏠살같이 흘렀다.'거나 '진로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 등에 쓰인 '시간'은 각기 다른 어휘개념을 갖는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에 쓰인 '시간'은 일정한 시간적 양을 뜻한다. 이에 비해 '맛이 있다'와 '짹짹한 맛/쓴맛/감칠맛이 있다' 등에 쓰인 '맛'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3.3. 해석3: 관용어 또는 연어

세 번째 해석 방법은 '맛(이) 있다'가 관용화되어 하나의 의미 단위(unit)라고 처리하는 것이다. 구를 구성하는 요소의 독자적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이를 하나의 단위로 괄호 치는 것은 어휘론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구성요소의 의미와 전체 의미간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또한 'A ⊕ B = C'라는 일반적인 관용어의 의미와 달리 '맛(이) 있다' 구성은 전체 의미가 구성 요소들의 독자적 의미와 관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관용어(숙어)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맛(이) 있다'는 'A ⊕ B = AB', 'A ⊕ B = AB'', 또는 'A ⊕ B = AC' 등의 의미 표상을 갖는 연어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어구성의 관계를 'f(x) = y'로 보는 Mel'čuk의 어휘함수적(LF) 입장에서 본다면 '맛(이) 있다'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어휘함수 이론에 따르면 의미가 투명하게 쓰인 요소를 base(연어핵/중심어)라고 하고, 나머지 요소를 collocate(연어변/함수값)라고 하는데, '맛이 있다'의 경우 base를 무엇으로 잡을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

어휘함수 이론에서는 통상 '체언 + 용언' 구성에서 체언을 중심어(base)로 삼고 용언을 함수값(collocate)이라고 본다. 이럴 경우 체언이 독자적 의미만 가지고, 용언의 의미가 비유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어휘함수 이론상 '맛(이) 있다'는 "f(맛) = 있다"<sup>9)</sup>로 해석해야 한다. 3.1.과 3.2.에서 다루었듯이 '맛(이)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맛'의 의미가 변했다고 보거나, '있다'의 의미가 변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휘함수를 어떻게 할당하든 간에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f(좋은맛) = 있다"이거나 "f(맛) = 있다(→ 좋다)" 중에 하나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맛'에 '좋은 맛'이라는 하위의의가 독립적으로 부호화되어 있을지, '있다'에 '좋다'의 하위의의가 부호화되어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9) 어휘함수에서 "f(맛) = 있다"의 함수를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지 가정하기 쉽지 않다.

단일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휘함수 이론의 연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맛(이) 있다’가 어휘적으로 상호 선택되고 의미적으로 상호 결합하는 연어구성으로 볼 수 있다.

### 3.4. 남는 문제: 구 구성의 단위성?

‘맛(이) 있다’를 하나의 연어 구성(collocation)이라고 본다면,<sup>10)</sup> ‘좋은 맛’이라는 의미가 ‘맛’에 잠재되어 있다가 ‘있다’와 결합하면서 활성화되는 것인가?

연어의 구성요소 간의 ‘상호 의존/상호 영향/상호 선택’으로 의미 해석을 하기에는 순환논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맛’에 ‘좋은 맛’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있다’라는 단어와 결합해야만 가능하다. ‘Adj-은 맛’이라는 구성에 쓰인 ‘맛’은 중립적인 미각만을 뜻한다. 수식어 없이 ‘있다’와 결합할 때만 ‘좋은/긍정적인 맛’의 의미로 분석된다. 반대로 ‘있다’가 ‘좋다’라는 의미가 활성화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맛’이라는 단어와 결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NP1-이 NP2-가 있다’ 구성에서 ‘있다’는 그저 ‘존재’나 ‘소유’의 의미로만 분석된다. 그렇다면 ‘맛(이) 있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의미적 상호 영향 및 상호 의존 관계를 가정해야 한다.

‘맛’의 여러 하위어휘의와 ‘있다’의 여러 하위어휘들 간에 상호 영향과 선택을 통해 의미가 결정된다면, 해당 ‘맛(이) 있다’ 구성의 의미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 있게 된다. 즉, 사전에 나와 있는 ‘맛’의 3가지 어휘의와 ‘있다’의 21가지 어휘의 간에 선택과 결합이 실로 다양할 수 있다.<sup>11)</sup>

그런데 단어와 달리, 연어 구성은 하나의 단일체이다. 단일체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의 하위 어휘들을 합성하여 전체 의미를 생성할 수 없다. 해당 연어 구성을 벗어나서 개별 단어의 의미 양상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다’(take a picture)라는 연어 구성은 의미적으로 ‘사진기’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의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사진’만 홀로 쓴다면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는 ‘사진을 보다’ 등의 결합에서 부각된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는 ‘사진기’로 하는 특정한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동사 ‘찍다’에 ‘사진기’와 관련된 의미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도장을 찍다’, ‘신부감으로 친구 동생을 찍다’ 등에 그런 의미요소를 찾을 수 없다). 오직 ‘사진’이라는 단어와 결합할 때 ‘촬영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사진을 찍다’라는 단일 구성을 가정할 때 ‘사진을 찍다’를 통해 구현되는 단일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맛(이) 있다’가 ‘좋은 맛이 있다/맛이 좋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 구성요소인 ‘맛’과 ‘있다’의 의미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 선택한다는 것은 ‘맛(이) 있다’라는 구성이 갖는 단의성(monosemy)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의 ‘있다’가 결합된 연어구성(구 구성)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그 구성요소인 ‘맛, 분위기, 모양’의 의미가 바뀌었는지, ‘있다’의 의미가 바뀌었는지, 또는 두 구성요소의 상호작용과 결합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 (11) ㄱ. 맛(이) 있는 집
- ㄴ. 분위기가 있는 집
- ㄷ. 모양(이) 있는 집

10) 이 구성을 ‘구 구성(phrasal construction)’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명칭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11) 여기에 제시한 하위어휘의 개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했다.

#### 4. 나오는 말

‘맛(이) 있다’의 경우, 맥락 의존적이라는 말은 두 구성의 성립(결합)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의미의 존재를 상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 구성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어 의미 중심적인 차원에서 ‘맛’에 ‘좋은 맛’이라는 의의(sense)를 할당하느냐, 아니면 ‘있다’에 ‘좋다’라는 의의를 할당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맛(이) 있다’라는 구성은 궁극적으로 결합 관계(공기관계)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 반대로 개별 단어의 의미들 간의 결합 관계를 통해 ‘연어구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어떻게 서로 미확정적인(잠재적인) 두 구성요소가 동시에 서로에게 기대어 의미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는가?: ‘맛’의 의미는 ‘있다’에 기대고, ‘있다’의 의미는 ‘맛’에 기대한다고 한다면, ‘맛(이) 있다’ 자체가 구현하는 단일하고 부호화된 의미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연어(또는 결합관계)에 의해서 획득되거나 활성화되는 단어 의미가 아닌, 연어 구성 자체가 산출하는 의미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 $A \leftrightarrow B$ ’와 같은 해석이 아니라, 결합 단위 자체인 ‘ $AB$ ’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전체 구 구성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관용어(숙어)에만 해당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구적 어휘 단위의 존재를 가정해 보자는 제안이다.<sup>12)</sup>

---

12) 연어 단위로서 구보다 단어가 좀 더 명시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어휘부의 저장단위는 단어이며, 구 구성은 통사부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단어와 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분명한 사실이다. 명사 연쇄 구성이 합성명사인지 명사 관형 구성인지 불분명하며, NV형 합성명사와 N+V형 구 구성의 구별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잘 알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남기심 편, (1996), 『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99-127.
- 남경완(2005),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박양규(1972), 「국어 처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27.
- 신선경(1997/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 양정석(1995),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에밀 벵베니스트 지음, 김현권 옮김(2012), 「언어적 기능에서 본 être와 avoir」, 『일반언어학의 여러 문제』 1권, 361-407.
- 이성범(2013), 『음식과 언어: 식문화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서강대출판부.
- 황화상(2013),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379-401.
- Evans, Vyvyan(2005), The meaning of *time*: polysemy, the lexicon and conceptual structure, *Journal of Linguistics* 41, 33-75.
- Evans, Vyvyan(2009), *How Words Mean: Lexical Concepts, Cognitive Models, and Meaning Construction*, Oxford Univ. Press.(임지룡·김동환 옮김(2012),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경북대출판부.)
- Geeraerts, Dirk(2010),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Univ. Press.(임지룡·김동환 옮김(2013), 『어휘의미론의 연구 방법 -역사의미론에서 인지의미론까지-』, 경북대출판부.)
- Kövecses, Zoltán & Radden, Günter(1998), Metonymy: Developing a cognitive linguistic view, *Cognitive linguistics* 9-1, 37-77.
- Wierzbicka, Anna(1985), *Lexicography and Conceptual Analysis*, Karoma Publishers.

## ■ 토론

### “‘맛(이) 있다’의 의미론”에 대한 토론문

고석주(연세대)

이 발표는 ‘맛(이) 있다’를 대상으로 그 의미에 대한 “아주 소박한 의문”이 빙산의 일각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언어 연구의 중요한 과제를 일깨운다. 발표자가 선사하는 의미 연구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좇아가면서 떠오른 질문과 의견들 중의 일부를 토론 거리로 제시한다.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의미 연구에서 ‘관용어’와 ‘연어’의 구분과 ‘전체 의미와 구성요소의 의미와의 상관성’이라는 기준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것이다. 언어 표현의 의미가 “구 층위의 독립적인 의미 단위를 상징”하는 것과 결부되면, ‘손가락’에 자꾸 시선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도 눈물도 없다[조금도 인정이 없다]’나 ‘성질<sup>1)</sup>을 내다/부리다[(사람이)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몹시 화를 내다]’는 구분과 단위의 문제가 의미 해석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에서 (6)까지의 예문들에서 보인 “처격 명사구의 허용 여부는 NP2와 ‘있다’간의 긴밀성의 강도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NP1과 NP2와의 긴밀성에 따른 것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다. NP2와 ‘있다’의 긴밀성을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다른 요소들로의 대치 가능성), ‘맛’, ‘성질’, ‘재미’, ‘뜻’처럼 NP1과 “필연적 비양도/비분리 관계”에 있는 NP2가 쓰인 문장이 더 어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NP1과 NP2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아래의 예들에서 더욱 커진다.

- (가) 그-가/\*에게 성질이 났다/있다.
- (나) 술은 생각이 없고 차나 한잔 하자.
- (다)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 (라) 재는 손이 없나 봐.
- (마) 결혼생활에는 마음이 없었다.
- (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떠들어댔다.
- (사) 요즘에는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너무 많아.
- (아) 언제부터가 선배가 남자/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 (자) 김진해 교수는 교수다.
- (차) 네가 사람이냐/학생이냐?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쓰레기야.
- (카) 넌 너야. 넌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맛(이) 있다’의 의미론은 항진명제(토틀로지)와 모순명제의 사용과 관련된 의문에

1) 성질 (性質) 「명사」(1) 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바탕. (2) 사람이 지닌 마음의 바탕.

이른다. ‘아무런 맛(이) 없’는 음식은 있지 않기에, ‘성질’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기에, 이러한 향진명제나 모순명제의 언어 표현 사용은 대화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대화 함축의 의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사용이 관습화되어 함축 의미가 언어 형식에 고착될 때 관용어나 연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사전에 나열된 어휘소들과 그 의미 항목들을 포함하여) 무한할 것 같은 언어의 의미 세계가, 실은, 100 여개의 원소들과, 몇 개의 합성성의 원리/규칙들과, 사용 조건에 따른 상 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으로 귀결된다. 고체-액체-기체처럼 [물리 상태]가 아니라 [(화자) 심리 상태에서의 맛]으로 상 변화를 했다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로 이 발표는 아주 소박할지는 몰라도 아주 ‘맛(이) 있다’.

#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유의관계 의미변화 양상 분석

- '놓다'와 '두다'를 중심으로 -

이민우(한국외대)

## < 차례 >

1. 서론
  2. '놓다'와 '두다'의 유의적 의미관계
  3. '놓다'와 '두다'의 사용 양상 변화
  4.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의미 변화는 유기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역학적 구조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동안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유기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어휘의 개별적인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에 이 연구는 유의어 사용 양상의 변화를 통해 유의관계 의미 사용의 역동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는 환경 의존적이며 내부의 역학적 힘의 작용에 의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자연의 생태적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생태 원리를 적용하는 연구가 제기되었으며(홍사만 2001, 이광호 2008), 동일한 맥락에서 언어 체계를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보고 전체론적인(holism)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최상진 1996, 1999). 이들 주장에 따르면 언어 체계는 각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미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파악해야만 적절한 기술이 가능하다.

의미 변화에 있어서 다의성은 가장 중요하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손꼽힌다. 다의화를 통한 의미 영역의 변화는 다른 어휘의 의미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의적 의미 관계는 이러한 다의화의 영향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다의적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어휘 의미의 변화가 단순히 다의화로 나아가는 단일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의화와 다의화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 변화라는 점이 지적되었다(홍사만 2001: 110~111). 유의적 의미가 통합되거나 분화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이들의 분포나 구분이 그리 엄격해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의미변화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이광호 2008: 7~11)<sup>1)</sup>. 이와 같은 유의어 간의 의미 변화 양상은 울만(1957)의 의미변천 원인 가운데 명칭의 변이인 뜻 사이의 인접에 의한 전이에 속하며 개념적 인접과 인과적 인접

1) 변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변화의 결과는 급격하며,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의미는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란 추상화된 어떤 개념을 구성하거나 혹은 개념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야 하며 그들의 사용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추정한다. 김진해(2006: 77)는 대규모 말뭉치의 축적과 이용이 의미 연구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연구자의 직관 외부에 존재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따라 의미의 생성과 존재 방식에 대한 사용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우(2008: 130)는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는 통합적 결합관계를 통해서만 획득한다고 보고 말뭉치 속에서 특정한 어휘와 결합하는 상대적 어휘의 구분을 통해 의미를 분석·기술한다. 이는 단어의 의미를 단어 자신이 독자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문장이나 절에서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규정되면서 활성화되는 양상을 파악해야 된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어휘의 의미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어휘의 독립적 사용 빈도가 아니라 어휘가 실제 사용되는 결합 양상을 통한 상대적 분류를 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특정한 단어들의 조합 양상을 분리하여 덩어리로 분류하는 의미 범주 구분은 역사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실제 의미 사용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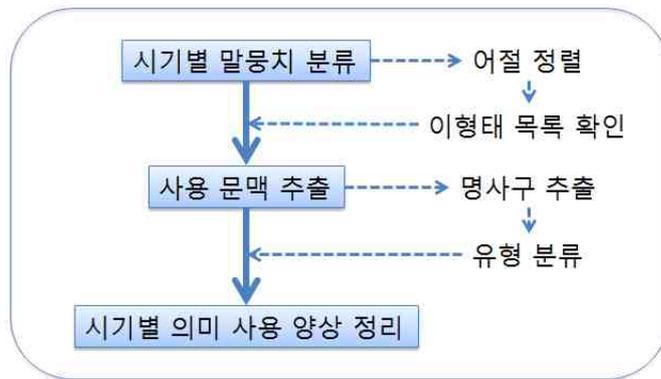
단어의 의미는 다의적이기 때문에 유의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단어가 어떠한 단어들과 함께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퍼스 분석을 통한 상대적 의미 사용 양상 분석은 결합 양상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유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어느 정도 대치 가능한가에 대해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의미 분포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단어의 유의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의미의 차이는 형태의 차이를 수반한다. 특정한 의미는 특정한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의미를 구분하기 위하여 구성 방식과 결합하는 명사구를 이용하여 두 동사의 세부적인 사용 의미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에 이용한 말뭉치는 총 3종류로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구축한 240만 어절 규모의 역사자료 말뭉치와 550만 어절 규모의 현대국어 주석말뭉치(tagged corpus), 그리고 경희대 김진해 교수 연구팀이 구축한 120만 어절 규모의 개화기 국어 주석말뭉치이다<sup>2)</sup>.

이 연구를 위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 시기별 말뭉치

시기	15C	16C	17C	18C	20C초	20C말
어절수	690,768	248,971	415,400	964,605	1,195,537	5,576,035



<그림 1> 작업 흐름도

연구를 위해 먼저 시기별 말뭉치 각각에 대해 ‘놓다’와 ‘두다’가 사용된 문장을 추출하였다. 과거 다양한 표기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먼저 어절별 정렬을 하고 ‘놓다’와 ‘두다’의 이형태들을 정리하여 이들 형태가 사용된 문맥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두 동사와 함께 사용된 명사구들을 따로 추출하여 명사구의 유형별로 정리한 후 1차적으로 다의적 의미를 구분하였다. 중의성을 가질 수 있는 예들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 문맥 속에서 다시 다의적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 시기별 의미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다.

## 2. ‘놓다’와 ‘두다’의 유의적 의미관계<sup>3)</sup>

‘놓다’와 ‘두다’의 유의적 의미에 대한 사전 뜻풀이는 ‘표준’과 ‘연세’ 모두에서 비슷하다. ‘-을 -에’를 논항으로 취하는 ‘놓다’를 표준에서는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로, ‘연세’에서는 [일정한 자리에 있게 두다]로 기술하며, ‘두다’는 ‘표준’에서는 [일정한 곳에 놓다], ‘연세’에서는 [일정한 곳에 있게 하다]처럼 기술하여 두 사전 모두 유사하게 동어 반복적 설명을 취한다. 하지만 두 동사의 기본 의미는 유사해 보이지 않는다. ‘놓다’의 기본의미는 ‘두다’와 다르게 ‘-을’ 논항만을 취하는 [손으로 무엇을 쥐거나 잡거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거나 힘을 빼서 잡고 있던 물건이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다]이다.

유현경(2010: 23)은 이들 두 동사의 기본의미의 차이를 ‘이동’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놓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출발점(Source)을 표시하는 ‘에서’명사구와 공기할 수 있으며 ‘에’명사구는 도달점(Goal)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두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장영숙(2007:233)은 의미도식을 통해 ‘놓다’가 [(사람)이 (사물)을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원형의미에서 [(사람)이 (사물)을 (장소)에 있게 하다]라는 의미로 초점이 이동하여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의미 확장 양상이나 사건 구성의 논리적 선후를 따진다면 ‘놓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동]이 아니라 [손의 동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놓다’라는 손의 동작을 통해 대상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동]은 동작에 의해 추론된 확장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에서는 [손의 동작]을 1번 의미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두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상의 이동]이 전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전제될 뿐 실제 사용되는 의미는 그로 인한 [상태변화 행위]에 초점이

3) 이민우(2012) 참조

놓인다. 이러한 차이는 ‘놓아 두다’의 연결은 가능하지만 ‘두어 놓다’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것보다 관계가 있다.

기본의미만을 비교한다면 ‘놓다’는 [손의 동작]이며 ‘두다’는 [상태변화 행위]라는 차이를 갖는다. 이는 두 동사의 논항구조와도 관계되어 ‘놓다’는 ‘N이 N을 -’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두다’는 ‘N이 N을 N에 -’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놓다’와 ‘두다’의 기본의미 사이의 관계는 [이동행위]와 [상태변화]라는 논리적인 선후관계에 놓이게 되며, [놓다]라는 동작의 결과가 [두다]라는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의미 중첩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두다’는 [동작]의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놓다’와 이러한 의미들의 유의성도 없다.

정상근(1986)의 주장을 참고하면, 인지적으로 ‘놓다’는 면적인 도식으로 이동, ‘두다’는 입체적인 도식으로 이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두 동사 사용의 인식적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놓다’는 외부 또는 열린 공간으로, 이와 반대로 ‘두다’는 내부 또는 닫힌 공간으로 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두다’와 달리 ‘놓다’는 ‘손의 동작’으로 인한 아래쪽 이동과도 관련된다.

두 동사의 이러한 기본의미의 차이 때문에 의미 확장 시 행위자의 영향력이 ‘놓다’는 [상실]되는 경우가, ‘두다’는 [강화] 되는 경우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놓다’와 ‘두다’가 의미적으로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놓다’는 ‘손’의 동작을 통한 의미 확장으로 명사구 유형에 있어서 ‘크기, 구체성’ 등에서 ‘두다’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 3. ‘놓다’와 ‘두다’의 사용 양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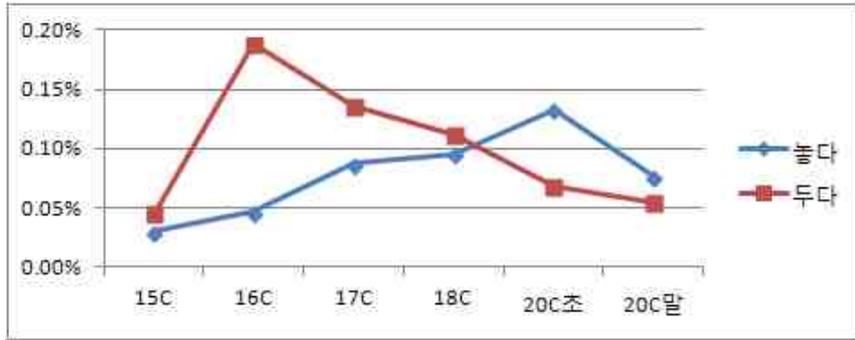
#### 3.1. 전체적 변화 양상

두 동사 모두 전체적인 사용은 20C에 오면서 감소했다. 하지만 두 동사의 사용량의 변화는 차이를 보인다. ‘두다’의 경우 20C초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현대에 와서 감소한데 반해 ‘놓다’는 16C에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현대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 활발하게 사용하던 의미들이 점차 감소하였지만, 이에 비해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이 늘어나는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놓다’와 ‘두다’는 모두 과거 활발하게 사용되던 의미들의 사용이 축소되면서 현재 전체적인 사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sup>4)</sup>

<표 2> ‘놓다’와 ‘두다’의 사용량 변화

유형		시대					
		15C	16C	17C	18C	20C초	20C말
놓다	본동사	199	110	338	822	659	1,516
	보조동사	11	6	26	102	928	2,759
두다	본동사	256	374	384	956	822	3,027
	보조동사	59	94	179	119	430	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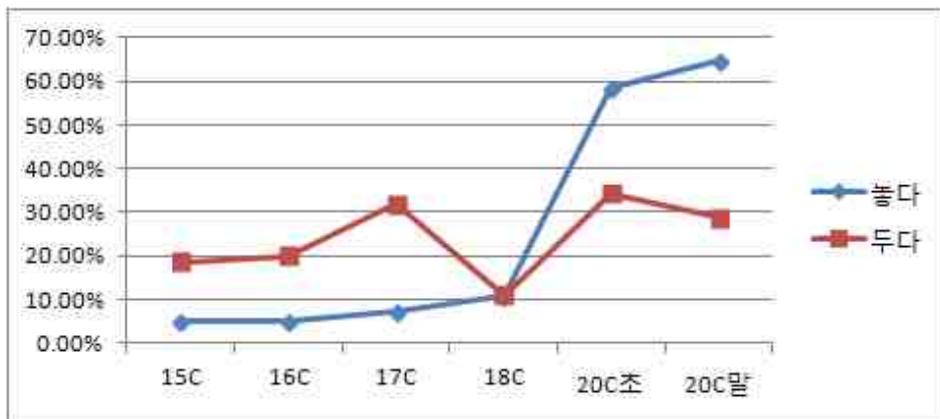
4) 물론 현대에 사용되는 어종의 증가도 점유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림 2> '놓다'와 '두다'의 텍스트 점유율

전체적인 사용은 감소했지만 다의적 의미 사용에서는 일부분 과거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예들도 볼 수 있다. '놓다'의 경우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와 같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사용과 함께 '엄포를 놓다'와 같은 [특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사용이 높아졌다. '두다' 또한 '목표/중점/기준을 두다'와 같이 추상적인 설정이나 부여를 의미하는 사용이 매우 높아졌으며, '전쟁을 두고 생각하다'와 같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 사용 또한 높아졌다.

'놓다'와 '두다'의 본동사와 보조동사 사용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특이하다. 특히 18C를 기점으로 두 동사의 본동사로서 사용과 보조동사로서 사용의 양이 역전되는 것은 두 동사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용의 차이는 두 동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변화 양상을 보면 기복은 있지만 '두다'는 어휘적인 의미의 사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달리 '놓다'는 문법적인 사용이 월등히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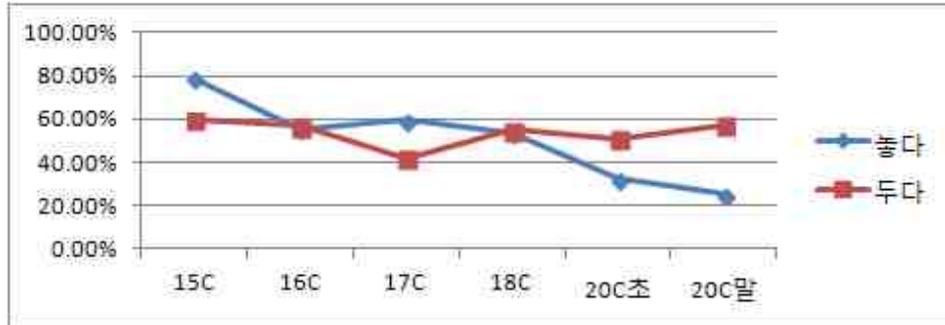


<그림 3> '놓다'와 '두다'의 보조동사 사용 비율

목적어의 유형과 사용 비율의 변화도 앞선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놓다'가 '두다'보다 더 높은 목적어 사용을 보였으나 '놓다'는 계속해서 목적어 사용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두다'는 큰 변화 없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사생략은 '놓다'에서 더 높아졌는데, 이는 '놓다'가 '두다'보다 사용이 전형적이고 관용적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놓다'는 '마음/말/엄포/줄행랑' 등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여 특정한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진 반면, '두다'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사용이 많지 않다. 다만, '두다'의 추상적 사용이 월등히 높아졌을 뿐이다.

<표 3> '놓다' 와 '두다' 의 목적어 출현 빈도

	15C	16C	17C	18C	20초	20말
놓다	165	64	217	494	517	1,080
두다	188	265	236	593	637	2,429



<그림 4> '놓다'와 '두다'의 목적어 출현 비율

<표 4> '놓다'와 '두다'의 시대별 고빈도 목적어 유형

순 위	놓다						두다					
	15C	16C	17C	18C	20C초	20C말	15C	16C	17C	18C	20C초	20C말
1	꽃	經	총통	불	마음	문제	마음	바	이름	술	마음	바탕
2	목	잔	불	번	불	마음	하나	孚	酒	이름	첩	중점
3	사람	너	탁자	너	총	손	想	天下	보람	天下	나	관심
4	손	술	단식	수	정신	수	我	疑心	이	말	뜻	비중
5	것	옷	수	총통	목	다리	圓覺	言	바둑	바둑	년	기반
6	중생	고기	신주	사람	철로	것	사람	힘	旨酒	번	바둑	이
7	배	케	고기	괴화	다리	으름장	佛國	손	賓	이	사람	역점
8	수	귀머리	옷	나	철도	불	子息	志	고기	창	계집	규정
9	거울	나	은련선	물	붓	주사	寶	것	술	칼	동안	거리
10	궁전	당의	잔	조총	교군	일손	弟子	기	자식	판	딸	바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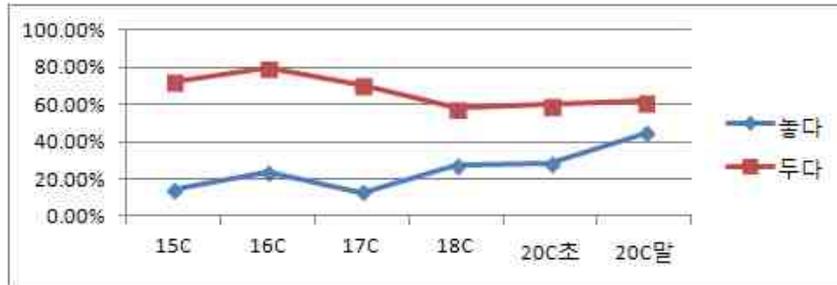
목적어 사용을 통해 파악한 다의적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특정한 의미들이 늘어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추상적 대상에 대한 사용이 늘어난 것과 관련된다. '놓다'의 경우 15,16C에 볼 수 없었던 '총/대포를 놓다'가 17C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며 [시설을 설치하는] 의미가 또한 늘어난다. 하지만 20C이후 이들과 [풀어주다]라는 의미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는 달리 '마음/손/일손을 놓다'처럼 관용적인 사용<sup>5)</sup>과 '으름장/불/주사를 놓다'처럼 특수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능동사처럼 사용되는 예들이 많아졌다. '문제를 놓다'와 '~는 것을 놓다' 등도 추상적인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놓다'의 사용이 추상적인 행위로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두다'는 이에 비해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자식, 첩, 나, 사람, 계집, 딸'과 같이 사람들에게 대해 주로 사용되던 예는 현격하게 줄었으며, '바탕, 중점, 기반, 역점'과 같은 추상적

5) '다리를 놓다'의 경우에도 20C초 자료에서는 실제 '다리'를 설치하는 의미만 보여주지만, 20C말 자료에서는 20% 정도의 관용적 사용이 보인다.

6) 과거 '놓다'를 이용하던 표현들이 '놓아주다, 내려놓다'와 같은 합성어로 사용되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다.

대상들의 사용이 늘었다. 하지만 ‘놓다’처럼 특수한 행위로 사용되는 예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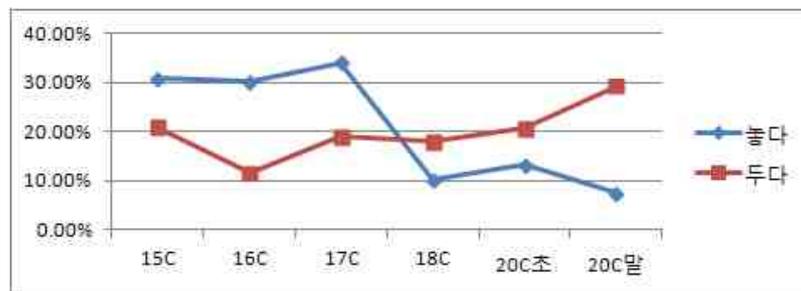


<그림 5> ‘놓다’와 ‘두다’의 목적어 추상 명사 사용 비율

목적어 사용 양상은 추상성 정도에서 ‘두다’보다 ‘놓다’가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놓다’는 추상명사의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과거 사용되지 않던 추상적 영역으로 사용이 확장된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두다’의 경우 과거보다 추상성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주된 사용 의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보다 ‘~에 두고 ~’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논의의 대상이나 지시 대상]이라는 의미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부사어 사용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5> ‘놓다’와 ‘두다’의 부사어 출현 빈도

	15C	16C	17C	18C	20C초	20C말
놓다	65	35	124	95	212	318
두다	66	55	108	195	259	1,249



<그림 6> ‘놓다’와 ‘두다’의 부사어 출현 비율

목적어 사용과 마찬가지로 부사어 또한 ‘놓다’는 줄어드는 반면 ‘두다’는 늘어났다. 이러한 사용의 변화는 ‘놓다’가 대상의 이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두다’는 오히려 부사어의 사용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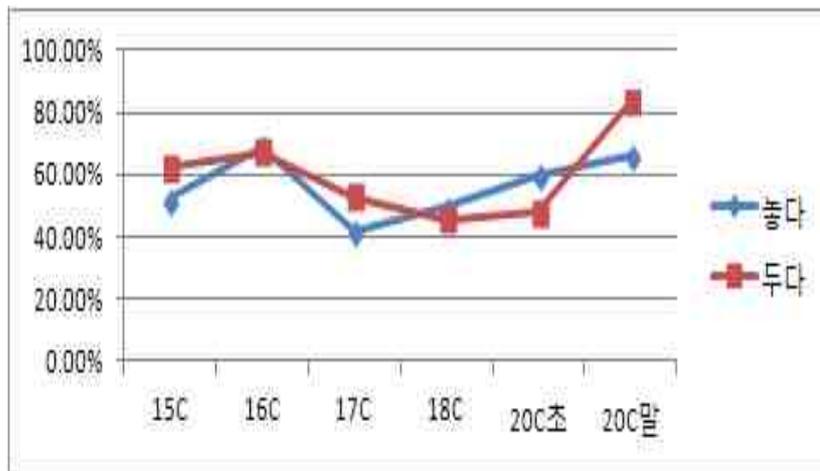
‘놓다’와 ‘두다’에 결합하는 부사어 또한 차이를 보인다. 두 시기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이러한 차이는 조사생략의 가능성 차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사구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6> '놓다'와 '두다'의 부사어 명사 사용 유형

순 위	놓다						두다					
	15C	16C	17C	18C	20C초	20C말	15C	16C	17C	18C	20C초	20C말
1	위	위	위	앞	앞	앞	마음	公案	위	집	집	염두
2	앞	안	앞	위	위	위	밖	이마	가운데	밖	속	사이
3	땅	밖	곳	결	옆	옆	사이	앞	밖	앞	앞	앞
4	아래	사이	좌	길	사이	곳	위	여기	사이	가운데	세상	눈앞
5	가	손	결	물	집	중심	가운데	위	여기	결	중	곳
6	가슴	구멍	서	밖	밑	제자리	결	內	집	머리	때	결
7	결	길	외향	상	곳	자리	땅	가운데	결	방	마음	어디
8	그릇	나	가운데	손	길	밑	목	너	뒤	법	海外	것
9	보배	물	동	허위	나	사이	봄	집	땅	안	밑	쪽
10	사이	밑	뒤	가운데	상	머리맡	앞	出함	사당	중	시제	마음

'놓다'는 주로 방향이나 위치, 장소가 사용되며 이러한 사용 양상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두다'는 '놓다'에 비해 부사어 유형의 시기별 변화가 커 보인다. 또한 '놓다'와 달리 '두다'는 '-에' 명사구와 통합성이 강해 보인다. 그래서 '염두/마음/눈앞/결'과 같은 명사구와 결합하는 의미 확장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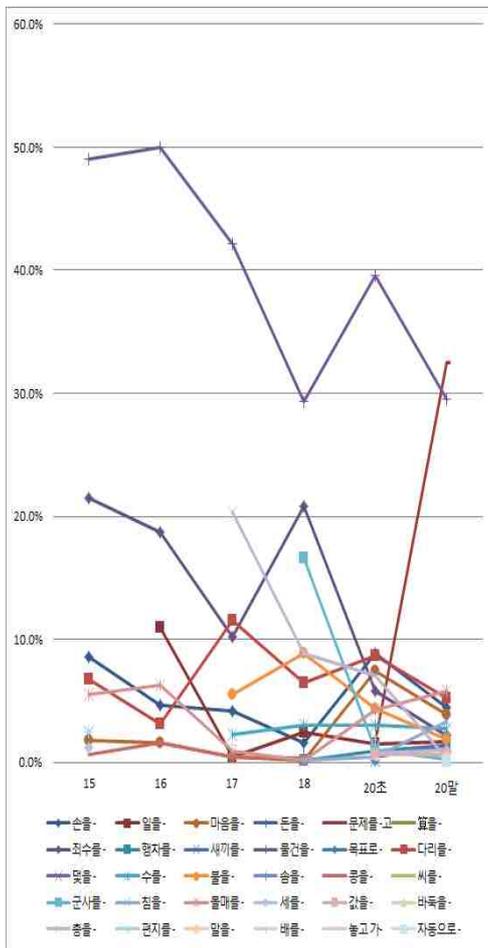


<그림 7> '놓다'와 '두다'의 부사어 추상명사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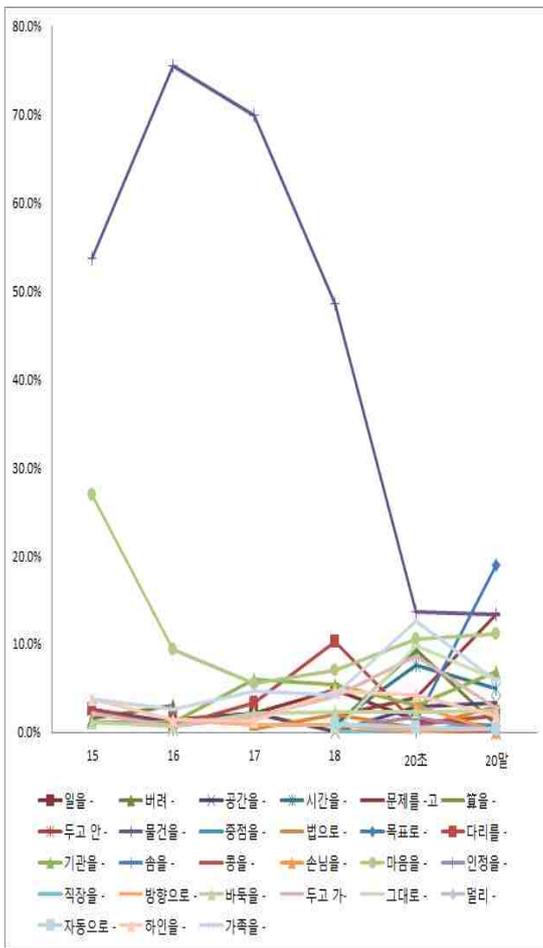
'놓다'는 추상적 장소의 사용이 약하게 증가한 반면 '두다'는 추상적 장소의 사용이 더 높아졌다.

### 3.2. 의미 사용의 변화 양상

'놓다'와 '두다'의 의미가 사용되는 시기별 양상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놓다'의 사용 의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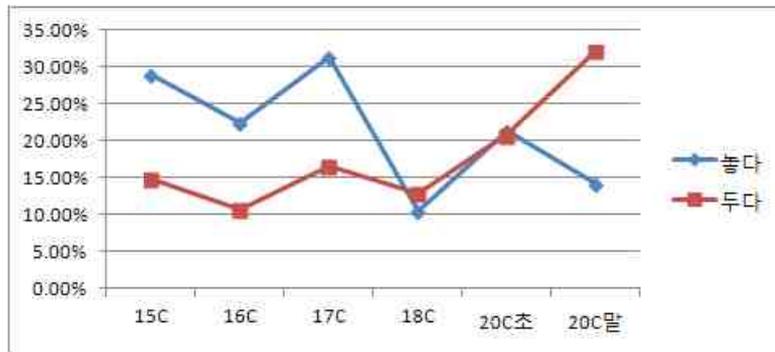


<그림 9> '두다'의 사용 의미 변화

15C '놓다'는 '잔'이나 '꽃'과 같은 작은 대상에 대한 사용이 많으며 '목을 놓-'과 같은 관용적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것이 16C부터는 [放]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급격히 증가한다. 17C 이후 [불을 피우다], [총을 쏘다]와 [다리나 철도 같은 시설을 설치하다] 같은 사용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근대 이후 이들의 사용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총을 쏘다', '철도를 건설하다', '불을 지르다/피우다'와 같이 다른 단어들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20C에 들어서면서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와 같은 [논의의 대상으로 하다]의 의미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며, '몰매를 놓다'처럼 [어떤 행동을 하다]의 의미 또한 증가한다.

'두다'는 15C부터 [일정한 곳에 두다]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상태에 두다]의 의미 또한 활발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기본 의미인 이러한 의미들은 사용이 꾸준히 줄어들었으며, '자식을 두다', '하인을 두다'와 같은 사용 또한 감소하면서 '자식을 두다'는 '자식이 있다'로 '하인을 두다'는 '사람을 고용하다'와 같은 단어들로 대체되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종관계의 의미가 강한 '두다'의 사용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중요성을 부여하다]나 [무언가를 설정하다] 의미의 사용이 늘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다] 의미 또한 사용이 증가한다.

'놓다'와 '두다'가 각기 교체 가능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비율의 변화는 이들의 의미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그림 10> '놓다'와 '두다'의 교체 가능 비율

두 동사의 유의적 사용을 보면 '놓다'는 '두다'와 유의적 사용이 감소한 반면, '두다'의 경우 '놓다'와 유의적인 의미의 사용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놓다'의 주된 사용이 문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어휘적 사용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유의적 영역에서 '두다'가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놓다'의 경우 관용적 사용과 추상화된 특정 행위의 의미로서 사용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sup>8)</sup> 앞선 도표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변화의 경향성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조동사 사용 비율과 유의적 사용 비율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면 의미 사용의 역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2.1. 15C

15C 자료에서 보이는 '놓다'는 구체적인 대상의 이동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 가장 많은 의미 사용을 보여주는 예는 (2ㄱ)[일정한 곳에 놓다](54%)이며, 두 번째 사용은 (1ㄴ)[사람을 놓아주다](21.5%), 그리고 (1ㄱ)[손에서 무언가를 놓는 행위](8.6%), (2ㄴ)[장치를 설치하거나 (6.7%), (1ㄷ)[목 놓아 울다](5.5%)와 같은 관용 표현 순을 차지한다.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1ㄹ) [배를 띄우다] 같은 특이한 사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 (1) ㄱ. 부텃긔 供養ᄃᆞᆫ 습더니 부테 노하 브리라 ᄃᆞᆫ 신대 윈 소넷 고졸 노하눌 부테 쯤 노하 브리라 ᄃᆞᆫ 신대 올ᄃᆞᆫ 소넷 고졸 <월인석,07,054-1a>
  - ㄴ. 더 王ᄃᆞᆫ 히 一切 有情의 그에 慈悲心을 내야 가도엿던 사롬 노코 알피 니르던 양다 히 더 藥師瑠璃光如來를 供養ᄃᆞᆫ ᄃᆞᆫ 면 이 도ᄃᆞᆫ 根源과 더 <석보상,09:033b>
  - ㄷ. 王이 드르시고 짜해 디여 목 노하 우르샤 모매 문지 무티시고 니르샤디 내 오늘 實로 無情호리 엿데 <월인석,21,219a>
  - ㄹ. 디는 ·히에 ·비를 노·호미 :도ᄃᆞᆫ 가비야 온 브르·매 ·몹·결 :나미 더·되·다<두시초 15,030a>

- (2) ㄱ. 太子\* ᄃᆞᆫ 샤디 도ᄃᆞᆫ 고졸 우리 스시에 노코 보디 아니 도ᄃᆞᆫ 니여 俱夷 고졸 가져다가 노코 <석보상,03:015a>
  - ㄴ. 그 𑖙 𑖙利諸天이 몬져 더 부터 爲ᄃᆞᆫ ᄃᆞᆫ 바 菩提樹下에 師子座 노ᄃᆞᆫ 노피 ᄃᆞᆫ 由旬

8) '놓다'의 다의적 의미 사용은 비대칭적 양상이 커 보이는데 반해, '두다'의 다의적 의미 사용은 과거에 비해 비대칭적 양상이 확연히 줄었다. 이러한 차이 또한 두 동사의 특징적인 변화 양상으로 보인다.

이러니 부테 이에 안즈샤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得히시리라 <월인석, 14,012a>  
 ㄷ. 마누를 도한 초애 글혀 비 브르게 머고디 소곰 노티 말라 <구급간,02,036b>

‘두다’와 유의적인 사용은 (2ㄱ~ㄷ)과 같은 예들을 찾을 수 있으며 (2ㄱ)과 같은 예는 꽤 높은 사용률을 보인다. 하지만 목적어 유형이 대부분 구체물(92%)이라는 점에서 (4ㄱ)과 같은 ‘두다’의 사용과 차별화된다.

‘두다’ 또한 가장 많은 사용을 보여주는 의미는 ‘놓다’와 유사한 (3ㄱ)[일정한 곳에 놓다](53.8%)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대부분 추상물(76%)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두 번째로 사용이 많은 의미는 (4ㄱ,ㄴ)[생각 따위를 가지다](26.3%)로서 특정한 행위를 나타낸다.

- (3) ㄱ. 게으르며 기우튼 긱운을 모매 두디 아니 햅야 구와 눈과 고좌 <내훈언,01,010b>  
 ㄴ. 驛 두·물 長常 ·이·긱티 ·햅·늑·니 龍門·에 올·옴·도 ·또 잇·도다 禮數\* 阻隔 햅·다<두시초20,006b>
- ㄷ. 그릇 두몬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그르슬 브리디 아니홀씨니 다<월인석,서1,022b>
- ㄹ. 梵志는 婆羅門이니 各別한 글알 두고 지비 잇거나 出家커나 제 道理 올호라 햅야 <월인석,02,046a>
- ㅁ. 네 곱다 듣고 도미와 장긱 두어 어던늑니 니일 도늘 드려 궁인 사모리라 햅고 어루려 훈대<삼강행,열030a>
- ㅂ. 내 그디 두고 문져 죽거지라 햅야놀 묘박이 웃소 말이니라 이튼나래 제 집<삼강행, 열020a>
- (4) ㄱ. 핏긱운 듯는 구믈구믈햅는 衆중생싱들히 제곰 몸 간스홀 슬가온 므스물 두실신 날 오디 群군呑흔이 불길 공을 두짜 햅는 마리라 <몽산육,004a>  
 ㄴ. 므던히 너꼐 므스물 두디 몰홀 썩르미로라 <내훈언,02,102b>

‘놓다’와 ‘두다’의 유의적 의미로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구체적인 대상의 이동에 한정되며 ‘놓다’는 (2ㄱ)과 같은 사용에서 주로 ‘두다’와 교체될 수 있는 예들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두다’의 ‘놓다’와 유의적 의미인 [일정한 곳에 놓다]는 (3ㄱ)처럼 대부분 추상적인 대상이어서 ‘놓다’와 자연스럽게 교체되기 어려운 예들이 많다. 하지만 (3ㄴ~ㅂ)과 같이 다의 유형에서 교체가 가능한 유의적 양상은 ‘두다’가 더 많이 나타난다.

### 3.2.2. 16C

16C에도 두 동사의 유의적 사용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상의 이동의 의미에 한정된다. ‘두다’나 ‘놓다’ 모두 이동 행위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 증가했지만(75.5%, 57.8%) 이전과 마찬가지로 ‘놓다’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상의 이동(5ㄱ,ㄴ)이 주로 사용되며, ‘두다’는 (7ㄱ)같은 구체적 대상이 일부 보이나 이전과 같이 추상적인 대상이 주로 사용된다.

- (5) ㄱ. 모다 처 안조매 각별이 탁 두 기둥 이에 셤고 큰 잔을 그 우 노하 돌디니 쥬은 듯려 탁 녁의 셔<여향언,024b>  
 ㄴ. 납던 옷도 노코 밤나 슬혀 울여 앓참나조 제며 나가며 들어올 제<속삼강,중, 열,014a>

- (6) ㄱ. 百年을 댛쵸 ㅅ니 어느 나래 머리내와료 스스 經을 노코 무로 네 行脚야 엇던 사  
 맛난다 師\* 닐오 내<몽법어,고,008b>  
 ㄴ. 一切 分別 다 노하 自心을 세면 三家村裏에 愚夫愚婦이 다 常例 正法을 니며<선가  
 귀,004b>  
 ㄷ. ㄱ 민망타 자내 저른 겨집 풍류 이고 반성어도 慶山 舊 行次 위디게 노코 아 안치  
 고 노니 노리오 궁 제 이리사 올로도<순천김>

다의적 의미 분화에서 ‘놓다’는 (6ㄱ)[멈추다], 또는 (6ㄴ)[버리다]의 의미가 보이며, (6ㄷ)과 같은 [특정한 행동]의 의미도 보인다.

- (7) ㄱ. 罇子 봉양호 반시 술과 고기 두더니 장 설 주실 바를 請티 아니며 남 이 인냐<소학  
 언,04,015a>  
 ㄴ. 이제 滕이 倉廩과 府庫를 두니 곧 이 民을 厲호야 ㅅ 스스로 養흠이니 엇디 시러곰  
 <맹자초,05,018b>  
 ㄷ. 쵸고만 일도 두곤 히 심 〃여 내니 이러 구려도 병이 들가 뇌<순천김>  
 ㄹ. 연닷쇄만 두면 가리라 우리 가면 어디 브리여 ㄷ고 우리 順城門잇 덤에<역노걸,  
 상,011a>  
 ㅁ. 東로 머리 두시고 朝服을 ㄷ고 걸티더시다<소학언,02,041b>

이 시기 ‘두다’는 (7ㄴ)에서처럼 [시설이나 설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7ㄷ)과 같은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보인다. 또 새롭게 (7ㄹ)[시간을 두다]는 의미가 나타나며 (7ㅁ)[방향을 향하게 하는]의미도 확인할 수 있다.

### 3.2.3. 17C

‘놓다’의 유의적 사용은 감소하나 사물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8)는 ‘두다’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증가한다.

- (8) ㄱ. 아기시긔 보낼 실과며 고기 고 다마 침실의 노코 즐기던 실과 쵸 잘 녀허 겨<서  
 궁일,029a>  
 ㄴ. 堂上의 안자 東西로 서르 向호야 각각 卓子를 얹피 노코 집사흠의 男이며 女\* 舅姑  
 씩셔 저른 者\* 兩序의 서기틀<가례해,4,022a>

- (9) ㄱ. 포샤슈 네 사흠이 도즈기 머러셔는 쵸통을 노호며 사를 ㅅ고 도즈기 갓갑거든 수리  
 늘 미로되 낭선 등패 도곤<연병남,003b>  
 ㄴ. ㄷ심다 어버이 수이 보고져 거든 대비 수이 죽이거나 그리 못거든 불을 노하라 불  
 곳 노호면 너 다 낭반이 되고 나가기 쉬오리라 너<서궁일,061b>

특히 이 시기 (9)[불을 피우다, 총을 쏘다]는 의미가 새롭게 나타난다.

- (10) ㄱ. 양 절일을 만나 반드시 술 고기 두어 친구를 청호여 모다 잔치호야 그 어버의 ㅅ  
 음을 즐겁게 호고<동삼효5,005b>

ㄴ. 두려<sup>ㅎ</sup>야 던던이 규矩와 법度를 두며 말가히 純一<sup>ㅎ</sup>야 그르며 편僻<sup>ㅎ</sup> 디 꾸티 아  
니 <sup>ㅎ</sup>고 움즈기며<여훈해,하,033b>

‘두다’는 [일정한 곳에 놓다]와 [마음을 두다]와 같은 의미 사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지만 (10ㄱ)처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사용은 이전보다 늘어난다. 한편 (10ㄴ)[무엇을 마련]하는 의미가 나타난다.

### 3.2.4. 18C

이 시기 ‘놓다’의 추상적 대상에 대한 사용과 의미의 사용이 다양해지면서 유의적 사용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12ㄱ)[사람이나 동물을 해방하는]의미의 사용이 늘고 (12ㄴ)[목적을 위해 보내는]의미가 새롭게 나타난다.

- (12) ㄱ. 상공이 다만 손본의 죄인을 가마니 노흔 죄만 다리고 버히디 아니시면<낙일철,125>  
ㄴ. 관군을 노하 일시의 죽여 드러오니 적당이 호등의 더 죽은 재 쉬<낙무칠,137>

‘두다’는 구체물에 대한 사용은 늘지만, [대상의 이동] 의미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와 달리 (13ㄱ, ㄴ, ㄷ)[설치]의 의미와 (13ㄹ)[가족을 가지다]는 의미는 늘었다.

- (13) ㄱ. 威과 揚으로 이에 처음으로 行을 攄다 니 故로 居 者\* 積倉을 두며 行 者\* 裏糧을 두어사 그런 後에 可히 이에<맹울해,1.060a>  
ㄴ. 우리 뉴양촌이 다만 산 사의 집 터히라. 엇디 죽은 사의 분묘 두어 일촌에 해롭게 리오.<낙일사,067>  
ㄷ. 織室을 두샤 織室은 뵈 집이라 濯龍 가운데 누에 치이시고 조 가<여내훈,이,046b>  
ㄹ. 길 가 기려 일 이 자 주다 齊 사이 一妻 一妾을 두니 이셔 양 나가면 반시 醉飽도라오거 그 더브러 飲食<여사서,4,048a>  
ㅁ. 낙양의 어미 두고 그리던 정은 낭와 가지되 나의 설워를 낭도 모더이다<낙선 이,097>

또한 새롭게 (13ㅁ)[무언가를 대상으로]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예가 나타난다.

### 3.2.5. 20C초

‘놓다’의 구체적 사용이 많았고, 추상적 의미 확장 가운데서도 유의적 사용이 나타나면서 유의적 사용이 일부 늘었다. ‘두다’ 또한 추상적 사용에 있어 유의적 사용이 생기며 두 동사 모두 유의적 사용은 소폭 증가한다.

- (14) ㄱ. 물론 자유 결혼이란 마음 노코 못 할 일이야.<신녀성7-1, p18>  
ㄴ. 놀보 정신 노코 안져실 제<홍보전 권지단 p66>  
ㄷ. 길동이 귀히<sup>ㅎ</sup>는 것을 훤방 노흠은 더힐 수 업시 즈기를 욱보임이라고<만인계, p4>  
ㄹ. 이러한 前提를 노코 생각한다면 離婚의 自由는 여간해서 실현되지 안을 것이라고 보아 틀넘이 업다.<신녀성5-4, p9>

‘놓다’는 이전 시기에 활발하게 사용되던 [사람이나 동물을 해방하다]나 [목적을 위해 보내다]의 의미가 줄어들었으나 (14ㄱ, ㄴ)[무언가를 잊거나 없애]는 의미나, (14ㄷ)[특정한 동작을 하다]와 같은 의미가 늘었고, 새롭게 (14ㄹ)[논의의 대상으로 놓다]는 의미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 (15) ㄱ. 그러하나 큰길을 두고 안이 다니다리도 <매일신문, p1>  
 ㄴ. 가정과 학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두고 이 시기에 참다운 인격자를 양성해 노토록 하고<신여성7-3, p.11>  
 ㄷ. 이것은 모발의 양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학리상 근거를 두고 또 병에 도살<신여성 4-10, p.41>  
 ㄹ. 저건 녀자거니해서 차별 두는 것이 제일 곤난하지요.<신여성7-1, p.23>  
 ㄹ. 형니 다짐장을 들고 니려가 춘향다려 다짐 두라 하니 춘향이 다짐하되 조금도 굴치 안코 철장갓치 다짐 둔다.<옥중화춘향가연정, p.52>

‘두다’는 [일정한 곳에 두]는 사용이 줄었으며, 대신 다양한 의미의 사용이 늘었다. [가죽을 가지다], [그대로 있게 하다], [방향으로 향하다], [미루어 놓다], [기간을 두다] 등과 같은 의미의 사용이 늘었으며, (15ㄱ, ㄴ, ㄷ, ㄹ)등과 같은 추상적 의미들이 새롭게 보인다. 또한 (15ㄹ)과 같은 [특정한 행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 3.2.6. 20C말

‘놓다’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놓]는 대상 이동에 대한 사용이 현격히 줄고 (16ㄱ, ㄴ, ㄷ)처럼 특정한 행동과 관련된 추상적 사용이 늘었지만, 추상적 대상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면서 ‘두다’와 유의적 사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 (16) ㄱ. 뺨 가지고 벌써 줄행랑을 놓았겠지, 여태 가만있겠어?  
 ㄴ. 중년여인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썰썰 웃다가 거짓말하는 더벅머리의 옆구리를 이따금씩 쥐지르며 강다짐을 놓고 있었다.  
 ㄷ. 두꺼비가 쟁짜(어거지)를 놓았고, 경락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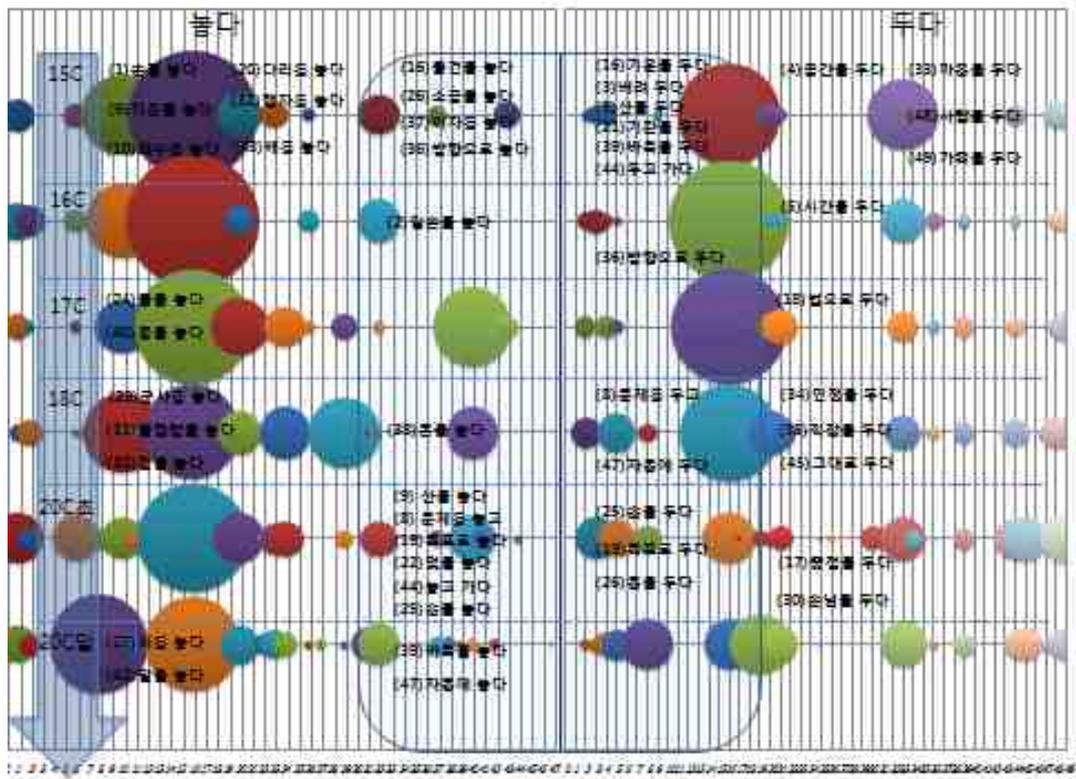
특히 [논의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예가 급증하면서 현대어에서 가장 많은 사용(13.3%)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의미들의 사용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 (17) ㄱ. 동양의 학문은 인격에 최고 가치를 둔다.  
 ㄴ. 헌법은 제11조~제3조에 더욱 구체적인 기본권 규정을 두고 있다.  
 ㄷ.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육성 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기구를 둔 나라가 49개국이나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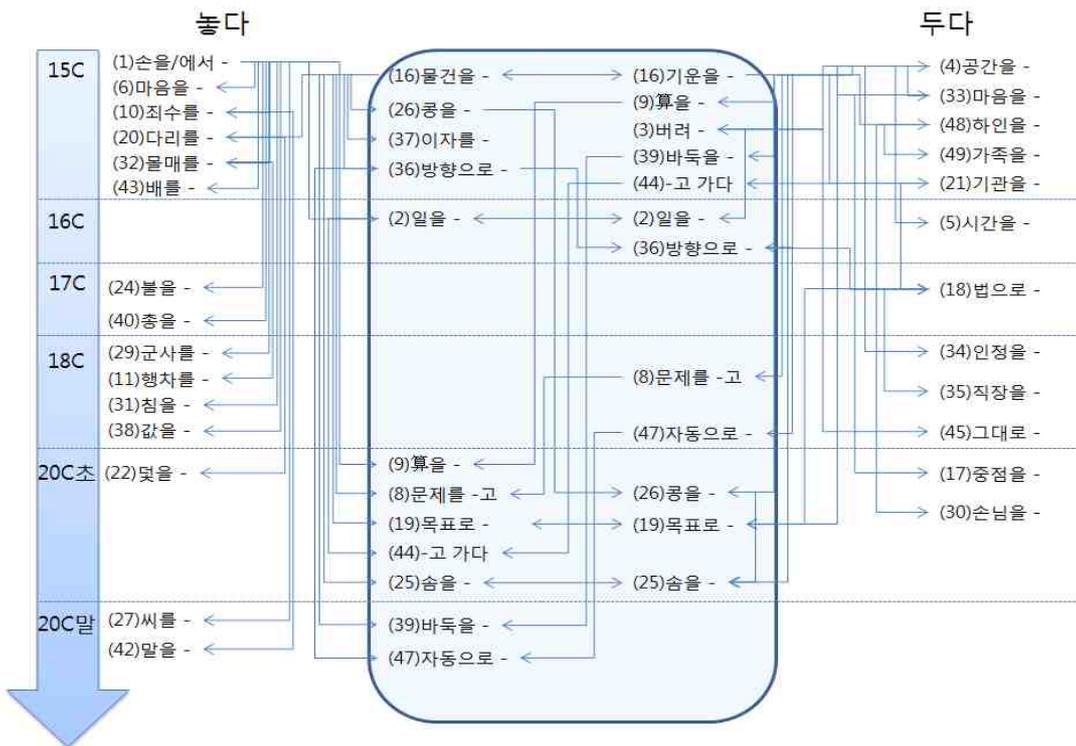
‘두다’또한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더욱 많아졌다. 특히 (17ㄱ, ㄴ)[무언가를 설정하는]의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논의의 대상] 사용 또한 매우 높아진다. 이외에도 관용적인 표현인 [마음을 두다]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17ㄷ)[기구나 조직 설치]의 의미도 높아진다. 이외의 의미들은 감소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두 동사의 의미 사용 양상을 시기별 발생 의미와 함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9) 그림 안의 번호는 이민우(2012)에서 분류한 ‘놓다’와 ‘두다’의 사전적 의미 번호이다.



<그림 11> 시기별 의미 빈도표



<그림 12> '놓다'와 '두다'의 시기별 의미 발생 양상

<그림 12>를 통해서 두 동사의 의미 사용이 각자 독립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된 방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 유의적 의미 확장에 있어서 ‘놓다’는 ‘콩을 두다’나 ‘방향으로 두다’처럼 ‘두다’의 구체적인 행위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며, ‘두다’는 ‘산을 놓다’나 ‘문제를 놓고 생각하다’처럼 추상적인 행위에 보다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의미 확장의 방향이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의 방향성을 띠다고 볼 때 ‘놓다’의 의미 확장에 ‘두다’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sup>10)</sup>

#### 4. 결론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놓다’와 ‘두다’의 사용 영역이 잘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놓다’가 추상적 사용과 문법적 사용으로 변화하면서 ‘두다’의 사용이 ‘놓다’의 의미 영역과 중첩되어 이들의 의미가 훨씬 유동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놓다’와 ‘두다’의 유의적 사용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유의성도 높아졌다. 또, 역사적인 의미 사용 양상을 살펴 볼 때, 두 동사의 다의화 과정에서 유의적 의미가 상호간의 다의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동사는 개별적인 관계와 방향으로 다의화를 진행하지만, 유의적 의미 해석으로 인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통해 봤을 때, 두 동사의 다의화 과정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놓다’는 과거 구체적인 영역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두다’는 이보다 추상적인 영역에 대한 사용이 많았다. 이후 ‘놓다’가 다양한 의미 영역으로 분화되면서 보조동사나 기능동사 영역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고, 기존 의미들의 경계가 분명해지며 특정한 사용역으로 굳어진 예들이 많아진다. 이와는 달리 ‘두다’는 훨씬 더 추상적인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놓다’의 의미 확장으로 사용 영역이 유동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휘적인 사용이 늘었다. 또한 사용 영역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의미가 유동적이 되어 확실한 의미 경계를 확립하지 못한 예들이 많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들은 ‘놓다’와 ‘두다’의 역사적인 사용의 변화와 관련되어 역동적인 사용 양상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놓다’가 ‘두다’보다 확립된 의미들로 구분되는 결과(이민우 2012: 70)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두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의 구체성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놓다’가 보다 구체적인 동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두다’는 애초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의미 확장 또한 불분명한 양상을 보인다.

이 연구는 시기별 말뭉치 분석을 통해 동사 ‘놓다’와 ‘두다’의 역사적 사용 양상을 추적하여 유의관계 어휘의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언어가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역학적 구조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 ‘놓다’의 의미 확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장소 명사구가 없는 구조는 [손의 동작]에서 [영향력 상실], 그리고 [멈춤]의 의미로 연결되며 다양한 [특정한 동작]으로 확장된다. 이와 달리 장소 명사구가 있는 구조의 경우는 [대상의 이동], [설치]와 연결된다. ‘놓다’의 의미는 대부분 아래로 향하는 이동 도식에 따라 의미가 연관되며 장소 명사를 가진 구조는 ‘두다’의 의미에 간섭을 받는다. 이와 달리 ‘두다’는 기본적으로 장소 명사가 사용되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에 따라 장소명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 ‘놓다’의 간섭을 받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놓다’처럼 다양한 의미 사용을 볼 수 없다.

## ■ 참고문헌

생략

## ■ 토 론

#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유의관계 의미변화 양상 분석-‘놓다’와 ‘두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상태(청주대)

안녕하세요. 이민우 선생님의 토론을 맡은 청주대학교 김상태입니다.

우선 이민우 선생님의 논문은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 방법으로 과거 이론 중심의 접근 방법이었다면, 이 글은 ‘자료’에 기반을 둔 접근 방법입니다. 즉, 언어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언어 해석에 다시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언어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놓다’와 ‘두다’를 중심으로 역사 자료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사용 양상을 토대로 두 단어의 의미변화 양상을 분석한 것입니다.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언어 현상을 통하여 언어의 의미 변화를 살펴본 의의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토론자의 역할을 할까 합니다.

첫째, 말뭉치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통계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뭉치는 언어를 대표하기 위한 일종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말뭉치를 통한 언어학 연구에서 계량화는, 표본에서 관찰된 사실을 토대로 언어의 사실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통계의 개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통계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보입니다. 3장에 있는 표와 그림에서 ‘사용량’, ‘점유율’, ‘사용 비율’, ‘출현 빈도’, ‘출현 비율’ 등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비율’을 측정할 때, ‘분모’와 ‘분자’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념과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말뭉치를 통해서 추출된 각각의 통계 정보가 훨씬 유의미한 해석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관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이란 항목을 추가하면 구성이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장과 제2장은 유지하고, 제3장의 첫 절에 연구 방법을 두어 말뭉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소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연구하지 않던 분야여서 토론을 맡기에 부족한데 혹시 저의 코멘트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부**

**제3 분과 발표**



# 어휘부에서의 저장과 생성

-단어와 구 경계 통사 단위의 저장 방식-

이영제(고려대)

< 차례 >

1. 서론
  2. 언어학 이론에서의 어휘부-통사부 모델
  3. 한국어 연구에서의 어휘부-통사부 모델
  4. 통사 단위의 저장 방식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본고는 어휘부-통사부 모델의 검토를 통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속하는 통사적 구성이 저장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어와 구의 경계에 해당하는 통사 단위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1) a. 미역국을 먹다, 파리가 날리다  
b. 못살게 굴다, 바보처럼/같이 굴다  
c. 난폭 운전/행위/화물차 - \*난폭 차/사람/말(言)  
d. 계획(을) 하다/꾸미다/세우다/짜다
- (2) a. (NP)에 대하여/대한/관하여/관한  
b. (NP) 앞/뒤/위/아래/다음에  
c. -기 때문/전에, -는 김/바람에  
d. -르 것/따름/모양/뿐이-, -기 나름/십상/일썹이-

- (1)은 어휘 단위, (2)는 문법 단위를 이룬다.<sup>1)</sup> (1a)는 관용어이지만 조사가 교체되거나 부사가 삽입될 수 있는 등 통사 구조에서 실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승진 시험에서 미역국을 여러 번 먹었다, 가게에 파리만 종일 날린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이 가능하다. (1b)는 부사절 또는 부사어를 보충어로 하는 ‘굴-’ 구성의 예이다. 성분 구조는 통사적이지만 의미 차원에서는 선행 성분과 ‘굴-’이 마치 하나의 단위처럼 인식되어야 한다(이은섭 2006: 213).

1) 관용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들은 관용 표현이자 언어(관계)라 할 수 있다. (1)은 어휘적 언어(관계), (2)는 문법적 언어(관계)에 해당한다.

(1c)는 어근적 단어 ‘난폭’이 ‘운전, 행위, 화물차’ 등 일부 명사와만 결합하여 쓰인 예이다.<sup>2)</sup> (1d)는 기능동사의 예이며 ‘하다’가 다른 기능동사 ‘꾸미다/세우다/짜다’ 등으로 교체되더라도 개념적 의미는 바뀌지 않으며, ‘계획(을)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 (2a)의 ‘대하-’, ‘관하-’는 불구동사 또는 불완전계열의 동사로 서술어이면서도 활용형이 제한되고 고정적이다. 때문에 ‘에 대하여/대한’을 동사성 후치사로 보기도 한다. (2b)는 (1a)와 비교하면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이면서 방위를 표시하는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명사성 후치사로 파악하기도 한다. (2c)는 고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역시 후치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d)는 구성 전체를 양태소로 보기도 하며, 양태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능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다른 (의존)명사로 교체가 가능하고 의미도 합성적으로 분석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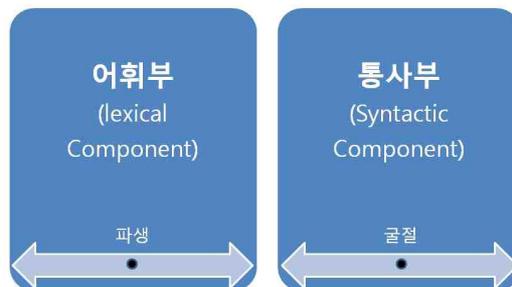
◆ 본고의 연구대상은 하나의 의미 단위이자 저장 단위이지만 교체나 삽입, 이동 등의 통사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다. 의미 단위이자 저장 단위라는 점은 이들이 어휘부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교체나 삽입, 이동 등은 통사부 절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떤 어휘부-통사부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의 어휘부-통사부 모델을 검토하고, 이어서 단어와 구 경계에 놓인 통사적 구성의 저장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 2. 언어학 이론에서의 어휘부-통사부 모델

### 2.1. 문법 부문으로서의 어휘부의 성립<sup>3)</sup>

◆ 어휘부의 규칙은 파생을 담당하고, 통사부의 규칙은 굴절을 담당한다.

어휘론자 가설(Chomsky 1970)



[그림 1]

2) “난폭 차/사람/말(言)”은 불가능한데 통사적 구성인 ‘난폭한 차/사람/말’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관계로 인하여 수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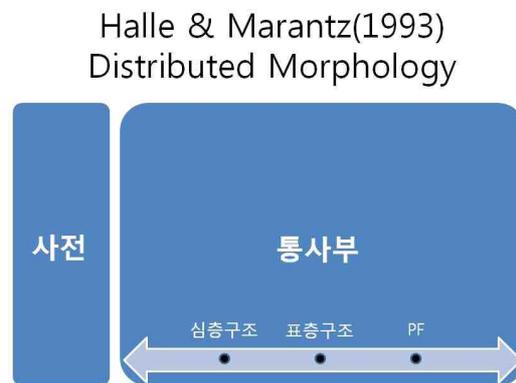
3) 이밖에도 생성형태론에서 언어 부문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더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한다.

- 생성형태론 초기에는 (가) 통사 규칙으로 단어형성의 일반 원리까지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Chomsky(1970)에서 파생은 어휘부의 규칙이 적용된 것이고, 굴절은 통사부의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구분한 이후로 (나) 어휘부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원리를 통사부와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었다.

- 최근의 이론적 흐름은 (가)의 태도를 유지하는 설명방식과, (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어휘부에서의 저장만을 전제하는 설명방식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sup>4)</sup>

## 2.2. 형식주의 이론의 어휘부-통사부 모델: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

◆ 통사적 단어형성 규칙과 원리에 의하여 모든 단어형성 절차가 설명될 수 있다. (그림에서 양방향 화살표는 단어형성이 일어나는 부문을 의미한다.)



[그림 2]

- 분산형태론에서는 통사부에서 핵이동 등에 의하여 어근과 어미가 결합하는 절차로 단어형성을 설명한다. 전형적인 형태적 작용은 음운부에서 음운자질이 부여되기 이전과 이후에 적용된다고 본다. 독자적인 문법 부문으로서의 어휘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정인기 2009).<sup>5)</sup> 접사는 통사적 단어형성 규칙에 포함된 자질이고, 합성명사도 통사적 단어형성 규칙에 의해서 형성된다.<sup>6)</sup>

- 합성(compound)과 파생(derivation)까지 통사 절차인 변형과 이동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과도한 변형과 이동 규칙을 상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접사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형태통사적 자질로 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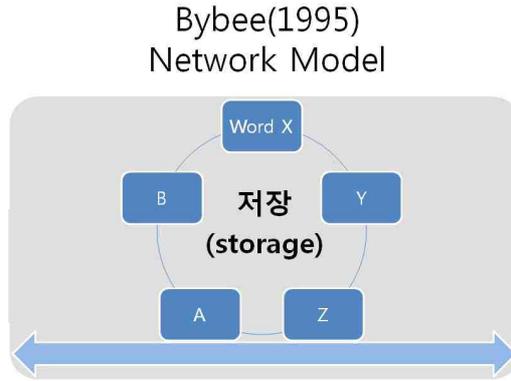
4) 형식주의와 기능주의의 이론적 대립과 최근 흐름은 김진우(2008)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5) 앞으로 나올 분산형태론, 연결망 모델, 구문-기반 모델의 그림은 필자가 각 모델의 특징을 해석한 바에 따라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6) 분산형태론의 문법 모형(Harley & Noyer 1999: 3)

### 2.3. 연결주의 이론의 어휘부-통사부 모델 I

◆ 어휘부를 별도로 상징하지 않으며 언어 현상에서 필요한 인지과정은 저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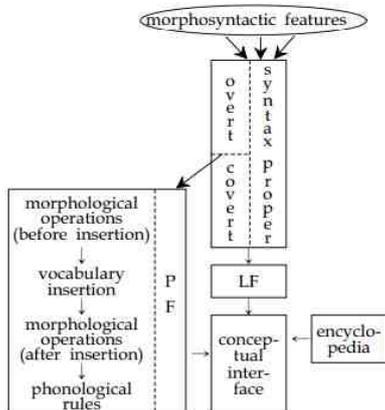


[그림 4]

- 위 그림에서 단어 X는 schema X라고 할 수 있으며, 단어와 단어 또는 schema와 schema는 유기적인 연결망(network)으로 이어져 있다. 단어의 저장과 생성은 단어와 단어 간에 연결된 망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난다.

- Bybee(2010)에 따르면 연결망 이론을 언어학에서 받아들인 것은 Bybee(1985)에서부터이며, 연결망 모델에서는 어휘부를 별도로 상징하지 않고 언어 기관을 인간의 인지 체계의 일부로 전제하여 저장(storage)만을 유의미한 부분으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어휘부론은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의 어휘부를 상징한 것이라면, 완전등재가설과 단어의 연결망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어휘부 없이도 유추에 기반한 생산적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cf. 김현주 2011:44-46).

- 연결주의의 관점은 인간의 인지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심리적 실재성에 기반한다. 최근에는 저장의 단위를 단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나 문장까지 확대하고 이 단위를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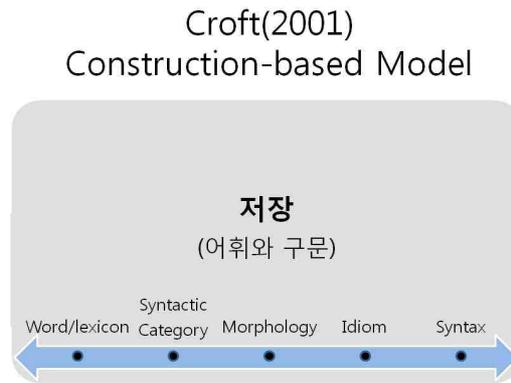
[그림 3]

7)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실사로부터 문법화되어 자질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문(construc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구문-기반 문법(또는 구문 문법, construction grammar)으로 발전하였다(Croft 2001).

#### 2.4. 연결주의 어휘부-통사부 모델 II

◆ 단어와 같은 어휘 단위뿐만 아니라 통사 단위의 절차까지도 저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8)</sup>



[그림 5]

- 이론적 전제는 연결망 모델과 다르지 않으며, 어휘 부문에서 통사 부문까지 연속선상에서 점진적으로 속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9)</sup> 연결망 모델과의 공통점은 어휘부와 통사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휘부 같은 저장과 관련된 문법 부문도 별도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종합

- 분산 형태론에서는 통사부의 단어형성 절차로 합성과 파생까지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문법 부문으로서의 어휘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연결망 이론과 구문-기반 문법에서도 문법 부문이라 할 만한 것으로 저장(storage)만을 상정하였고, 문법 부문으로서의 어휘부를 상정하지 않았으며, 종전의 어휘부와 통사부의 구분이라 할 만한 차이는 척도(scale)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 이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갖는 이론이다. 분산형태론이나 Chomsky(1970)에서는 순수한 언

8) 구문-기반 문법(Construction-based Grammar)이라는 명명을 참조하여 구문-기반 모델로 명명하였다.

9) Croft(2001)에서 제시한 어휘부-통사부의 연속선상(continuum)

Table 2.1: The syntax-lexicon continuum.

Construction type	Traditional name	Examples
Complex and (mostly) schematic	<b>syntax</b>	[SBJ <i>be</i> -TNS <i>V-en</i> <i>by</i> OBL]
Complex, substantive verb	<b>subcategorization frame</b>	[SBJ <i>consume</i> OBJ]
Complex and (mostly) substantive	<b>idiom</b>	[ <i>kick</i> -TNS <i>the bucket</i> ]
Complex but bound	<b>morphology</b>	[NOUN- <i>s</i> ], [VERB-TNS]
Atomic and schematic	<b>syntactic category</b>	[DEM], [ADJ]
Atomic and substantive	<b>word/lexicon</b>	[ <i>this</i> ], [ <i>green</i> ]

어학적 기술로서의 어휘부 즉, 이론 어휘부를 상정한 것이고, 연결망 이론과 구문-기반 문법에서는 어휘에 대한 지식의 심적 표상으로서의 어휘부 즉, 심리 어휘부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각 이론에서 어휘부를 상정하지 않은 요인은 다르다. 하지만 분산형태론은 어휘부의 문법 부문으로서의 역할을 사전으로 최소화시킨 것일 뿐 심적 표상으로서의 어휘부를 전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연결망 이론과 구문-기반 문법은 어휘부와 통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저장이라는 인지과정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분산형태론이나 Chomsky(1970)와 차이가 있다.<sup>11)</sup>

- 어휘부에 대한 양극단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이론에서 어휘부를 상정하지 않거나 어휘 부문으로서의 어휘부와 통사 부문으로서의 통사부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sup>12)</sup>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어휘부 연구에서도 문법 부문으로서의 어휘부 개념에서 벗어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다음 3절에서는 한국어 연구에서 제안하는 어휘부-통사부 모델을 검토하고, 4절에서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를 구체화할 것이다.

### 3. 한국어 연구에서의 어휘부-통사부 모델

#### 3.1. 이론 어휘부 연구와 단어형성부의 설정

◆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어휘부 연구에서 심리 어휘부 연구를 지향하는 논저에서는 어휘부를 이론 어휘부와 심리 어휘부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한다(홍재성 1990; 채현식 2003). 심리 어휘부를 표방하고 있는 논의들은 뇌과학이나 심리학 등의 연계분야와 협력하는 것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이며(송원용 2005, 안소진 2011), 실제 그런 연구 방법을 표방하는 연구들이 심리적 실재성에 기반한 어휘부 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 실제로 이론 어휘부 연구에서 전제하는 어휘부와 심리 어휘부 연구에서 전제하는 어휘부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 채현식(2003: 25)에서는 순수 언어학의 대상인 이론 어휘부 역시 화자의 어휘부이며 이는 곧 심리 어휘부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형용(2013: 374)에서는 이론 어휘부와 심리 어휘부는 화자의 조어 능력을 밝히려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모습, 조직, 규모는 결국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론 어휘부는 원래 '저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것을 '생성'에까지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독자적인 모듈로서의 '어휘부'를 지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장'의 구조와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심리 어휘부'와 차이를 갖는다고 하였다.

10) 홍재성(1990: 247-248)에서 어휘부의 개념을 순수한 언어학적 기술로서의 어휘부와 어휘에 대한 지식의 심적 표상으로서의 어휘부로 구별한 논의들을 채현식(2003: 11)에서 각각을 이론 어휘부와 심리 어휘부로 구별한 것이다.

11) 이를 어휘부의 확대라고 설명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문법 부문으로서의 어휘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휘부의 확대라 할 수 없으며, 저장 기능의 확대라고 보아야 한다.

12) Halle and Marantz(1993)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내재성(innateness)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Bybee(1995, 2000)나 Croft(2001)는 언어 능력을 학습(learning)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Russell(2004)과 같이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

◆ 이론 어휘부(를 지향하는) 연구와 심리 어휘부(를 지향하는) 연구 모두 실제 ‘저장’의 모습, 조직, 규모에 관심을 갖고 이를 모델에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각각이 전제하는 어휘부가 이론적이나 심리적이나로 구별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휘부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론 어휘부 연구에서는 어휘부가 독자적 문법 모듈이면서 어휘부의 절차가 실제 저장 방식과 일치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이분법적으로 어휘부와 통사부를 구분하거나 어휘부를 하위분류한다. 반면에 Bybee(1995)나 Croft(2001)와 같은 심리 어휘부를 지향하는 연구에서는 어휘부를 문법 모듈로 전제하지 않고, 어휘부와 통사부를 구분하지도 않으며, 저장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도 않는다. 이는 인지과학에서 전제하는 실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저장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론 어휘부 연구와 심리 어휘부 연구는 실제 저장의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은 같으나 어휘부를 설명하는 방식, 이론적 배경과 태도 등이 크게 다르다.

◆ 최근 심리 어휘부에 관한 논의는 2절의 연결주의 이론(또는 구문 문법)에서 제안한 설명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채현식 2007; 나은미 2009).<sup>13)</sup> 이 절에서는 주로 이론 어휘부 연구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론 어휘부 연구는 심리적 실재성을 고려하여 어휘부의 모습을 형상화하지만 문법을 기술하는 방식이 실제와 그대로 일치할 필요는 없음을 전제한다.

◆ 먼저 어휘론자 가설 이후에 정립된 방식에 따라 어휘부와 통사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어휘부 내에 단어형성 절차를 담당하는 부문을 상정한 연구들이 있다(박진호 1994; 송원용 1998, 2005; 시정곤 2001; 황화상 2001; 이은섭 2013 등).



[그림 7]

- 표층 어휘부는 심층 어휘부에 대비되는 부문이다. 활성 어휘부는 비활성 어휘부에 대비되는 어휘부의 하위부문이며 공시적 과정에 의한 임시어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형태부는 독자적 문법 부문으로 인식되며, 단어형성부도 마찬가지이다.

13)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주의 이론의 어휘부-통사부 모델에서는 문법 부문으로서의 어휘부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어휘부’ 연구는 사실상 모두 이론 어휘부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각 연구에서 내세운 입장을 반영하였다.

◆ 단어형성부의 확대

- 단어형성부를 확대하면서 어휘부와 단어형성부를 분리하여 서술한 연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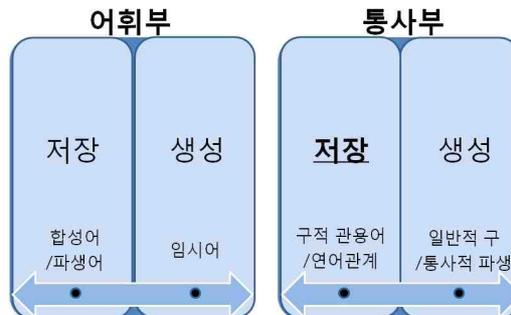


[그림 8]

- 단어형성부를 어휘부로부터 분리시켜 독자적 위상의 문법 부문으로 끌어올린 시도(송원용 2005; 이상욱 2004; 정한데로 2009; 김민국 2009)라 할 수 있다.<sup>14)</sup> 통사 절차라 할 수 있는 구적 관용어와 연어(관계)도 단어형성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임근석 2006/2010; 한정환 2010a, 2010b)한 연구도 있다.

3.2. 한국어 연구에서의 어휘부-통사부 모델에 관한 문제제기

◆ [그림 8]을 저장과 생성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

- 통사부의 출력물 중에서 저장되기는 하지만 어휘부에 저장되는 등재소와 성격이 다른 통사 단위(syntactic unit)들이 있다. 구적 관용어와 연어(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sup>15)</sup> 김의수(2013:

14) 이들은 공식적 단어형성 절차에 관한 연구여서 임시어에 관한 설명을 목적으로 어휘부 모델을 제시하였다.

15) 연어(관계)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넓지만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인 단어와 구 경계의 통사 단위에 해

437)에 따르면 구적 관용어는 '[통사부]⇒[통사 규칙]⇒[통사 단위]⇒[+저장]⇒[통시적 연속성]'의 개념을 연쇄적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저장]은 [어휘 단위]라는 전제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 '[+저장]=[등재(소)]=[어휘 단위]'의 상관관계에 의하면 구적 관용어와 연어(관계)는 [+저장]이므로 어휘 단위(lexical unit)로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저장 양상은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일반적 등재소와 다르다. 합성어나 파생어는 저장 이후 형식과 구조가 고정되지만 구적 관용어와 연어(관계)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하나의 구조체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관계이면서 통사부에서 통사 규칙의 적용을 받고 통사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 형태 규칙이 적용되지만 반드시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시어를 통하여 이미 설명된 바가 있다. 반대로 통사 규칙이 적용되지만 저장되고, 저장된 이후에도 통사 규칙의 적용이 가능한 부문도 있을 것이다.

◆ 소결

'[+저장]=[등재(소)]=[어휘 단위]'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정화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장]=[등재(소)]=[통사 단위]' 또는 '[+저장]≠[등재]'도 가능해야 한다.<sup>16)</sup> 즉, 통사 절차가 적용되는 저장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휘부의 틀을 벗어난 연구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4절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4. 통사 단위의 저장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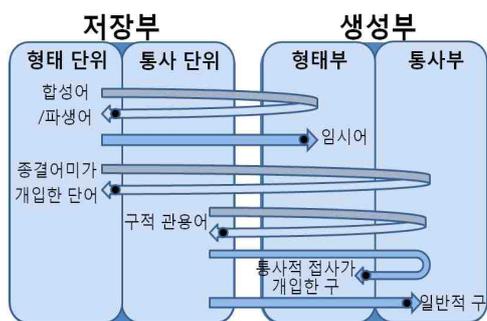
◆ [그림 9]를 어휘부와 통사부의 구분이 아닌, 저장과 생성의 절차에 따라 구분한 시도가 있다. 김의수(2013: 430-432)에서는 어휘부-통사부 모델을 저장부와 생성부로 나누고, 저장부의 형태·통사 단위가 각각 생성부의 형태부와 통사부에 입력되어 일반적 형태·통사 단위뿐만 아니라 임시어나 구적 관용어와 같은 예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sup>17)</sup>

- (3) a. 저장부 → 생성부: 형태 단위(임시어), 통사 단위(일반적 구, 통사적 접사가 개입한 구), 변환(조사 및 '이다'의 선행 성분)
- b. 저장부 → 생성부 → 저장부: 형태 단위(합성어/파생어, 종결어미가 개입한 단어), 통사 단위(구적 관용어)
- c. 저장부 → 생성부 → 저장부 → 생성부: 어근분리 현상

---

당하는 예들로만 한정하며 구체적인 예는 (1)과 (2)에서 제시하였다.  
 16) 이는 김의수(2013)에서 언어의 불확정성을 전제로 문법 부문의 비단선적 체계를 주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17) 김의수(2013)에서는 분산형태론의 문법 모델, 연결주의 이론의 연결망 모델 등을 참고한 것이 아님에도 어휘부를 두지 않고 저장과 생성의 절차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분산형태론의 규칙과 다른 규칙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형태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연결주의 이론과 달리 저장부와 생성부를 문법 부문으로 제안하고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2절에서 제시한 어떤 이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할 수 없다.

다음은 본고에서 (3)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은 각 단어 유형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sup>18)</sup> [그림 11]은 각각의 어휘/통사 단위가 최종적으로 생성된 부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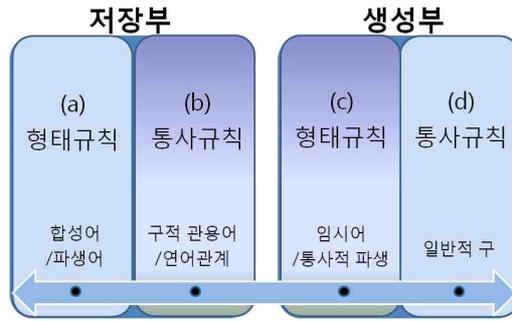
- 김의수(2013)에서 형태부/통사부는 각각 형태/통사 규칙이 형태/통사 단위를 생성하는 곳이고, 저장부는 생성부에서 만들어진 언어 단위가 저장되는 곳이다. 문법 부문은 저장부와 형태부, 통사부로 재편성되었다. 규칙은 통사 규칙을 참고한 형태 규칙의 적용이 가능하고, 저장부의 형태/통사 규칙과 생성부의 형태/통사 규칙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을 전제한다.

- 기존의 문법 부문에 관한 단선적 개념에서는 형태 규칙의 출력물은 필연적으로 저장되어야 했다. 하지만 김의수(2013)에서는 형태 규칙만이 아니라 통사 규칙의 출력물도 저장될 수 있으며, 어휘 단위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 단위로도 저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불확정성은 언어 부문과 언어 단위의 기본적 속성이고, 언어 단위들이 생성되고 저장되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 본고에서는 형태 규칙만이 아니라 통사 규칙의 출력물도 저장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불확정성이 적용되는 단위와 부문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확정성이 적용되는 부문의 규칙과 확정적 부문의 규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저장부와 생성부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sup>19)</sup>

18) 어근 분리 현상은 규칙 적용 과정이 복잡하고 본고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19) [그림 12]의 '규칙'은 생성형태론 등에서 주장하는 좁은 의미의 규칙이 아니라 유추의 틀이나 생산적 패턴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 저장부와 생성부에는 각각 확정적 부문(a, d)과 불확정적 부문(b, c)이 있다. (a)는 종전의 형태부, (d)는 종전의 통사부라 할 수 있다. (d)에서도 단어 형성이 가능한데 명사 상당어들이 예가 될 수 있다.<sup>20)</sup> [그림 11]과 마찬가지로 [그림 12]에서 저장부는 통시적 연속성을, 생성부는 공시적 연속성을 띤다.

◆ 저장부의 불확정적 부문(b)은 저장되고 나면 생성부를 거칠 필요 없이 저장부 내에 별도로 형성된 생성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어떤 어휘/통사 단위가 저장된다면 그에 적용되는 규칙도 변화될 것이며 저장되지 않은 어휘/통사 단위에 적용되는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초기의 생성 단계에서는 생성부의 형태, 통사 규칙이 적용되었겠지만 저장 이후에 저장부의 형태, 통사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사용자가 고빈도로 쓰면서 하나의 의미단위로 인식하는 구성은 통사 절차까지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장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생성할 때마다 도출된다고 하는 것에 비하여 더 효율적이다. 다만 저장의 방식이 일반적인 저장 방식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김의수(2013)에서 제시한 불확정성을 문법의 모든 단위와 부문에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 생성부의 형태 규칙의 적용을 받는 (c)의 경우도 불확정적 부문이라 할 수 있다.

- 저장부의 불확정적 부문(b)은 생성부의 규칙에 열려 있지만 완전한 통사 구조의 절차를 보이지 못하므로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생성부의 불확정적 부문(c)은 형태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저장되지 않으므로 저장부의 형태 규칙과 다르다.<sup>21)</sup>

20) 김의수(2013)에서 조사 및 '이다'의 선행성분으로 분류한 유형들이 대상이 된다.

예) 철수가 떠난 것은 영희를 위해서이다. / 그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다.

21)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저장부와 생성부의 절차는 기억의 단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저장부의 기억은 의미기억(영구저장)인 반면 생성부의 기억은 절차기억이다. 저장부의 규칙은 의미기억과 절차기억이 함께 저장된 것이고, 생성부의 규칙은 절차기억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저장과 등재의 문제

- 통사 규칙이 적용되고 저장되는 단위는 등재되지 않는다면 어휘부 이외의 부문에서 저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설명의 부담이 가중된다. 등재된다면 고도(island)를 이루는 어휘들의 등재 방식과는 다를 것이다. 구적관용어나 연어(관계) 같이 통사 규칙이 적용되고 저장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통사부에서 내부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장]=[등재]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휘고도 제약을 적용받는 등재 과정과 어휘고도 제약을 적용받지 않는 등재 과정으로 이분된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김의수(2013)에서는 이 두 과정이 처리되는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문법 부문을 열린 구조로 설명하였다면 본고에서는 어휘고도 제약을 적용받지 않고 등재되는 부문을 특정하고자 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저장부는 어휘고도 제약을 준수하는 부문과, 준수하지 않는 부문으로 양분된다. 어휘고도 제약을 따르지 않는 부문은 [그림 7]의 방식에서는 표층어휘부에 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림 12]의 저장부는 어휘부를 심층어휘부와 표층어휘부로 구분한 방식과 다르다. 박진호(1994)를 비롯한 논저들에서는 표층어휘부를 임시어와 같은 공시적 과정이 일어나는 부문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사 단위로 저장되며 통사 절차의 적용을 받는 한국어 현상의 설명

- 저장되지만 구성성분들이 하나의 구조체가 아니라 통사 단위의 특성을 보이는 예가 있다. 도입에서 제시한 예문 (1)과 (2)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범주 판단에 있어서 통사 절차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더 우선시된다.

- (1a)의 구적 관용어 ‘미역국을 먹다’와 ‘파리가 날리다’는 형식이 완전히 고정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만 통사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sup>23)</sup> 의미는 각각 ‘낙방하다’와 ‘한가하다’와 대비되는 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룬다.

- (1b)의 ‘-게 굴-, -으로 굴-’의 ‘굴-’는 내포절 술어로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나 명사(구)가 주로 온다(얕밟게 굴다, 신경질적으로 굴다 등). 일부 제한적으로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나 명사(구)가 오기도 한다. 이은섭(2006)에서는 ‘-게 굴-, -으로 굴-’ 구성이 일종의 복합 서술어 구성이며,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원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 (1c)의 어근적 단어 ‘난폭’은 수식어와 연어 관계를 이루며 구성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의미의 합성성도 준수되므로 통사 절차를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난폭’과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된다.

(4) a. (운전, 차량 관련) 난폭 운전, 난폭 운행, 난폭 차량, 난폭 화물차, 난폭 택시운전

22) [+저장]=[등재(어휘)]을 전제하면 ‘저장되는 비등재 단위’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구적 관용어와 연어는 일반적인 등재소가 아닌 등재 단위라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3) 모든 관용어가 통사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구적 관용어에 한한다. 관용어 중에서 ‘스승의 날’이나 ‘그림의 떡’은 이동, 교체 등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어휘 단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어휘적 관용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미역국을 먹다’나 ‘파리가 날리다’ 등은 통사 절차를 따르며, 통사적(구적) 관용어라 할 수 있다.

사, 난폭 과속운전  
b. (사람, 행위 등) 난폭 의원, 난폭 행동, 난폭 행위

‘난폭’은 현대국어 초기에는 ‘난폭을 하다<sup>24)</sup>/행하다/논하다/소(訴)하다’와 같이 명사로 쓰이는 예가 적지 않았으나 현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어근적 단어 또는 명사성 불구어근에 속한다. (4)와 같은 일부 구성에서만 남아 있으므로 구성이 저장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통사 구조의 특징도 갖는다.

- (2a)의 동사성 후치사, (2b)와 (2c)의 명사성 후치사도 복합형이 하나의 의미단위로 쓰이지만 굴절되는 현상이나, 성분이 교체되거나 생략되는 현상은 이들이 하나의 어휘 단위가 아니라 통사 절차가 적용되는 통사 단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2d)에서 ‘-르 것이-’는 [추측]의 양태 범주에 해당한다. 최근 이 구성을 문법 범주에 속하는 양태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의 양태적 의미는 구성성분의 의미로도 볼 수 있으므로 통사 구조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르 것이-’는 ‘-르’이 보문 명제에 irrealis의 서법적 의미를 더하면서 ‘추정’의 의미가 발생하고 ‘것’은 ‘사실, 일’과 관련한 추상적 의미를 더하여 명제를 객관화한다. 의미적으로 구성성분의 의미가 [추측]과 연관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형태적으로 문법형태화의 특징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나머지 ‘따름, 모양, 뿐’ 등도 동일하다.

## 5. 결론

(생략)

---

24) 예) 가등수상사덕(加藤首相私邸)에 었던 폭한이 침입하여 권총을 함부로 노하며 여러 가지 **난폭**을 하였는데[동아일보, 1925.4.2]

## ■ 참고문헌

- 김민국(2009), 접미사에 의한 공시적 단어형성 연구: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경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수(2013), 어휘부와 통사론, 『국어학』(국어학회) 66, 415-442쪽.
- 김진우(2008), 『언어와 사고』 서울: 한국문화사.
- 김현주(2010), 국어 대우법 어미의 형태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은미(2009), 『연결주의 관점에서 본 어휘부와 단어형성』 서울: 박이정.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용(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용(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국어학총서 50, 파주: 태학사.
- 시정곤(2001), 국어의 어휘부 사전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17-1, 163-184쪽.
- 안소진(2011),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소진(2012), 어휘부 등재 논의의 경향과 쟁점, 『형태론』 14-1, 1-23쪽.
- 이상옥(2004), '-음', '-기'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2013), 연결망과 단어형성, 『국어학』(국어학회) 46, 125-145쪽.
- 이영제(2014), 한국어 기능명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섭(2006), '굴다' 구문의 유형과 통사 구조, 『국어학』(국어학회) 48, 203-231쪽.
- 이은섭(2013), 통사 처리의 어휘부 참조 양상에 대한 고찰, 제40 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임근석(2006/2010), 『한국어 연어 연구』 도서출판 월인.
- 정인기(2009), 분산형태론과 영어, 『영어학』(한국영어학회) 9-2, 303-326쪽.
- 정한데로(2009), 국어 복합어의 등재와 어휘화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정한데로(2010), 문법 차원의 등재에 대한 연구, 『형태론』(형태론연구회) 12-1, 1-22쪽.
- 채현식(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국어학총서 46), 파주: 태학사.
- 채현식(2007), 어휘부의 자기조직화, 『한국언어문학』(한국언어학회) 64, 137-155쪽.
- 채현식(2013), 어휘부란 무엇인가, 『국어학』(국어학회) 66, 307-331쪽.
- 최형용(2013), 어휘부와 형태론, 『국어학』(국어학회) 66, 361-412쪽.
- 한정한(2010a), 관용구의 문법범주, 『어문논집』(민족어문학회) 61, 315-349쪽.
- 한정한(2010b), 용언형 연어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한국어학회) 49, 405-440쪽.
- 홍재성(1990), 어휘부 구성의 기본 문제, 『어학연구』(서울대 어학연구소) 26-1, 247-252쪽.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도서출판 월인.
- Bybee, Joan. 1995. Regular morphology and lexic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 33, 633-54.
- Bybee, Joan. 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oderick Jacobs and Peter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184-221.
- Croft, William.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e, Morris and Alec Marantz 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in K.Hale and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111-176. MIT Press: Cambridge, MA,

Harley, H. and R. Noyer. 1999. State-of-the-article: Distributed morphology. *Glott International* 4(4), 3-9.

Hausser, M. D., Chomsky, N. & Fitch, W. T. 2002. The faculty of language: what is it, who has it, and how did it evolve? *Science* 298, 1569--1579.

Russell. 2004. *What is the Language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 토론

### “어휘부에서의 저장과 생성-단어와 구 경계 통사 단위의 저장 방식-”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건국대)

이 논문은 생성문법의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저장되지만 통사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단어와 구 경계에 놓인 통사적 구성의 저장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둔 논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어휘부-통사부 모델을 검토하면서 형태 규칙만이 아니라 통사 규칙의 출력물도 저장됨을 그림 12에서와 같이 도식화하여 잘 드러낸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논문을 읽는 내내 선생님의 논문에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하나마 논문을 읽으며 궁금하였던 몇 가지를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발표지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의수(2013)에서 논의된 불확정성을 문법의 모든 단위와 부문에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 12에서 (b)와 (c)의 경우가 불확정적 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제한을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미역국을 먹다”, “파리가 날리다”는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룹니다만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은 관용 표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는 없는지요. 구적 관용어와 굳어진 형식의 저장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그림 9와 그림 12를 비교, 대조해 보면 ‘통사적 파생’이 그림 9에서는 통사부 생성에 그림 12에서는 생성부 형태규칙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넷째, 서론에서 단어와 구의 경계에 해당하는 통사 단위를 모두 8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만 마지막 절에서 (1d)와 같이 기능동사처럼 다른 어휘로 교체되더라도 개념적 의미가 바뀌지 않는 연어와 (2)의 예시 문장과 같은 문법적 연어 관계에 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어휘 교육에서의 국어사전 활용 방안

오상화(고려대)

## < 차례 >

1. 머리말
2. 교육과정
3. 국어사전 활용의 문제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국어사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는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국어사전은 어휘 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수-학습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은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극적인 활용법은 교육과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도 함께 떠안고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국어사전이 지금보다 폭넓은 활용 가치를 지닐 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어휘력 신장을 통한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 국어사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과정에 기대어 살피고자 한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 사전을 이용하지만 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후, 국어사전을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어사전을 활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 그리고 현장에서의 교육방법과 입시 위주의 사회적인 문제와 교과서의 구성 편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일 수 있다. 학습자들의 어휘력 신장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학교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전을 활용한 학습은 그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의 검토와 함께 국어사전이 어휘 교육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나아가 학습자가 국어과 영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을 위해 국어사전을 이용한 어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최근 어휘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휘 교육의 위상과 관련하여 구분관(2011)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어휘 교육 성취 기준을 뽑아내어 살피고, 어휘부의 구조를 머릿속 사전과 연관하여 설명한 후 어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명선(2011)에서는 어휘 교육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비판하고 어휘 교육 내용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관규(2011)에서는 문법 교육의 시각에서 어휘 교육의 위상과 어휘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모두 어휘 교육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는 어휘 교육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가르쳐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한 연구들이다. 박영목 외(2005:205-207)에서 어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사용 영역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쳐져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sup> 이는 어휘 교육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가르쳐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는 대목이며 이 문제는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어휘 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는 김한샘(2012), 안찬원(2012), 윤구희(2012) 등이 있다. 김한샘(2012)는 어휘 교육을 위한 초석으로 초등학교들의 사용어휘 분석을 통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고, 안찬원(2012)는 이동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교의 어휘 교육 방법을 사전적 의미 학습 단계, 의미 관계 학습 단계, 문장 구조 학습 단계의 3단계를 통해 제시하였고 윤구희(2012)에서는 교과서의 낱개 어휘 선정과 뜻풀이의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어휘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로는 이충우(2005), 주세형(2005), 임지룡(2010), 이경수(2011), 박형우(2012), 전은주(2012) 등이 있다. 이충우(2005)에서는 어휘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닌 상태로 교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휘의 선정 그리고 어떤 교재를 선택하고 지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거시적인 틀에서 살피고 있다. 주세형(2005)는 어휘 교육이 읽기와 연계한 도구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어과 교육이 모여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어휘 교육이 발전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임지룡(2010)에서 흥미로운 점은 ‘삶을 위한 어휘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의 어휘 사용을 강조하며 어휘 교육의 기본 방향이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출발해야 한다는 언급이 눈에 띈다. 이경수(2011)에서는 초등학교의 어휘력 부족의 한 예를 보이며 프랑스의 어휘 교육과 비교하여 프랑스 어휘 교육의 모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어휘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형우(2012)에서는 어휘력 신장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나타나있는가를 언급하고 교육내용이 교과서에서 충실히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말하며 교과서의 구성과 함께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해 ‘어휘 교육 활동’의 예를 자세하게 들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전은주(2012)는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구분되어 있는 학년군을 중심으로 어휘 교육 내용을 살피며 기초 어휘를 초등학교 단위에서 완성하고 중학교 단위에서 어휘 능력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구조적인 면은 이해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일컫는 기초 어휘가 어떤 것이고 어휘 능력의 확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언급은 빠져있어 이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학교 어휘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국어사전의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장에서 다시 다룬다.

이 외 사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어휘 교육에 적용하려 한 연구로는 이현희·박미영(2009)가 있다. 전자사전의 특징을 통하여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사전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형태 정보, 문장구조, 의미정보, 담화·화용 정보의 4가지로 나누어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에서만이 아닌 중학교 교육에서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인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많은 연구들의 공통점은 대상, 교육, 방법,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대상, 교육, 방법, 평가의 각 부분에서의 언급 내용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고 점차 구체화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그 내용이 국어사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7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언급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다. 먼저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사전 활용 내용

(1)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sup>2)</sup>	영역 및 학년
낱말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b>[심화]</b> ○ 모르는 낱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는다.	듣기-4-(2)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다.	<b>[기본]</b> ○ 국어사전의 사용법을 안다. ○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그 뜻을 파악한다. <b>[심화]</b> ○ 국어사전에서 한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을 찾고, 그 낱말이 글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말한다.	읽기-4-(2)
용언의 기본형을 안다.	<b>[심화]</b> ○ 모양이 바뀌는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는다.	국어지식-4-(1)
(2)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영역 및 학년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li> <li>○ 용언의 기본형 알기</li> <li>○ 국어사전 찾는 방법 알기</li> <li>○ 국어사전의 효용성과 가치 이해하기</li> </ul>	문법-3-(1)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읽는 방법을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li> <li>○ 사전 활용하는 방법 알기</li> <li>○ 사전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습관 기르기</li> </ul>	읽기-4-(1)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의 차이 이해하기</li> <li>○ 맥락에 따라 낱말 선택이 달라짐을 이해하기</li> <li>○ 적절한 표현과 적절하지 않은 표현 찾기</li> <li>○ 어휘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태도 기르기</li> </ul>	읽기-4-(2)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구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구별하기</li> <li>○ 문장이나 글에서 단어의 의미 해석하기</li> <li>○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li> </ul>	문법-5-(2)

위의 <표 1>을 볼 때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첫 언급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에,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에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능과 문법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어사전의 활용이 국어과의 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sup>3)</sup>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각 영역의 성취기준 앞에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 제시한 영역 및 학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는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
- 3) 어휘 교육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닌 전 영역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휘 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국어사전의 활용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다. 국어사전은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해 국어과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지금보다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한다.

<표 2>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문법-3	읽기-4	문법-5
<p>- 국어사전</p> <p>-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들어 있는 언어 자료</p> <p>-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여러 종류의 문장</p>	<p>-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 다양한 사전</p> <p>- 어휘 선택이 적절한 글과 어휘 선택이 어색한 글</p> <p>- 인물, 대상,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p> <p>- 여정과 감상이 잘 나타난 기행문</p>	<p>- 반언어적 표현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언어 자료</p> <p>-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의 확인이 필요한 언어 자료</p> <p>- 여러 가지 시간 표현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p> <p>- 의사소통 상황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여러 가지 언어 자료</p>

7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에 국어사전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처음 편성되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의 문법 영역에서 국어사전의 사용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국어사전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학년이 앞당겨졌다. 또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서 국어사전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자세한 언급을 통해 7차 국어과 교육과정보다 내용 기술이 자세해졌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육되어야 하는 내용 역시 더 자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각 학년별로 나누어 제시되던 내용들이 2개 학년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새롭게 편성된 것이다.<sup>4)</sup>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사전을 언급하는 내용은 [3-4학년군]의 문법 영역에 편성되어 있다.<sup>5)</sup> 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문법-4-(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4)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는 선택 과목 재편성만이 있었고 추가 개정된 2011 개정 교육과정 역시 9학년까지의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내용이 같다. 9학년을 넘어서는 고등학교 범위는 본고의 내용에서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5)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군은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1-3학년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국어사전의 언급 내용이 [3-4학년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국어 능력의 신장을 위한 기초로 국어사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풀어 설명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명확하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국어사전 활용의 문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국어사전의 정의는 ‘국어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의미, 주석, 어원, 품사, 다른 말과의 관계 따위를 밝히고 풀이한 책’이다. 정의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의미와 주석, 어원과 품사, 말의 관계 등은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높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또한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국어사전은 국어에 대한 방대한 정보의 집합체이자 기초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어사전을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 기준들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기준들이 존재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사전의 활용이 가능한 내용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	영역 및 학년군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읽기-[5-6]-(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문법-[5-6]-(1)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법-[5-6]-(2)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문법-[5-6]-(3)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문법-[중1-3]-(6)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문법-[중1-3]-(8)

위 <표 3>은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국어사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활용이 가능한 내용 성취 기준을 꼽아본 것이다.<sup>6)</sup> 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모든 항목에 있어 국어사전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직접적인 언급을 해 주지 않으면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필요 내용만 반영되기 때문

6) <표 3>에서 제시한 6가지 외에도 살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또한 기능 영역에서 부수적으로 사전을 참조한다고 할 때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을 예로 들지 않고 교육과정만을 살피며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현 상황에서는 그 범위가 한정된다. 특기할만한 것은 꼽아본 6가지 중 5가지가 문법 영역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기능 영역 이외에 문법 영역에서도 독자적으로 사전을 활용한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런 이유로 문법-4-(4)의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는 해당 단원과 관계된 교과서의 내용 학습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어사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교과서의 날개 어휘는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점을 생각해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 지금보다 세밀해져야 한다. 지침이 더 세밀해질 수 없다면 각 학년군에 제시하고 있는 ‘국어 자료의 예’를 더욱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다음은 국어 자료의 예(3-4학년군)이다.

#### 국어 자료의 예(3-4학년군)

##### ○담화

-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접하는 안내의 말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교훈적이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야기
- 친구,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과 나누는 대화
- 자신이 조사하거나 친구들과 협의한 내용을 다룬 발표 자료

##### ○글

-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문단이나 짧은 글
-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글
-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난 글
- 글쓴이의 의견과 이유가 드러나는 글
- 글쓴이와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생활문, 편지
-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 잘 나타난 여러 가지 글, 감상문, 기행문
- 문자, 사진, 동영상, 그림 등이 통합된 글

##### ○문학 작품

- 운율과 이미지가 돋보이는 동시나 노래
-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옛)이야기나 극
-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옛)이야기
- 일상의 고민이나 문제를 다룬 동시나 동화
- 감성이 돋보이거나 재미가 있는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위의 ‘국어 자료의 예’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교훈적이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글쓴이의 의견과 이유가 드러나는 글’ 등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이상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는 항목은 없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교훈적이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글쓴이의 의견과 이유가 드러나는 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과정 안에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나 예시 등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가적인 요소가 자세히 검토되고 기술된다면, 사전을 활용한 교육방법이나 학습방법 역

시 그에 근거하여 더 자세히 제시될 수 있다.<sup>7)</sup>

둘째, 초등학교 단위에서는 초등국어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초등국어사전은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들을 기본으로 집필된다. 사전을 찾는 방법과 같은 기초적인 능력부터 새로운 어휘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교과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어사전을 활용한 어휘 교육은 국어과의 전 영역에서 가능하다. 문법과 문학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이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상태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어휘 교육이란 틀 안에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이 있다면, 어휘 교육의 명확한 기준과 목표, 내용, 방법,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에의 접근법을 세밀하게 책정할 수 있고 그 후에 전문성이 획득될 수 있다.

넷째, 교과서의 텍스트와 관련하여 낱개 어휘를 제시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단위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는 것은 힘든 측면이 있다.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국어사전을 활용하게 되는데 초등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어휘나 사전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어휘를 낱개 어휘로 달아주어 의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sup>8)</sup>

#### 4. 맺음말

어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점차 체계가 잡혀가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국어사전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국어사전과 관련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어휘 교육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어과의 전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어과의 전 영역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각 영역에서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는 교사의 성향에 따라 가르쳐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휘 교육에 대한 논의와 영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어휘력의 향상은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란 취지에 부합한다. 개인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매체의 발달은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사전의 활용에도 분명한 변화를 주었다. 종이사전을 이용하기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사전의 이용 빈도가 훨씬 높다. 이러한 변화 역시 학습자들의 여건에 반영해야 하며 초등국어사전을 생각해 볼 때, 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사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국어사전을 활용한 어

7) 교육과학기술부(2009)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보면 과거의 교육과정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자세히 풀어준다면 좋을 듯하다.

8) 다만 교과서가 선행된 후 개별 출판사에서 초등국어사전의 집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순서를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를 위한 사전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준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여러 여건상 힘든 일이다. 따라서 초등국어사전 집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시하고 그를 근거로 초등국어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휘 교육을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기보다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국어과에서 국어사전을 활용한 어휘 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를 기약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5].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5].
-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 김한샘(2012), “어휘 교육을 위한 사용 어휘 분석 연구”, 『겨레어문학』 48.
- 박영목 외(2005), 『국어교육론 2 : 국어 문법·기능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형우(2012), “국어 어휘 교육 개선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46.
- 신명선(2011),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 안찬원(2012), “의미 관계 중심의 초등 어휘 교육 방법”, 『한국어문교육』 11.
- 윤구희(2012), “중학교 국어교과서 낱개 어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국어교육』 138.
- 이경수(2011), “초등학교 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소고”, 『국어교육학연구』 40.
- 이관규(2011),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 이충우(2005), “국어 어휘 교육의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4.
- 이현희·박미영(2009), “어휘 교육을 위한 전자사전의 활용 방안”, 『새국어교육』 83.
- 임지룡(2010), “국어 어휘 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 33.
- 전은주(2012), “중학교 어휘 교육의 위상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3.
- 주세형(2005), “국어과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독서연구』 14.

## ■ 토론

# “어휘 교육에서의 국어사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서정미(안양대)

본 논문은 국어사전이 지닐 수 있는 폭넓은 활용 가치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삼아 교육과정의 검토와 함께 국어사전이 어휘 교육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나아가 학습자가 국어과 영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을 위해 국어사전을 이용한 어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토론자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어휘 교육에서의 국어사전 활용방안과 관련한 주제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가적인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문의 핵심 제안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1. 본문에서 국어사전 활용을 하는 학습자 대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다. 먼저 학습자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초중학생인지 궁금하다. 드러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국어사전을 활용한 어휘 교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표 1>에서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첫 언급이 3학년에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능과 문법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국어사전의 활용이 국어과의 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하였는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3. 본문의 연구를 토대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 지금보다 세밀해져야 하며, 지침이 세밀해 질 수 없다면 각 학년군에 제시하고 있는 ‘국어자료의 예(3-4학년군)’를 더욱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문에서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부가적인 요소보다 교육과정 안에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나 예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대안인 구체적인 부가적인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실례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 부가적인 요소에 근거한 사전을 활용한 교육방법이나 학습방법을 더 자세히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예를 들어주기 바란다.

4. 어휘 교육이란 틀 안에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이 있다면, 어휘 교육의 명확한 기준과 목표, 내용 등이 설정되어야 국어사전을 활용한 교육이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자가 생각하는 어휘 교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 보조사 ‘만’을 활용한 문식성 향상 방안

윤구희(서울사대부중)

## < 차례 >

1. 들어가기
  2. 보조사의 용어와 개념
  3. 보조사 ‘만’의 의미
  4. 보조사 ‘만’의 교육적 활용
  5. 나오기
- 참고문헌

## 1. 들어가기

문법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 중 하나는 문법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이다. 국어문법이 가진 독자적인 지식체계와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고력 신장에 기여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문법이 국어교육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어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국어교육 안팎의 압력은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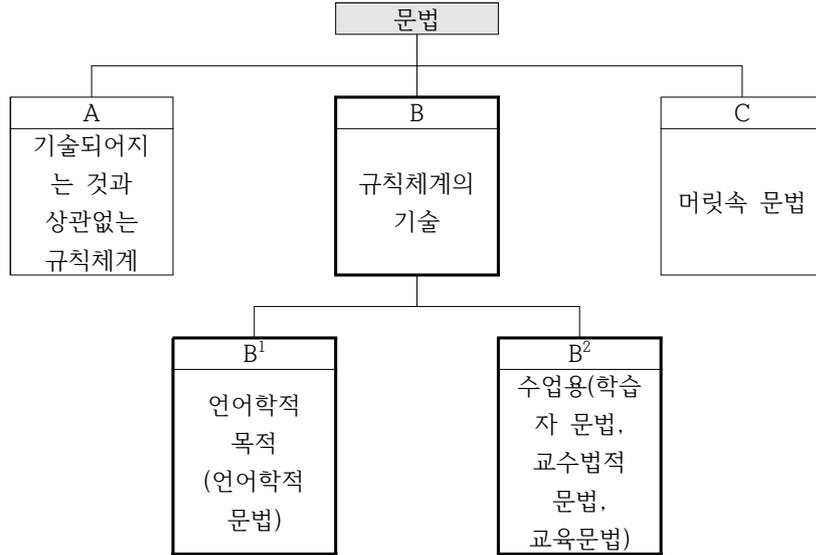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문법 교육 방법 또는 교수법(teaching method)으로 귀결된다. 교수법에서 ‘method’는 그리스어의 meta(따르다)와 hodos(길)에서 유래했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하게 따라야 하는 길을 의미한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길, 즉 방법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사들이 했던 방법과 해석이 충분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다(문법교육 또는 국어교육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효율적이 못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법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듀이(J.Dewey)의 말처럼 목적 달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해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행위가 방해받을 때 이를 문제 상황이라고 이를 지력(사고)에 의해서 극복하는 원리를 방법이라 한다. 즉, 방법이란 주어진 수단에 의해서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 수단과 목적을 연결 짓는 원리인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문법이 문법교육의 목표 또는 국어교육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문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교수법을 통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교수법은 무엇(What)을 어떻게(How)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집중된다.

모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5> 문법의 분류(Hermann Funk, Michael Koenig(1991:12))



언어의 규칙과 구조가 기술된 문법 B는 목적에 따라서 B1과 B2로 나눌 수 있다. B1이 언어학적인 문법이라면, B2는 언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B1을 이론문법이라고 한다면 B2는 학교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법은 이관규(2012)에서 언급했듯이 통일성과 실용성을 주된 성격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실용성은 실제 언어사용을 위한 문법으로 유용성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문법의 성격과는 달리 교육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B1의 영향이 더 큰 편이다.

학교문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있어 다음의 3가지가 근거로 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언어체계상의 근거로 언어체계상 무엇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품사 단원에서 체언 그리고 그 중에서 명사를 가장 앞세우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수법적 근거이다. 이는 교수방법적인 측면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중학교 품사 단원에서 교수·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서술격 조사가 배제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실용적인 근거이다. 학습자가 언어 사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때 언어 사용은 듣기·말하기, 읽기·쓰기와 같이 말과 글을 활용한 이해와 표현활동을 의미한다.<sup>1)</sup>

하지만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는 셋째 기준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B1의 이론문법의 영향으로 첫째 기준에 따라 교육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학교 문법의 내용 중 하나가 조사 체계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국어 교육에서 ‘조사’는 품사 단원<sup>2)</sup>과 단어의 개념<sup>3)</sup>을 학습할 때 언급되지만 그 이외에

1) 최근에는 이러한 표현과 이해 활동이 매체의 발달로 단일 양식이 아닌 복합 양식으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표현과 이해 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학교 1학년에서는 9개의 품사 가운데 하나로 조사를 배우지만 다른 중요 품사에 비해 비중이 낮아 학습자들이 세세한 조사의 의미를 교수·학습하기는 어렵다.

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품사는 중요한 문법의 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체계이며, 이러한 분류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학습자들은 무엇을 배웠지만 정작 그 학습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학습자의 경우 품사에서 첫째 기준에 따라 주로 체언과 용언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언, 독립언과 같은 내용은 부수적으로 다루어져서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조사 중에서 ‘이/가’, ‘을/를’과 같은 격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한 것이기에 인식은 하고 있지만 보조사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의미를 다 알기에는 수업 부담으로 인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격조사나 보조사로 나눔에 대해서 배우고 보조사의 각각의 의미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지식 차원의 교수·학습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중학교 문법 교육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보조사 ‘만’을 대상으로 실용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교육의 내용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보조사의 용어와 개념

### 2.1. 보조사의 용어

우리 국어의 보조사는 연구자들에게 따라 도움토씨, 보조사, 후치사, 한정사 등으로 불렸다. 용어와 관련된 문제는 보조사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로 학계에서 초기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분명한 결론 대신 관습적으로 쓰이던 ‘보조사’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오늘날 학교 문법에서 ‘보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최현배가 사용한 ‘도움토씨’<sup>4)</sup>를 한자어 용어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교 문법에서는 ‘보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박영순(1999:210)의 주장처럼 ‘보조사’라는 의미가 ‘조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만 실제 조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인 의미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사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격조사’가 격의 기능을 ‘접속 조사’가 문장 성분 사이의 연결이라는 기능을 하는데 비해서 ‘보조사’가 조사를 돕는 기능이 본연의 기능이며 이를 명칭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임동훈(2002:171)의 언급처럼 ‘보-조사’로 쓰이기보다 ‘보조-사’의 의미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널리 쓰고 있는 ‘특수 조사’라는 용어는 격조사 중심에 놓고 생각했을 때 격조사가 체언과 결합하고 하나의 격으로만 결합한다는 양상으로 그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평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 일반적인 것이고 무엇이 일반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조사 체계의 전반적인 분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데 몇몇 격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사들이 보조사라는 분포적 특성

3)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단어 형성법을 위해서 단어의 개념을 배울 때 우리말에서 자립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조사만은 단어로 인정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이는 단어의 개념과 상충되는 예외로 조사를 배우지만 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접할 기회는 없다.

4) 최현배(1941)에서 도움토씨의 개념으로 “월의 成分의 成立에 關하지 않고 다만 그 成分의 뜻을 돕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을 반영한다면 이를 특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임동훈(2004:127)의 말처럼 문법화의 과정이 보조사에서 격조사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격조사가 특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면에서 특수조사라는 용어를 학교문법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사라는 용어는 Yang(1972)이 ‘delimiter’라는 용어를 쓴 것에서 유래하는데 이 용어는 보조사가 문법 기능의 표시와 관계없이 선행어를 의미적으로 제약한다는 면에서 사용되었다. ‘한정사’라고 하면 조사의 의미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한정조사’로도 쓰인다. 보조사가 선행어의 의미 제약 또는 한정 의미의 의미를 분명하지만 다수의 보조사들 ‘도’, ‘커녕’, ‘마다’, ‘인들’, ‘이랑’ 등에서는 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한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 외에도 후치사, 첨사 등의 용어로도 불리지만 명칭이 문법적 개념과 기능을 포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격조사에 대응되는 ‘비격조사’ 또는 문장에서 의미를 더해 준다는 면에서 ‘의미 조사’ 등으로 불리지만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 차원에서 보조사의 활용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용어를 설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어 학교 문법에서 쓰이고 있는 ‘보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2. 보조사의 개념과 특성

조사는 문장 성분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로 정의하고 학교 문법 차원에서는 격조사(case marker)와 보조사(delimiter), 접속조사로 구분한다. 이중에서 격조사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들이 문장의 서술어와의 관계를 맺으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접속 조사의 경우에도 성분과 성분의 관계를 나타낸다. 보조사의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만 아니라 문장 밖에서 관계되는 내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관규(1999:293)에서 “문장 안에 있는 일정한 성분과 문장 밖 일정한 내용과의 화용적 관계를 나타내는 허사”라고 보조사를 규정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2가지이다. 첫째, 다른 조사가 문장 안의 관계로 한정지을 수 있지만 보조사의 경우 그것이 쓰인 문장 이외에 또다른 문장과 관련을 맺으며 이 문장은 해당 문장 밖에 존재한다. 둘째, 보조사를 통사적 차원이 아닌 화용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그 의미를 분석하게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측면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선혜(2009:23)는 기존의 보조사에 대한 판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보조사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지을 수 있다.

### (1) 보조사 식별 기준

- ㄱ. 선행어의 범주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 ㄴ. 일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 ㄷ. 보조사 뒤에는 격조사의 쓰임이 자유롭지 않다.
- ㄹ. 어휘-의미론적인 제약이 없는 편이다.

(1)에서 보듯이 보조사의 특징으로 그 결합 양상과 함께 일정한 의미를 더해준다는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사가 다양한 성분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더하고자하는 문법적 기능에

주목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한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기존의 방식처럼 하나의 단어나 어휘로 정의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동훈(2004:126-127)은 보조사를 ‘특수조사’라 하며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

- ㄱ. 어느 문장 성분과도 결합할 수 있어 통사적 관계의 표시와 무관하다.
- ㄴ. 선행어의 통사 범주가 명사구로 제한되지 않는다.
- ㄷ. 선행어의 통사 범주에 관계없이 잠재적 대립 관계에 있는 자매 항목<sup>5)</sup>들을 배경으로 하여 선행어를 한정한다.
- ㄹ. 격조사의 의미가 무표적이던데 비해 특수조사는 그 의미가 유표적이다.

(2 ㄴ)에서 드러나듯이 선행어의 통사 범주가 명사구로 제한되지 않음은 앞의 이관규(1999)과 일치하는 논의로 보조사가 단순히 선행 명사구의 의미를 제한한다는 일반적인 보조사에 대한 서술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조사의 의미역 또는 작용역의 범위가 문장 전체 또는 그 문장의 경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2 ㄷ)에서 보듯이 그 의미 설정 관계에 있어서 해당 문장에서 국한되지 않고 잠재적 대립 관계 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자매 항목을 전제<sup>6)</sup>하거나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사를 통한 의미 파악은 단순히 해당 문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그 문장을 넘어서 전제된 내용까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2 ㄹ) 격조사에 비해 의미를 나타내는 유표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필자 또는 화자의 태도가 이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의 의미 파악은 필자 또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 3. 보조사 ‘만’의 의미

널리 알려진 보조사 ‘만’의 의미는 ‘단독’의 의미이다. 학교 문법 차원에서는 앞에 있는 체언에 대해 ‘단독’이라는 의미를 더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첫째, 보조사 ‘만’이 선행 체언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의미로만 제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행 체언 이외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설명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의미의 범주를 ‘단독’이라고 제한했지만, 보조사 ‘만’의 의미를 단순히 ‘단독’으로만 한정시킬 수는 없다.

일찍이 Yang(1973)은 ‘만’의 의미를 ‘유일’(unique)로 보았는데 이를 Yang(1993:243)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Semantics of *man*

---

5) ‘sister member’를 번역한 말로 ‘자매항’, ‘자매 항목’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자매 항목’으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6) 화용론에서 전제(presupposition)는 화자가 발화에 우선하여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Yule, 1995:37)

Presupposition : Registered or expected sister member exist (i. e. the non-uniqueness of man-attached element).

Assertion : (1) The *man*-attached element is unique (i.e. exclusive)

(2) The *man*-attached element is the limitation

(2) The *man*-attached element is exactly defined.

Implication : (1) Registered sister members have the opposite value

(for 'only' reading and 'exactly' reading)

(2) Higher members have the same value as the *man*-attached element has (for 'limitation' reading)

(3)에서 ‘만’의 의미를 전제(前提, presupposition), 단언(斷言, assertion), 함의(含意, implication)<sup>7)</sup>로 의미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유일’로 정의했다. 또한 ‘만’은 자매항(sister member)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자매항이 반대되는 가치(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함의되고 있다.

성광수(1977:183-186)에서는 흔히 ‘單獨’, ‘唯一’을 뜻으로 제한할 경우 다음과 (4)의 경우에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고 봤다.

(4) ㄱ. 먹어만 본다.

ㄴ. 빨리만 간다.

‘만’에는 동사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단독’, ‘유일’의 의미로 할 경우에는 (4)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를 ‘강조(強調)’로도 볼 수 있으나 강조는 모든 보조사의 일반적인 기능이기에 때문에 이를 ‘만’의 의미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고, 그 의미를 ‘제한(制限)’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그리고 (5), (6)에서 보듯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제시된 보조사 ‘만’은 (5)와 (6)을 별개의 보조사로 취급하고 있다.

(5)

만<sup>14</sup> 조사

1.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2.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3.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4.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5. (‘-어도, -으면’의 앞에 쓰여)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6)

만<sup>15</sup> 조사

‘마는(앞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내는 보조사)’의 준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 함의는 발화에서 주장된 것로부터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가 아닌 문장이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화자의 신념과는 상관없는 문장의 논리적인 문제이다. (Yule, 1995:37-38)

(5)의 보조사의 경우에도 그 의미를 ‘한정’, ‘강조’, ‘기대’, ‘도달’, ‘조건’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6)의 ‘만’은 보조사 ‘마는’의 줄임말로 보고 그 의미를 앞말 선행하는 항목과 뒤에 나올 항목 사이에 ‘어긋남’을 의미로 삼고 있다.

앞 장의 논의에서 보조사가 단순히 해당 문장 차원에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따라서 기존의 ‘만’에 대한 논의처럼 특정 선행구와의 관계나 의미 한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의 경우 내용 기술에 있어 선행구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7) 노미숙 외(2013:124)

★ 조사에 따른 의미 차이 이해하기

③ 다음 문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들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

- 나도 춤을 추고, 너도 춤을 춘다.  
춤 추는 사람에 ‘나’가 포함됨.
- 나만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  
춤 추는 사람이 ‘나’로 한정됨.
- 너마저 춤을 추는구나!  
‘너’가 마지막까지 춤을 추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춤을 추고 있음.



(7)에서 ‘만’은 선행하는 ‘나’와 결합하여 춤을 추는 행위를 행동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나’의 자매항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행동과 대조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이해가 될 수 없다. 특히 (7)의 경우 교사용 교과서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사 역시 자매항의 존재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 한정 의미로만 교수·학습될 가능성이 높다.

(8) 박경신 외(2013:175)

② (나)의 밑줄 친 ‘물’ 대신에 ‘음/는, 도, 만, 까지’를 넣어 보고,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정수는 농구 ( ) 잘한다.

(8)에서는 격조사를 보조사로 바꾸면서 개별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보조사의 의미 속에서 ‘만’의 의미를 인식하는 학습방법은 효과적이지만 다만, 해당 문장의 경우 ‘농구’와 결합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매항의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만’의 전

제로 자매항의 존재가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장 구조 때문에 ‘만’이 가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형식의 예문이다. 앞서 (7)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자매항을 가질 수 있음을 문장으로 보여주었지만 (8)에서는 이것이 배제되어 제대로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 4. 보조사 ‘만’의 교육적 활용

앞에서 제시된 ‘만’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세분화되고 복잡한 지식을 아는 것은 국어학자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국어의 조사는 적게는 70여 개부터 많게는 200여 개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보조사로 이들의 의미 낱말을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사를 학습하는 것이 문식성으로 대표되는 표현,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학교 단계에서 보조사는 단순한 품사 분류 체계의 한 부분이 아닌 당당히 그 교육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2가지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만’은 선행 항목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만’은 자매 항목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표현과 이해 활동은 결국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이때 필자 또는 화자는 자신의 머릿속 생각 모두를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고 이를 독자나 청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독자나 청자는 언어로 표현된 것 이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추론(inferenc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는 전제(premiss)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며 시간과 공간과 같은 맥락에 상관없는 개념으로 쓰였으나 ‘가지고 들어오다(carry in)’ 추론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 시간, 공간 등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도입해내는 과정이다. (이성범, 2001:30-31)

이해의 과정에서 ‘만’이라는 언어적 단서에서 화자나 필자가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낼 때 제대로된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는 Bloom이 ‘이해하다’를 ‘해석하기, 예증하기, 분류하기, 요약하기, 추론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의 인지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Anderson, 2001:84-85) 추론하기는 일련의 예나 사례에서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듣기나 읽기의 이해 과정에서 청자나 독자가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보조사 ‘만’이 사용된 예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제시된 정보로부터 ‘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추론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때 유용한 개념이 ‘초점(forcus)<sup>8)</sup>이다. 초점화의 층위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 차원에 모두 걸치며, 담화의 중심 내용으로서의 주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음운론과 관련하여서는 음운탁립(prominence) 현상, 형태론에서는 핵음절, 문장론(통사론)에서는 화제-평언 구조를, 담화, 텍스트

8) Halliady(1976)에서 “어디에 메시지의 주된 요점이 놓이는가에 대한 화자의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에서는 주제 (theme) 와 관련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특정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표적으로 보조사 ‘만’을 사용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 또는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초점화는 주제적 효과의 제시에 있기 때문이다. 주제적 효과(서혁, 1996:108)란 화자 또는 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해당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한 인상적 효과이다. 여기에는 의사 교환의 경제성, 신속성, 강조성, 인상적 표현의 원리가 작용한다. 인상적 표현의 원리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수사적 장치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조사 ‘만’은 이런 주제적 효과를 위한 초점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9)

- ㄱ.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
- ㄴ.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머리가 멍했다.
- ㄷ.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ㄹ. 어머니는 할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 ㅁ.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 ㄷ. 청군이 백군만 못하다.
- ㅁ. 안 가느니만 못하다.
- ㅂ. 너무 피곤해서 눈만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 ㅅ. 할아버지는 나만 보면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리셨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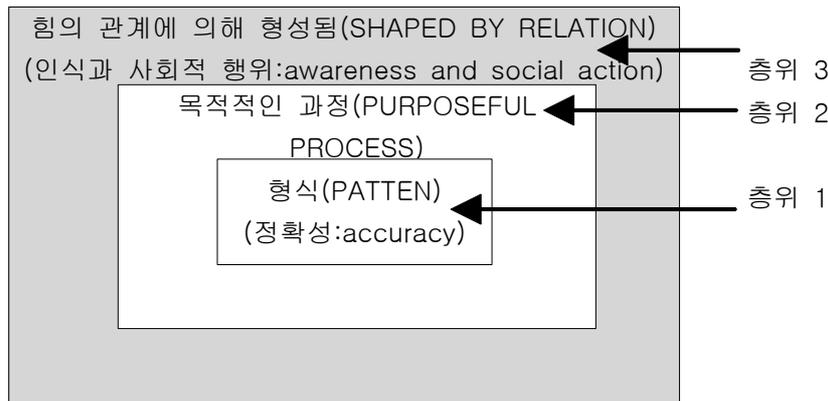
- ㄱ. 먹고는 싶지만 돈이 없다.
- ㄴ. 집에서 쉬겠다더니만 웬일로 나왔니?
- ㄷ.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다.

(9), (10)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만’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초점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초점은 ‘만’이 결합하고 있는 항목을 초점화시킨다. (9 ㄱ)에서 ‘아내는 웃다’라는 항목에 ‘만’이 결합하여 이 사태에서 ‘아내가 웃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담화·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화제-평언의 관계에서는 화제가 아닌 평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화제가 일종의 구정보라면 평언 즉 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결합 관계에 있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학습함으로써 읽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때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9 ㄴ)에서 보듯이 ‘만’에 결합하고 있는 항목이 ‘잠’이라고 할 때 그 자매 항목으로 다양한 것을 상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공부’ 등의 항목들이 있을 때 고영근(1976)의 분류처럼 표별(表別)이라고 하여 같은 범주에 드는 자매 항목들과 다른 가치가 있음을 말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 중에 다른 항목은 배제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앞서의 초점화 기능으로 ‘잠’이라는 행위가 전경화되어 앞서 나온다면 나머지 자매 항목들이 배경화되어 감춰지거나 잠자는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들이 전제되어 있어 또다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 ‘만’의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에게 ‘만’과 결합하는 항목이 전경화되어 선택된 것이며, 전경되지 못하고 뒤에 깔려 있는 자매 항목들을 설정하고 이 항목들이 배제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언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Ivanič, 1990:126;김은성, 2005:327에서 재 인용>

<그림 1>에서 보듯이 언어를 인식한다는 것은 층위 1차원에서 정확성만을 따져서는 안 되면 층위 2 차원에서 보듯이 그 목적과 상황·맥락에 맞게 이해하며 결국에는 층위 3단계로까지 나아가서 사회·문화적 맥락과 힘의 관계까지를 고려하는 비판적 언어 인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문식성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식성에서도 비판적 읽기를 강조하는데 ‘비판적 읽기 또는 문식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론의 있을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미세한 단어, 문장의 차원을 넘어서 그 텍스트가 유통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까지를 고려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 ‘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결합하는 항목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축어적 이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의미를 문장 밖으로 연결시켜 그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함축적 읽기’의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보조사 ‘만’에 필자 또는 화자의 의도를 통해 초점화시켜 전경화하는 항목과 배경화되어 배제되는 항목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비판적 읽기’의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 5. 나오기

국어 보조사를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하여 그 의미 영역이 단순히 선행 체언에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이라는 제한적 의미가 아닌 보다 확대된 의미를 의미론적, 화용론적 차원에서 확인했다. 이를 통해 단편적 지식으로 학습된 보조사라는 지식이 1차적으로는 학습자가 정확한 이해와 표현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담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비판적 읽기와 표현의 차원인 비판적 문식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보조사인 ‘만’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교육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문식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김은성(2005), “비판적 언어 인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23-355쪽.
- 노미숙 외(2013), 『중학교 국어』1권, 천재교육.
- 박경신 외(2013), 『중학교 국어』2권, 금성출판사.
- 박영순(1999), 「국어의 격과 조사»,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 서 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광수(1977), “國語 助辭에 대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선혜(2009), “국어 보조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관규(1999), 「조사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 이관규(2012), 『학교문법론』제3판, 월인.
-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학교문법론』,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제16집, 한국어학회, 149-182쪽.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國語學』제34집, 국어학회, 119-154쪽.
- 임동훈(2010), 「<<國語學>>50년- 통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國語學』제57집, 국어학회.
- 임지룡 외(2010), 『문법 교육론』, 역락.
- 채 완(1998), 「특수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 월인.
- 최동주(1997), 「현대국어의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國語學』제30집, 국어학회.
- 최재웅(1998), 「한국어 특수조사 ‘-만’:형식의미론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3, 한국어 의미학회.
- 최호철(1999), 「조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 최현배(1941), 『우리말본』, 정음사.
- 洪思滿(1979), 「조사 ‘도’의 의미분석」, 『語文學』제38집. 125-157.
- 洪思滿(1979), 「조사 ‘만’의 의미분석」, 『동양문화연구』vol.6, 23-46.
- 황화상(2003),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國語學』제42집, 국어학회.
- Hermann Funk.Michael Konenig(1991), Grammatik lehren und lernen, Goethe-Institut.; 권영숙(2009), 문법 가르치고 배우기, 한국문화사.
- George Yule(1995), Pragmatics, Oxford Unierity Press.; 서재석 외 옮김(2001), 『화용론』, 박이정.
- Lorin W. Anderson(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New York:Longman.; 강현석 외 옮김(2005),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아카데미프레스.

## ■ 토 론

# “보조사 ‘만’을 활용한 문식성 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문

양세희(전일중)

문법 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그리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문법 교육에서 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는 이론 문법과는 다른 내용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문법 교육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들이 있어 몇 가지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1. 먼저 거시적으로 발표자께서 주장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학교 문법에서 보조사 ‘만’을 가르칠 때 ‘만’이 결합하는 명사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언어 사용을 위한 문법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매항까지 밝혀서 ‘만’이 초점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1. 이러한 방법이 문식성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발표자께서는 문장 차원에서 ‘만’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 담화 차원에서의 ‘화자/필자의 의도’와 어떻게 관련되고, 문식성 향상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1.2. 아마도 문식성 향상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문법 교육에서 언어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 제안한 방법이 <그림 1>에서 언어를 목적적인 과정, 인식과 사회적 행위로까지 인식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정보 전달이나 설득과 같은 언어 사용의 목적이 발표자께서 제안한 보조사 ‘도’를 가르치는 방법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1.3. 발표자께서는 학교 문법이 이론 문법에 기대어 내용이 선정된 점을 비판하였는데, 보조사 ‘도’의 자매항을 가르치고 초점화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이론 문법과 차별화되었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 내용들을 가르치면 이론 문법을 더 가져오게 되는 형식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실용적인 근거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안한 방법이 딱히 화용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고 화용적 접근이 곧 언어 사용과 직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4. (7)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나만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 이 문장에서 자매항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라는 명제가 있어 ‘만’의 기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은 격조사를 보조사로 바꾸었

을 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자매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제시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매항과 같은 개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분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3장에서 보조사 '만'의 의미를 기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논의들을 제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만'의 다양한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본 연구의 큰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발표자께서는 “추론의 과정을 통해 '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보조사의 개별 의미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합니다.

2.2. 발표자께서는 화용론에서의 '추론'과 Bloom의 '이해하기'에서 '추론'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줍니다. 이 둘은 변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론'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청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일방적 과정이 아니고 화자와 청자의 협력의 원리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비해 Bloom은 인지적 과정으로서 추론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 층위가 다릅니다. 만약 다른 층위의 것들을 연결하고자 한다면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그 설명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3. 발표자께서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용어들을 혼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담화 차원에서의 초점과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논리학에서의 '함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4. 주제(theme), 화제(topic), 정보 구조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 논의의 전개에 틈이 있어 보입니다. 화제가 단지 구정보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5. (9)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나 '백군만 못하다'와 같은 경우는 초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자는 강조의 뜻을, 후자는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발표문을 읽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의 부족함으로 발표문을 오독하였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부

# 제4 분과 발표



#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문법 단위

이봉원(나사렛대)

< 차례 >

1. 도입
  2. 기본 문법 단위
  3. 문장 구성 단위
  4. 의미를 고려한 단위
  5. 결론
- 참고문헌

## 1. 도입

이 글은 의사소통 장애 관련 분야에서 각종 언어적 분석을 위해 사용해 온 단위들을 재검토하고 한국어 특성에 적합한 분석을 위한 단위의 요건과 전반적인 틀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소통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여러 문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기반 지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육 문법을 다소 기계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분석에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어병리학 전문가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견해 내는 기준으로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활용한다. 사용된 언어에 드러나는 다양한 범주의 특성을 통해 해당 화자의 의사소통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치료의 목표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언어병리학 전문가들은 언어학적 지식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원인과 현상으로 실현된다. 그것이 음성이나 조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나 단어 기억의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다.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에 이르는 언어학의 전 분야에 걸친 기본적 지식과 적용 능력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렇게 도구적 차원에서 필요한 언어학적 지식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료한 형식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의 언어발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면 동일한 연령이나 동일한 언어 수준을 갖고 있는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척도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신뢰성을 보증하기 어렵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정한 수치로 언어적 특성이 계량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로 나타난 특성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평균발화길이((MLU: Mean Length of

Utterance)와 같이 일정한 양의 발화 안에 포함된 문법 단위의 양적 특성이다<sup>1)</sup>. 평균발화길이는 각 발화<sup>2)</sup>에 나타난 문법 단위의 수를 총 발화의 수로 나눈 것으로, 예를 들어 평균형태소길이이라면 각 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수를 모두 계산하여 발화 단위의 수로 나누면 각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를 알 수 있다. 평균발화길이는 위와 같은 경우처럼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평균형태소길이에 따라 아동의 문법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1.75-2.25-2.75-3.50-4.00의 5단계)(김영태 2002:236), 어떤 아동의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가 특정 연령대의 아동이 보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법 단위의 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려면 문법 단위에 대한 정밀한 규정과 분석 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할 것이다. 발화에 대한 형태소 분석이 연구자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완수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문법 단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어 분석이나 어절 분석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특히 언어학 전문가가 아닌 언어치료사들이 발화의 분석을 시도할 때에는 분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결과 역시 여러 가지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측정 가능한 문법 단위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흔히 문법 단위로 간주되는 것은 기호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단위이다. 즉 형식에 대한 의미를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 등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이용하는 단위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이 제공해 온 이들 문법 단위의 개념이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그대로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세형(2004)에서 지적하였듯이 학교 문법의 관점이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원리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언어 단위에 대한 기능적 차원의 재규정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목적에 따라 형태소나 단어, 문장과 같은 친숙한 문법 단위 외에도 한국어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단위를 새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법 단위가 계량화의 대상이며, 진단과 평가의 도구라는 점에서 정의의 명확성만 확보된다면 교육 문법의 틀을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분석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언어병리학 연구들이 교육 문법의 틀을 쉽게 벗어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문법 단위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의 동기가 된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에서 적용되어 온 언어 단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발화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틀은 서구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실제로 이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언어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1) 이들 단위는 대개 자발화 분석에서 활용된다. 자발화란 언어사용자가 일상적 상황에서 산출하는 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언어병리학 분야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언어 연구자들은 'spontaneous speech'나 'spontaneous utterance'를 '자유 발화' 정도로 번역할 것이고,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는 '자연 발화'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모두 어떤 상황 하에서 화자가 자연스럽게 산출한 발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발화 분석은 표준화된 정적 측정도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언어지표를 잘 보여주며, 언어사용자의 표현 언어를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임상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정부자 2013:40).

2) 발화는 '화자의 의도가 운율적으로 완결된 단위'이며 말차례, 억양구 경계 성조(종결 억양), 휴지, 종결 어미, 통사적 응집성, 의미적 응집성 등의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 발화는 문어의 문장과 비슷한 단위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구어 분석에서는 불명료하거나 미완성인 부분이 많으므로 세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김수진 외 2011:93).

## 2. 기본 문법 단위

형식과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기호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 즉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minimal meaningful unit)라고 규정되는 형태소(morpheme)는 최소의 문법 단위이다. 어느 학문이나 최소의 단위를 규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형태소는 이런 점에서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화에서 형태소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형태소를 찾기 위해서는 더 큰 문법 단위인 어절이나 단어를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즉, 더 큰 문법 단위에 대한 분석 이후의 2차적 분석을 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 분석의 기본 문법 단위를 형태소로 설정하는 것은 적어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매력적인 전략은 아니다. 분석을 수행하는 주체가 언어학자가 아니라 임상 현장의 언어치료사들이기 때문이다. 형태소 분석의 수준과 기준은 목적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같은 발화에 대한 몇 가지의 다른 분석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어학자가 아닌 임상가에게 형태소 분석은 때로 매우 난해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이봉원(2013)에서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형태소 분석이 몇 가지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언어발달과 같이 구어 중심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 분야 연구의 특성상 형태소 분석의 기준이 상당히 자세하게 수정되어 왔지만 적용의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 (1) 아동언어의 예외적인 형태소 구분 방법(김영태 2002:245)

- ㄱ. 성인 말에서는 의존형태소로 이루어진 한자어도 개별형태소로 분석하지만, 아동 말에서 사용된 한자어는 개별 어휘를 의미 있게 사용한 예가 없는 한, 그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한다.(학교 : 형태소 1개)
- ㄴ. 성인 말에서는 줄임말의 경우 그 본디말로 바꾸어 형태소를 분석하지만, 아동 말에서 줄임말은 각 어휘의 개별적인 사용이 관찰되지 않는 한,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한다.(년 : 모든 발화 자료에서 '년'만 관찰되면 형태소 1개)
- ㄷ. 오류로 중복된 것은 길이 산출에 이용하지 않는다. (곰이(가)요 : '가'는 오류이므로 배제)
- ㄹ. 복합어를 한 단어로 습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옷장 : '옷'과 '장'을 사용하면 형태소 2개, 그렇지 않으면 형태소 1개)

아동 발화에 출현한 형태소 분석을 위한 기준은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을 고려해 아동 발화 전체에서 출현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학교, 년, 옷장' 등의 단어가 언어발달의 특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인지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화자의 출현형 모두를 검색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화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너'와 '년'을 따로 사용하면 보조사를 분리할 수 있고, '년'만 관찰되면 분리해 내지 못한다는 기준은 여러 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형태소를 지나치게 가변적으로 규정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동 발화 전체를 검색해서 모든 형태를 점검하는 노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생략형의 분석이나 단어형성 요소의 분리 등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제이다. '사취요'의 '사'가 전자의 예이다. 이 형태는 본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융합된 것으로 소리로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 연결어미를 찾아내기 어렵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

을 살펴보면 분리를 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한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의 활용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큰 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몇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조사나 어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통합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는다, -어요’ 등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통합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한자어 형태소의 경우에도 분리보다는 가능하면 분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단어형성에 관여하는 어근과 접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사와 어미를 분리하는 작업은 한국어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법적 기능을 확인하는 데 불가결하지만, 조어와 관련된 형태소는 이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봉원(2013)에서는 이를 ‘굴절 우선 원칙’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는데, ‘지우개가’라는 어절에 포함된 ‘지우-, -개, 가’의 세 형태소 중 조사를 분리하는 것이 명사파생접미사를 분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작업이 되어야 하므로 굴절적 요소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2차적으로 조어적 요소를 분석하는 절차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형태소 분석보다 어절이나 단어 등 상위 단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 장애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언어발달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형태소 분석이 갖는 다양성이 이런 시도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나 어절은 형태소에 비해 분석의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물론 표기법에 반영된 띄어쓰기의 단위가 단어와 거의 일치하는 영어에서는 단어 분석이 더 쉬운 편이고,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띄어쓰기에 반영하지 않는 한국어에서는 단어보다는 어절이 일차적 분석 단위로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어절 단위 분석의 가장 큰 미덕은 분석이 수월하다는 데 있다. 국어학적 분석의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더라도 띄어쓰기의 형식으로 표출되는 어절 단위의 분석에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실제로 김영태(1997)에서는 영어의 평균형태소길이에 비해 한국어의 평균형태소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한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가 한국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한국어의 평균단어길이나 평균어절길이는 영어권 아동의 평균형태소길 이와 유사한 길이를 보였다고 한다. 문법 단위가 어떤 것이든 그 단위의 출현 빈도가 어떤 집단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자발화 분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윤미선 외(2013)은 2, 3, 4세 아동의 자발화에서 형태소, 단어, 어절의 세 가지 문법 단위로 측정된 평균발화길이를 분석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발화 표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였는데, 어절 수준에서는 50발화 정도의 규모로도 안정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단어와 형태소 분석에서는 2세와 4세 아동은 100발화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야 최적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언어치료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어절 분석으로도 대략적인 언어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어절을 의사소통 분석의 기본 단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문법에서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받아들여진다. 어절은 통사론적 단위이지만, 어휘적 요소에 문법적 요소가 첨가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단위이다. 어절은 문자 언어에서 띄어쓰기라는 장치로 실현되므로 분석의 어려움을 줄여 주지만,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 요소의 중요성 때문에 기본 단위로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은 개별 형태소에 매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해 내야 한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어절의 구분 원칙을 보면 띄어쓰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태(2002)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어절이 자발화 자료 분석에서 갖

는 의미는 구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라는 데 있다. 어절은 말의 흐름을 구분 짓는 단위이므로 띄어 말하기의 단위에 가까우며 이런 점에서 자발화 분석에서 효용성을 가지지만, 띄어 말하기의 단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로 띄어쓰기 기준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절을 음운론적 단어로 보려는 관점도 이런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어절의 구분 원칙(김영태 2002:258)

ㄱ. 띄어쓰기

ㄴ. 복합용언 및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은 한 어절로 간주한다.(열어 놓았어: 1어절)

ㄷ. 의존명사는 1어절로 본다.

ㄹ. 고유명사는 전체를 1어절로 본다.

그렇지만 주세형(2004)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어절은 구어에서 실현되는 어조 묶음, 즉 끊어 읽기의 양상을 반영하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어절의 구분 원칙에도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어절이 구어의 띄어 말하기를 반영한다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한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용인되지만, 의존명사를 별도의 어절로 보는 것은 구어의 실현 양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의존명사는 선행요소와 한 단위로 발음되면서 경음화나 위치동화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절에 대한 인식은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 표지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자립성을 갖는 단위로, 영어로 보면 단어에 대응하는 단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남길임 2013:115).

사실 한국어에서 단어의 개념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word)를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념은 뚜렷하지 않다. 단어는 문법적 지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개념으로 그 분류 기준만 하더라도 형태적, 분포적, 기능적, 의미적, 어휘적, 정서법적 기준 등으로 너무나 많은 관점들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언어 유형별로도 다양한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한정한 2011:228). 학교 문법의 규정대로 자립성으로 이 단위를 규정한다면 조사의 특수성을 해결하기 힘들고, 정병철(2012)에서 제시한 테일러의 단어 판별의 기준<sup>3)</sup>을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요소와 하나의 상위 단위를 형성한다는 특성이 다른 단어와 차별적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단어 분석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3) 단어 구분 방법(김영태 2002:252)

ㄱ. 자립형태소, 자립형태소에 붙는 조사, 준자립어(의존명사, 보조용언)는 개별 단어로 계산한다.

ㄴ. 파생동사와 합성동사는 한 단어로 취급한다.

ㄷ. 서술격조사는 한 단어로 보되 보조사 '요'가 간투사로 사용되면 단어로 보지 않는다.

예) 이거요 사과가요 아니예요(첫 번째와 두 번째 어절의 보조사는 단어로 보지 않는다)

ㄹ. 고유명사는 한 단어로 취급한다.

3) 정병철(2012)에 소개된 Taylor의 단어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의미적 안정성 : 단어는 사람이 기억에 꽤 안정적인 의미의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

ㄴ. 내적 구조 : 단어의 내적 구조가 바뀌면 의미도 바뀌거나 다른 단어가 되어 버린다. 또한, 단어의 내부에는 휴지나 다른 요소가 끼어들기 어렵다.

ㄷ. 자유 결합 : 단어는 앞뒤에 어떤 요소가 오는지에 대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단어 구분 기준은 형태소처럼 예외적 규정이 많지는 않되, 핵심은 조사를 별도의 단어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어절의 구분 원칙에서 의존적인 것이라도 단어의 자격이 있으면 분리했기 때문에 어절과 단어의 차이는 조사의 분리 여부가 주된 것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은 한 어절, 두 단어가 된다는 것이다. (37)에 따르면 자립형태소를 모두 개별 단어로 보기 때문에 합성명사는 그 내부에 여러 개의 단어를 갖게 되지만 실제 분석에서 합성명사를 몇 개의 단어로 나누지는 않는다.

결국 학교 문법에 규정된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은 언어병리학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분석의 명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절은 그 내부에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적 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어절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나 어미는 해당 어절에서 문법적인 핵을 형성하고,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기능하는 한국어의 주요 문법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불일치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4) 의존적 요소의 분석 층위

- ㄱ. 의존명사 : 어절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 ㄴ. 조사, 보조용언 : 단어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 ㄷ. 어미 : 형태소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문법적 요소가 이렇게 각 분석 단위별로 나누어지면 어떤 단위의 계량은 특정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단어 분석은 한국어의 어미를 세지 못한다. 언어병리학 분야의 언어 분석 목적이 측정에 있다면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분석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문법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 대한 분석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태소 분석의 수준에서는 조사와 어미 모두 단위로 측정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형태소 분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일관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단어형성과 관련된 영역은 의사소통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관성 확보에는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동일한 층위에서 기술해야 함을 지적해 왔다. 최호철(1995)은 교착어에서 자립성만으로 실질적 의미 단위와 형식적 의미 단위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의미적 특성을 기준하여 어절과 형태소 사이의 새로운 단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단위는 주시경의 ‘씨’에 해당하는 단위를 홍기문의 용어로 수용한 것이다.

#### (5) 국어의 문법 단위(최호철 1995: 649)

-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문장)
- 철수가 / 이야기책을 읽었다 (구)
- 철수가 / 이야기책을 / 읽었다 (어절)
- 철수 / 가 / 이야기책 / 을 / 읽었다 (학교 문법의 단어)
- 철수 / 가 / 이야기책 / 을 / 읽 / 었 / 다 (어사, 새로 제안한 단어)
- 철수 / 가 / 이야기 / 책 / 을 / 읽 / 었 / 다 (형태소)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는 관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해 온 것이다. 최형용(2010)에서는 구와 결합하는 조사와 어미는 통사 단위로 볼 수 있으며, 어미도 품사 분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은 선행 요소와의 분리성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속성은 조사와 어미가 아닌 선행 요소의 속성이며 통사론적으로는 단어 인정 여부의 변별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정환(2011)도 단어의 기능적 정의를 통해 어미를 단어의 부류로 인정하고 있다. 문장 내 성분들 간의 통사적 관계에 기대어 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어의 기능적 단어를 상징하면,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접속조사와 함께 접속어로,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는 운용어에 속하게 되며 조사는 관계어로 분류된다.

형태소 분석과 어절 분석 사이에 학교 문법과는 다르게 규정된 단어 단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규정하는 것으로 층위 간의 구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즉, 조사와 어미를 포괄하는 굴절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사적 기능을 인정하고 단어 층위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기존의 단어 단위를 형태소 분석의 수준으로 정밀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한 형태소 분석의 층위는 엄밀한 의미의 형태소 층위가 아니라 바로 굴절적 차원의 문법 요소를 분석하는 수정된 단어 층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합성어나 고유명사를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하는 등의 기준(김영태 2002:2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단어 단위가 분석의 기본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단어 분석 층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어절 층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미 한국어의 발화 길이 측정에서 형태소와 어절 단위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한 연구가 있으며(정부자 2013), 학교 문법에 따른 단어 단위보다는 어절 단위의 측정이 임상 현장에서 선호되고 있다. 물론 어절 단위 분석이 갖는 용이성이라는 장점에 이유가 있겠지만, 단어 단위 분석과의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의존명사나 보조용언 등의 의존적 단위 분석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도 어절 차원의 분석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형태소-단어-어절 단위를 단어-어절(또는 형태소-단어)의 두 단계 단위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문장 구성 단위

최상위의 문법 단위는 문장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는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문장을 형성하는 단위인 구(句, phrase)는 여러 어절이 모여 한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문법 단위인데 그 내부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절(節, clause)은 작은 단위가 모여서 더 큰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구와 비슷하지만, 그 내부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구와 구별된다는 것이 교육 문법의 설명이다.

문장, 구, 절의 출현 빈도가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이들 문법 단위 역시 측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통사적 능력의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평균발화길이기도 있지만, 이것으로는 4세 이후의 구문 발달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지표의 탐색이 필요하다. 장진아 외(2008)에서는 3세, 5세, 7세, 그리고 20대 성인의 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에 따라 문장 복잡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문장 유형의 출현 빈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단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줄고 접속과 내포를 통해 확장된 복합문의 빈도는 증가하였고, 성분절의 사용 빈도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장진아 외 2008).

문장 안에 포함된 성분절의 수 외에도 통사적 발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단위로 의사소통단위(C-unit)와 최소종결단위(T-unit)가 있다. 의사소통단위(Communication unit: C-unit)는 주절과 종속절을 포함한 단위를 말하는데, 한국어에 대해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복문을 하나의 의사소통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소종결단위(minimal Terminable unit: T-unit)는 하나의 주절과 여기에 결합되는 종속절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의사소통단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고 이용되어 왔다(김자성 2011). 이들은 성분절을 포함한 문장을 한 단위로 보고, 소위 중문, 즉 대등 접속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별개의 단위로 보는 것인데, 두 단위의 차이는 전자는 한 단어로 된 발화도 의사소통단위로 인정하는 데 비해 후자는 주어와 서술어가 실현되는 완결된 단위만 최소종결단위로 판단한다는 데 있다.

C-unit나 T-unit는 구문 발달의 유용한 지표이지만 한국어에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영어에서는 and, but, or 등의 등위접속사가 중문의 판정 기준이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대등 접속문의 판정이 영어처럼 수월하지 않다. 김자성(2011)의 분석 기준을 보면 이 단위의 도입 및 적용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6) T-unit 분석 기준(김자성 2011: 78) 요약

1. 종속절을 포함하는 주절을 하나의 T-unit으로 분석한다.
2. 우리말과 자발화의 특성상 담화상황에서 의미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하나의 T-unit으로 인정한다.
3.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대등한 경우 T-unit을 분리한다. 표층구조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T-unit을 분리한다.
4. 종속적 연결어미가 반복되어 단순히 나열된 경우는 T-unit을 분리한다.

(이하 생략)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런 단위가 한국어의 문법 기술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위는 구어에서 특별한 통사적 종결 지표를 찾기 어려운 영어에서 일정한 발화 단위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장 종결이 정해진 어미로 실현되는 한국어에서는 이 단위는 문장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등 접속만을 접속으로 인정하고 종속 접속은 성분절의 일종으로 보는 최근의 문법적 처리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대등 접속문을 따로 검색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어의 문장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절 단위의 분석이다. 그것이 성분절이든 접속문의 하위절이든 어떤 절은 특유의 문법 요소로 실현된다. 학교 문법에서 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정의된다는 것을 실제 언어 사용에서 확인하기는 힘들다. 절이 그 내부에 주어를 갖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오히려 각각의 성분절이 갖는 형태적 지식을 명세화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분절의 실현은 예상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명사절을 실현하는 데 쓰이는 구성은 실제로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것’이 결합한 구성이 대부분이다. 명사형 어미는 오히려 ‘-기 때문, -기 시작하다, -기 위해, -기로 하다’ 등의 구성에 포함된 것이 대부분이다(김

자성 2011). ‘-기 때문에’와 같은 구성은 부사절이나 종속 접속문의 종속절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능적 고려가 낮설지 않다. 남길임(2013)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갖는 정형화된 표현(formulaic expression)을 검색하고 한국어의 경우 조사와 어미가 최소 구문 단위로 기능하므로 문법 형태가 이 연쇄를 구성하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문법 형태를 포함한 표현을 절 분석의 기준으로 대폭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의미를 고려한 단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단위로 의사소통 상황의 정보 전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 단위(content unit)가 있다. 이 단위는 ‘일반인들이 항상 한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옛날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에’, ‘옛날 옛적에’, ‘옛날, 먼 옛날에’ 등 서두에 이야기를 이끄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문법 단위의 수를 무시하고 하나의 의미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분석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정보 교환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문법 단위의 양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위와 같이 정보전달의 양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단위를 새로 규정한 것이다(권미선 외 1998:35).

이들 내용 단위는 주로 성인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자발화 특성에서는 분당 내용 단위의 수가 일반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데, 반면 내용 단위당 음절 수는 일반인보다 더 많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것은 치매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같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용 단위의 유형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확한(올바른) 정보 단위(CIU: correct information unit)’로 불리는 개념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권미선 1998: 37)

정확한 정보 단위는 ‘문맥상 명료하며, 주제 혹은 과제에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 혹은 어절’로 정의할 수 있다. 담화 산출의 양적 특성은 물론 질적 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단위로, 산출한 단어 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의 수만 측정하고 내용과 무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단어, 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어는 측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권미선 외 1998). 이렇게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의미적 측면을 고려하면 발화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예를 보자.

##### (7) CIU의 구분 원칙(임은주 외, 2001)

- ㄱ.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명료도를 가지며, 내용이 주제 및 과제에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어절을 말한다.
- ㄴ.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는 어절은 제외한다. (여자가 빨래를 하네요.(설것이를 하는 상황이라면 제외한다.)
- ㄷ. 자가수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반응을 분석한다. (스페, 스피, 스프를 넣네요.)  
(이하 생략)

권미선 외(1998)에서는 1분 내외의 발화에서 CIU 단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정도에 따른 능력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현주(2012)에서도 노년층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연

수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고,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CIU 단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단위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한 임은주 외(2001)에 따르면 이 단위는 실어증의 정도를 판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전체 발화 대비 정확한 정보 단위의 비율을 보면, 경도의 경우 86.1%, 중등도는 65.1%, 중도는 35.7%로 나타났다. 분당 산출 어절 수의 경우는 각각 53.9, 49.5, 35.5개였다. 단위의 차이는 있지만, CIU 단위의 비율이 실어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단위는 영어에서는 단어 단위로 운용될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의미를 실현하는 정보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겠지만 대개 이 단위를 도입한 연구들은 단어나 어절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 임은주 외(2001)나 최현주(2012)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이용하였는데, 임은주 외(2001)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한국어의 문법적 기능어는 내용어와 함께 하나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므로 별도의 단위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보 단위에서 기능적 요소를 이렇게 단순하게 제외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권미선 외(1998) 등은 단어 단위로 CIU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조사의 정보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교 문법의 틀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미의 정보적 기능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를 고려한 단위를 어떤 문법 단위와 결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5. 결론

의사소통 장애를 다루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문법 단위가 활용되어 왔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법 단위는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진단과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한국어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단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문법 단위의 분석 기준을 더 명확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문법의 틀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단위의 도입을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권미선 외. 1998. "한국 성인의 자발화 분석에 관한 연구: CIU 분석법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3, pp. 35-49.
- 김수진 외. 2011.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의미학>(한국어의미학회) 36, pp. 91-118.
- 김영태. 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 pp. 5-26.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자성. 2011. "경험이야기와 설명담화에 나타난 학령기의 구문발달특성 : 또래갈등해결과제를 중심으로."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길임. 2013. "한국어 정형화된 표현의 분석 단위에 대한 연구: 형태 기반 분석과 어절 기반 분석의 비교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담화인지언어학회) 20-1, pp. 113-136.
- 윤미선 외. 2013. "평균발화길이 분석을 위한 발화 표본의 크기." <언어청각장애연구>(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8-4, pp. 368-378.
- 이봉원. 2013. "의사소통 장애 관련 학문 전공자를 위한 문법 교육의 몇 가지 과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1, pp. 233-259.
- 임은주 외. 2001. "경중도에 따른 유창성 실어증환자의 정보전달능력에 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6-2, pp. 374-391.
- 장진아 외. 2008. "자발화에 나타난 구문구조 발달 양상." <말소리>(대한음성학회) 68, pp. 17-32.
- 정병철. 2012. "형태소와 단어의 불분명한 경계에 대한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46, pp. 513-544.
- 정부자. 2013. "2-4세 일반아동의 자발화 표본크기와 평균발화길이의 비교." <자폐성장애연구> 13-3, pp. 39-51.
- 주세형. 2004. "학교 문법 다시 쓰기 -언어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연구) 20, pp. 461-498.
- 최현주. 2012. "노년층의 담화 산출 특성: 노화, 성별,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말소리와 음성과학>(한국음성학회) 4-2, pp. 135-143.
- 최형용. 2010. "품사의 경계 -조사, 어미, 어근, 접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47, pp. 61-92.
- 최형용. 2011. "한국어의 형태론적 현저성에 대하여." <형태론>(도서출판 박이정) 13, pp. 1-28.
- 최호철. 1995. "국어의 문법 단위와 문법 교육." <어문논집>(안암어문학회) 34-1, pp. 637-657.
- 한정한. 2011.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국어학회) 60, pp. 211-232.

## ■ 토 론

#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문법 단위”에 대한 토론문

최대희(건국대)

이 글은 의사소통 장애 관련 분야에서 각종 언어적 분석을 위해 사용해 온 단위들을 재검토하고 한국어 특성에 적합한 분석을 위한 단위의 요건과 전반적인 틀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의사소통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다루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여러 문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기반 지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육 문법을 다소 기계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분석에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점과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문법 단위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글을 읽었는데,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단위들을 재검토하고, 단위의 요건과 전반적인 틀을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은 각 단위들에 대해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많이 제시하였고, 전반적인 틀과 세부적인 단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단위의 요건과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보완을 더 해야 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완을 해야 한다면 어느 단위의 보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2장에서는 기본 문법 단위와 관련하여, 문법 단위별로 각각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언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재의 형태소 분석은 분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적용의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단어 분석에서는 언어병리학에서 이용하는 단어 분석의 기준이 학교 문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의 명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특히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조사와 어미를 포괄하는 굴절소 개념을 도입하여 통사적 기능을 인정하고 단어 층위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학교 문법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분석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와 어미의 단어 층위의 분석은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라는 측면과 단위의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은 있으나, 단어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단어 분류의 경제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어절 분석에서 본용언-보조용언과 의존명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저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3장에서는 문장 구성 단위와 관련하여 C-unit과 T-unit은 한국어에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한국어의 문장 분석에서는 절 단위의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절이 갖는 형태적 지식을 명세화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한국어에 맞는 문장 구성 단위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었다면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4장에서는 의미를 고려한 단위와 관련하여, 내용 단위와 정확한 올바른 정보 단위를 소개하였는데, 내용 단위 분석보다는 정확한 올바른 정보 단위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올바른 정보단위는 단어나 어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경향을 소개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들 연구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어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 단위에서 문법적 기능어를 제외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미를 고려한 단위에서 문법적 기능어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진단과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들로 나누어져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문법 단위를 재검토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연구입니다. 언어 병리학 분야에 활용할 가치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흡했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 연구

배현대(경기대)

## < 차례 >

1. 들어가기
  2. 문화 교재 분석
  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
  4. 나오기
- 참고문헌

## 1. 들어가기

현재 한국어 교육은 많은 교육 기관과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많은 연구물들과 많은 교재들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교재 개발의 경우 이제는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 교재의 성격에서 벗어나 언어 기능의 각각의 영역별 교재들이 출판되고 있다. 또한 대학 생활을 위한 교재,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재, 토픽 교재 등 학습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교재들도 출판되고 있다.<sup>1)</sup>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폭발적 성장의 원인 중의 하나가 한류라고 했을 때 문화와 관련된 한국어 교재는 얼마나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얼마나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또한 최근 출시되고 있는 문화 교재들이 과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화 교육에 대해 ‘한국어 문화’ 혹은 ‘언어문화’<sup>2)</sup>라는 용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에 대한 교육을 순수한 문화로서의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언어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화를 통합형으로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선택하거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적거나 없는 독립된 내용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 역시 본문의 뒤에 다음과로 넘어가기 전의 쉼터의 역할 정도로만 다루고 있어 문화 교육이라고 하기는 부족하다.<sup>3)</sup>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

1) 최근의 교재 개발에 대해 정리한 연구로는 이병규 외(2005), 김영란(2009), 방성원(2011), 고경민(2012) 등이 있다.  
2) 성기철(2001: 120)에서는 “문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어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현용(2003)에서는 한국 언어문화를 한국 문화와 다른 한국어의 언어적 측면과 관련된 문화로 보았다. 민현식(2004)에서는 문화 영역을 제한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로 나누어서 그 두 정의의 이중개념을 내포하는 것을 언어문화라고 제시하였다. 조항록(2004)에서는 ‘언어문화’라는 개념의 정립과 논의를 하고 있다.  
3) 성기철 (2007: 426)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독립된 문화로서가 아닌 언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개발되고 있다.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문화 교재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확대를 위함이다. 어느 특정 산업이 그 분야에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힘쓰는 것이 콘텐츠 개발일 것이다. 이는 최근 한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또한 다양한 교재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자들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과 직결된다. 현재 한국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몽골, 베트남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최종적인 목표는 취업일 것이다. 이는 구가의 평균 임금 수준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선진국의 경우 취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필요로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화 교육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재가 개발된다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 교육을 통해 지식 교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순(2004)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국문화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 문화 교육 내용으로는 크게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 문화, 예술 문화, 제도문화, 과학기술 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문화 교육이 단순히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교육은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여 문화 비교를 통한 일상생활 능력과 비판적 판단 능력, 대인 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문화 교육을 통해 현재 지식 위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단순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기존의 문화 교재들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문화 중심의 한국 문화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기존의 문화 교재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교재를 개발하여 그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교재 개발 연구를 통하여 한국 문화 교재의 개선과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2. 문화 교재 분석

최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교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출간된 문화 교재들의 분석을 통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본 발표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들이며, 각 교재명은 앞으로 저자의 이름으로 대신하겠다. 단, 순천향 대학교의 경우 '순천향'으로, 다문화사회연구소의 경우 '다문화'로 대신하겠다.

### 1) 분석 대상 교재(발행 시기별 순)

- (1)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한국문화사.
- (2)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보고서.
- (3)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4)다문화사회연구소(2010), 이야기가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다락원.

(5)김진호 외(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상-, 역락.

(6)이해영 외(2011), 생활 속 한국문화 77, 한글파크.

## 2.1. 구성 체제

이 절에서는 각 교재들의 구성 체제를 비교해 보겠다. 구성 체제 비교를 통해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나 배열 방식으로 구성 원리들을 파악하여 각 교재들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교재별 구성 체제 비교<sup>4)</sup>

#### (1) 이선이

과명	*학습 내용	*본문 텍스트	어휘학습	표현하기	활동하기
	생각해 보기				

#### (2) 순천향

과명	함께 읽어요	단어를 공부해요	무엇일까요	한국 문화를 알아요	한국 문화를 즐겨요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					

#### (3) 권영민 외

과명	*본문 텍스트	읽고 나서	어휘 풀이	참고 자료
읽기 전에		더 알아보시다		

#### (4) 다문화

과명	*본문 대화	어휘 확인하기	비교문화 토론하기	마무리하기	정보 알고 이용하기
첫만남	새 어휘 및 표현				
미리 들어보기	핵심 표현				

4) 도표에서 각 구성 요소들의 명칭은 교재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정해진 명칭이 없는 경우 '\*'으로 표시 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표기하였다.

(5) 김진호 외

과명	상황회화	단어 학습	내용 확인	활용
*생각하기				
학습 내용	*본문 텍스트			

(6) 이해영 외

과명	*4컷 만화	*본문 텍스트	더 알아보시다
		어휘	

위의 1)은 각 교재들의 구성 체제를 요소별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1)에서 한 칸에 복수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같은 쪽에 같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바.’에서 음영이 있는 부분은 수의적으로 나타남을 표시한 것이다. 앞의 과에서 나온 본문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더 알아보시다’를 하나의 과로 추가 제시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의 구성 체제를 분석해 보면,

첫째, 학습 목표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습 목표는 그 과의 시작이며, 도달점이다. 따라서 학습 목표를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명확한 단계를 통해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1)에서 보면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한 교재는 순천향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천향은 대학 기관의 교재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문화 교재들이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재는 자가 학습의 성격이 크다. 따라서 교사가 이끌어 주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학습 목표가 더 명확하고 세분화 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문이 텍스트나 대화로 제시되어 있다. 대학 기관의 정규 수업 교재는 대부분 본문이 대화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 교재는 특성상 본문이 문화를 소개하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교재가 많았다. 이선이, 권영민 외, 이해영 외의 경우는 본문이 텍스트로 제시되어 있으며, 순천향, 다문화의 경우 대화로 제시되어 있다. 그 밖에 김진호 외의 경우 대화와 텍스트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이해영 외의 경우 텍스트 외에도 4컷 만화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새로운 어휘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교재가 있다. 이선이와 김진호 외의 경우 새로운 어휘에 대한 설명이 없이 어휘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를 배려하지 않은 구성으로 어휘뿐 아니라 새로운 요소가 나왔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그 내용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어휘의 수가 너무 많다면 학습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휘만 선정하여 학습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에 대한 설명 역시 최대한 풀어서 학습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권영민 외 1과에서 나온 젓갈이나 석이버섯처럼 글로 풀어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는 어휘들을 사진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교재들이 활동 영역이 없거나 단순 내용 확인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 교재는 문화 지식의 수준이 아닌 학습자들이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재들이 질의응답 수준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를 반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학습자들이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영역의 마련도 필요하다. ‘다문화’의 경우 정보 알고 이용하기 영역을 설정하여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섯째, 과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sup>5)</sup> 과를 시작하면서 들어가기의 요소가 있다면 과를 마무리하는 나오기 역할을 하는 요소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에서 마무리하기 영역이 있지만 내용 확인의 성격으로 과의 마무리 역할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무리 영역으로는 학습 목표와 연계되어 학습자 스스로가 과를 마치면서 자신이 어떤 내용을 학습했으며 어떤 능력을 익히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 2.2. 교재별 분석 내용

### 1) 이선이

교재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저자	이선이
대상	한국어와 한국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
목적	한국어와 한국을 공부하는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 한국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들, 비즈니스 차원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한국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화교재.
목차	Chapter1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Chapter2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
	Chapter3 한국 정치의 현주소
	Chapter4 한국인의 여가와 여행
	Chapter5 한국적 자치와 종교
	Chapter6 한국 경제 리포트
	Chapter7 뜨거운 교육열

5) 신호철(2013: 198)에서는 한국어 교재들에서 학습을 마무리하는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hapter8 가족과 결혼
	Chapter9 변화하는 한국
특징	1. 흔히 다루지 않는 한국의 정치, 경제, 종교를 주제로 선정 2. 본문 텍스트 안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 3. 현대의 한국 문화를 소개
한계점	1. 교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2. 텍스트 내용이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움. 3. 활동의 경우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활동이며, 외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임. 4. 전반적으로 고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 배경 지식이 있는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음.

2) 순천향

교재명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1		
저자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대상	TOPIK 2, 3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실제 문화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목차	PART 1.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01. 거실에 편하게 앉으세요. 02. 잘 먹겠습니다! 03. 옷이 아주 멋있어요. 04. 이제 좀 자르고 싶어요. 05. 피로가 풀리는 데 그만이에요.	PART 2. 한국의 옛날은 어땠어요? 06. 여기는 민속촌이에요. 07. 조선시대 궁궐입니다. 08. 요즘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어요. 09. 돈에 있는 장소나 물건을 보러 가지 않을래? 10. 심청을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PART 3. 여행을 떠나요. 11. 서울은 재미있는 도시예요. 12. 경주엔 많은 문화 유적이 있지요?
특징	1. 어휘는 한국어 설명대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시하여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배려함. 2. 기존의 대학 기관의 교재와 달리 문법 설명이 배제됨.		

	<p>3. 표현의 경우 분절 단위가 아닌 덩어리로 제시함.</p> <p>4. 많은 양의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p> <p>5. 부록으로 가이드북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와 체험과 관련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p>
한계점	<p>1. 한 개의 과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 많아 보통 4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 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임.</p> <p>2. 활동의 경우 정보가 제공된 후 학습자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보 제공은 없고 활동만 있음.</p> <p>3.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대비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지만 현대와 전통이 part1과 2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part1과 2의 주제의 연계성이 낮아 대비가 거의 불가능함.</p>

3) 권영민 외

교재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저자	권영민, 장소원, 양승국, 안경화, 김성규, 박성현, 채숙희	
대상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목적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문화를 통해 한국을 배우고 더불어 한국어를 익히도록 개발됨.	
목차	1 의식주	<p>1.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p> <p>2.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 온돌</p> <p>3. 한 달에 하루는 한복의 날로</p> <p>4. '웰빙' 바람이 분다</p> <p>5. 자연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 서울</p>
	2 나, 너, 우리	<p>6. 무슨 띠세요?</p> <p>7. 영호 동생은 영수, 영수 동생은 명식</p> <p>8.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함께 살아요</p> <p>9. 한반도를 뒤덮은 붉은 물결과 신명 나는 세상</p> <p>10. 즐거운 귀성 전쟁, 푸근한 명절</p>
	3 행복을 찾아서	<p>11. 한국인의 재테크 엿보기</p> <p>12. 성공 뒤에 숨어 있는 한국인의 교육열</p> <p>13. 김 팀장님, 정말 행복하세요?</p> <p>14.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p>
	4 경계를 넘어서	<p>15. 역사를 바꾼 그날의 함성</p> <p>16. 금강산 호텔의 눈물바다</p> <p>17. 고국이 그리운 한국의 문화재들</p> <p>18.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향하여</p>
	5 젊음, 사랑과 결혼	<p>19. 22살 서연 씨의 하루</p>

		20.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21.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22. 결혼식에 초청합니다
	6 일상, 여가, 대중문화	23. 오늘 저녁 노래 한 곡 불러 보실래요? 24. 한국 TV 드라마의 매력 25. 댓글족과 엄지족을 아세요? 26.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7 한국어와 한국문학	27.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28. 이어이 뭐네? 29.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30.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영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음.</li> <li>2.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함.</li> <li>3.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을 첨부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움.</li> <li>4. 참고자료를 통해 주제의 확장을 도움.</li> <li>5. 책의 마지막에 관련 사이트를 수록함.</li> </ol>	
한계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지만 본문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어려운 설명문 형태의 글.</li> <li>2. 활동의 경우 단순 내용 확인의 수준으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어려움.</li> <li>3. 어휘 풀이는 단순 사전식 풀이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움.</li> </ol>	

#### 4) 다문화

교재명	이야기가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저자	다문화사회연구소
대상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학습자
목적	유용한 생활 언어와 실제적인 정보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재.
목차	제1과 인사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2과 원룸은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제3과 어디로 가야 해요? 제4과 저희도 회비를 내야 해요? 제5과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해요? 제6과 여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제7과 이 한정식 집을 어떻게 알았어요? 제8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9과 저분이 민수 씨 이모예요? 제10과 공부하기 힘들지? 제11과 남자 친구 있어?

	제12과 그 사람 …… 마음에 들어? 제13과 저 드라마 정말 로맨틱하지? 제14과 여행을 어디로 갈 계획이야? 제15과 무슨 공연이에요? 제16과 네? 119라고요? 제17과 사투리를 할 수 있어요? 제18과 편지 받고 놀랐지? 제19과 뭐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제20과 왜 몸을 돌려서 마셔요? 제21과 감기에 걸리면 무엇을 먹어? 제22과 김치 소는 어떻게 만들어요? 제23과 색동저고리 한복은 누가 입어요? 제24과 첫 월급을 받으면 보통 무엇을 해요? 제25과 결혼 날짜는 잡았어요?
특징	1. 본문을 조혜라는 주인공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체험담으로 구성함. 2. 문화 영역을 제도 문화(3개과), 생활 문화(9개과), 언어 문화(5개과), 전통 문화(6개과), 예술 문화(2개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3. 본문 대화를 보기 전 상황 설명을 해주어 학습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4. 다른 교재의 경우 사진이나 삽화를 보고 배울 내용에 대한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미리 들어보기 영역을 설정하여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 5. 정보 알고 이용하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
한계점	1. 어휘 설명이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2. 표현 제시가 많아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 3. 본문에 들어가기 전 상황 설명과 미리 들어보기 활동을 미리하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음. 4. 정보 알고 이용하기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체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가 요구됨.

5) 김진호 외

교재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상-
저자	김진호, 장권순, 이태환 - 경원대학교
대상	초급 수준의 외국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문화와 언어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만큼 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 회화의 대화 형식에 한국 문화적 요소들을 직접

	가미시킨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기초적인 것과 전문적인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	
목차	제1부 한국의 과거와 현재	한국의 건국 건국 이후의 역사 한국의 법과 정치 한국의 상징
	제2부 한국 지역민의 삶의 모습	한국의 행정구역과 인구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의 삶 한국의 수도, 서울
	제3부 한국의 교통 문화	대중교통의 지하철 대중교통의 버스와 택시 철도와 항공 그리고 해운
	제4부 한국의 교육문화	한국 교육제도의 현황 학교 체육과 스포츠 대학생활과 외국인
	제5부 한국의 경제 및 금융	한국의 경제 한국의 금융, 은행 우편물과 우체국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례 뒤에 한국의 산하, 사계, 경제 발전등의 사진을 수록하고 있음.</li> <li>2. 대화와 연관이 있는 내용을 소주제로 하여 설명함.</li> <li>3. 읽기(심화)자료를 통해 한국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li> <li>4. 부록에 구전동화를 수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문화를 전달하려고 함.</li> <li>5. 색인이 있어 모르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li> </ol>	
한계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운 어휘에 대한 설명 없이 단어 학습이 이루어짐.</li> <li>2. 활동은 단순 내용 확인의 질문 대답 형식으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이기 어려움.</li> <li>3.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li> <li>4. 활용의 경우 단순한 쓰기 활동으로 학습자를 배려하지 않음.</li> </ol>	

6) 이해영 외

교재명	생활 속 한국문화 77
저자	이해영, 김은영, 신경선, 주은경, 이정란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수준의 학습자
목적	외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읽으면서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되고, 한국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을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교재.

목차	I 한국에서는 이렇게	01 안녕하세요? 02 인사는 이렇게 03 어디 가세요? 04 의사 선생님 05 뭐라고 부를까? 06 밥 먹을 때는 코를 풀면 안 돼요 07 고개를 돌리고 마셔요 08 어른께는 이렇게 09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요
	II 일상생활	10 친구끼리는 같이 먹어요 11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12 한국 젓가락은 무거워요 13 체했을 때는 어떻게? 14 언제나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요 15 빨리빨리 16 빨라요 빨라 17 한 개만 더 주세요 18 집을 구하세요? 19 주소는 넓은 장소부터 써요 20 도장 있어요? 21 회식하면서 더 가까워져요 22 노래방? 만화방? 찜질방? 23 얼음! 땡! 24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놀이를 해 왔어요 25 대한민국! 26 봄에는 꽃 축제를 27 여름을 이기는 팔빙수 28 산은 붉고 들은 노랗고 하늘은 파랗고 29 화려하고 맛있는 겨울
	III 바라는 마음, 금하는 마음	30 시험에 꼭 붙으세요 31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요 32 어떤 선물이 좋을까? 33 운명을 알 수 있다고요? 34 미역국 먹었어? 35 어? 4층이 없어요 36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IV 즐기며 축하하며	37 한턱낼게요 38 떡 드세요 39 이런 날에는 한복을 입어요 40 사랑을 고백하는 특별한 날 41 재미있는 기념일 42 한 해의 마지막 날, 종소리 들으러 가요 43 오늘이 100일이예요 44 돌에는 금반지를 선물해요 45 부자 되세요!

		46 돈으로 선물해요
	V 일 년 중 특별한 날	4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8 명절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요 49 내 더위 사 가라! 50 부처님 오신 날 51 오늘은 어린이날, 아이들 세상 52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53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4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55 마음도 음식도 풍성한 추석 56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57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58 메리 크리스마스! 59 오늘은 빨간 날
	VI 요람에서 무덤까지	60 삼칠일이 지나야 산모와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61 우리 아기는 커서 뭐가 될까? 62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살 63 수능, 고생 끝에 낙 64 성인이 되는 날 65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66 함 사세요! 67 결혼식과 폐백 드리기? 그건 뭐지? 68 이렇게 결혼해요 69 잉어 꿈을 꾸면 아들? 70 미역국은 몸에 좋대요 71 효도도 하고 여행도 가고 72 슬픔을 나눠요
	VII말없이 말하기	73 숫자를 세어 봅시다 74 부를 때와 자신을 가리킬 때 75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요 76 손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77 이모티콘으로 기분을 표현해요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입을 4컷의 만화로 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음.</li> <li>2. 어휘를 한국어 설명 없이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시하여 초급 수준의 학습자도 알 수 있도록 함.</li> <li>3.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li> <li>4. '더 알아보시다'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시.</li> <li>5. 책의 뒤에 설명이 어려운 어휘는 사진으로 제시함.</li> <li>6.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음.</li> </ol>	
한계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개의 과가 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이 없어 교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문화 소개서의 성격이 강함.</li> </ol>	

2장에서 6권의 문화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문화 교재의 모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

본 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의 실재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교재의 목적 및 목차를 제시하고, 교재의 구성 체제를 살펴본 후 구성 영역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3.1. 교재의 목적 및 목차

##### 1) 교재의 목적

개발 교재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단지 학문 목적의 학습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재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장은 '-아/어/여요'체로 최대한 쉽게 풀어 쓰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어휘의 경우 한국어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설명 없이 영어와 중국어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차시에 맞춰 한 개의 과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주제는 서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의 교재 내용에 맞게 교사가 임의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1급과 2급 수준으로 나누어 각 급의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 교재의 목차

교재는 전체 15개의 주제로 나뉜다. 대학 기관의 정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1급은 7개 주제로 2급은 8개 주제로 구성하였다. 주제는 정규 과정의 내용과 연계되는 주제와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1급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 과정에서 배운 주제들을 정규 과정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제시하였다. 2급에서는 분류 기준은 어휘 수준과 텍스트와 대화의 길이 등이다.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급수	주제	과명
1급	교통	1. 명동에 어떻게 가요?
	여가	2.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해요?
	시장	3. 광장시장이 뭐예요?



<b>활동3</b>		<b>정리하기</b> 내용 정리	<b>어휘 익히기</b> 문화 어휘 목록 10개 이하	<b>쉽터</b> 체험 활동 안내 및 추가 정보	<b>체험하기</b> 체험 활동 또는 창작 활동
-7-	-8-	<b>확인해 보세요</b> 자기 평가 -9-	어휘 활동 -10-	-11-	-12-

### 3) 구성 요소의 특징 및 기술 내용

명칭	특징	기술 내용
과명	의문문으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어/여요’체로 통일한다.</li> </ul>
학습 목표	아이콘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학생이 습득하게 될 내용과 행동 양식으로 간단하게 기술한다.</li> </ul>
도입 질문	제시된 그림과 관련된 질문으로 주제에 대한 스키마 형성을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의 스키마 형성을 위해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한다.</li> </ul>
대화 문	해당 과의 전체 내용을 이끌 수 있는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목표와 관련된 짧은 대화를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제시한다.</li> <li>대화문에 나온 새로운 어휘는 날개에 제시하며, 초급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 설명 없이 영어와 중국어로 설명을 대신한다.</li> <li>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두 개정도를 한다.</li> </ul>
활동1	대화과 관련된 문화 요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요소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제시되도록 한다.</li> <li>학습한 문화 요소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한다.</li> <li>설명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하며,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li> </ul>
활동2	활동1과 연계되거나 확장된 문화 요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1에서 전통 문화가 제시되었다면 활동2에서는 현대 문화를 소개하거나 활동1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대된 문화를 소개하여 활동1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li> <li>활동1과 마찬가지로 단순 질문 대답의 학습 활동이 아닌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시한다.</li> </ul>
활동3	조별 활동 위주의 게임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가 즐겁게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li> <li>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게임 활동을 하거나 창의적인 조별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li> </ul>
정리하기	해당 과의 마무리 기능으로 학습한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확인해 보세요	해당 과의 학습에 대한 자가 진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가 스스로 해당 과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해당 과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ul>
어휘	학습자의 부담을 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문의 대화와는 관계없이 활동 중 제시된 새로운 어휘나</li> </ul>

익히기	이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10개 이하로 제시	어려운 어휘를 포함하여 과에서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제와 관련된 문화 어휘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 활동은 단순 반복된 활동이 아닌 각 과마다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li> </ul>
쉽터	학습이 아닌 쉬어가는 기능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나 체험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li> <li>학습자들이 재미있게 읽거나 볼 수 있도록 흥미로운 자료를 제시한다.</li> <li>체험하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li> </ul>
체험하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의 개념으로 각 과에서 배운 내용을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li> <li>주제와 관련된 장소에 직접 다녀오거나 주제와 관련된 행동 양식을 직접 해보도록 한다.</li> </ul>

### 3.3. 교재의 실제

<p><b>3 광장시장이 뭐예요?</b></p> <p> 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시장을 이해한다.</li> <li>• 한국의 시장을 방문할 수 있다.</li> </ul>  <p>▶ 함께 이야기에 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진은 어디입니까?</li> <li>- 여러분의 고향에도 이 사진과 같은 곳이 있어요?</li> </ul>	<p>정우 : 텅텅 씨 어디 가요?      텅텅 : 집에 음식이 없어서 슈퍼에 가고 있어요. <span style="float: right;">슈퍼</span></p> <p>정우 : 그래요? 저는 반찬 사러 광장시장에 갈 거예요. 저랑 같이 갈까요?      텅텅 : 광장시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span style="float: right;">반찬</span></p> <p>정우 : 슈퍼처럼 물건을 파는 곳이에요. 광장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는 반찬이 많아요. <span style="float: right;">시장</span></p> <p>텅텅 : 그래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p>  <p>텅텅 씨는 먹을 것을 사러 어디에 가려고 했어요?      정우 씨와 텅텅 씨는 어디에 갈 거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에 아이콘을 넣어 학습자들이 학습이 시작되기 전 학습목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삽화를 통해 학생들이 대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li> <li>• 본문 밑의 질문은 본문 내용에서 확대되지 않고, 본문 내용과 관련한 질문만 한다.</li> </ul>



※ 다음을 읽고 학습 활동을 해 보세요.  
 ★ 정기 시장 : 3일장이나 5일장처럼 정해진 날짜에 열리는 시장

경기도의 5일장

시장 이름	날짜	주소
가평장	5. 10	경기 가평군 가평읍
광희장	5. 7	인천 광희동 광희동 322리
고촌장	1. 6	경기 안주시 고촌읍
권포장	5. 7	경기도 김포시 권포동
남원장	1. 6	경기 남양주 남원동
마석장	3. 8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부리
도당장	4. 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설남동 4100
발라장	5. 10	충청시 황남동 115-1
송학장	3. 8	경기 가평군 송학면 신현 1번 414-14
신성장	5. 7	경기 원주시 남면 신성리
탄현장	5. 7	경기 안성시 서탄동
밀원장	3. 8	경기도 밀양군 밀원동 195-9
여주장	5. 1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원현장	5. 7	경기 원성군 원현동 장현리
불탄장	5. 10	경기도 불탄시 천리군 불탄동 194
빛릉장	5. 7	경기 포천시 빛릉면 빛릉리
밀양장	5. 10	경기 안성시 밀원동 불현리 18-2
밀양동장	4. 10	경기 이천시 밀양동 유북리 4-1
북면장	3. 8	경기 김포시 북면동 서현리
결곡장	5. 10	경기 김포시 결곡동 422-45

★ 상설 시장 : 날마다 시장처럼 항상 열리는 시장

서울의 상설 시장

시장명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광동시장	동대문구 제기동	동대문시장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시장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시장	동대문구 용두동
남문시장	광화문 특산동	남문시장	종로구 신당동	남문시장	명동시장	명동시장	명동시장
동문시장	종로구 동문동	동문시장	동대문구 일직리동	동문시장	종로구 신당동	종로구 신당동	종로구 신당동
충무시장	종로구 충무동	충무시장	서대문구 북가좌동	충무시장	서대문구 북가좌동	충무시장	충무시장
신명시장	종로구 신명동	신명시장	강남구 논현동	신명시장	서대문구 영선동	신명시장	서대문구 영선동
주방시장	관악구 남곡동	주방시장	강동구 유곡동	주방시장	종로구 신당동	주방시장	종로구 신당동
명동시장	종로구 명동동	명동시장	종로구 명동동	명동시장	명동시장	명동시장	명동시장

1. 한국에서 가 본 시장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시장명	
소재지	
특징	

2. 고향의 시장과 한국의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공통점	차이점
1.	
2.	
3.	
4.	

- 해당 과의 주제와 관련된 문화 요소를 소개한다.
- 학습 활동을 하기 전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을 읽고 학습 활동을 해 보세요.  
 ★ 특수 시장 :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정해져 있다.

-당대중 꽃 시장: 지하철 신로역전 당대중꽃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당대중 312



-노랑진 수산물 시장: 지하철 1호선, 3호선 노랑진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랑진동 11-3



-대장동 축산물 시장: 지하철 5호선 대장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장동 310-1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양평시장: 지하철 1호선 장기동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동 1126-5



1. 고향에 있는 시장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시장명	
소재지	
특징	

- 활동1의 내용과 연계하여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한다.

1. 시장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그려 보세요.

1	2
3	4
5	6

2. 친구가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이름을 각각 써 보세요.

1	2
3	4
5	6

3. 다음 그림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배워 보세요.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코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운동화도 사고 코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운동화도 사고 모자도 사고 코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운동화도 사고 모자도 사고 코

4. 친구들과 함께 노래 만들기 게임을 해 보세요.

1.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코  
 2.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 ) 사고 코  
 3.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운동화도 사고 ( ) 사고 코  
 4. 시장에 가면 바나나를 사고 운동화도 사고 모자도 사고 ( ) 코

- 활동1, 2에서 학습 활동을 하였다면 활동3은 모둠활동 위주의 게임으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이 지식 위주의 활동으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돕는다.
- 게임은 주제와 관련된 것을 선택한다.

 정리하기




한국의 재래시장은 정해진 날짜에 열리는 ( ) (약/과) 시장 열리는 ( ) (이/가) 있어요.




파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시장은 ( )이라고 해요.

▶ 확인해 보세요.

1. 나는 한국의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	상	중	하
2. 나는 한국의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	상	중	하
3. 나는 한국의 시장을 3종 이상 알고 있다.	상	중	하
4. 나는 '시장에 가면' 게임을 친구들과 할 수 있다.	상	중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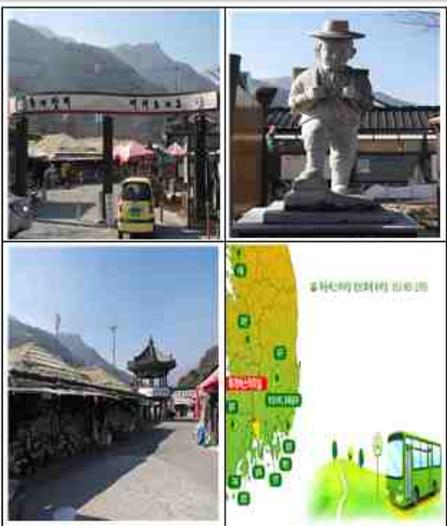
 어휘 익히기

싸다	cheap	便宜
비싸다	expensive	贵
구매자(소비자)	consumer	消费者
판매자	seller	卖方
생산자	producer	生产者
도매	wholesale	批发
소매	retail	零售
떨어	remaining articles offered at reduced [marked-down, knocked-down] prices	甩卖
할인(세일)	discount	折扣
깎다	reduce	减价

※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 그 물건이 너무 비싸서 사장님께서 ( ) 할인고 부탁했다.
- ( )는 ( )에게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판다.
- 꽃가게 주인은 꽃을 파는 ( )도 하지 않고 ( )도 많이 산다.
- 시장에서는 주된 여름에 ( )를 많이 판다.
- 이 물품 100원이지면 80% ( )해서 80원밖에 없다.
- 여러분이 팔날 때 가면 물건을 ( )도 싸게 살 수 있다.
- 같은 물건이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 ) 것보다 ( ) 것에서 물건을 산다.

- 정리하기를 통해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학습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 이번 과에서 제시가 된 어휘뿐만 아니라 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제와 관련한 중

<p>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해 보세요를 통해 자신이 학습한 것을 인지하고 학습에 대해 불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p>요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 학습 활동은 각 과마다 다른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컴퓨터</b></p> <p style="text-align: center;"><b>화개장터</b></p>  <p style="font-size: small;">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인리 있는 재래시장        -5월말        -4월 화개장터 밭콩 축제        -5월 화개장터 경매 예술제        *옛날에는 삼진강의 물길을 주로 교통수단으로 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이 시장에 모여, 나루에서 생산된 밀산물 및 농산물과 남해에서 생산된 해산물을 서로 교환하였다.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체험하기</b></p> <p style="font-size: small;">주말에 친구들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는 사진을 찍어 보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사진을 붙이세요.</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는 학습이 아닌 쉬어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체험하기와 관련된 정보를 주어 체험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거나 재미있는 문화를 소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의 성격을 갖는다.</li> <li>•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 4. 나오기

지금까지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문화 교재 6권을 분석하였으며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문화 교재 6권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 교재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목표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본문이 대학 기관의 교재와 달리 텍스트로 기술되어 있는 점, 새로운 어휘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2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의 실재를 보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재의 목적과 목차를 밝혔으며, 교재의 구성 체제 및 특징을 보였다.

본 발표문에서 제시한 문화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에 대한 학습이 체험하기로까지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 학습 구성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여 문화에 대한 학습 의욕을 높일 것이다. 또한 지식 위주의 학습이 아닌 정보와 활동 중심의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화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문화 교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발표자 또한 이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부족한 발표문에 대해 많은 연구자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하며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다.

## ■ 참고문헌

- 강현화(2006),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 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1, 연세대학교언어연구교육원한국어학당.
- 고경민(2012),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김미옥(2005), 초급 한국어 과제 구성의 원리와 실제-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정규과정 새 교재 한국어1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연세대학교언어연구교육원한국어학당.
- 김영란(2009), 한국어교육 교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숙(2004), 한국어 읽기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김중섭·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노명완(1998), 한국어 교육 자료의 체제 분석,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방성원(2011),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111-135쪽.
- 신호철(2013), 급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 중심형 한국어 교육 교재 구성 방안 연구,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189-219쪽.
- 안주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선호 특성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 99, 한국어교육학회.
- 이관규(1995), 한국어 교재의 구성 원리와 내용, 이중언어학12, 이중언어학회.
-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이준희·신호철·이현희(2012), 한국어 어휘와 문화 고급편, 소통.
- 조항록(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제1회 한국어교육학술대회 논문집.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4), 한국언어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2, 한국언어문화학회, 193- 210쪽.
- 조항록·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 개발 1, 한국어교육 12-2, 491-510쪽.
- 조현용(2003),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 고려할 점에 대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조현용(2007), 한국어 교재의 기능 교수요목 제시 비교 연구, 어문연구 3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황인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문화, 이중언어학35, 409~437, 이중언어학회.

Jo McDonough, Christopher Shaw, and Hitomi Mashuhara(201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a teacher's guide-Third edition, Wiley-Blackwell.  
Yalden, J.(1983), The Communicative Syllabus: Evolu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교재 자료>**

권영민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김진호 외(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상-, 역락.  
다문화사회연구소(2010), 이야기가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다락원.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보고서.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한국문화사.  
이해영 외(2011), 생활 속 한국문화 77, 한글파크.

## ■ 토 론

#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 개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고경민(선문대)

본 발표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과 절차, 의의 등을 목적으로 기존의 문화교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새로운 문화 교재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현재의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적절한 문화교재의 부재를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시기적절한 발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사항과 토론자의 무지로 인해 미처 이해하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을 질문을 통해 여쭙고자 합니다.

1. 먼저 2장의 교재 분석`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발표가 교재의 분석과 교재의 개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장의 교재 분석 내용은 3장의 내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재의 분석과 평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기준이 필요하며, 이런 기준에 의거한 분석은 교재의 질과 나아가 교육의 개선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분석과 평가의 기준은 서종학(2001)이나 이해영(2001)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2장에서 분석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데 혹시 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분석·평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발표자께서도 서론에서 논의하신 부분으로 토론자 역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 ‘한국문화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가르치는 것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2004)에서도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문화교육이 정해놓은 교수학습 내용 항목을 가르치거나 기껏해야 학습한 내용을 인위적인 틀 안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3.3의 내용이나 발표지의 지면 관계로 신지 못하신 내용에서 이러한 기존의 문화교재나 문화교육 방법과의 차별성을 찾거나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3. 문화요소는 문화교육에 필요한 학습 요소를 이끌어 내는 촉매이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기철(2001)에서는 문화요소의 선정기준으로 일상성, 한국 생활 적응 단계, 언어 활동과의 통합성, 차별성, 이해 난이도를 언급한 바 있고, 고경민(2012)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요소로 가치관, 일상생활, 전통 사상, 제도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3.3 교재의 실재를 통해 문화 요소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초급 문화교재에서 다뤄야 할 혹은 다루고자

하는 문화요소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교육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발표자가 기술하신 문화교재의 세부적인 교재 구성이나 체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며, 이전 교재가 갖는 현실 교육에서의 문제점 등을 기술하신 부분은 학회에서 발표를 듣는 분들만이 아닌 전체 한국어교육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발표자의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반영된 전문적인 문화교재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에 대한 대조적 고찰

진관초, 강령휘(연세대)

##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를’과 ‘把’의 의미적 특성 분석
  4.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고는 한국어 조사 ‘를’<sup>1)</sup>이 나타난 구문과 중국어 전치사 ‘把’로 이루는 특수 구문인 ‘把구문’을 대조하여 ‘를’과 ‘把’의 실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가 각각 교착어와 고립어로서 달리 행해지는 언어 유형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공통점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어는 SOV(주어-목적어-서술어)형 언어에 속하는데 반해, 중국어는 SVO형에 속한 언어이다. 서술어로 쓰인 용언은 각기 의미적 특성에 따라 논항을 요구한다. 하나 이상의 논항이 나타날 경우, 주어 이외에 다른 논항이 할당되는 문법적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문법적 요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한국어에는 조사 ‘를’과 결합할 때 목적어가 되는 논항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중국어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어순에 의해 문법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즉 주어는 서술어 앞에 나타나고 목적어는 서술어 뒤에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중국어의 ‘把구문’은 매우 특징적인데 그것은 서술어 뒤에 있던 목적어가 전치사 ‘把’를 통해 서술어 앞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2)</sup> 아래 예문 (1)을 살펴보자.

(1) 가. 한국어SOV: 철수가 숙제를 다 했다.

1) 한국어 조사 ‘-를’의 형태는 음운적으로 ‘-을’이나 ‘-르’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를’을 대표형으로 잡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이는 현대 중국어에 격 표지가 없다는 일반론에 대한 반론이 될 것이며 중국어의 어순이 SVO구조에서 SOV구조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겠다.

나. 중국어SVO: 哲秀<sub>주어</sub>寫完<sub>서술어</sub>作業<sub>목적어</sub>了<sub>시제</sub> / 哲秀<sub>주어</sub>寫完<sub>서술어</sub>了<sub>시제</sub>作業<sub>목적어</sub>

다. 중국어把구문: 哲秀<sub>주어</sub>把<sub>전치사</sub>作業<sub>목적어</sub>寫完<sub>서술어</sub>了<sub>시제</sub>

(1가)의 서술어 ‘쓰다’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타동사이다. 철수는 조사 ‘가’와 결합하여 주어의 역할을 하는데, 속제는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를 할당한다. (1나)는 (1가)의 중국어 번역문인데 SVO어순에 따라 哲秀(철수)는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어가 되고 作業(속제)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자리에 나타나므로 목적어가 된다. 이와 달리 (1다)는 (1가)의 번역문이 될 수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把의 실현에 의해 ‘把+명사구’가 이루어져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전치사 ‘把’는 중국어 문장의 목적어를 서술어 앞에 전치(前置)하는 통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보면 중국어 把구문은 한국어 ‘를’이 나타나 문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그렇다면 한국어 ‘를’ 구문이 모두 중국어 ‘把구문’으로 대응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던지게 될 수 있다. 본고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한국어 ‘를’ 구문과 중국어 把구문을 대조함으로써 대응되는 것과 대응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preposition) ‘把’의 대응 관계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를’과 ‘把’가 목적어를 표시할 수 있는 대격 표지(accusative case marker)<sup>3)</sup>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둘 문법적 요소 간에 어떤 유사점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밝히기 위해 본고는 일차적으로 한국어 ‘를’이 실현할 수 있는 문장들 가운데 ‘把’가 대응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장에서 ‘를’과 ‘把’의 의미적 특성을 추출하고 대격 표지로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를’과 ‘把’가 서술어로부터 요구되는 논항의 의미역 환경에 대한 미세한 양상을 기술하는 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한 언어에서 공유되는 문법적 범주가 설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문법적 요소가 존재하다면 이들 간에 통사론적이나 의미론적인 공통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를’과 ‘把’에 주목하여 이들이 목적어를 표시하는 데 몇 가지의 유사점이 관찰되는 바, 이는 언어 보편성 논의에 좋은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 1.2. 선행 연구 검토

전통문법에서는 ‘를’이 목적격조사로 설정되고 명사구에 ‘를’이 붙게 되면 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문법에 따라 조사 ‘를’을 목적격 조사로 볼 때 여러 한계점을 생겼다고 지적되어 왔다. 즉, 격조사로서의 ‘를’의 기본적 기능은 목적격 표시라고 할 수 있으나, ‘를’ 논항이 타동사 구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동사 구문에서도 출현된다는 점, 목적어 자리에 ‘를’이 실현하는 제약이 종종 발견되어 지적되므로 ‘를’의 격조사의 지위에 대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조사 ‘를’이 이러한 다면성을 지니만큼 이에 관련된 연구는 그동

3) 이 연구에서는 대격 표지는 목적격 표지 또는 목적어 표지 등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된다. 다만, ‘를’은 한국어의 대격 표지로 설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견이 없지 않는데, 그것을 논외로 하였다.

안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계속 양산되고 있다.

최호철 외(1998), 홍종성·고광주(1999), 한정한(2001, 201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호철 외(1998)에서는 서술어에 대해 논항이 어떤 의미역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문장에 나타나는 논항이 서술어와 어떤 의미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뭉치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접근하였다. 홍종성·고광주(1999)에서도 서술어의 특성과 논항인 명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를’ 논항의 의미역 체계를 세워 보았다.

‘를’ 실현과 관련한 또 다른 의미론적 접근으로는 유현경·이선희(1996), 연재훈(1997), 이선희(2004)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유현경·이선희(1996)에서는 조사 ‘를’와 다른 조사의 교체 현상을, 연재훈(1997)에서는 타동성의 정도성 문제를, 이선희(2004)에서는 ‘를’의 실현이 논항 명사구의 통사적 특성과 관계가 있음을 Dowty(1991)에서 제시된 원형의미역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

한정한(2012) 역시 최호철 외(1998)의 의미역 체계를 토대로 하고 이선희(2004)의 원형의미역 이론을 참고하여 새로운 의미역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가’와 ‘를’을 의미역을 부여하는 의미역 조사를 보고 ‘가’의 결합이 거시주체역, 거시객체역을 표시하고, ‘를’이 거시객체역을 표시한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조사 ‘를’이 격을 표시하는 격표지의 성격 외에 고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된 논의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는데, 임흥빈(1979, 1987), 신현숙(1982), 이광호(1988), 홍재성(1987), 남기심(1991), 목정수(2003), 고석주(2004, 2008) 등의 연구는 대표적이다. 신현숙(1982)은 목적격 조사 ‘를’이 통사적 관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주의 집중’이라는 담화 수준의 기본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하였다. 임흥빈(1979)은 ‘를’에 관련하여 대격표지로서 ‘피행동주성, 직접성, 목적 대상성, 주어 작용성, 잠재적 의도성, 전체성’ 등의 대격성 특성을 제시하면서도 화용론적 차원에서 ‘주제화’에 따른 담화적 현상을 따로 설명하였다. 이광호(1988)는 임흥빈의 ‘를’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를’이 ‘주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대조적 대립, 언급대상성, 특정성’을 언급하였다. 남기심(1991)에서는 ‘에’와 ‘를’의 교체 구문을 비교하면서 ‘를’이 ‘전체성’이라는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고석주(2004, 2008)는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전체성’이 ‘를’의 ‘대상성’이라는 의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대상성’으로 인해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도달점 선택지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를’이 양태조사라고 파악하였다. 목정수(2003)는 언어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어 조사 ‘가’와 ‘를’을 한정사로 규정하는데, ‘가’를 주체 지향적, 화자지향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를’을 객체지향적, 청자지향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를’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하거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를’이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과 중국어 ‘把’의 의미적 특성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국어·중국어에서 목적어를 표시할 수 있는 이들 문법적 요소를 언어유형론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여러 언어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그 언어들의 공통성을 발굴해낸 보편성을 검증하고 이러한 보편성에 입각하여 어떤 언어의 특징을 일반화하며 인간 언어를 분류하는 것이 언어유형론의 주된 내용이다. 본고는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의 대조적 양상 및 공통점을 제시하는 연구이므로 먼저 이 두 문법적 요소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

### 2.1. 어순 유형론과 격 유형론

먼저, 언어유형론적으로 볼 때 서술어가 타동사일 경우 한국어는 SOV의 전형적인 어순구조로 격조사로 표시함으로써 어순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어순이다. 중국어는 영어와 같이 SVO를 기본어순으로 하며, 대표적인 고립어로서 굴절이나 교착현상 없기 때문에 어순이 비교적 고정적이다.

- (2) 가. 나는 밥을 먹는다. 我吃飯  
나. 밥을 나는 먹는다. \*飯吃我

흔히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을 비교할 때 제시된 (2)와 같은 예문에서 보듯이 교착어로서의 한국어는 ‘는’, ‘를’ 등의 조사의 도움을 받아 ‘나는’과 ‘밥을’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고립어인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데에 중요한 기제이므로 (2나)처럼 ‘我’와 ‘飯’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을 성립할 수 없다.

이렇듯 중국어에서 어순은 문법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에는 다른 문법적 요소를 통해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전치될 수 있어 SVO유형에서 벗어나는 불안정한 면이 있다.

- (3) 한국어SOV: 철수는 숙제를 다 했다.  
중국어把구문: 哲秀<sub>주어</sub>把<sub>전치사</sub>作業<sub>목적어</sub>寫<sub>서술어</sub>完<sub>상</sub>了<sub>시제</sub>
- (4) 한국어SOV: 김 선생은 그 질문까지도 안다.  
중국어連구문: 金學長<sub>주어</sub>連<sub>전치사</sub>那問題<sub>목적어</sub>都<sub>부사</sub>知道<sub>서술어</sub>

예문(3)은 앞의 예문(1)을 다시 가져온 것인데, 중국어는 전치사 ‘把’이라는 전치사를 통해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시키며 SOV어순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때 목적어가 강조되는 화용적 층위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예문(4)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連’구문인데, 즉, ‘포함’의 뜻을 지닌 전치사 ‘連’은 흔히 뒤에 부사 ‘都’, ‘也’와 함께 공기하여 목적어를 서술어 앞으로 전치시켜 SOV의 어순을 보여줌으로써 강조의 뜻을 더불어 부여한다. 이들 예문에서 발견됐듯이 중국어는 반드시 SVO의 어순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문법적 요소를 통해 한국어와 유사하게 SOV의 어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sup>4)</sup> 이에 본고에서

는 중국어가 SVO언어에 속한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회의로부터 비롯하여 어순 유현론에서 볼 때 전형적인 SOV언어인 한국어와 동일선 상에서 대격 표지로서의 ‘를’과 ‘把’를 비교하여 고찰하는 데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격표지 유형론적 관점에서는 언어는 크게 대격(accusative)언어와 능격(ergative)언어로 나눈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대격언어란 자동사의 주어(S)와 타동사의 주어(A)가 같은 격표지(주격)를 취하고 타동사의 목적어(O)가 다른 격표지(대격)를 취하는 언어 유형이다. 능격언어는 자동사의 주어(S)와 타동사의 목적어(O)가 동일한 격표지를 취하고 타동사의 주어가 별도의 격표지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예문(5)과 같이 한국어는 자동사 타동사의 주어의 형태가 동일하므로 대격언어(accusative language)에 넣기도 하다.

(5) 가. 철수가 책을 읽는다.

나. 철수가 온다.

(5가)에서 타동사 ‘읽다’의 주어인 ‘철수’와 (5나)에서 자동사 ‘오다’의 주어인 ‘철수’는 조사 ‘가’를 통해 주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5가)에서 타동사 ‘읽다’의 목적어인 ‘책’은 조사 ‘를’을 통해 대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런데 격 형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중국어를 어느 유형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는 얼핏 애매한 것이다. 예문 (6)과 보는 바와 같이 S, A, O가 모두 무표적으로 실현되므로 단순히 어순만으로는 대격언어인지 능격언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6) 가. 我寫了信/我睡了

나는 편지를 썼다/나는 잔다.

나. 我寫了信/信寫了

나는 편지를 썼다/편지가 쓰였다.

중국어 예문(6가)를 보면 타동사 ‘寫’(쓰다)의 주어인 ‘我’와 자동사 ‘睡’(자다)의 주어인 ‘我’의 형태가 같으므로 대격 언어의 특성을 보인다. (6나)에서는 타동사 ‘寫’(쓰다)의 목적어인

4) 흥미로운 것은 고대중국어의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게 하는 문법적 요소가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발견될 수 있다.

(1) 가. 惟兄嫂是依(<祭十二郎文> 唐·韓愈)

오직 형수에게 의지하였다.

나. 蓮之愛, 同予者何人? (<愛蓮說> 宋·周敦頤)

연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문(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중국어의 문학작품에는 저자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是’, ‘之’ 등의 助詞(한국어문법의 조사와 다른 개념임)에 의해 목적어를 전치시켰다는 사실이 종종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중국어의 목적어 앞에 두는 ‘把’와 달리 고대중국어에 쓰이는 ‘是’, ‘之’는 목적어인 (1가)의 兄嫂, (1나)의 蓮의 뒤에 붙어 실현되어 후치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SVO어순이 보다 지배적이고 무표적이다. Li & Thompson(1974)에서는 ‘把’구문의 출현을 중국어가 SVO언어에서 SOV언어로 발전하고 있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전정예(2013)에서도 SVO언어인 중국어가 긴 시간을 거쳐 알타이어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 SOV언어로 변천해왔다고 지적하였으나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信’(편지)가 자동사 구문의 주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므로 능격 언어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把’라는 대격 표지를 통해 목적어가 유표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자동사 구문의 주어(S)와 타동사 구문의 주어(A)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O)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중국어가 대격 언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2. 중국어 전치사 ‘把’의 문법적 지위

이 절에서는 중국어 전치사 ‘把’의 문법적 지위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중국어 품사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 품사는 한국어 품사를 9개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크게 실사(實詞)와 허사(虛詞)로 나누어진다. 실사는 실제적인 뜻을 가지며 허사는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functional meaning)를 가진다.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이 실사에 해당되고 부사, 개사(介詞), 조사(助詞), 어기사(語氣詞) 등이 허사에 분류된다. ‘把’는 바로 허사의 하위 부류인 개사(介詞)<sup>5)</sup>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며, 개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把’는 현대중국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42> 중국어 품사 분류 및 ‘把’의 위치

詞性	詞類	요소
실사	명사	
	양사	
	대사(대명사, 지시사)	
	동사	
	형용사	
	...	
허사	부사	把
	개사	
	어기사	
	...	

이처럼 ‘把’가 문장에서 매우 특별한 사용 양상을 가지는데 앞에서 언급하듯이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O)와 결합하면 즉, ‘S+把O+V’가 되어 목적어를 전치시킴으로써 피행동주(patient)인 목적어를 우선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SVO’가 ‘把’를 통하여 ‘S+把O+V’의 구조로 쓰일 때 V와 O 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 관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SVO문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把’구문에서는 서술어가 전형적인 타동성(Transitivity)을 가지는 타동사를 전제해야 한다. 그리고 문장에서의 ‘把O’도 특정한 의미가 발휘하고 있다고 관찰된다. 먼저 《現代漢語詞典》을 통하여 ‘把’가 전치사로서의 쓰임을 정리한다.

5) 중국어 문법 분류 중의 介詞를 전치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언어학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치사’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43> ‘把’의 사전적 쓰임

<p>把 전치사</p> <p>(1) 목적어는 뒤의 동사의 피행동주이며, 격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뜻을 나타냄. 예: 把衣服洗洗 °(빨래를 한다.)</p> <p>(2) 뒤에 나온 서술어는 ‘바쁘다, 피곤하다, 급하다, 화나다’ 등에 결과보어를 결합하여 격을 사동의 뜻을 나타냄. 예: 把他樂壞了 °(그는 기뻐해죽겠어!)</p> <p>(3) 목적어는 뒤의 동사의 행동주이며, 격을 생각이나 마음에 들지 않다는 뜻을 나타냄. 예: 這時候把老張病了 °(이 시간에 노장이 아팠다.)</p>
---

위 <표2>와 제시하듯이 중국어 전치사 ‘把’는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지며, 그 가운데 ①은 한국어 ‘를’과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 반면에 (2), (3)과 같은 경우에 몹시 다르다.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는 각기 언어에서 다른 문법범주에 속하지만 여기서 유사한 측면에 대해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타동사 구문에서 나온 ‘O를’과 중국어 문장에서 나온 ‘把O’에 대한 논의는 대개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가 ‘把’구문을 배울 때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 논의에서는 중국어 ‘把’구문이 한국어 ‘O를 V’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면서 이들의 차이점을 병렬말뭉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把’구문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金英實(2007, 2010)이다.

金英實(2007)은 중국어 ‘把’구문에서 ‘把’ 뒤에 나오는 명사구를 피행동주(patient)와 비피행동주(non-patient)로 구분하였는데, 비피행동주(non-patient)인 경우에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에게 큰 난점이 되므로 이를 이 연구의 계기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把’구문에서 ‘把’ 뒤에 비피행위주가 오는 경우에 한국어 ‘를’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金英實(2010)에서는 중국어 ‘把’구문, 서술어+목적어구문과 한국어 ‘O를목적격 VP’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들 간의 교착·대응 관계를 존재한다고 하면서 한정성, 전체성, 화제성, 생략성, 복잡정도성과 ‘把’구문과 한국어 ‘O를목적격 VP’의 대응 조건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한국어 문형과 중국어 ‘把’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문장을 추출하여 O와 VP별로 각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 2.3. ‘를’과 ‘把’의 대조적 양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가 형태적으로 목적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를’의 구문과 중국어의 ‘把’ 구문이 일대일 관계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 먼저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에 대해 각각 그들의 쓰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간 ‘를’의 쓰임에 대한 대안이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속출되는 바 없지 않았으나 여기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제시된 ‘를’의 목적격 조사로서 쓰임에 한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sup>6)</sup> 따라서 2.2에서 정리한 중국어 ‘把’의 의미와 함께 대조하여 제시한다.

<표 3> ‘를’과 ‘把’의 사전적 쓰임과 대조

사 전	뜻풀이	‘把’ 와 대응여부
표 준 국 어 대 사 전	1.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
	2. 행동의 간접적인 목적물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X
	3. 어떤 재료나 수단이 되는 사물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X
	4. ‘가다’, ‘걷다’, ‘뛰다’ 따위의 이동을 표시하는 동사와 어울려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격 조사.	X
	5. ‘가다’, ‘오다’, ‘떠나다’ 따위의 동사들과 어울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 보다 강조하는 뜻이 있다.	X
	6. ‘가다’, ‘오다’ 따위와 함께 쓰여, 그 행동의 목적이 되는 일을 나타내는 격 조사.	X
	7. 행동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격 조사.	X
	8. 어떤 행동이 비롯되는 곳. 또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격 조사.	○
	9. 동작 대상의 수량이나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는 격 조사.	X
연 세 한 국 어 사 전	1. 서술어의 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아 변화를 입는 대상임을 나타냄.	○
	2. 어떤 움직임의 결과로 생겨난 대상임을 나타냄. ㄱ. 생겨난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임. ㄴ. 생겨난 대상이 감각이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임.	X
	3. 어떤 움직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물임을 나타냄.	○
	4. 대상이 어떤 행위를 받는 신체의 일부임을 나타냄. ㄱ. 구체적인 신체의 일부가 동사의 영향을 받음을 나타냄. ㄴ. 동사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신체의 일부와 함께 쓰임.	○
	5. 의향을 나타내는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X
	6. 어떤 동작의 행위를 받는 객체임을 나타냄.	○
	7. 인지 동사와 같이, 내적인 행동성을 띠는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X
	8. 상호성 동사의 일방적 행위를 입는 대상이거나 상태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ㄱ. 상호성을 나타내는 동사의 일방적 행위를 입는 대상임을 나타냄. ㄴ. 상호성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X
	9. 동작의 주체가 어떤 상태나 장소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기점인 대상임을 나타냄.	X
	10. 움직임이 지향하는 곳을 나타냄.	X

위의 <표 3>에서 제시된 ‘를’의 쓰임 가운데 ‘把’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6) ‘를’의 쓰임을 기술하는 데 있어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격조사’와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를’과 ‘把’가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목적어를 표시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이러한 기능으로부터 나타나는 통사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격조사’의 쓰임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것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를’과 ‘把’가 문장 대응 여부에 따라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를’이 출현 가능한 문장이 ‘把’와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를’이 서술어에서 표시되는 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아 변화를 입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把’의 쓰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7) 가. 개가 고양이를 죽였다.

가'. 狗把貓弄死了。

위에 예문 (7가)와 (7가')는 ‘를’의 쓰임과 ‘把’의 쓰임이 유사하여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는 ‘고양이’가 ‘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죽였다’는 대상이며 중국어에는 ‘把’를 통해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인 ‘貓’을 표시한다.

둘째, 구체적인 신체의 일부가 동사의 영향을 받음을 나타낼 때 ‘를’과 ‘把’가 모두 실현 가능하다.

(8) 가. 그 부인과 딸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가'. 他夫人和女兒把頭用力地點了一下。

나. 아이가 손을 깨끗이 씻었다.

나'. 孩子把手洗乾淨了。

예문(8가, 나)에서는 ‘를’과 결합한 객체는 구체적인 신체의 일부로서 영향을 입는다. 이와 비슷하게 (8가', 나')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드러난다. 신체기관이 화자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把’가 사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신체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생리현상은 ‘를’로 실현되지만 ‘把’가 제약을 받는 듯하다.

(9) 가. 나는 늘 돌아가신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가'. \*我一起起去世的母親就會把淚流下。 비교: 我一起起已經去世的母親就會淚流滿面。

예문(9가)에서는 ‘눈물’에 ‘을’을 결합하여 주어 ‘나’의 구체적인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9가')에서 한국어 ‘눈물을’을 중국어로 볼 때 ‘把’구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여중국어에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화자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행동의 정도가 약해지면서 심리나 태도의 측면이 더 강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把’가 쓰이지 않는다.

위의 예문을 통해 우리는 ‘를’과 ‘把’는 주로 서술어의 용언으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고 화자 의지의 개입 여부에 따라 ‘把’의 쓰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를’이 실현되는 문장이 중국어로 볼 때 ‘把’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첫째, ‘를’이 ‘가다, 오다’ 따위의 이동동사와 함께 공기하여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把’는 이러한 구문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10) 가. 가게를 돌아다니며 선물을 샀다.

가'. \*把商店到處來回逛並買了禮物. 비교: 到處來回逛商店並買了禮物.

나. 설악산으로 꽃놀이를 갔다.

나'. \*把雪嶽山的賞花節去了. 비교: 去雪嶽山的賞花節.

위의 예문(10가, 나)에서 장소명사에 '를'을 결합하여 이동동사 '돌아다니다'와 '가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문장을 중국어로 볼 때 이동동사의 행위가 대상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把구문'이 성립될 수 없다. 이때 오히려 'VO'의 어순으로 표현하면 자연스럽다. 이와 비슷하게 '를'이 행동의 출발점도 표시할 수 있으나 '把' 역시 이러한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다.

(11) 가. 이 버스는 대구를 출발해 서울로 간다.

가'. \*這輛巴士把大邱出發前往首爾. 비교: 這輛巴士從大邱出發前往首爾.

예문 (11)에서 행동의 출발점을 '대구'라고 할 때 '를'을 통해 표현할 수 있으나 (11가) 중국어 문장에서는 행동의 출발점과 종점에 대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며, '大邱(대구)'가 서술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把'가 실현하지 않는다.

둘째, 행동의 간접적인 목적물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어 명사구에 '를'로 바뀔 수 있으나 '把'는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면 대치할 수 없다.

(12) 가. 이 시계는 친구를 주려고 산 것이다.

가'. \*這個表是為了把朋友送才買的. 這個表是為了送朋友才買的.

예문 (12가)에서는 부사격조사 '에'에 의한 부사어가 될 때 '를'로 대치할 수 있으나 (12가)처럼 '把'로 대치하면 문장을 성립할 수 없다. 부사절에서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어 문장에서 '把'로 문장을 성립할 수 없다.

셋째, 화자의 인지·의향을 나타내는 내적인 행동성을 띠는 동사의 대상이 '를'을 통해 표시될 수 있으나 '把'는 실현되지 않는다.

(13) 가. 나는 추위를 느꼈다. (인지/감각)

가'. \*我把冷意感覺到了. 비교: 我感覺到了冷意.

(14) 가. 나는 문필가로의 대성을 희망했다. (의향)

가'. \*我會把作為文學家希望取得大成就. 비교: 我會希望作為文學家取得大成就.

예문(13가)과 (14가)에서 '느끼다', '희망하다'는 주어의 내적, 심리적인 행동을 하는 동사이므로 목적어에 '를'을 결합하여 행동의 영향을 입는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 (13가'), (14가')에서는 이런 내적, 심리적인 행동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과 구별하기 때문에 '把'와 함께

쓰일 수 없다. 이때 무표적으로 'SVO' 어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넷째, 상호성 동사에 나타난 일방적 행위를 입는 대상이나 상태적 대상을 표시할 때 '를' 실현이 가능하지만 '把'는 그렇지 않다.

(15) 가.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가'. \*哲洙把英姬見了面。 비교: 哲洙和英姬見了面。

나. 영희는 엄마보다 아빠를 닮았어.

나'. \*比起媽媽英姬更把爸爸像。 비교: 比起媽媽英姬更像爸爸。

예문(15가, 나)에서 '만나다', '닮다'와 같은 상호성 동사는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를 '와/과'로 표시할 수 있고 '를'로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에서는 (15가')에서 한국어 '와/과'같은 의미를 지닌 '和'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15나')에서도 '닮다'는 대상이 '아빠'이지만 '닮다'는 중국어에 하나의 행동으로 여기지 않아 닮은 대상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把'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를'과 중국어 '把'의 사용 양상을 대조하였다. 중국어 전치사 '把'가 한국어 조사 '를'보다 목적어의 성격에 대한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과 '把'가 표시된 목적어에서 유사하게 몇 가지의 의미적 특성이 파악되었는데 이것을 3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3. '를'과 '把'의 의미적 특성 분석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는 대격 표지로서 목적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문법적 표지를 유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를'과 '把'의 의미적 특성을 정리하고 이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적 특성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sup>7)</sup>

#### 3.1. '를'과 '把'의 공통적 특성

먼저 대격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어 조사 '를'에 적용해 보면 '를'은 목적어의 기능을 담당 하면서 '를'을 대격 표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한국어 문법에서는 '를'을 목적격조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앞서 이미 기술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문장에서 '를'의 실현 양상을 감안하면 '를'은 격조사로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어휘적 의미에 가까운 통사의 미도 가진다고 한다(남기심 1991: 90). 이와 유사한 관점을 취한 우형식(1996)에서도 '를'은

7) 다만, 여기서 필히 유의되어야 할 점은 하나의 의미적 특성으로 대격 표지의 모든 쓰임을 설명할 수 없다. 본고는 '를'과 '把'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언어에 안긴 문제점을 해석하는 데 시도를 제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사적으로는 목적어를 표시하면서 ‘를’과 결합한 목적어는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성’, ‘피영향성’, ‘전면성’, ‘한정성’ 등을 세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임흥빈(1980)에서는 ‘를’이 대격 조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대격성’의 의미적 특성에 ‘피행동성’, ‘직접성’, ‘목적 대상성’, ‘주어 작용성’, ‘잠재적 의도성’, ‘전체성’의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를’이 대격 표지의 기능에서 유추되는 통사의미를 면밀히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고는 대격의 개념에 입각하여 임흥빈(1980), 우형식(1996)에서 제시된 ‘를’의 통사의미를 바탕으로 ‘O를’과 함께 ‘把O’를 접근하는 기준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한국어 ‘를’의 통사의미를 정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중국어 논의 张伯江(2001, 2007), 金英實(2010)을 참고하여 중국어 ‘把’구문과 공통점을 살펴보겠다.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5> 한국어 ‘O를’과 중국어 ‘把O’의 통사 의미

‘를’의 통사의미적 특성		‘把’의 통사의미적 특성	
임흥빈(1980)	우형식(1996)	張伯江(2001,2007)	金英實(2010)
피행동성	X	X	X
직접성	X	X	X
목적 대상성	X	X	X
주어 작용성	X	X	X
잠재적 의도성	X	X	X
전체성	전면성	X	전체성
X	한정성	한정성	한정성
X	피영향성	피영향성	X
X	대상성	X	X
X	X	X	타동성
X	X	X	화제성
X	X	X	생략성
X	X	X	목적어의 복잡성
X	X	약한 행위성	X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임흥빈(1979)에서 ‘를’을 대격 표지로 보면서 ‘대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나뉘어 정리하였고, 우형식(1996)에서 네 가지 통사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개의 논의에서 동일하다고 보여진 통사의미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동일한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흥빈(1980)의 ‘목적 대상성’과 우형식(1996)의 ‘대상성’이 사뭇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행동주의 행동이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 행동주의 의식에 있어 의도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고<sup>8)</sup> 후자는 흔히 논의되던 ‘대상성(objectivity)’에 가까운 개념이다. 즉, Jespersen, O.(1925:157; 우형식 1996 재인용)에서 제

8) 임흥빈(1979)에서는 예문 ‘철수가 회초리로 영희의 종아리를 쳤다.’ 들어 설명하였다. 여기의 ‘회초리’가 하나의 매개로 행동주와 피행동주 사이에 들어간다. 행동주가 의도적으로 이 매개를 이용하여 행동을 완성하였다. 곧 ‘회초리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목적이라 보고 있다.

시되는 대로 목적어를 ‘동사의 동작이 수행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어 타동구문에 적용할 수 있는데 중국어 ‘把’구문에서 대상성의 개념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어 ‘把’의 통사미적 특성에 대한 정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把’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3>에서는 지금까지 유형론적 관점에서 대격 개념으로 한 한국어 ‘를’과 중국어 ‘把’에 대한 의미적 특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상이한 용어나 개념이 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도 있다. 정리해 보면, ‘전체성(전면성)’, ‘한정성’, ‘피영향성’이 공통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3 가지 특성은 개념 측면에서나 내용 측면에서 언어유형론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절부터 이를 중심으로 한국어 ‘를’과 중국어 ‘把’에 대한 공통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3.2. 전체성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가 공통적인 의미적 특징으로는 ‘전체성’이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아래의 예문을 통해 ‘를’의 ‘전체성’ 의미를 살펴보겠다.

- (16) 가. 두 번째 트럭에 책을 실어라.  
 나. 두 번째 트럭을 책을 실어라.(남기심 1991에서 인용)
- (17) 가. 너구리가 바위 밑에 여러 개의 땅굴을 팠다.  
 나. \*너구리가 바위 밑을 여러 개의 땅굴을 팠다.  
 다. \*너구리가 바위 밑에 다 땅굴을 팠다.  
 라. 너구리가 바위 밑을 다 땅굴을 팠다.(정희정 1996에서 인용)

남기심(1991)에서 제시한 예문(16가)는 다른 물건도 실려 있는 트럭에 책을 실으라고 해석하나 (16나)는 트럭 전체에 책을 실으라고 뜻하며 ‘를’이 ‘전체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맥락에서 정희정(1996)은 ‘를’과 ‘에’와의 비교한 예문(17)을 통해 ‘를’의 ‘전체성’라는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즉, ‘에’는 공간의 한 부분만을 요구하는 데 반해 ‘를’은 공간의 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7가)에서 ‘바위 밑’과 ‘땅굴’이 일대일 대응되지 않아 ‘를’의 실현이 어색하고 (17나)에서 ‘땅굴’ 앞에 ‘전체’의 뜻을 가진 부사를 더하여 ‘를’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전체성’의 의미는 중국어 SVO어순일 때 목적어가 한정되지 않는데 ‘把’가 실현되어 목적어가 이동됨에 따라 부여된다.

- (18) 가. \*他全/都喝了酒 (SVO)  
 (그는 술을 모두 마셨다.)  
 나. 他把酒全/都喝了 (把구문)  
 (그는 술을 모두 마셨다.)
- (19) 가. 他喝了一些酒 (SVO)  
 (그는 술을 조금 마셨다.)

나. \*他把一些酒喝了(把구문)  
(그는 술을 조금 마셨다.)

(張伯江 2007에서 인용)

예문(18)과 (19)는 모두 타동사 ‘喝’(마시다)이 쓰인 문장이다. 앞선 논의에 의하면 중국어 SVO의 타동사 구문을 전치사 ‘把’을 통해 목적어를 전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8)와 (19)에서는 목적어 ‘酒’(술)이나 서술어 앞에 ‘전체’, ‘부분’의 의미를 가진 수식어가 오면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곧 (18)에서 보듯이 중국어 타동성 구문이 SVO어순으로 나타날 때 ‘전체’의 의미를 가진 부사 ‘全/都’는 서술어를 꾸며주면 어색하는 데 반해, ‘把’구문에서 서술어를 자연스럽게 수식해 줄 수 있다. 또 (19)에서는 ‘조금’의 뜻을 나타내는 ‘一些’와 같은 부사는 ‘把’구문에서 사용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언어에서 한국어 ‘를’과 중국어 ‘把’와 같이 문법적 실현을 통해 ‘전체’와 ‘부분’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미 언어유형론적 연구에서(Hopper & Thompson 1980; Comrie 1981) 다수 지적되어 있다.

(20) 가. Hän otti rahaa (partitive).

He took some money.

나. Hän otti rahan (ACCUSATIVE).

He took the money.

(Comrie 1981:127에서 인용)

핀란드어인 예문(20)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부터 ‘부분적’의 영향을 받을 때 ‘부분격’으로 쓰이는데 반해(20가), ‘전체적’ 영향을 받을 때 ‘대격’이 사용된다(20나). 대격 표지에서 나타난 ‘전체성’의 의미는 아래서 논의될 ‘한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발화할 때 전체가 부분보다 정체성(identity)이 더 쉽게 인식되어 한정되기 때문이다.

### 3.3. 한정성

‘한정성’(definiteness)은 Comrie(1981)에 따르면 목적어 성분명사의 지시물이 특별히 주목되는 것임을 말한다. 목적어에는 서술어의 행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지시대상을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한정성’의 의미적 특성도 나타난다(우형식 1996:63). Whaley(1997, 김기혁 역)에서는 격 체계가 문법적 관계나 의미역만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유정성, 인간성, 그리고 한정성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언어에서 직접목적어가 한정일 경우 대격으로 나타내고, 비한정적일 경우 무표적으로 남겨 두거나 사격으로 한다고 보고된다.

한국어 조사 ‘를’로 실현된 한정성은 목적어의 어휘적 한정적 의미자질과 관련되는데 이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21) 가. 네가 영희네 집을 갔었니?

나. \*네가 집을 갔었니? (남기심 1991에서 인용)

(22) 가. 저 아이를 서울을 보내야 할텐데.

나. \*저 아이를 도회지를 보내야 할텐데. (남기심 1991에서 인용)

남기심(1991)에서 (21)와 (22)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21가)와 (22가)에서 ‘영희네 집’과 ‘서울’은 한정적이며 화·청자에 의해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데 반면에, (21나)와 (22나)에서의 ‘집’이나 ‘도회지’는 비한정적이며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문장이 비문이 된다. 결국 ‘한정성’의 의미는 대화에 참여하는 이의 ‘인식도’의 높낮이와 관련지을 수 있다. 지시대상의 정체성이 명확할수록 인식도가 높아져 한정하기가 용이하다. 고석주(2008)에서 ‘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개체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선택지정’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우리는 그의 ‘선택지정’을 대화 맥락에서 목적어가 지시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도’에 따른 한정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3) 가. 철수는 밥{\*Ø/을/\*은/\*도} (제일) 먼저 먹었다.

나. 우리 애는 산수{\*Ø/를/\*는/\*도} 가장 잘해. (고석주 2008:214에서 인용)

(24) 가. 그는 그것에서 김철수를 만났다.

나. 그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했다. (한정한 2012에서 인용)

고석주(2008)에 의하면 (23가)는 ‘다른 음식이 아니라 밥을 먼저’, (23나)는 ‘다른 과목이 아니라 산수를 가장’라고 해석되는데, 본고에서 본 ‘를’의 인식도에 따른 한정성 의미로도 (23)에 대항 해석 가능하다. 즉, (23)에서의 목적어가 발화 상황에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를’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한정한(2012)에서 제시한 (24)에서는 목적어가 유일한 고유명사일 때 고석주(2008)의 ‘발화 상황에서 예상될 수 있는 개체가 여럿이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유명사의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담화 상황에서 쉽게 인식되어 한정성을 나타내는 ‘를’이 사용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흔히 한국어와 같은 언어 계통에 속한 것으로 본 터키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터키어에서는 한정적 의미를 가진 목적어가 대격 표지에 의해 표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Comrie 1981:132).

(24) 가. Hasan öküz-ü aldı.

Hasan ox-accusative bought

(Hasan bought the ox.)

나. Hasan bir öküz aldı.

Hasan a ox bought

(Hasan bought an ox.)

(Comrie 1981에서 인용)

예문(24)에서 Comrie가 영어로 번역했듯이 단순히 “Hasan이 소를 샀다”고 의미할 때 (24나)로 표현하고 어떤 특정한 소를 샀다고 했을 때 (24가)처럼 ‘öküz’(소)에 대격 표지를 붙여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다룬 중국어 ‘把’는 목적어와 결합할 때도 한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5) 가. 弟弟打掃了房間 (SVO)

나. 弟弟把房間打掃了 (把구문)

동생은 방을 청소했다.

중국어 예문(25가)에서는 SVO로 발화하면 어떤 특정한 방을 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방을 청소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把’를 통해 목적어를 앞으로 이동한 (25나)은 발화 상황에서 인식도가 높은 특정한 방을 청소했다는 한정적 의미가 부여된다. 張伯江(2000)에서는 ‘把’ 뒤에 오는 목적어의 한정성은 화자가 인식이 가능한가 아니한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즉, 화자가 인식 가능하면 ‘把’를 통해 목적어를 한정하여 유효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3.4. 피영향성

한국어 조사 ‘를’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말하면 타동성(transitivity), 피행동성(patient), 피영향성(affectedness) 등 여러 추상적 개념이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것들은 타동사가 나타난 타동구문에서의 목적어 기능을 담당하는 ‘O를’이 행동주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지, ‘O를’이 어떻게 이 행동의 대상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얼마 정도 ‘O를’에 양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관련되어 있다.

우형식(1996)에 따라 타동성(transitivity)은 “타동구문을 형성하는 구성성분의 성분 의미와 각 성분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미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범언어적으로 수용된다. 즉, 중국어나 다른 언어에서도 수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문장과 중국어 문장은 타동구문이라면 이런 타동성을 가진다. 따라서 타동성이 타동구문의 구성성분 간의 의미적인 관계이며 서술동사, 주어와 관계를 고찰해야 하므로 다고 단지 ‘O를’을 고찰할 수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O를’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행동성이 서술동사와 큰 관련이 있어서 서술동사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봐야한다. 여기서는 한국어 ‘를’이 대격으로 보면서 통사구조로 봄으로서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핀다.

따라서 우형식(1996)에서 목적어에서 행동주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피영향성(affectedness)’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피영향성(affectedness)’가 목적어가 행동주가 하는 행동에 의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 위의 <표 4>에 따르면 이는 ‘를’과 ‘把’는 모두 가지는 특성이다.

한국어 타동구문에서 목적어인 ‘O를’의 피영향성이 어떤 가시적인 변화(visible change)<sup>9)</sup>을 드러낸다. 피영향성이 아무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고 특정한 의미가 나타날 때만 존재한

다. 이 특정한 의미가 바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26) 가.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

나. 동생이 머리카락을 잘랐다.

다. 철수가 길을 건넜다.

위의 예문에서 밑줄친 부분이 목적어이며 이는 다른 문장성분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의미가 일어난다. 즉, 피영향성이 끼치는 예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문도 있다. (26가)는 ‘영희’가 행동을 받는 대상이며 행동주인 ‘철수’가 하는 행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입는다. 이런 경우에 ‘영희를’이 목적어이면서 어떤 결과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을 두드러진다. (26나)에서는 목적어인 ‘머리카락’이 행동주인 ‘동생’이 하는 행동에 의해 변화가 일어났다. 즉, ‘머리카락’이 원래 상태에서 보다 짧은 상태로 변했다. (26다)는 목적어인 ‘길’이 행동주가 하는 행동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반면에 이 행동의 대상이 된다. 즉, 철수가 건너는 것이 ‘길’이고 이 행동에 대한 대상성의 특성이 지니며 피영향성이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26다)는 타동구문인데도 이의 목적어가 피영향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피영향성의 개념에서 논하여 중국어 ‘把’구문을 살펴본다. ‘把’구문에서는 전치사 ‘把’로 목적어를 전치하여 다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우에 ‘把’는 모든 문장에서 목적어를 전치할 수 있지 않고 매우 엄격한 제한이 있다. 이에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피영향성이다. 그래서 피영향성이 어떻게 중국어 ‘把’구문에서 드러내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27) 가. 我弄破了杯子。

我 弄破了 杯子

내가 깨뜨렸다 겁을

가'. 我把杯子弄破了。

我 把杯子 弄破了

내가 겁을 깨뜨렸다

나. 昨天他丢了自行车。

昨天 他 丢了 自行车

어제 그가 잃어버렸다 자전거를

나'. 昨天他把自行车丢了。

昨天 他 把自行车 丢了

어제 그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위의 예문(27)에서 보듯이 (27가)와 (27나)는 중국어 가장 전형적인 ‘SVO’형 문장이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실이나 일에 대한 서술이며 행동주, 피행동주, 행동 간의 관계를 드러낼 수 없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과 비교하면 문장 어순이 다르다. 하지만 어순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

9) 우형식(1996, 52)에서 인용.

면 이는 (27다)과 같은 통사적인 현성<sup>10)</sup>이며 즉 피영향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27가')와 (27나')는 '把'로 목적어를 전치해서 바로 주어 뒤에 오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 어순이 매우 엄격한 것이므로 어순을 바뀌면 바뀌는 성분에 큰 주목을 한다. 즉, (27가')에서 '把杯子'(컵을), (27나')에서 '把自行車'(자전거를) 주어 뒤에 오게 하면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지만 희망하지 않았던 행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把'의 목적어를 행동주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표시하였다. 이랬을 때 피영향성을 지니는 한국어 'O를'과 같다. 다시 말해 (27가', 27나')와 같은 중국어 '把'구문이 목적어 'O를'이 피영향성을 띠는 한국어 문장과 유형론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把O'가 지니는 피영향성과 'O를'이 가지는 피영향성이 같은 문법적인 개념과 같은 통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대격을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어 '를'과 중국어 '把'구문을 통사의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한정성을 비롯해 전체성, 피영향성에 대하여 언어적인 공통점을 밝혔다.

상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를'과 '把'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전체성'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전체성'의 의미는 흔히 '한정성'에 수반된다. 그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발화할 때 전체가 부분보다 정체성(identity)이 더 쉽게 인식되어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정성'은 번언어적으로 흔히 대격표지를 통해 나타내지는데, 한국어에서는 '를', 중국어에서는 '把'는 실현 여부에 따라 부여된다. 그리고 이 3 가지 언어적인 공통점을 고려하여 위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중국어 '把'구문에서 '把'가 갖고 있는 목적어를 전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이중목적어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보았다.

격 개념 가운데 대격으로 출발하여 한국어 '를'과 중국어 '把'구문을 언어유형론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앞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과 같이 통사구조로 통사의미적 특성만을 고찰하였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점이 될 것이다. 보다 깊이 있고 전면적으로 이를 검토하고자 하면 서술어와 명사구 사이의 논항구조, 의미역할(semantic role) 등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방면에 대한 고찰은 향후의 과제로 삼겠다. 본고에서 제시된 결과는 번언어적인 측면에서 같은 통사의미적 특성이 지니는 문법적 요소에 대한 유형론적인 고찰에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중국어 '把'구문을 통하여 한국어 '를'에 대한 제반 문제에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본고에 관한 보다 다양한 언어유형론적인 언어 공통성에 대한 발전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10)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문(다)처럼 통사적인 현상이 '를'이 대상성을 띠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한국문화사.
- 고석주(2008) 『조사 ‘를’의 의미와 실현』, 한국어학40, 한국어학회, pp. 207-228
- 김승곤(1978) 『韓國語 助詞의 通時的 研究』, 大提閣.
- 남기심 편(1991)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
- 남기심 편(1996) 『국어 문법의 탐구III』, 태학사.
- 남기심(1991) 「국어의 격과 격좌에 대하여」, 『겨레문화』5집(『국어 문법의 탐구 I』에서 재수록).
- 목정수(2003) 「한국어 조사의 분류 체계와 유형론」, 『한국어문법론』, 월인.
- 송경안·이기갑 편(2008) 『언어유형론』1 & 2, 월인.
- 신현숙(1982) 「목적어 표지 ‘-를’의 의미 연구」, 『언어』7-1, 한국언어학회, pp. 119-139.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22-1, 한국언어학회, pp. 107-132.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 유현경·이선희(1996) 「조사 교체와 의미역」, 『국어 문법의 탐구III』(남기심 편), 태학사.
- 이광호(1988) 『國語格助詞 ‘을/를’에 대한研究』, 탑출판사.
- 이선웅(2006) 「조사 {을}의 원형적 의미」, 『형태론』8-1, 161-177
- 이선희(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 조사 {-를}과 논항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선희(2007) 「조사의 실현과 의미역 다시 생각하기」, 『형태론』9-1, pp. 145-162.
- 이필영(2010) 「조사 ‘이/가’와 ‘을/를’의 통사와 의미」, 『한국어학』49, pp. 345-368.
- 임흥빈(1980)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한국학논총』Vol. 2, pp. 91-130.
- 임흥빈(1987) 『국어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임흥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전정예(2013)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비교」, 『한말연구』32, 한말연구학회, pp. 177-211.
- 정희정(1996) 「자동사/타동사 분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사전에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III』(남기심 편), 태학사.
- 최호철 외(1998) 「기계 번역을 위한 한국어 논항 체계 연구」, 『한국어어미학』3, 한국어어미학회, pp. 1-39.
- 한정한(2001) 「의미역 계층이론과 국어의 주격, 대격」, 『한국어학』13, 한국어학회, pp. 303-321.
- 한정한(2012) 「의미역 조사 "가", "를"」, 『한국어학』54, 한국어학회, pp. 1-54.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 홍종성·고광주(1999) 「‘-을’ 논항의 의미역 체계 연구」, 『한글』243, 한글학회, pp. 141-176.
- Comrie, Bernard(1980)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aul J. & Thompson, Sandra A.(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56.
- Li, Charles N., Thompson, Sandra A.(1974) An Explanation of Word Order Change SVO→SOV, *Foundations of language*12, pp. 201-214.
- Lindsay J. Whaley(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김기혁 역(2008) 『언어 유형론 :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중국어문헌>

- 金英實(2007) 「非受事把字句與韓國語相關範疇的對比」,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Vol. 30-3, pp.29-34.
- 金英實(2010), 「把字句和述賓句與韓國語 ‘O賓格+VP’句的異同」,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Vol.33-3, pp.49-53.
- 陸丙甫(2001) 「從賓語標記的分佈看語言類型學的功能分析」, 『當代語言學』Vol. 3-4, pp.253-263..
- 李 燕(2011), 「漢韓放置類動詞配價對比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房玉清(1992), 『實用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葉狂, 潘海華(2012) 「把字句的跨語言視角」, 『語言科學』Vol. 11-6, pp. 604-620.
- 王 力(1959) 『中國現代語法』(上/下), 中華書局香港分局.
- 劉月華 외(1987), 尹和重 외 옮김,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教科書株式會社.
- 張伯江(2000) 「論把字句的句式語義」, 『語言研究』Vol. 1 pp28-40.
- 張伯江(2001) 「被字句和把字句的對稱與不對稱」, 『中國語文』No. 285, pp.519-524.
- 張伯江(2007) 「施事和受事的語義語用特徵及其在句式中的實現」, 上海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편)(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辭典編纂實(편)(1978/1983),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 ■ 토론

#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에 대한 대조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주희(경기대)

진관초. 강령혜 선생님의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에 대한 대조적 고찰’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중국어에 문외한인 제가 발표문을 듣고 읽으면서 느꼈던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把’자문은 중국어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특수한 동사술어문이라고 하여 중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학습 초기에 이 구문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문은 통사적.기능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연구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사적.기능적인 어려움에 비해 의미적인 특성은 아주 간략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본 연구에서 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를 의미적 특성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 유형론적 입장에서 논의가 전개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3.4에서 제시한 피영향성에 관련된 예시글과 설명만으로는 한국어 조사‘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목적어의 피영향성은 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힘든 부분인데 발표자께서는 어떤 것에 기인하여 예시글들을 해석하고자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3. 결론 부분에서 중국어 ‘把’ 구문에 ‘把’가 갖고 있는 목적어를 전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이중목적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고 기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듯합니다. 이 부분이 설명되었다면 발표를 듣고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좋은 연구물을 읽도록 허락해 준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 품사교육을 통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

이화진(홍익대)

## < 차례 >

1. 서론
  2. 띄어쓰기 교육 현황
  3. 대학생들의 띄어쓰기 오류 실태
  4. 띄어쓰기 오류의 원인 분석
  5.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 방안
  6.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글쓰기 교육의 기본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논리적,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데 있다. 즉,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익혀 글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형식에 맞게 글 쓰는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글에는 주제의 참신성이나 주제에 맞는 글의 형식도 요구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올바른 문장 쓰기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문장 단위에서 나타나는 표기 오류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며 이는 학생들이 글쓰기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조사한 여러 논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학생들이 띄어쓰기 규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

대학의 글쓰기 과목에서 진행되는 띄어쓰기 교육은 ‘한글 맞춤법’ 제 1장의 2항과 제 5장의 ‘띄어쓰기’ 부분에 제시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런데 띄어쓰기 규정을 살펴보면, 띄어쓰기의 원칙에 대해 문법 용어의 나열만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뿐 그 용어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어 어문규정집에서는 조사, 명사(의존, 단위, 고유), 보조 용언 등을 “붙여쓴다” 혹은 “띄어쓴다”와 같이 기계적인 설명과 그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할 뿐 해당 조사나 명사 등의 정확한 문법적 형태와 기능 그리고 의미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규정의 제시만으로는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미 국어 문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문법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띄어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문법 용어, 즉 품사의 세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문규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바른 문장 쓰기의 선결 조건인 띄어쓰기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국어의 품사 교육과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들의 띄어쓰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품사 교육을 통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2. 띄어쓰기 교육 현황

띄어쓰기는 올바른 문장의 선결 조건인 동시에 글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 대학 글쓰기(교양국어) 과목에서 띄어쓰기 교육은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학교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5-6주 과정, 주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쓰기 과목에서 띄어쓰기 교육은 어문규정 교육을 포함하여도 총 10시간 미만으로 진행된다. 방용심·이해용(2013)은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 글쓰기 수업에서 한 학기당 6시간 정도만 어문규범과 문장 쓰기 교육을 진행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신호철(2008)에 제시된 고려대, 경희대, 홍익대 학생들의 강의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문법(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비문 고치기)과 관련된 수업 내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오현진(2008)에서는 고등학생이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정확히 배우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띄어쓰기를 많이 또는 정확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교수자들은 현실적으로 강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어 어문규정집에 제시되어 있는 띄어쓰기 규칙만 그대로 교육하고 있다. 국어 어문규정집에 제시되어 있는 띄어쓰기 규범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띄어쓰기 규칙

제 1장 총칙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장 띄어쓰기

##### 제1절 조 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짝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제46항 다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	-------	-------	-------

표 (1)에 제시된 띄어쓰기 규정을 살펴보면 문법 용어의 나열과 몇 가지 예시만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뿐 그 용어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물론 ‘한글 맞춤법 해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품사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 기능, 의미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문중심의 띄어쓰기 학습은 단순한 암기 교육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띄어쓰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품사의 세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문규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예문을 통한 활용 연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 대학생들의 띄어쓰기 오류 실태

본고에서는 대학생들이 국어의 어떤 품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홍익대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띄어쓰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어 문장의 핵심 요소인 체언과 용언, 조사를 띄어쓰는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오류를 일으키지 않았다. 특히 자립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의 경우와 더불어 국어 문장의 기본 틀을 나타내는 격조사의 경우 띄어쓰기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의존명사와 같이 기능적 측면에서 의존성을 보이거나, 보조사와 서술격조사 같이 의미적 측면에서 자립성을 보이는 경우 대체로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sup>1)</sup>

다음은 전체 학생 가운데 10% 이상의 학생들이 띄어쓰기 오류를 일으킨 품사들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1) 서술격 조사의 경우 형태적 측면에서도 용언과 같이 ‘활용’을 한다.

(2) 품사별 띄어쓰기 오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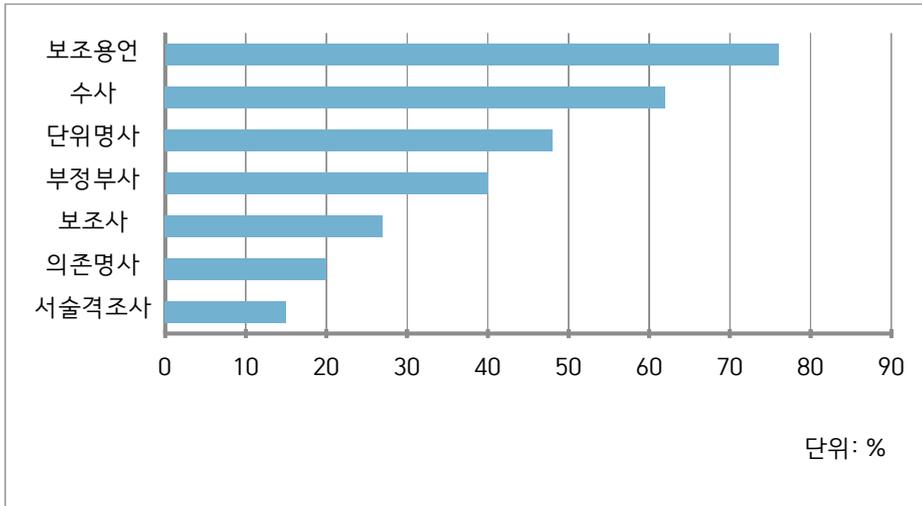


표 (2)에 나타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보조용언에서 76.4%, 수사에서 62.0%, 단위명사에서 47.7%, ‘하다’나 ‘되다’ 앞의 부정부사에서 39.8%, 보조사에서 26.8%, 의존명사에서 19.4%, 서술격조사에서 15.2%의 오답률을 각각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이들 중 보조용언과 단위명사의 경우 본래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를 허용하기도 하므로 높은 오답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사의 경우 만 단위 이상의 수가 나열될 때에만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용언, 수사, 단위명사에서 나타난 오류가 나머지 품사들에서 나타난 오류와 다른 동인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붙여쓰기를 허용한다든가 만 단위로 띄어쓴다든가 하는 정보는 보조용언, 수사, 단위명사에만 적용되는 부수적인 조건인데 이러한 조건이 띄어쓰기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보조사의 경우 의존명사와 형태가 동일할 때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의존명사의 경우 보조사나 어미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 많은 오류가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낮았다. 이는 서로 다른 품사가 동일한 형태를 가질 경우 혼동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일한 형태의 혼동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 유형은 기존의 논의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에 대해 어문규정 내의 띄어쓰기 규정 해설에서는 동일 형태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본고에서 실시한 띄어쓰기 평가에서도 역시 의존명사와 보조사로 통용되는 ‘대로’와 ‘만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지’와 형용사 어간 뒤에 붙는 어미 ‘-(으)ㄴ지’에서 각각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2) 단위명사의 경우 의존명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의존명사들과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3)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제시 형태	오답 건수	오답률(%)
가	‘없는 것’	2	1.8
나	‘너 때문에’	5	4.6
다	‘저버릴 수’	9	8.3
라	‘미워질 만큼’	29	26.8
마	‘하는 대로’	40	37.0
바	‘도착한 지’	41	37.9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보조사와 형태가 동일하지 않은 (가, 나, 다)의 경우는 오류를 별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보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라, 바)의 경우 오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미와 형태가 동일한 (바)의 경우도 오류 비율이 높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만큼’의 경우 보조사를 의존명사로 혼동하여 띄어쓴 오류가 동일하게 26.8%로 나타났으나, 어미 ‘-(으)ㄴ지’를 의존명사로 혼동하여 띄어쓴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대로’와 ‘만큼’은 두 가지 품사로 통용될 수 있는데 각각의 품사가 동일한 형태를 보이지만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전혀 다르다.<sup>3)</sup> 즉, 체언 뒤에 붙어 보조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관형형 어미 뒤에 놓여 의존명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4)

- 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을 가자.
- 나.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하세요.
- 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 라. 먹을 만큼만 드십시오.

(가)에 제시된 ‘대로’는 ‘너’와 ‘나’라는 대명사에 붙어 ‘따로 따로 구별됨’을 의미하는 보조사로, (다)에 제시된 ‘만큼’은 ‘하늘’이라는 명사에 붙어 ‘비슷한 정도나 한도’를 의미하는 보조사로 기능하므로 각각 앞말과 붙여써야 한다. 이와 반대로 (나, 라)에 제시된 ‘대로’와 ‘만큼’은 관형형 어미 ‘-(으)ㄴ, -(으)ㄹ’ 뒤에 놓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난 직후’,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 등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로 기능하므로 앞말과 띄어써야 한다.

의존명사 ‘지’와 어미 ‘-(으)ㄴ지’ 또한 동일한 형태를 갖는데, 의존명사 ‘지’는 단어 차원의 기능을 하고 어미 ‘-(으)ㄴ지’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문장 차원의 기능을 한다.

(5) 가. 미술을 배운 지 3년이 되었다.

- 나. 얼마나 부지런한지 1년 동안 지각 한 번 없었다.

(가)에 제시된 ‘지’는 동사 ‘배우다’에 과거 시제 관형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관형어 뒤에 놓여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의존명사로 기능을 하므로 띄어써야 하고, (나)에 제시된 ‘-ㄴ지’는 형용사 ‘부지런하다’에 붙어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에 관련시키는 데 쓰이는 어미이므로 붙여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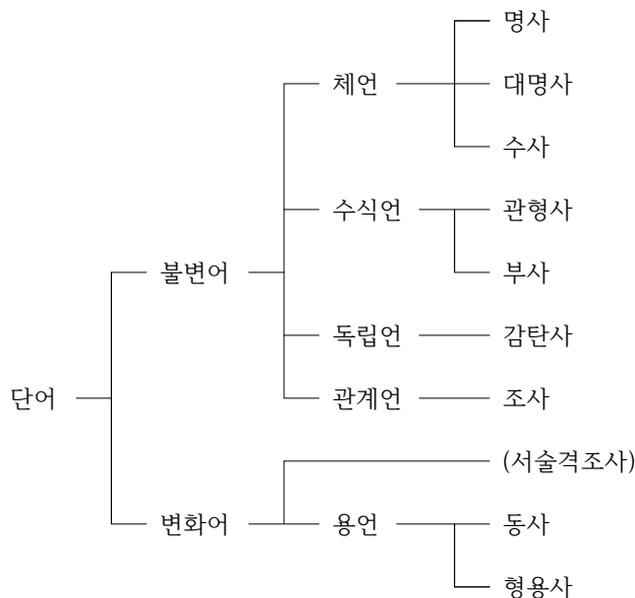
3) 동일한 형태로 조사와 의존명사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것에는 ‘만치’와 ‘뻔’도 있다.

이상의 예들은 동일한 형태라도 의미와 기능의 차이에 따라 문장 안에서의 쓰임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하나의 형태가 서로 다른 품사로 구분됨으로써 확인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형태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두 품사의 형태·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띄어쓰기 오류를 범하게 된다.

#### 4. 띄어쓰기 오류의 원인 분석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인데, 형태의 변화 유무, 품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개별 단어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9품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 (6) 품사 분류표



<한글 맞춤법> '제 1장 총칙 2항'과 '5장 띄어쓰기 1장 조사'에 제시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쓴다'는 규칙을 적용하면,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띄어써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과 본고의 조사 분석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의존명사와 조사(보조사와 서술격조사), 부사와 관형사의 띄어쓰기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기존 연구들에서는 앞서 밝힌 동일한 형태의 혼동에서 찾고 있는데, 필자는 형태의 동일성에 따른 혼동뿐만 아니라 품사들이 갖고 있는 자립성과 의존성의 혼동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sup>5)</sup> 즉, 일반명사는 자립성이 아주 강하므로 띄어쓰기를 할 때 명사라는 품사를 정확히 인지하여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관형어를 필요로 하

4) 이관규(2005), 개정판 학교 문법론, 월인, pp.122~124.

5) 남기심, 고영근(1993)에서는 품사의 자립성 강도를 '감탄사>체언>용언>부사>관형사>조사'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는 의존명사는 자립적인 명사라는 인식보다 관형어를 요구하는 의존적인 ‘무엇’이라고 인식하여 붙여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립성과 의존성의 혼동은 조사, 부사, 관형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 4.1. 의존명사와 조사(보조사, 서술격조사)

격조사든 보조사든 서술격조사든 모든 조사는 붙여써야 하고 의존명사는 띄어써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조사를 띄어쓰거나 의존명사를 붙여쓰는 이유는 두 품사가 형태가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품사의 속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자립성과 의존성을 각각 형태, 기능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에서 혼동하기 때문이며, 이는 서술격조사를 띄어쓰는 오류에서도 나타난다.

- (7) 가. 당신이 본대로 말씀해 주세요.(←본 대로) / 먹을만큼 드세요.(←먹을 만큼)  
나. 사권지 5년 되었어요.(←사권 지) /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마음 대로 하세요.(←마음대로) / 하늘 만큼 사랑해.(←하늘만큼)  
라. 우정을 저 버릴 수는 없는 것 입니다.(←것입니다.)

예문 (가)에서 의존명사를 붙여쓰는 이유는 일반명사가 자립적으로 홀로 쓰이고 독립적 의미를 지니는 데 반해, 의존명사는 홀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독립적인 의미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의존명사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므로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하여 붙여쓰는 것이다. (나)에서 의존명사를 붙여쓰는 오류는 앞의 설명과 같이 의존명사의 의존적 성격 때문이고, 어미를 띄어쓰는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미는 어말어미든 연결어미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활용을 한다는 의존성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다)에서 보조사를 띄어쓰는 이유는 격조사가 실질적 의미 없이 단순히 체언에 붙어 문장에서 명사항이 가지는 일정한 자격을 표시하는 기능만을 하는 데 반해, 보조사는 격조사에 비해 어느 정도의 독립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격조사 ‘이/가’와 ‘을/를’은 형태적, 의미적으로 전혀 자립성이 없지만, 보조사 ‘대로’와 ‘만큼’의 경우는 형태적 자립성은 없지만 ‘그와 같이’, ‘비슷한 정도나 한도’와 같은 어느 정도의 독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립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띄어쓰는 것이다.

(라)에서 서술격조사 ‘-이다’를 띄어쓰는 이유는 서술격조사가 갖는 기능과 형태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서술격조사 ‘-이다’는 체언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용언과 같이 활용을 한다는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6) ‘이다’에 대한 논의는 국어 문법체계를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다’에 대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다양한 특성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 ‘-이다’의 문법범주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다’가 지닌 특수한 문법적 특성에 기인한다. 국어에서 ‘-이다’의 범주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가. 접사설

나. 조사설(서술격조사, 주격조사)

다. 용언설(형용사)

‘-이다’의 문법범주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은 각기 나름대로 설명의 용이성과 타당성을 지님과 동시에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도 지니고 있다. 본고는 ‘-이다’의 문법범주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학교문법에 따라 서술격조사로 처리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겠다.

- (8) 가. 나는 서울 사람이고 너는 부산 사람이다.  
 나. 그 사람은 직원이거나 교수겠지?  
 다. 그는 직원이지 교수가 아니다.  
 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예문 (8)을 보면 ‘-이다’는 ‘이고, 이거나, 이지, 인지…’ 등으로 활용을 하고 형용사 ‘아니다’와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생들이 서술격조사 ‘-이다’를 띄어쓰는 이유는 ‘-이다’를 활용을 하고 의미를 가지는 자립성이 있는 용언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격을 표시하는 조사라고 인식한다기보다는 서술어로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 4.2 부사와 관형사

부사와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사는 용언을,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sup>7)</sup> 부사와 관형사는 단어이므로 띄어써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부사와 관형사를 뒤에 위치하는 용언과 체언에 붙여쓰는 경우가 많다.

- (9) 가. 휴대폰을 산 지 얼마 안돼서 고장 났어요.(←안 돼서)  
 나. 일이 안돼서 힘들어요.

예문 (가)에서 부정부사 ‘안’을 뒤에 오는 용언 ‘되다’에 붙여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부사 ‘안’과 용언 ‘되다’가 갖는 의존적 특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형태를 지닌 동사 ‘안되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자립적 특성 때문이다. 먼저 의존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정부사 ‘안’은 항상 뒤에 용언을 요구하는 기능적인 의존성과 단순히 용언을 부정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의미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또, 용언 ‘되다’는 ‘어느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라는 독립적 의미를 지니지만 불완전 서술어로서 항상 보어를 요구하는 의존성을 갖는다.<sup>8)</sup> 다음으로 자립적 특성은 예문 (나)에서 잘 드러난다. 동사 ‘안되다’는 부정부사 ‘안’에 동사파생접사 ‘되다’가 붙어 형성된 파생동사이다. ‘안되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부정부사 ‘안’과 용언 ‘되다’가 모두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하여 붙여쓰거나, 하나의 자립적인 단어로 인식하여 붙여쓰는 것이다.<sup>9)</sup>

- (10) 가. 그 일 때문에 모든것을 잃었다.(←모든 것을)  
 나. 예쁜 물건(예쁜 것)들이 많아서 좋다. /

7) 부사는 관형사나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8) 서술어로서 보어를 요구한다는 것은 문장론 단위에서의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본고의 논의 중심인 품사와는 다른 범주의 개념이다. 하지만 의존성과 자립성의 영향이 본고의 중심이므로 원인으로 다룬다.

9) 이와 같은 경우로 ‘잘 하다’와 ‘잘하다’가 있다.  
 가. 마지막으로 간을 잘해서 먹으면 된다.(←잘 해서)  
 나.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예문 (가)에서 관형사를 붙여쓴 이유는 관형사 ‘모든’이 항상 뒤에 체언을 요구하고, 의존명사 ‘것’이 항상 앞에 관형어를 요구한다는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처럼 형용사에 관형어 어간이 붙어 만들어진 관형어와 명사의 구성은 띄어쓰기 오류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관형어를 구성하는 형용사의 자립성이 관형사보다 높기 때문이다.

## 5.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 방안

띄어쓰기 오류의 원인이 자립성과 의존성의 혼동에 있고, 그에 따른 오류의 발생이 품사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은 띄어쓰기가 자립적인 품사와 의존적인 품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사의 자립성과 의존성은 형태와 의미에 따라 하나의 품사에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격조사를 제외한 조사, 의존명사, 부사, 관형사를 통해 각각 확인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품사별 자립성 정도에 따른 위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11) 품사별 자립성의 정도

↕	자립적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	부사, 관형사
		의존명사
		보조사, 서술격조사
의존적	격조사	

위의 표에 따르면 일반명사와 동사, 형용사는 완전히 자립적이고 격조사는 완전히 의존적이므로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날 여지가 적다. 반면 부사와 관형사는 자립적이지만 후행 요소인 용언과 체언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 의존적이고, 보조사와 서술격조사는 형태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의미의 측면에서 일부 자립성을 가지므로 의존성과 자립성의 혼동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존명사의 경우 형태적으로 자립적이지만 의미의 측면과 선행 요소인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존적이기 때문에 역시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 장에서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의 실태를 통해 그대로 확인된다.

따라서 정확한 띄어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품사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해당 품사의 의존성과 자립성 중 하나를 띄어쓰기에 반영함으로써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의 단어에 의미적, 형태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가지되 완전히 자립적이거나 완전히 의존적인 단어를 삽입시키거나 대치시킴으로써 해당 품사를 띄어쓸 것인지 붙여쓸 것인지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 (12) 가. \*법 방법대로 합시다.(←법대로)

- 나.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한 번 해 보세요.(←설명한 대로)
- 다. \*하늘 양만큼 땅 양만큼 사랑해요.(←하늘만큼 땅만큼)
- 라. 먹을 양만큼만 드십시오.(←먹을 만큼)

위의 예들은 ‘대로’와 ‘만큼’의 의미를 어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반명사인 ‘방법’과 ‘양’을 각각 삽입시킨 것이다. 완전히 자립적인 일반명사를 삽입함으로써 그 단어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는데, 삽입 후 띄어 썼을 때 문장이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를 통해 해당 요소를 자립적으로 띄어 써야 하는지 의존적으로 붙여 써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 (13) 가. 미술을 배운 이후 3년이 되었다.(←배운 지)
- 나. 휴대폰을 산 지 얼마 안 지나서 고장 났어요.(←안 돼서)
  - 다. 마지막으로 간을 잘 맞춰서 먹으면 된다.(←잘 해서)
  - 라. 그 일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모든 것을)

위의 예들은 ‘지’, ‘되다’, ‘하다’, ‘것’을 각각 의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품사의 단어들로 바꾼 것이다. 역시 완전히 자립적인 일반명사의 대치를 통해 띄어 썼을 때 문장이 성립함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요소의 자립성과 의존성을 띄어쓰기에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6. 결론

본고는 바른 문장 쓰기의 선결 조건인 띄어쓰기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국어의 품사 교육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대학의 글쓰기 과목에서 진행되는 띄어쓰기 교육은 ‘한글 맞춤법’ 제 1장의 2항과 ‘제 5장의 띄어쓰기’ 부분의 내용만을 제시할 뿐, 문법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품사의 세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주 혼동할 수 있는 예시들을 통한 기계적인 연습만으로 암기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품사의 세부 개념에 대한 정확한 품사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미 국어 문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각 품사의 개념과 특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당 품사의 의존성과 자립성 중 하나를 띄어쓰기에 반영함으로써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명사와 동사, 형용사는 완전히 자립적이고 격조사는 완전히 의존적이므로 띄어쓰기 오류가 적다. 반면 부사와 관형사는 자립적이지만 후행 요소인 용언과 체언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 의존적이고, 보조사와 서술격조사는 형태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의미의 측면에서 일부 자립성을 가지므로 의존성과 자립성의 혼동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가 나타난다. 이처럼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띄어쓰기 부분에 의미적, 형태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가지되 완전히 자립적이거나 완전히 의존적인 단어를 삽입시키거나 대치시킴으로써 해당 품사를 띄어 쓸 것인지 붙여 쓸 것인지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띄어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문법 용어, 즉 품사의 세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문규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김남미(2010), 교양과정 학생의 문법 선수학습 수준 분석,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봉국(2004), 글쓰기에서의 오류 분석과 그 유형,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 박대아(2010), 대학생 글쓰기의 띄어쓰기 오류 유형과 지도 방안,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 박미설(2012), 대학 교양국어 교재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 박정규(2011), 국어 띄어쓰기 규정의 검토와 개선안 연구,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방영심·이혜용(2013), 대학 글쓰기에 나타나는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의 유형 및 지도 방안, 어문연구 4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신호철(2008), 대학 글쓰기 과목의 통합적 교육의 필요성 -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8, 한국문법교육학회.
- 양명희(2013),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 이관규(2005), 개정판 학교 문법론, 월인.
- 정언학(2008), 대학생 글쓰기의 어문규범 오류 양상 - 단어 차원의 문제점, 어문연구 3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정희모·유혜령(2012), 대학생 글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오류 양상, 어문논집 52, 중앙어문학회.
- 한용운(2008), 현대국어 조사의 범주 통용 문제, 형태론 10-2, 박이정.
- 황경수(2007), 효과적인 띄어쓰기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학회.
- 황경수(2010), 띄어쓰기의 실제,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 ■ 토 론

# “품사교육을 통한 띄어쓰기 지도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주연(건국대)

띄어쓰기는 분석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쓰기의 평가 요소이며 읽기의 가독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필요한 어문규범입니다. 이렇듯 띄어쓰기는 글쓰기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어문규범에 비해 간과하기 쉬우며 글쓰기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띄어쓰기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어의 품사 교육을 통한 띄어쓰기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띄어쓰기 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발표자에게 몇 가지 여쭙 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띄어쓰기 오류 실태 조사

1) 띄어쓰기 오류 실태 조사에서 사용된 평가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띄어쓰기 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오류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사별로 다양한 평가 항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존명사 ‘데’와 어미 ‘-은/는데’, 의존명사 ‘바’와 어미 ‘-ㄴ바’도 형태가 비슷하고 ‘뿐’의 경우도 보조사와 의존명사의 형태가 동일한데 (3) 의존명사 띄어쓰기 오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 이외에 평가 대상에 포함된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각각의 오답률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2) 띄어쓰기 오류 실태 조사에서 사용된 평가지의 문항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 조사에서 실제로 사용된 평가지를 부록으로 넣어주시면 오류 실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 띄어쓰기 오류와 원인 분석

‘띄어쓰기 오류와 원인 분석’을 보면 형태의 동일성, 품사의 자립성과 의존성의 혼동을 원인으로 삼아 ‘의존명사와 조사’, ‘부사와 관형사’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오류 실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의존명사에 대한 것은 (3)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부사와 관형사에 대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이 품사 교육과 연계하여 띄어쓰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오류 실태 결과에서도 오류의 원인 분석에서 제시한 품사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면 논문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3. 효과적인 띄어쓰기 교육 방안

위의 1. 1)에서 언급한 항목들과 서술격조사의 띄어쓰기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

을 듣고 싶습니다.

논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문한 것이 있다면 널리 양해 바라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